

자유전공학부 제13대 학생회 길라잡이 지음

2021년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자유전공학부 전공자료집

MAJOR GUIDE BOOK

전공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구성

27개 선택가능 전공에 대한 소개 자료

21학번 맞춤으로 구성된 선배 인터뷰

전공별 졸업요건 상세 수록



Schoo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since 2009



인사말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제13대 학생회 길라잡이 교육국입니다.

매년 교육국에서는 전공선택을 앞둔 자유전공학부 학우분들을 위해 각 전공에 대한 안내를 담은 '전공자료집' 을 제작해왔는데요, 올해 역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에는 각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및 전공별 선배님들의 생생한 인터뷰 등이 담겨있습니다. 작년 자료집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나 신설학과에 대한 소개 등은 채워 넣었습니다. 인터뷰는 올해 새로 추가한 신규 인터뷰 내용을 앞에 배치했고, 신규 인터뷰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인터뷰이분들의 성함을 가나다 순서로 배치하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학과, 단위가 변경된 학과, 달라진 교양 체계 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잘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디 학우 여러분들의 전공 선택 과정에 본 자료집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올해 자료집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전까지 자료집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풍성하게 내용 채워주시느라 수고 많이 해주신 학생회 선배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자유전공학부 학우분들을 위해 흔쾌히 인터뷰를 허락해주신 선배님들과 학우님들, 자료집 내용 세심하게 확인해주신 행정실 차장님, 자료집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소중한 목소리 들려주신 모든 학우님들 등)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현명한 전공 선택 하세요! 감사합니다 ☺

- 자유전공학부 제13대 학생회 '길라잡이' 교육국 일동
: 황지원, 권성주, 김서현, 김연수, 김예락, 박주선, 오지훈

〈목차〉

1. 전공 진입의 개괄

2. 전공기초자료 및 선배 인터뷰 -----	10
1) 경영대학 -----	11
2) 정경대학 -----	113
- 경제학과 -----	115
- 정치외교학과 -----	164
- 통계학과 -----	227
- 행정학과 -----	262
3) 문과대학 -----	321
- 국어국문학과 -----	324
- 노어노문학과 -----	329
- 독어독문학과 -----	334
- 불어불문학과 -----	339
- 사학과 -----	344
- 사회학과 -----	352
- 서어서문학과 -----	372
- 언어학과 -----	377
- 영어영문학과 -----	385
- 일어일문학과 -----	391
- 중어중문학과 -----	393
- 철학과 -----	397
- 한국사학과 -----	407
- 한문학과 -----	415

4) 심리학부	418
5) 정보대학	446
- 컴퓨터학과	446
- 데이터과학과	476
6) 생명과학대학	486
- 식품자원경제학과	486
7) 국제학부	492
8) 미디어학부	510
9) 스마트보안학부	557
10) 공과대학	570
- 융합에너지공학과	570

1.전공 진입의 개괄

1) 제1전공 배정 대상 학과

대학	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정경대학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통계학과, 행정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한국사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서어서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심리학부	심리학부
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데이터과학과
국제학부	국제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스마트보안학부	스마트보안학부
공과대학	융합에너지공학과

2) 신청 및 선발 방법

(1)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사범대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열 및 정보, 공과대학 총 27개의 학과/학부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순수정원 외 및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원 외 및 외국인 학생의 경우 이과대학, 공과대학 등 일부 대학은 특성상 사전 시험,

면접을 거쳐 선발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제1전공 배정 순서는 제1지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그 다음 지망 (제2, 3지망) 순으로 합니다.

(3) 제1전공 학과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임의로 배정됩니다.

(4) 제1전공 선택 시 특정 학과(부)에 대한 최대 배정 인원은 자유전공학부 입학 인원(순수정원외 및 외국인 제외)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선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공배정은 전체성적의 평균평점을 100%(100점)로 환산하여(감점 포함) 1지망 지원자 중 해당년도 배정 정원 내에서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최초 1지망 탈락자는 2지망(차순위) 지원학과의 제1지망 지원자들과 해당년도 배정 정원 내에서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단, 해당전공 지원자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원자 전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학부 전체 성적 (단, 첫 번째 1학기, 첫 번째 2학기에 수강한 과목의 성적만 해당)

- 학부 전체 성적은 1학년 첫 번째 1학기, 첫 번째 2학기, 여름학기로 합니다. 특별시험 또는 입학 전 특별과정 프로그램 성적은 포함하되 포기한 성적은 제외합니다. F학점을 포함하고 재수강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이 산출되며, 겨울학기는 제외합니다.

- 학기 전체 성적이 all F인 성적도 포함됩니다. 단, 휴학 후 조기복학으로 3학기를 이수했을 경우, 첫 번째 1학기, 첫 번째 2학기에 수강한 과목과 성적만 반영됩니다.

(라) 감점기준

- 이수학점 32학점을 기준으로, 32학점 미만인 경우 1학점에 2점씩 감점합니다.

- 지정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학점에 1점씩 감점합니다.

지정과목	학점	감점
법학통론 또는 법학관련 핵심교양	3	-3
라틴어 I, 희랍어, 동양의 지혜 또는 법학관련 핵심교양	3	-3
민법	3	-3
자유 정의 진리 I	3	-3
자유 정의 진리Ⅱ	3	-3
글쓰기	2	-2
Academic English I	1	-1
Academic EnglishⅡ	1	-1
1학년 세미나 I	1	-1
1학년 세미나Ⅱ	1	-1
정보적사고	1	-1

(㉸) 동점자 처리 기준

아래 순서대로 해당자를 우선합니다.

1.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평균평점이 높은 자
3. Academic English I, II 성적이 우수한 자
4. 자유전공학부에서 지정한 행사(특강, 세미나 등)에 많이 참석한 자

3) 진학 현황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20학번)

* 괄호 안은 19학번 진입자 수

학과/학부	20학번 진입자 수 (19학번 진입)	학과/학부	20학번 진입자 수 (19학번 진입)
경영학과	30(30)	경제학과	22(28)
정치외교학과	19(16)	행정학과	4(8)
통계학과	2(1)	미디어학부	10(9)
컴퓨터학과	8(2)	심리학부	3(1)

- 위 자료는 순수정원외 및 외국인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12년 특례생 및 외국인 전공배정

(1) 12년 특례생과 외국인 입학자는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을 이수하지 않습니다. 입학 후 두 학기가 지난 후 전공을 배정받게 됩니다.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전공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제2전공(심화전공 포함)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을 이수하고 싶을 경우 제1전공을 배정받고 난 후 배정받은 학과의 커리큘럼을 따르면 됩니다.

(2) 12년 특례생 및 외국인 학생은 계열에 관계없이 전공배정이 가능하며 (사범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예체능계열 및 특별히 지정한 학과/학부는 제외), GKS (Global Korean Studies)라는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전공배정절차 및 각 학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학과 행정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학과별 졸업요구표는 21학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보주시기 바랍니다.

6) 공거리 과목 권장 이수 시기표 (출처: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홈페이지)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권장이수 학년/학기	학점 (시간)	이론/ 실습	개설 전공
전공 필수	JURA242	민법	1/2	3(3)	이론	법학
	JURA241	헌법	2/1	3(3)	이론	법학
	JURA244	형법	2/2	3(3)	이론	법학
교양 선택필수 (고전학) • 1과목 선택	HOEW132	라틴어1	1/1 또는 1/2	3(3)	이론	사학
	PHIL131	희랍어1	1/1 또는 1/2	3(3)	이론	철학
	HANM110	동양의지혜	1/1 또는 1/2	3(3)	이론	원문
	법학 관련 핵심교양		1/1 또는 1/2	3(3)	이론	교양
전공 선택 (1영역) 법학 영역 • 2과목 이상 선택	JURA204	회사법	3/2	3(3)	이론	법학
	JURA206	형사소송법	3/1	3(3)	이론	법학
	JURA245	민사소송법	2/2	3(3)	이론	법학
	JURA249	국제법	3/1	3(3)	이론	법학
	JURA251	행정법	3/2	3(3)	이론	법학
	JURA252	고용복지와 법	4/1	3(3)	이론	법학
	JURA256	법사상과 법철학	1/2	3(3)	이론	법학
	JURA301	상법	3/1	3(3)	이론	법학
	JURA304	보험·해상법	4/1	3(3)	이론	법학
	JURA330	경제법	4/2	3(3)	이론	법학
	JURA356	지적재산권법개론	3/2	3(3)	이론	법학
	JURA420	국제거래법	4/2	3(3)	이론	법학
	JURA485	금융법	4/1	3(3)	이론	법학
	JURA424	조세법	4/2	3(3)	이론	법학
전공 선택 (2영역) 행정학영역 • 2과목 이상 선택	PAPP151	행정학원론	2/2	3(3)	이론	행정
	PAPP203	정책학	3/1	3(3)	이론	행정
	PAPP368	정보관리와 전자정부	3/1	3(3)	이론	행정
	PAPP345	정부와시민사회	3/1	3(3)	이론	행정
	PAPP347	공공관리	4/2	3(3)	이론	행정
	PAPP354	정부관료제	3/1	3(3)	이론	행정
	PAPP356	행정과리더십	3/2	3(3)	이론	행정
	PAPP366	정책분석및평가	4/1	3(3)	이론	행정
	PAPP241	공공철학과윤리	4/1	3(3)	이론	행정
	PAPP240	조직이론	3/2	3(3)	이론	행정
	PAPP239	예산과재무관리	3/2	3(3)	이론	행정
	PAPP344	정부와시장	3/2	3(3)	이론	행정
	PAPP338	복지국가론	3/2	3(3)	이론	행정
	PAPP336	정책의규범적분석	3/2	3(3)	이론	행정
	PAPP353	공공정책형성	2/2	3(3)	이론	행정
전공 선택 (3영역) 경제학영역 • 2과목 이상 선택	ECON171	경제원론 I	1/1	3(3)	이론	경제
	ECON434	한국경제론	4/2	3(3)	이론	경제
	ECON201	미시경제이론	3/1	3(3)	이론	경제
	ECON202	거시경제이론	3/2	3(3)	이론	경제
	ECON333	재정학	4/1	3(3)	이론	경제
	ECON336	국제무역론	4/2	3(3)	이론	경제
	ECON240	산업조직론	3/2	3(3)	이론	경제
	ECON331	화폐금융론	4/1	3(3)	이론	경제
	ECON339	경제발전론	4/1	3(3)	이론	경제
	ECON356	경제정책	4/2	3(3)	이론	경제
	ECON172	경제원론 II	1/2	3(3)	이론	경제
	ECON173	경제수학	2/2	3(3)	이론	경제
	ECON329	한국경제사	3/1	3(3)	이론	경제
	ECON335	국제금융론	3/1	3(3)	이론	경제

※ 학수번호에서 처음 나타나는 숫자를 보면 몇 학년 권장 과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 JURA107이면 1학년, ECON309이면 3학년 권장 과목 / 다만, 위 표는 자전생들 대상 추천표이므로
학수번호로 알 수 있는 권장 학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위 과목 이수 시기표와 학수번호는 '권장'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자유롭게 들으셔도 됩니다!

2. 전공기초자료

다음의 단과대학/독립학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 경영대학
2. 정경대학
3. 문과대학
4. 심리학부
5. 정보대학
6. 생명과학대학
7. 국제학부
8. 미디어학부
9. 스마트보안학부
10. 공과대학

내용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과마다 아래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I. 개괄 1. 학과소개 2. 특이사항 3. 주 강의동 소개 및 주변지리 4. 진로진학 5. 학과 프로그램	II. 졸업요건 III. 전공 교과목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2. 졸업생 선배 인터뷰 3. 명예교우님 인터뷰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1. 경영학과

I. 개괄

1. 학과 소개

경영대학의 전신은 1905년 당시 설립된 보성 전문학교 이재학(理財學) 전문과에 있습니다. 이재학 전문과는 법률학 전문과와 더불어 보성전문학교가 출범할 당시 내세운 두 개의 학과 중 하나입니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의 이재학은 상학을 거쳐 오늘날의 경영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114년 역사를 함께해 온 단과대학으로, 1937년 '경영경제학' 과목 국내 최초 개설, 1955년 국내 최초의 '경영학과' 설립, 1963년 경영대학원 국내 최초 설립 등 서구 근대 경영학 교육을 도입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아시아 1위, 전 세계 30위권의 경영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우수한 교수자원을 확보하고, 전문화할 전략을 수립하며 교육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2005년 AACSB 국내 최초 전 학위과정 인증
- ✓ 2007년 EQUIS 국내 최초 인증

- ✓ 2011년 BK21 경영전문대학원 MBA 평가 5년 연속 1위 (교육과학기술부)
- ✓ 2013년 '국가브랜드 대상' 경력개발 부문 대상 (중앙일보)
- ✓ 2015년 국내 최초 2회 연속 AACSB 및 EQUIS 5년 재인증
- ✓ 2017년 교육부 주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단 선정
- ✓ 2017년 영국 Financial Times 세계 Executive MBA 평가 세계 20위, 국내 1위
- ✓ 2017년 한경비즈니스 200대 기업 인사담당자 전국 경영대학 평가 10년 연속 1위
- ✓ 2017년 한경비즈니스 200대 기업 인사담당자 MBA 평가 5년 연속 1위
- ✓ 2017년 THE 세계 대학 랭킹 경영경제부문 세계 68위, 국내 1위
- ✓ 2017년 U.S. News 세계 최고 대학 랭킹 경제경영분야 세계 98위, 국내 1위
- ✓ 2018년 QS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별 순위 경영 47위, 회계재무 46위
- ✓ 2020년 QS 2020 세계대학평가 비즈니스 및 매니지먼트 분야 세계 49위, 회계 및 재무 분야 세계 51위
- ✓ 2020년 한경비즈니스 300대 기업 인사담당자 평가 13년 연속 국내 1위
- ✓ 2020년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배출 결과, 5년 연속 최종합격자 수 1위

3. 주 강의동 소개 및 주변지리

경영대학 소속 건물은 경영본관, LG-POSCO경영관, 현대자동차경영관 세 곳이며 이 중 현대 자동차경영관은 2013년 9월에 준공된 최신식 건물입니다. 경영학과의 전공 과목들은 주로 이 세 건물들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LG-POSCO경영관 5층은 경영본관 4층으로, 현대자동차경영관 2층과 3층은 각각 경영본관 3층과 4층으로 연결되어 강의동 간 이동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영본관 3층에서 중앙도서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 법학관 및 법학도서관의 접근성 또한 자유전공학부에서 배정 가능한 단과대 중 가장 용이합니다.

4. 진로진학

1) CPA

경영학을 전공할 경우 진로의 선택폭이 넓지만 그 중 경영학과 관련이 높은 자격증시험으로 단연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란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각종의 업무, 즉 재무서류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재무 또는 경영에 관한 조사, 입안, 계산, 상담,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계에 대한 전문직업인을 의미합니다.

(1) 응시자격

공인회계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2007 년 1 월 1 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 이수 해당 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 학점이상, 경영학과목 9 학점이상, 경제학과목 3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구분

가. 1차 시험

- 12~3 월 사이에 시행되며 시험과목은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입니다.

나. 2 차 시험

- 1 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1 차 시험 면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만 볼 수 있으며 6~7 월 중 시험이 치러집니다.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가 있습니다. 부분합격제가 적용됩니다.

2) 기타 진로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사진 출처: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학과소개 자료)

* 1949 년 ~ 2021 년 2 월 총 졸업생 수: 24,257 명

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GS칼텍스, 한화, 대한항공, KCC, CJ제일제당 등
공기업·공공기관	한국은행,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금융감독원, 한국방송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회계법인	KPMG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
금융·보험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시티은행, 삼성증권, 롯데캐피탈,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컨설팅	보스턴컨설팅그룹, 맥킨지앤드컴퍼니, 베인앤드컴퍼니, 올리버와이만 등
외국계기업	아마존,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앤드컴퍼니, SAP, BNP Paribas 등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창업(스타트업)	소브스, 드리머리, 우트, 탈잉, 천명 등
대학원 진학	국내·외 우수 대학

5. 학과 프로그램

1) 경영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생도 지원 가능)

경영대학은 타 단과대와 달리 독자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 년 기준 총 30 개국 104 개교와 학술 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매년 평균 140~160 명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생이 해외로 파견되고 160~200 명의 해외대학 학생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으로 파견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rshall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Michigan (Ros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Kenan-Flagler Business School),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Olin Business School) 등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에 꾸준히 재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 경영대학 장학금 프로그램

본교의 장학금 프로그램과 더불어 경영대 자체의 장학금 지원으로, 현재 경영대 전체 학생의 반이 넘는 81%(중복수혜)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대에서는 등록금 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영대학 재학생들에게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KUBS Dream Scholarship'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국제 인턴십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1994 년부터 국내대학에서는 유일하게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국제경영감각을 고취해 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을 해외생산 또는 영업현장에 보내어 국제 기업 환경과 해외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감각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전의 단순한 현지방문 또는 견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산학협동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과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경영현장을 직접 경험케 하고 동시에 경영학과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과목입니다.

II. 졸업요건

구분		교과목명
학문의기초 (6 학점)		회계학원리, 경영통계
경제학 필수과목		경제원론 I, 경제원론 II*
전공 과목	전공필수 (24 학점)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오퍼레이션스관리, 중급회계 I, 경영정보시스템 조직행동론, 국제경영론, 경영전략
	전공선택 (15 학점)	- 경영대 개설 전공선택 과목 (학수번호 BUSS200 이상 과목 및 Topic Course) - 타 단과대 개설의 경영대 전공선택 인정 과목** - 국제하계대학의 경영대 전공선택 동일(유사) 인정 과목 - 교환대학 이수 과목 중 경영대 전공선택 인정 과목 (경영대 국제실에서 인정 절차를 거침)
영어강의 (7 과목)		- 학수번호가 BUSS 로 시작하는 과목 중 영강 - 국제하계/동계대학의 경영대 전공 동일(유사) 인정 과목 - 해외대학 교환학기 이수 과목(영어강의로 수강) 중 경영대 전공 인정 과목 (3 학점 당 영강 1 과목으로 인정) - 재수강 이전 과목은 삭제되므로 영강에 미포함 - 타 학과 개설 과목 중 경영학과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영강에 미포함

* 18학번부터 경제원론I, II 과목이 '경제학 필수과목'으로 통합

**** 법학전문대학원의 회사법, 행정법, 상법 및 행정학과의 행정학원론, 경제학과의 재정학, 조세론,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국제금융론, 국제어학원의 비즈니스영어, 영어영문학과와 기업영어실습, 공과대학의 창업과 경영을 위한 공학 기술 경향 과목 등이 경영학과 전공선택으로 대체인정 가능**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회계학

회계학 분야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회계정보시스템으로 나누어집니다. 재무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등의 외부이용자, 관리회계는 경영자 등의 내부이용자, 세무회계는 세무당국 등 주 회계정보이용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 3 자의 입장에서 독립성을 갖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이며, 회계정보시스템은 회계시스템을 통해 회계자료가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산출될 수 있게 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회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대두되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회계정책의 시사점을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금융

기업 내부의 자금문제를 다루는 기업재무 외에 기업 외부와 연관된 문제를 다루는 투자론, 금융기관론, 금융상품 및 자본시장론 등을 포함합니다.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위험과 수익률간의 교환관계 (RISK-RETURN TRADEOFF)입니다.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는 학문이 투자론입니다. 파이낸싱 의사결정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느냐입니다. 그동안 축적해둔 내부자본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자본을 조달할 것인가, 외부자본을 조달한다면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재무의사결정들에 참여하는 주주, 주주의 대리인(경영진), 채권투자자간의 이해상충에 관한 문제들도 또한 재무학에서 다루어집니다.

마케팅

마케팅은 '어떠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선택될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구매자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지를 조사하고 이해하며, 이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구매자들이 이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시키고, 구매자들에게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감을 갖게 만듦으로써 적절한 가격에 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맺어진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들까지 마케팅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LSOM (Logistics, Service and Operations Management)

LSOM 전공은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과 의사결정과학(Decision Science)의 이론적 체계와 데이터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기업의 제반활동인 물류, 서비스, 제조, 운영,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구매, 기술경영(Technology Management)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현대의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빅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시뮬레이션, 최적화, 통계적 프로세스 관리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경영관리

경영관리는 사람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분야로서 지극히 실용적이고 철학적인 분야입니다. 경영관리의 5가지 세부분야는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론, 노사관계론, 조직이론, 경영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행동론은 조직 내에서의 인간의 행위, 즉 개인과 집단의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추구와 개인의 복리증진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입니다.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관계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조직이론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설계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경영전략에서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개념과 과정, 그리고 전략의 실행들을 연구합니다.

MIS

MIS란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준말로써 경영정보시스템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업들은 ICT(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업의 목적에 맞게 분석, 저장, 배분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MIS 분야는 이처럼 기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ICT 기반의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많은 문제와 이슈들을 체계화하고 연구하는 경영학의 한 분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 재무, 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등 기업활동의 주요 기능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ICT의 도입, 이에 따른 프로세스의 변화 및 인력의 재구성 등을 다루고 더 나아가 ICT의 발전에 따른 '기업의 정보화'와 더불어, '개인과 사회의

정보화' 그리고 산업과 사회의 정보화로 인한 정보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일컬어지는 '정보의 산업화' 등도 연구영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

국제경영은 기업의 국제화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이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문분야로서 국제 경영전략, 국제 경영관리, 국제 마케팅, 국제 금융, 국제 무역, 지역연구라는 분야로 더욱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세계의 여러 국가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우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통상환경, 국제문화환경, 국제금융환경, 현지 투자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경영이라는 학문분야는 여러 전공분야의 과목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특성상 국제경영은 기업의 국제화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실제사례 들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1) 19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유우연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저는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한 이유 중 하나가 학창 시절 제가 어느 학문에 관심이 있고, 무얼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하고

나서도 전공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저의 성향과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추후 로스쿨 외에도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경영학과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영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 경영학과에서는 크게 경영관리, 국제경영, 마케팅, 재무금융, 회계학, LSOM, MIS 로 나뉜 분야에 대해 배웁니다. 경영관리에서는 인사관리, 조직행동, 기업문화, 노사관계, 경영전략, 벤처 경영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국제경영에서는 국제금융이나 국제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배우게 되며, 마케팅은 소비자행동, 유통경로 관리, 판매촉진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회계학은 국제회계, 기업가치평가 등과 같이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기업의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LSOM 은 공급사슬관리, MIS 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나뉘는 분야에서 커리큘럼은 개인이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흥미를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 8 개(중급회계 1, 재무관리, 오퍼레이션스관리, 마케팅원론, 경영정보시스템, 조직행동론, 경영전략, 국제경영론)와 회계학원리, 경영통계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결정지을 수 있기에,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전공과 다른 경영학과 전공 과목만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학과 전공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기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우나, 우선 경영학에 속하는 다양한

분야의 독립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영어 강의의 비중이 높고, 팀플을 하는 과목이 많다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 경영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 가장 먼저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의 특성 상 영어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많고, 영어로 팀플, 수업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능수능란한 영어 실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업 내용 전반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할 수 있다면, 학습을 하는 데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팀플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플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 흔히 '프리라이더'라고 불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정말정말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시라면, 경영학과 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수반해서 자료 조사, ppt 제작, 발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면 경영학과에 딱 맞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보니, 졸업 후 진로 또한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기업 취직, 공기업 취직, 로스쿨 진학, 경영대학원 진학, CPA(공인회계사), 행정고시(일반적으로 경영학과보다는 경제학과가 더 관련 있다고 합니다.) 등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비교적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경영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경영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 학점이 다소 후한 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과목을 수강한 것은 아니나,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수강생의 절반 정도에게 A 이상의 학점을 주시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를 받기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풀강인 경우, 한 두 문제 차이로 학점이 갈려서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A를 받기는 비교적 수월하나, A+를 받는 것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과를 진학하셔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지만,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듣고, 복습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 경영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 아직 제가 많은 과목을 듣지 못했지만, 제가 들었던 전공 과목을 모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풀강, 헬강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교수님께서 갑자기 흑화를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풀강, 명강, 헬강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적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적은 과목은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클루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학원리(영강) - 유용근 교수님: 경영학과에 진입하고 처음 들었던 과목입니다.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흥미를 가지고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는 교수님께서 올려 주신 녹화강의를 들은 뒤, 출석확인을 위해 진행되는 간단한 온라인 퀴즈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의 퀴즈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수업 내용을 이해한 분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CPA를 준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수업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통계(영강) - 임희주 교수님: 이 과목도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처음 들었던 과목입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매우매우 친절하십니다.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은 복습을 열심히 하신다면 교과서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평가는 챗터가 끝날 때마다 내주셨던 문제 풀이 과제와, 출석,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저와 같이 이 과목을 수강한 친구들을 보았을 때, 학점도 정말 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경영정보시스템 - 박지혜 교수님: 겨울 계절 학기로 수강한 과목입니다. 평가는 중간고사(레포트 대체)와 기말고사, 출석, 수업 참여 점수, 팀플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참여를 정말 중시하시는데, 그에 걸맞게 학생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셔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열심히 해서인지, 학점은 제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재무관리(영강) - 이동욱 교수님: 유연학기제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 일반적인 과목의 중간고사 기간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교수님께서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시험 문제도 풀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셔서 좋았습니다. 평가는 출석과 시험 3 번으로 이루어지며, 시험 결과를 보고 교수님께서 추가 점수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조직행동론(영강) - 권성우 교수님: 수업 참여 점수와 출석, 팀플과 개인 레포트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참여로, 교수님께서 매 수업마다 학생에게 질문을 주시는데, 이에 대해 답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의 대부분이 학생의 수업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다른 학우분들의 뛰어난 영어 실력에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케팅원론 - 류강석 교수님: 교수님께서 수업 참여를 중시하시고, 정말 열정적입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께서 정말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절로

됩니다. 저는 마케팅에 관심이 없던 학생이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어 정말 명강이라고 생각했으나, 저와 함께 수강한 동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강의입니다. 평가는 수업 참여와 팀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이루어집니다. A 를 받기는 어렵지 않으나, A+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강의입니다.

오퍼레이션스관리(영강) - 오건택 교수님: 계절 학기에 수강한 강의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레포트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교수님께서 학생을 정말 많이 배려해주시고, 경영학과가 본 전공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오퍼레이션스관리 수업에는 대부분 팀플이 있고, 교수님에 따라 엑셀을 쓰기도 하는데, 본 수업은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편하게 들었던 수업입니다.

7. 경영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사실,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고 경영학과 진입을 결정하였고, 앞서 말했듯이 경영학과에 대한 큰 흥미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뛰어나지 않은 저의 영어 실력에 대한 걱정 정도가 진입 전 저의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진입한 뒤에는 저의 기대를 넘을 정도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고, 아무래도 경영학과의 특성 상, 이중 전공을 하고 있는 타 학과 학생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과의 사람들과 함께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나름 신선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경영대 건물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저 역시도 1 학년 때 그렇게 생각했던 터라 넓고 쾌적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는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8. 1 학년때 경영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경영학과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경영학과 학문의기초(구. 전공관련교양) 과목에 해당하는 회계학원리, 경영통계 과목을 추천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천하자면, 비교적 쉬운 전공 필수 과목이지만 팀플을 요구하는 마케팅원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영학과에 이 외에도 다른 길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과목으로 자신의 적성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경영학과에 진입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듣게 될 과목들이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수강하면서 '난 정말 죽어도 이걸 못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다면 경영학과에 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짧은 의견입니다.

사실 저는 경영학과에 진입하기 전, 1 학년 때 경영학 관련 과목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입한 뒤에 미리 들어볼 걸 그랬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후배님들께서는 부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꼭 진입을 원하는 학과의 기초 과목을 들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경영학과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경영학과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 저 또한 한 명의 학부생에 불과하고, 제가 많은 선배님들을 알지 못하기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경영학과에 진입하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에 진입한 선배님들도 로스쿨 진학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경영학과에 진입하는 자전생의 수가 타 과에 비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도 많지 않을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학문이 뚜렷하지 않고,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영학과에 진입하는 것이 그리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학점을 받기에 전공 과목의 난이도가 극악을 달리지는 않고, 누구나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이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기에, 본인이 관심이 있고 배우길 원하는 학문이 있다면, 관련 학과에 진입해서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 자전 선배님들의 경우, 저는 원래 알고 있었던 선배님들 외에,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자전 선배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공 과목 팀플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학번이 100 인 자전 선배님들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같이 팀플을 하게 되거나, 혹은 그 선배님을 알고 있는 다른 동기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면 연결되기도 하니, 선배님들과의 연결 부분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 선배님들과의 연결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경영대학에서 자전 경영이라 하여 차별하지 않고, 경영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나 장학금 등 관련된 여러 소식을 다 전달해주시기 때문에 경영학과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없어도 경영대학에서 주어지는 여러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질문>

1. 영어와 수학은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영어와 수학능력이 많이 요구되나요?

- 앞서 질문에서 답했듯이, 출중한 영어 실력이 필수는 아니지만, 뛰어날수록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제 기준으로, 영어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데에 국강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신다면 그만큼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이 높지 않다고

해서 경영학과 진학을 할 수 없다는 건 절대 아니며, 수능 정도의 읽기와 듣기 능력을 지닌 분들이라면 누구나 진입하셔서 잘 적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본인이 공인회계사를 준비한다거나, 재무 분야로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산수로 충분하고, 교수님께서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수학 능력은 시간 내에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경영학과에서 팀플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하는 경우도 많나요?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많이 힘들까요?

- 많습니다. 팀플 많습니다!! 회계, 재무와 같은 특정 과목을 제외하면(종종 이와 관련된 과목도 팀플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많은 강의에서 팀플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에는 외국인 학우들도 많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직접 팀을 짜 주시는 경우에 외국인 학우들과 함께 팀플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우라 하여 모든 분들이 다 프리라이더는 아닐 것이고, 오히려 한국인 학우들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에 외국인 팀원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팀플에 열심히 참여하는 한국인 팀원을 만나는지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 분이라면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본인의 성향에 따라 그 정도를 다르게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팀플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지만, 그간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 무리 없이 팀플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영학과 진입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경영학 중 특정 관심분야만 공부할 수도 있을까요?

- 공부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로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이 경영학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모두 다 듣고 나면 실질적으로 특정 관심분야만을 깊게 공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을 들으며 특정 분야에 큰 관심이 생겼다면, 경영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 경영학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안전한 선택으로서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 또한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한 분야에 대해 깊게 배울 수 있다기 보다는, 여러 분야에 대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기에 한 분야에 흥미가 없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그 흥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목의 난이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로스쿨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경영학과에 진입하면 경영학이라는 나름 실용적이고 폭넓은 학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진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선택으로서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 경영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 저는 평소 남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을 그리 즐기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특히 그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 다소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나름의 뿌듯함과 성취감도 얻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보통 경영학과 학점 컷이 가장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학기 경영학과 학점 컷이 대략 얼마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 학번 기준 대략 4.1x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 학번 기준으로는 4.25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 경영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 경영학과에 특별히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주로 어떤 분야의 수업이 많이 열리는지, 어느 쪽을 주전공으로 하신 교수님이 많으신지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다른 동기들에게도 물어보고 했지만, 다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공 필수 과목 8 개 외에, 다양한 전공 선택 과목들이 열리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가 생겼다면, 이에 대해 보다 깊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8.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안전한 선택으로 경영학과 진입을 선택한 저에게, 제가 했던 이 선택은 그리 후회되지 않는 선택으로 남아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경영학과에 진입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영학과의 장점은 타 학과에 비해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호불호가 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폭넓은 분야를 배울 수 있기에 자신과 맞는 분야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둔 분들이라면, 학점 관리를 하기에 경영학과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주변에 경영학과 진입을 후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저는 경영학과의 상황밖에 잘 알지 못하며, 이마저도 일개 학부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배님들의

선택에 저의 말이 결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과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진정 배우고 싶은 학문이 있다면,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껏 본전공에 진입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전공을 선택하시더라도, 그 과가 본인에게 찰떡같이 잘 맞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19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정서연 선배

<공통질문>

1.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영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을 크게 7가지로 나누면 회계, 재무, 국제경영, LSOM, 경영관리, 마케팅, MIS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영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전공과 다른 경영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라면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졸업에 필요한 전공필수 과목의 수도 많고 제1전공의 학점과 영어강의 수가 많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각 전공필수 과목을 들으면서 흥미 있는 분야를 찾고 그 분야를 심화해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전공선택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과를 지망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꼭 해당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유전공학부 00학과의 졸업요건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2. 경영학과를 전공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다른 과도 영어강의가 많이 열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을 듣거나 영어로 된 강

의안을 읽을 수 있는 영어 실력은 갖춰야 하고 speaking을 잘하면 유리한 과목들이 있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도 필요한 편입니다. 이외에 계산기를 빠르게 오타 없이 두드릴 수 있는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취업, CPA, 심화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자전 경영을 비롯한 일부는 로스쿨 진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4. 경영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편입니다. 특정 학과에 가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 과목과 안 맞는 분이 경영학과를 진학한다면 당연히 좋은 학점을 받기 어렵겠죠. 이미 학교 대부분이 학점을 예전보다는 잘 주는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이 흥미 있는 학과를 진학하여 수업을 즐겁게 들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흥미 없는 학과에 가서 책이나 논문을 읽으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물론 흥미나 다른 요소가 다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한다면 경영학과에서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적은 노력으로 같거나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A+만 받는 학과는 절대 아니니, 학점을 잘 따겠다는 생각만으로 경영학과를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 경영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이런 걸 사바사라고 하죠 진짜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호정 교수님 오퍼레이션스관리는 명강이면서 마지막으로 학점은 꿀강이라고 많이 추천받아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팀플이 없는 수학적 내용을 다루는 강의가 꿀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남경 교수님의 경영수학이랑 박경삼교수님의 경영통계가 상대적으로 꿀강이었습니다. 유지연 교수님 중급회계도 좋았습니다. 헬강이라고 할 만큼 힘든 강의는 아직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6. 경영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로스쿨을 생각하고 자유전공학부에 온 학생의 입장에서 진로가 로스쿨만 있는 줄 알았는데 더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더 흥미 있는 분야를 찾게 된다면 진로 계획을 수정해볼 수도 있고 관심 분야를 배우는 학회도 해보면서 꿈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좋았던 점을 꼽자면 경영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열어주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유익하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개별질문>

1. 영어와 수학은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영어와 수학능력이 많이 요구되나요?

영어 수학 둘 다 잘 하면 좋습니다. 영어강의 7개를 졸업을 위해서는 꼭 들어야 하고 회계나 재무 등 수학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학 관련 과목인 듯 보이는 회계, 재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통계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수학을 아주 싫어하고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오신 분이라면 경영학과 수업에 별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계고 출신에 영어를 하나도 못하던 저도 영어 수업을 매주 듣다 보니 영어 실력이 늘더라구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경영학과에서 팀플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하는 경우도 많나요?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많이 힘들까요?

정말 강바강, 교바교입니다. 타과보다야 많겠지만 경영보다 팀플 수업이 더 많은 과도 있다고 압니다. 팀플이 싫으시면 팀플 없는 수업을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외국인 학생들과 팀을 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업에서 팀을 직접 조직하게 해 주기 때문에 자전 사람들은 자전끼리 하고 외국인 학생들은 또 외국인 학생끼리 팀을 짜기 때문에 만날 일이 적은 편입니다.

3. 경영학과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모르겠다, 혹은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문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실용적인 학문인 편이고 학부 수준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가지 분야를 다루다 보니 넓고 얇은 경향은 있다고 봅니다.

4. 경영학 중 특정 관심분야만 공부할 수도 있을까요?

경영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기본적으로 분야 여러 가지의 기초 과목을 다 들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전공선택 학점을 관심 분야로 채우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경영학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안전한 선택으로서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에도 적었지만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선택이라고 하면 보통 학점과 진로(취업) 두 가지 면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경영학과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점

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4.5로 다 받고 그런 편이 절대 아니고 경영학과를 그냥 졸업하기만 한다고 취업이 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대해 꼭 알아보고 진학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선배님께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계학원리 수업을 들어봤는데 할만했기도 하고 경영학과 수업들이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또 경영학과로 자전 선배들이 많이 가서 정보를 줄 선배들도 많고 자료도 많았습니다.

7. 경영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족한 점은, 수강신청을 할 때 교수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 수업이 많이 열려서 졸업을 못 할 일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강의실, 화장실 등 시설이 정말 좋고 행정실 대처도 빠른 편입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 정말 없는데, 학부생을 위해 열어주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많이 된 점이 아쉽습니다.

8. 경영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수강신청할 때 과목이 다양해서 뭘 고를지 고민이 된다는 점? 농담이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9. 보통 경영학과 학점 컷이 가장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학기 경영학과 학점 컷이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난해 4점대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점점 높아졌다고 하는데 아마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9-1. (로스쿨 진로 선배한정) 경영학과는 정말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가요? 보통 얼마나 로스쿨로 진학하나요?

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시는 경영학과 분들이 별로 없는 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을 생각하면 경영이라는 게 공식은 아닌 것 같고 정치외교학과나 행정학과 진학도 많이 보입니다.

10. 자유롭게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파이팅!

(3) 18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한정은 선배

<공통질문>

1.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영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경영학과가 기업의 다양한 기능과 파트들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라고 느꼈어요. 기업에서 하는 것이 단순히 재료를 사서 제조하고 파는 것을 넘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오퍼레이션, 회계, 재무, 마케팅 등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나뉘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에서는 전공필수로 이러한 과목들을 조금씩 모두 배워보고, 전공선택으로 심화된 내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특이한 점이라 생각해요. 실제로 전공필수가 24학점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

서 전공필수 과목을 많이 들어야하고, 1전공 수강학점도 더 많아요.

2. 경영학과를 전공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경영학과가 엄청난 자질이나 능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리한 자질이라 한다면, 영어를 잘하면 정말 편할 거예요. 일단 영강이 정말 많고, 풀강 교수님들이 영강을 주로 여시기 때문이에요. 영강 7과목이 졸업요건에 있지만,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1년에서 1년 반이면 이미 7과목 이상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강보다 영강이 더 많이 열리는 편이고, 어떤과목은 영강으로만 열리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경영학과에 와서 잘하지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영어가 유창하면 훨씬 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영학과 특성상 영강은 발표도 영어로 하고, 이에 대한 질문도 영어로 답변해야 해서 영어가 곤란하면 노력을 더 해야 할 수도 있기에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국강으로도 전공필수와 전선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서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물론 국강이면서 풀강인걸 찾는 것이 조금 더 힘들 것이라서 영어를 잘하면 유리할 거예요.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경영학과 전반으로 말씀드리자면 CPA를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일반 취업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로스쿨도 많이 준비하시구요. 자전에서 경영으로 온 분들은 일단 학점컷이 높은 편이고, 로스쿨 가려면 경영으로 가라는 말들이 존재해서 로스쿨 준비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CPA 준비하는 학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로스쿨, CPA, 기업 취직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경영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잘 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점을 잘 주는 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잘 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열리는 수업의 개수가 타 전공에 비해서 훨씬 많기에, 그만큼 풀강 교수님들도 많아요. 더불어서 영강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절평으로 성적을 잘 받기 쉬울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노력으로 타 전공에 비해서 쉽게 학점을 탄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풀강 교수님들만 들으려면 수강신청을 매우 잘해야 하는데다, 그런 분들 수업으로만 시간표를 채우는건 불가능하고, CPA생들이 합격 후 수업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학점 따기가 힘들기도 해요. 더불어서 저는 영강을 많이 들어서 잘 준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영강을 싫어하시면 다른 과에 비해서 잘 준다고 느끼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잘 준다는 기준에서도 조금 다른게, 타 어떤 전공은 A학점까지는 받기가 쉬운데 A+은 받기가 훨씬 어려운 반면, 경영학과는 A학점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A+는 잘 주신다고 느꼈어요. 상대적으로 A받기가 쉬운지, A+받기가 쉬운지의 관점에서 경영학과는 A+은 좀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추천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량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공부량은 적은 편이라 생각해요. 많은 자료를 읽거나 해야하는 과는 아니거든요. 이제 팀플이 문제인데, 열심히 잘 해내고 싶으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하기도 해요. 오후관에서 회의를 밤에 문 닫을 때까지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럭저럭 구색만 맞추어서 발표하는데 의의를 두자고 하면 쉽게 끝낼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학우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팀플에도 시간을 꽤 할애하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공부량은 적어도 투입하는 시간은 비슷하거나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5. 경영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명강이면서 꿀강인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동욱 교수님 재무관리를 정말 추천합니다! 이동욱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재무쪽 과목들을 더 배워봐야겠다고 처음 생각했어요. 더불어서 재무의 기초를 잘 가르쳐주셔서 다른 과목 듣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약간 조금은 더 깊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성적도 명확한 기준으로 여유롭게 주시는 편이라서 명강이면서 꿀강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는 꿀강을 듣고싶다 하시는 분께는 정재웅 교수님의 투자론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시없을 희대의 꿀강... 신청과 동시에 A+은 하나 받았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업이에요. 졸업전까지 이런 수업을 다시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꿀강이면서, 수강인원이 좀 되는 편이라서 수강신청도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정말 학생들 편의를 많이 봐 주시고 수업시간에 교수님 인생이나 조언같은 것도 하시는데 엄청 재밌는 분이라서 수업도 재미있게 들었어요.

명강을 하나 더 추천하자면 윤성아 교수님의 소비자행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다른 동기들도 동의할진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분야의 권위자이신만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시험문제가 정말 깔끔하고 문제를 '잘' 내세요. 공부를 좀 준비해갔으면 교수님이 주신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팀플을 하면서도 단순히 소개하는 걸 넘어서 진짜 분석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천하고 싶어요. 성적도 잘 주시는 편입니다!

제가 로스쿨 지망이라 헬강은 수강신청을 기피하는 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선물옵션같은 과목들이 악명이 높더라구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국제경제론과 경영전략은 전필이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헬과목들이기 때문에 클루핑이 좋거나 추천받은 교수님들 수업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한 학기동안 고생하실 수 있어요...

6. 경영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경영학과의 학문들이 재미없고 어렵거나, 경제과목과 거의 비슷한 학문인 줄 알았어요. 경영 경제가 주로 묶여서 경제는 배워본 적이 있으니 비슷한 과목이려니 했는데, 배워보니 경제랑은 많은 부분에서 다르더라고요. 경제는 좀 더 수학이라면 경영은 좀 더 계산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경제는 국가나 시장의 입장에서 좀더 전체적이라면 경영은 기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더 실용적이고 와닿았어요.

저는 경영이 다양한 과목으로 나누어져서 그 많은 것들이 잘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점이 의외로 엄청 장점이라 생각해요. 전공필수로 모든 과목들을 조금씩 맛보고, 전공선택으로 좋아하는 과목들을 더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나, 흥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개별질문>

1. 영어와 수학은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영어와 수학능력이 많이 요구되나요?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의 대답은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마케팅 쪽의 경우에는 긴 발표를 진행해야 해서 유창하게 말해야 부담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게 아니라면 절대 많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경우도 많거든요.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강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좀 더 쉽게 학교다닐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잘하면 유리한 점은 분명 있어요.

수학은 정말 계산기를 잘 두드릴 능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수학을 배

우진 않아요. 그런데 수학능력일 수도 있는데, 숫자감각?이 좋으면 좀 수업들을 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프나 이런 걸 잘 보는 능력? 이 있으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건 재무수업을 들을때나 해당되는거라, 재무수업을 많이듣고싶은게 아니라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수 있어요! 회계는 앞서말한 계산기를 잘 두드릴 건강 한 신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걱정 없습니다.

2. 경영학과에서 팀플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하는 경우도 많나요?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많이 힘들까요?

팀플 비중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요. 한학기에 서너 개의 팀플을 할 수도 있고, 하나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졸업때까지 인생에서 자정진 외의 팀플은 없었으면 좋겠다, 발표가 너무너무 부담되고 자정진 발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시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팀플을 선호하지 않으면 회계나 재무수업을 들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마케팅원론이랑 경영정보시스템, 국경과 경전은 팀플이 보통은 무조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정돈 아니다, 딱 4개정도는 인생에서 할만하다고 생각하실 정도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피하려면 4개 이외에는 충분히! 피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 외국인학우분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외국인 학우분들과 팀플을 하진 않았어요. 보통 교수님들이 같이 팀플하고 싶은 사람들은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반영해 주세요. 랜덤배정 하는 교수님도 계신데, 운이 안좋은 몇몇 경우 빼고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외국인학우들과 팀플이 걱정되신다면 명단 제출 시에 팀을 모집해서 명단을 제출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이 경우 많은 학우들이 명단을 구성하는 편이라, 안내고 계시면

글로벌조에 속할 수도 있어요.

3. 경영학과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모르겠다, 혹은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문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앗 이건 제가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문같지 않다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생소하네요. 보통 학우님들이 지향하시는 심도 깊은 학문의 틀에 들어가기에는 실용성을 너무 띄는 분야라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용.. 훨씬 실용적인 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학문'보다 '지식'의 측면에서는 더 배웠다고 생각해서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것에 무척 만족해요. 저는 '학문' 보다 경영학과에서 배운 것들의 휘발성이 훨씬 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학하고나서 훨씬 지식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경정시를 들으면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외활동을 하면서 경정시도 기업에서 필요한 분야구나 하고 느꼈어요. 혹시 어떤걸 배우는지 모르겠다, 학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다양한 분야 중 어떤 분야를 배우고 싶은지 명확히 정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 분야를 내용대로 심화하면서 들으면 분명히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4. 경영학 중 특정 관심분야만 공부할 수도 있을까요?

완전 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전필은 모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과목들은 모두 수강해야 돼요. 그게 8과목이라는게 좀 많긴 하지만, 기업이 무엇을 하고 어떤 기능들로 이루어져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필수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직접 배워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무엇이 진짜 배우고 싶은 쪽인지 확실하지 않을수도 있기에, 경영학과 커리큘럼은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 도와줘서 좋았어요. 이렇게 전필로 기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얻고나면, 무엇을 선택해서 들을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에요! 저는 전필을 대부분 듣고 나서 (국경 경전 외에) 전선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선수과목이 없더라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의 분야들을 충분히 겪어보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경영학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안전한 선택으로서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완전 이런 생각으로 경영학과를 선택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학문에 선호도, 불호도 없는 편이라서 안전한 선택을 했거든요. 또, 경영과목에 세부분야가 많아서 겪어보기 전에는 내가 어떤 과목이랑 잘 맞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한 개는 있겠지'랑 비슷한 맥락으로 직접 겪어보면 예상외의 분야에서 흥미를 찾을 수도 있어요. 분야가 많으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우고싶은 학문이 있고, 그 결정에 자신이 있다면 좋아하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경영학과에 가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 경영학과가 전관교인 회원&경통, 전필, 전선을 다 들어야해서 타 학과에 비해 1전공 학점을 많이 들어야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공 수업도 들어보고자 하면 교양을 상대적으로 무척 적게 들어야해서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학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학회나 인턴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분야를 주 강점으로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정도의 흥미는 아니라면 안전한 선택으로써 경영을 추천드려요. 저도 전공 선택 즈음까지 다른 전공과 전공 지망 1순위를 고민했었는데, 경영을 넣은 것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그 전공을 선택할까 고민했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공이라고 생각해서였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바뀐 건 아닌데, 경영학과를 선택한 것에 만족해요!

6. 선배님께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랑 마찬가지로 안전한 선택이어서였어요. 더불어서 뺑선과 다른 선배들이 경영학과인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과를 고민하니 경영학과를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구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구요. 현차관 건물 자랑도 하시고 그랬어요. 더불어서 결정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이, 경영학과에 간 선배들 스스로 전공에 많이들 만족하시더라구요. 경영학과 오지말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못봤었어요. 대부분 저에게 경영대 추천한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더불어서 진로가 바뀌더라도 어느 진로에도 도움이 될 만한 과가 경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가장 실용적이니까요. 그리고 현차관 건물을 몇 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구법에 비해서 정말 좋더라구요... 팀플할 곳도, 공부할 곳도 많구요. 전반적으로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7. 경영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영대 인프라가 문과대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학교다니면서 편해요. 일단 수업이 많이 열려요. 수강신청을 못해도 18학점 맞춰서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전필을 못들을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듣고 싶은 교수님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경영대 건물이 정말 쾌적해요. 먼 자리에 앉아서 칠판이 안보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미리 가서 자리를 맡아두지 않아도 되는 것도 몰랐던 장점이라구요. 더불어서 팀플할 장소가 많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팀플을 많이 시켜서일수도 있지만요. 현차관을

예약하려면 경영대생이어야 하거든요. 참고로 현차관 시설 진짜좋아요... 좌석도 편하고 전자석 콘센트도 있어요. 그리고 문과대에서 학부생들이 보통 이용하는 건물 중에서 항상 핸드타올이 구비되어 있는 건물이 딱 세 개가 있는데, 그게바로 해도와 엘포, 현차입니다. 학교다니면서 물에 녹는 휴지로 불편하게 손 안닦아도 돼요. 제가 핸드타올 없는 걸 싫어해서 만족하는 점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경영대자랑 중에서 최고인 것 두 개를 꼽자면, 첫째로 문자로 각종 고지가 빠르게 돼요. 학과홈페이지에서 찾지 않아도, 많은 사항들이 문자로 고지가 됩니다. 장학금, 지원이나 프로그램 신청 등등을 문자로 자주 알려줘요. 경영대가 타과에 비해 행정이 잘 이루어져요. 행정 건물이 따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둘째는 장학금이 많다는 점이에요. 고경면학장학금 등 경영대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장학금이 잘 만들어져있어서 이런 면에서도 만족해요. 돈이 좀 있는 학과라서 장학금도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더불어서 몰랐지만 제가 흥미있어 하는 과목을 찾아서 그에 대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만족했어요. 계획만 잘 짜면 일반적인 문과 학문보다 분야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어서 커리큘럼처럼 선택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수업도, 행정도, 편의도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경영학과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끈끈함이 덜한 느낌이 아쉬워요. 자전에서 조금 적게 선택해서 가는 과들은 서로 좀더 끈끈한 느낌인데, 인원 자체가 많으니 이게 조금 약해지지않나 하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학우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학우분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8. 경영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회원과 경통같은 전관교, 전필, 전선 모두를 합치면 1전공 학점이 다소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교양을 그만큼 적게 들어야해요. 저는 1학년 때는 교양 위주로 듣다가 2학년때부터 거의 교양 없이 전공수업을 들으려니 적응이 힘들었어요. 이걸 제가 1학년 내내 초과학점을 들어서일수도 있겠네요. 경영이 어떤 과목인지 잘 알아보지 않고 선택한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진입해서 다양한 분야들을 새로 접하게되는데, 하나로 이어지기보단 좀 독립된 느낌이 있어서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학기 접하고 보니 금방 적응도 되고, 관심있는 분야가 생기니 어떤 스타일의 학문인지 감이 잡혔던듯해요.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회원이나 경통정도는 들어놓았을 것 같아요.

9. 보통 경영학과 학점 컷이 가장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학기 경영학과 학점 컷이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17학번때는 3.86 근처였던걸로 기억하는데, 18학번때는 4.06부터 경영학과에 붙었어요. 19학번때는 많이 올라서 4.26부터 붙었던거구요. 쓰고보니 0.2씩 오른 것 같은데, tmi일수도 있지만 오르는 이유가 어느정도 있는 것 같아요. 17학번, 혹은 그 이전에는 학점 컷이 심각하지 않아서 1학년때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경향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학점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18학번에는 자정진이 신설되면서 학점을 뿌리면서 상승한 것 같고, 19학번은 그렇게 해서 오른 학점컷에 부담을 느껴서 다들 학점을 잘 받으려 노력해서 오른 것 같다고 생각해요. 20학번은 코로나로 전과목 절평으로 바뀌어서 슬프지만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1. (로스쿨 진로 선배한정) 경영학과는 정말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가요? 보통 얼마나 로스쿨로 진학하나요?

‘경영학과가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가’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요. 유리한 점은 딱

히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영강과 풀강을 들어서, A+받기가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학점 면에서는 수월할 수도 있긴 해요. 법과 학문적 유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차라리 자료나 논문을 많이 읽는 학과에 가서 좋은 글을 많이 읽는 연습을 하는게 리트에 도움이 되어서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경영학과를 추천하겠는가'에는 그렇다고 대답할 듯해요. 일단 로스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법에 관심이 있는데, 법학과는 없으니 차선의 선택을 해야되는 상황일 거예요. 더불어서 리트를 잘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로스쿨에 눈에 띄는 도움이 되지 않는 외부활동을 많이 하기보단 다들 학점에 집중해요. 학점이 일단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이 리트를 못 볼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불안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리트 140점 이상 맞고 바로 원하는 로스쿨 간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때 이 불안요소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것이 경영이 1전공이라는 점일 수 있어요. 일단 기업 친화적인 전공이고, 학회나 경영대 활동도 수월할 테고, 배우는 것이 CPA과목과 많이 겹쳐서 CPA로 진로를 틀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로스쿨 진학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도 같네요. 보통 얼마나 로스쿨에 진학하는가는 조금씩 다른데, 반에서 9명 정도 되는 듯해요.

10. (선배님 희망진로 기재: 로스쿨)와 관련하여 필요한 스펙이 있을까요?

로스쿨은 학점과 리트점수가 가장 강력한 스펙이고, 나머지는 얻기 너무 어렵거나 (의사, CPA같은 전문자격증 등)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학점은 노력 여하이나 수강신청능력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리트는 저도 아직 조언하기엔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정성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면접에서도 뒤집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채울 정도의 다른 스펙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내 자소서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사람마

다 다른 답이 나올 거예요. 자소서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고, 내가 어떤 법조인이 되고싶은지 고민하면서 학교를 다니신다면 모두들 충분히 좋은 스펙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 자유롭게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공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전공자료집을 많이 읽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된다니 신기했어요. 최대한 제가 아는 것들을 많이 담아보려고 했는데,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에 애정을 많이 가지는 편이라서, 너무 좋은말만 쓰게된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용! 그렇지만 별 기대없이 경영학과를 선택했던 저는 경영학과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1학년때 학점컷이 존재하는 게 부담되어서, 차라리 1전공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던가, 혹은 전공없이 자전으로만 남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자전에서 1학년 동안 여러 전공들을 접하며 전공을 정할 수 있다는게 정말 큰 혜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전공선택에 너무 부담을 가지시기보다 현재 가진 선택권을 맘 편히 충분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4) 18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조윤익 선배

<공통 질문>

1.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영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경영학과는 일단 다른 전공에 비해 전공필수가 많기로 유명합니다..^^(24학점)

경영학이 회계 / 재무 / 국제경영 / LSOM(오퍼레이션스 관리) / 경영관리 / 마케팅 / 경영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세부분야를 가지고 있다보니, 각 분야별로 꼭 하나씩은 듣도록 되어있어

요. 일단 경영학과에 진입하시면 전공관련교양으로 회계학원리와 경영통계를 들어야 하고, 경제학 필수과목으로 경제원론I,II를 들어야 해요.(공거리랑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전공필수과목으로는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오퍼레이션스관리, 중급회계I, 경영정보시스템, 조직행동론, 국제경영론, 경영전략이 있고 이외에 15학점의 전공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하시면 됩니다.

2. 경영학과를 전공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경영학과는 졸업할 때까지 전공수업을 영강으로 7개 이상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신다면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막 원어민 수준이어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수업 중에 사용하시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경영은 정외과처럼 리딩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영어로 발표하거나 원어로 된 교과서를 읽고 수업을 듣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아무래도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겠죠ㅠ 사실 우리 자전 후배님들 정도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_^!!

그리고 경영학도 사회과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사에 관심이 많고 평소에 경제신문을 즐겨보는 분이라면 수업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제 주변에는 로스쿨이나 CPA를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외에도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 경영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경영대가 학점을 마구 퍼 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 안하면 학점은 안 나와요. 다만, 경제학과나 통계학과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비교해보면, 경

영학과에서는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의 학점을 받을 수 있고, 경제나 통계 수업과는 다르게 '교수님이 가르쳐 준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전에서 경영학과 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당연히 경영학과 진입해서도 그만큼 노력하시기 때문에 학점이 잘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들도 점수를 깎으려고 하기보다는 문제풀이과정 감안하셔서 최대한 점수를 잘 주시려고 하세요. 전반적으로 평균이 낮으면 extra credit 과제를 내주셔서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ㅎㅎ

공부량은 사실 과목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때그때 이해만 잘 해두시면 시험기간에 양이 많아서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회계나 재무는 미리 복습해두지 않으면 큰일납니다ㅠ 그래서 교수님들이 제때 복습하라고 자주 과제를 주시는 편이에요)

5. 경영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경영학과는 명강과 꿀강이 일치하는 수업들이 많아서 수강신청이 매우 힘듭니다...^_^

제가 들은 것들 중에 명강이면서 학점 받기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만족스러웠던 수업들:

- 1) 최우석 교수님 중급회계I - 매번 석탑강의상을 받으실 정도로 너무 스윗하시고 강의력이 좋으셔서 기본기가 탄탄하게 회계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 2) 정재웅 교수님 투자론 - 수강신청만 성공한다면 꼭... 꼭... 꼭.... 들으세요!!! 수업도 너무 재밌고 재무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입니다
- 3) 황준호 교수님 재무관리와 기업재무 - 제가 경영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세요♥ 재무 자체가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교수님이 영어를 정말 잘하시고 설명을 반복적으로 쉽게 잘해주셔서 없던 흥미도 생기게 해주십니다
- 4) 박경삼 교수님 경영과학 - 엑셀을 활용해서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모델링 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정말 귀여우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엑셀이랑 친하지 않아도 금방 따라하실 수 있어요!

공부량에 비해 학점 받기 정말 쉬운 꿀강: 홍세준 교수님 경영정보시스템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친구들이 추천해준 명강: 유관희 교수님 회계학원리, 신호정 교수님

오퍼레이션스관리, 한승수 교수님 관리회계

헬강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수업 중에서는 없었는데 친구들 말로는 '쓰리배'라고 불

리는 교수님들(배00 세 분)과 송준명 교수님(경영통계), 김대기 교수님(오퍼)은 꼭 피하라고

하네요...ㅎㅎ

6. 경영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저는 1학년 때 경영학 수업을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상태로 경영학과에 진입했기 때문에 아
는 게 거의 없어서 생각이 바뀐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좋았던 점들은 1인1콘센트 사
용이 가능한 쾌적하고 넓은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과, 친절하시고 학생들과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좋은 교수님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개별 질문>

1. 영어와 수학은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영어와 수학능력이 많이 요구되나요?

영어는 앞에서 언급해서 생략할게요! 경영대 학부수준 강의에서 사용하는 수학은 사실 사칙
연산만 잘 하면 됩니다 ㅎㅎ 재무나 회계에서도 결국 문제는 다 계산기로 풀기 때문에 '숫
자' 자체가 끔찍하게 싫다 이런 분만 아니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어려운 수학문제를
잘 푸는 능력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는 '꼼꼼함'이 훨씬 중요합니다^_^

2. 경영학과에서 팀플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많이 힘들까요?

마케팅 분야와 국제경영, 조직행동론, 경영전략은 팀플이 필수적이지만 그 외 과목들은 교수님에 따라서 팀플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경영대는 인원이 많아서 개설 과목 수가 많다 보니 강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큰 장점이죠 ㅎㅎ 강의계획서 잘 읽어보시면 같은 과목이라도 교수님마다 개인과제 부여하시는 분도 있고 팀플을 한 학기에 세네번씩(!!) 요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영강을 들으신다면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팀플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같은 과목이더라도 팀플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 강의들을 찾아 들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경영대생이라면 팀플을 아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나는 죽어도 팀플이 싫다! 이런 분들은 경제나 통계 쪽을 추천드립니다 ㅎㅎ

3. 경영학과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모르겠다, 혹은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문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았거나 경영학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내용은 '개론'이나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학문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학원생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하시는 연구는 리얼 학문 그 자체입니다...ㅎㅎ

물론 "학문 같다"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순 있지만,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자본'과 '사람'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경영학의 학문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영학이 세부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려면 학부 강의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경영

학 전공을 살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회나 인턴활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경영학 중 특정 관심분야만 공부할 수도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ㅠ 기본적으로 경영학 세부 분야(마케팅/회계/재무/MIS/경영관리/오퍼레이션 등)에 대해서 골고루 들어야만 졸업할 수 있어요. 당연히 관심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면 전공선택 과목으로 더 들으시면 됩니다!

5. 경영학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안전한 선택으로서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ㅋㅋ 저는 1학년 때 경영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다른 학과들 중에 가고 싶은 곳이 하나도 없어서 경영학을 선택했거든요..ㅎㅎ 선배들이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없다면 안전하게 경영학과를 가라고 조언해줬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오히려 확신 없이 다른 학과를 갔다면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제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부를 좋아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운 좋게 잘 맞았던 것이니, 후배님들도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6. 선배님께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의 대답과도 중복되긴 하지만, 가고 싶은 학과가 달리 없는 상태여서 미련이 남을만한 타 전공이 없었고 경영학과를 가면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내에서 경영대학이 학생 지원이나 행정, 시설 면에서 가장 뛰어나기도 하고(20학번 분들은 아직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LG-POSCO경영관이나 현대자동차경영관에 있는 강의실과 스터디룸은 다른 건물에 비하면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b) 취업할 때도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7. 경영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경영대학에서 경영학과 학생들(자전 경영도 당연히 포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여해 본 것들은 경영대 졸업생들과의 대화(진로별로 나누어서 진행), 무료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 SK 사회적 가치 공모전이 있었고 이외에도 경영 전공 수업 튜터링 프로그램인 TNT, 창업경진대회, 국제인턴십, 경영대 교환학생 등이 운영되고 있어요. 경영대학 홈페이지(biz.korea.ac.kr)를 틈틈이 확인하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 후배님들도 잘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들 활용하시기 바라요!

8. 경영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2학년 1학기 때 완전 노베이스 상태로 재무관리를 영강으로 들을 때가 너무 어려웠어요. 경영학 수업들을 듣다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들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문제부터 풀려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단계만 잘 버티면 금방 익숙해져서 쉬워지는 때가 옵니다! 참고로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될 때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교수님께 이메일로 질문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질문하시면 대부분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시니 교수님의 도움을 얻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ㅎㅎ

9. 보통 경영학과 학점 컷이 가장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학기 경영학과 학점 컷이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17학번이 3.8 / 18학번이 4.1 / 19학번이 4.2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 (로스쿨 진로 선배한정) 경영학과는 정말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가요? 보통 얼마나 로스쿨로 진학하나요?

로스쿨 입시에서 경영학과인 것 자체는 전혀 메리트가 되지 않아요! 다만 경제나 통계학과 등 학점 받기가 매우 힘든 전공에 비하면 비교적 학점관리가 수월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LEET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영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서 리딩 양이 현저히 적은 편이라 긴 지문을 읽는 것에 익숙해지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로스쿨 입시만 놓고 봤을 때 경영학과 졸업생이라는 사실은 크게 유리하지 않지만, 듣기로는 기업자문시장이 워낙 크다보니 로스쿨 졸업 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경영학과 분들은 자전 경영에 비하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는 한데 해마다 로스쿨 입시생이 늘어나는만큼 경영학과에서도 점점 많은 분들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자유롭게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등학생 때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입학하고 나니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해버릴 것처럼 느껴지는 이 전공선택도 사실 지나고나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영학과 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꼭 경영에 오시면 정말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

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어느 학과를 가더라도, 그 안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역량을 꾸준히 키운다면 어디서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ㅎ ㅎ ㅎ? ♡ 전공이 그 자체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것도 절대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니 내 인생에서 언젠가 꺼내 쓸 수 있는 '좋은 도구' 하나를 선택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맞을지 전혀 모르겠는 분들은 전공자료집 열심히 읽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진로계획과 가치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보면서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화이팅♥

(5) 17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박석규 선배

<공통 질문>

1.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영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위의 많은 분들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서 더 이상 설명해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전공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역시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공학점으로 51학점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더욱 많은 전공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경영학과에 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거나 경영학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1학년 때라도 전공필수부터 한 과목씩 미리미리 들어보는 것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경영학과 진입을 확정지은 1학년 겨울방학부터 계절학기로 경영과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계, 재무, 오퍼레이션스 관리, MIS, 국제경영, 조직행동론, 마케팅 등의 다양한 분야가 존재해 어떤 분야는 자신에게 잘 맞고 어떤 분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기본 과목들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재무-회계같이 비슷한 느낌의 과목들도 있어 자신에게 맞는 과인지 어느 정도는 판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경영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최소한의 영어능력: 영어로 말하고 쓰는 능력까지 모두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영어를 듣고 읽을 수 있는, 수능 영어 수준의 실력만 있더라도 경영학과 진학하여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팀플을 견딜 수 있는 능력: 경영학과 진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일부 과목들은 팀플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므로 본인이 누군가와 함께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신다면 경영학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조사, ppt, 발표능력: 앞의 팀플과 연관되어 필요한 능력들입니다. 팀플을 하게 되는 경우 자료조사, ppt, 발표의 세 가지 역할 중 결국 하나를 맡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능력 중 하나 이상에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특히 ppt나 발표) 팀플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 층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위의 분들이 매우 자세하게 잘 언급해주셔서 제가 답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4. 경영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경영학과는 일반적인 학과에 비해 학점이 조금 후한 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에이플, 에이 기준에 딱 맞춰서 주시는 분보다는 기준을 더 느슨하게 풀어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예 무조건 플러스를 붙여준다거나, 수강생의 50%정도를 에이플을 주시는 희대의 꿀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많은 과목들이 에이플을 뿌리는 수준은 당연히 아니고, 그러한 꿀강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방심했다가는 실수

하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에이를 받기는 쉬우나 에이플러스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 다분한 노력이 필요하다~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방심하지 않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량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경영학과 수업의 대부분이 결국은 암기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양 자체도 그렇게까지 많은 편이 아닌 경우가 많아 다른 공거리 과목들에 비해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법학전공1과목=경영전공 2과목 정도로 난이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5. 경영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들었던 교수님들 밖에 평가할 수 없으니 그 점 유의해주시고, 한 학기 전만 해도 천사 같던 교수님이 갑자기 흑화하시는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 꿀강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클루의 내용과, 전 학기에 그 과목을 들은 사람의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꿀강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학점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방심하다가 더 안 좋은 학점을 받게 되는 피눈물 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학 원리, 중급회계)-지승민 교수님

지승민 교수님은 성격도 친절하시면서도 수업에는 열정적이시고 학점까지 잘 주시는 정말 천사 같은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경영학과에서 익숙해지기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단연 회계였는데, 필기를 다시 봐도 수업내용이 생각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며, 설명도 너무 빠르지 않게 차근차근 해주셔서 수업뿐 아니라 나중에 시험공부 때도 한층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라면 필기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 좋은 자리를 선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 난이도도 대체로 어렵지 않으며 수업만 열심히 들으신다면 주관식 문제

들은 다 예상이 가실 거라 생각하며, 오히려 객관식에서 개념문제들을 헛갈리게 내시는 경우가 많아 필기뿐 아니라 교재를 정독하시고 개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케팅 원론)-김상용 교수님

김상용 교수님의 마케팅 원론은 다른 모든 부분을 제쳐두고 마케팅 과목에서 '템플이 없다'는 매우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템플을 최대한 피하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 드립니다. 강의는 마치 TV 강연을 보는 듯하다고 느낄 만큼 강의력이 좋으신 편이기도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일단 발표, 질문을 통한 참여점수도 일정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부담이 있으신 분이라면 수업이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점과, 시험문제의 90%이상은 너무나도 쉽고, 한 두 문제에서 점수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강의가 쉽다고 방심하다가가는 낮은 학점을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MIS)-홍세준 교수님

경영정보시스템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경영 전체과목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 한 분인 홍세준 교수님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건지 전 강의가 끝날 때까지 알 수 없기로 유명한 경영정보시스템에서 유일한 꿀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강신청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렵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수강신청에 성공해 들을 수 있었으나 한 차례 실패한 후 다음 학기에 가서야 성공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중간고사가 없으며, 출석체크도 거의 없고, 수업도 큰 의미가 없어 사실 ppt만 제대로 외워가도 충분히 에이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템플 한 개가 존재하긴 하나 비중이 큰 지 작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매우 잘하거나, 매우 못하지 않는 이상 템플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에 성공할 수 있다면 홍세준 교수님의 MIS를 추천합니다.

(국제경영론)-김순성 교수님

사실 국제경영론은 경영전략과 함께 경영과목 중에서도 팀플도 많고 학습량과 난이도가 높은 헬과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꿀강이란 존재할 수 없고 어떤 과목이 차악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경영론에서 가장 인기 있고 클루핑도 좋은, 그나마 편안한 강의가 김순성교수님의 국제경영론입니다. 일단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 PPT만 암기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른 국제경영론과 달리 팀플이 단 한 번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이 팀플의 비중이 큰 편이며 난이도도 쉽지 않으나 한 강의에서 하나 이상의 팀플을 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입니다. 출석체크는 매번 하시며, 이 과목 역시 수강신청이 어려운 편이므로 그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무관리, 투자론)-정재웅 교수님

위에서 언급했던, 무려 50%에게 에이플을, 나머지 50%에게 비플을 주는 희대의 꿀강이 바로 정재웅교수님의 재무관리와 투자론입니다. 저는 재무관리를 듣지는 못했으나 이를 수강했던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투자론에서의 수업방식이나 평가기준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학점을 더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매 수업마다 열성적으로 수업하시고, 강의력도 좋으면서 내용도 좋은 수업입니다. 게다가 정재웅교수님의 강의의 진가는 수업 중에 간간히 하시는 수업 외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금융실무와 관련한 말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국제 정세, 경제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좁은 학교가 아닌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경영학과 분들, 특히 금융계 직업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도 개념에 대한 암기보다는 문제 풀이를 선호하셔서 교재의 연습문제만 제대로 풀 줄 안다면 무난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단 이렇게 쉽게 시험을 내시기 때문에 정말 단 한 문제가 성적을 뒤바꿔버릴 수 있으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입니다.

이 외에도 위에서 언급되었던 경제의 김석호 교수님, 오퍼레이션스 관리, 경영통계의 안철옥 교수님의 수업도 꿀강이나, 현재 두 분 모두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헬강은 위의 내용과 생각이 일치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 경영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초에 로스쿨을 생각하고 경영학과에 진입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대해 큰 기대나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영학과에 진입할 때에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 넓은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 정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점은 성실히만 하신다면 기대하신 만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과목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달랐는데, 경영학과는 진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반면 어떤 과목은 매우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거나 CPA등의 공부를 하지 않고 단순히 졸업에 필요한 전공필수와 선택 과목을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영학에 대해 더 깊고 다양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것이며, 경영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넓은 분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경영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학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면 넓다고 느끼시겠지만, 어디까지나 '경영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학문 자체에 흥미가 없으시다면 그렇게까지 넓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으나 의외로 좋았던, 그러나 은근히 큰 메리트가 있다면 경영대의 건물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외관이 예쁘고, 기본적으로 시설이 좋으며, 휴식공간이나 스터디를 위한 공간도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 휴식이나 팀플에 좋으며, 경영대의 3개의 건물과 중앙지하까지 연결되어 있어 길을 외우게 되면 추운 겨울에 건물을 나가지 않고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어 만족감이 컸습니다.

<개별질문>

1. 영어와 수학은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영어와 수학 능력이 많이 요구되나요?

영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이 영어 발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수업을 피한다면, 수능 때 공부했던 정도의 읽기와 듣기 능력이라는 '최소한의 영어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의 경우에도 수능 이후로 영어공부를 한 적이 없으며 수능 정도의 읽기 능력과 듣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수업들을 영어 강의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위해서 들어야하는 영어 강의의 수로 인해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으나 막상 들어보시면 상대평가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국강에 비해서 절대평가이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영어 강의에 더 편안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대해서는 본인이 CPA시험을 볼 생각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도 회계, 재무 쪽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배워야하는 회계학원리, 중급회계1, 재무관리, 경영통계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산수를 할 줄 알면 충분하며,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므로 요구되는 능력이라 함은 공식을 외우고, 시간 내에 정확하게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능력 정도입니다.

2. 경영학과에서 팀플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하는 경우도 많다

고 들었는데,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많이 힘들까요?

경영학과=팀플, 팀플=경영학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 같은데...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경영학과와 팀플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재무, 회계와 같은 과목을 제외하면(가끔은 이 과목들에도 팀플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케팅과 같은 과목은 팀플이 없는 수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경영전략은 아예 팀플들로 이루어진 수업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학과에 진입해서 졸업을 위해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에도 모든 팀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에 3과목 정도의 경영전공을 수강하게 되는 경우 1~2개의 팀플을 각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에는 외국인 학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하게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팀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으나, 반대로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 free-rider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 학우들이 있는 수업이라면 한국인들로만 조가 짜지더라도 외국인 분들을 팀에 필수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게도 대부분 매우 좋은 한국, 외국인 팀원 분들을 만났었고, 외국인 학우가 free-rider가 되어도 남은 팀원들끼리 힘을 합쳐 결국 팀플을 무사히 마친 경우도 있어 외국인 팀원의 존재유무보다는 어떤 한국인 팀원을 만나느냐가 팀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약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팀플이 얼마나 힘든 지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지만 지금까지 좋은 팀원들을 만나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해오니 좋은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이고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면 팀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경영학과 진입을 포기하지시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 자신이 경영학과에 진입해도 괜찮은지, 팀플에 적응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팀플이 있는 전공필수 과목을 한 번 수강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경영학과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모르겠다, 혹은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문 같지도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학과 안에 여러 과목들이 존재하여 아무래도 처음 전공필수, 선택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들은 그 학문의 겉핥기 일 수밖에 없다 보니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문들이 그렇듯이, 결국 쓸모 없는 학문은 없고 모든 학문에는 일정한 체계가 있음을 느껴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학문들을 넓게 배우다 보니 내가 뭘 배우고 있고, 왜 이 과목을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점점 깊이, 많이 배워갈수록 각 과목들 간의 융합과 차이, 이들의 영역,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경영학에 대해 느껴가게 됩니다. 지금 느끼기로는 맨 처음 저희가 배우는 것들은 비유하자면 숲이나 나무도 아닌, 이 둘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로스쿨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할 내용인데, 기존에도 그랬으나 최근에는 더더욱 여러 로스쿨들이 그저 성적만 좋은 학생보다 자신의 전공지식을 융합하여 다른 법조인과 차별화된 전문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기조로 삼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너무 무시하거나 게을리하지 말고 어떻게 나의 미래나 자소서에 융합시킬 수 있을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경영학 중 특정 관심분야만 공부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꼭 들어야 하는 전공필수와 전공선택들이 경영학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후부터 특정 관심분야만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가

능할 것입니다. 다만 졸업을 위해 필요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특정 분야를 원하는 것보다 적게 공부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 경영학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안전한 선택으로서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그런 케이스다보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 자체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 어느 정도의 노력과 위에서 말한 능력들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학점을 얻는 것이 로스쿨을 가게 되는데 꽤 중요한 조건이 되며, 만약 로스쿨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일단 좋은 학점을 따 놓을 수 있고 경영학이라는 실용적이면서도 나름 넓은 학문을 배웠기에 취업에 관하여 더욱 넓은 진로를 좋은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팀플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했듯 막상 직접 부딪혀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도 많습니다. 경영학에 큰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점을 잘 받고 싶은, 또는 저 같이 로스쿨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경영학과만큼 안전한 선택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선배님께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의 목표는 예전부터 로스쿨이었는데 법학과가 사라졌으니 법학과는 갈 수 없게 되었고, 다른 과들을 선택해보려 1학년 때 여러 강의들을 들어보았으나 딱히 저의 흥미를 끄는 학문이 없어서 위의 질문에서 보이듯 '안전한 선택'으로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7. 경영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족한 점은 위에서 언급했던 시설 등의 내용과, 한 과목에도 다양한 교수님이 계셔서 맞는 교수님에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8. 경영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회계학원리와 재무관리를 처음 배울 때가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습득한 개념을 다루는 것은 괜찮아도 무언가 새로운 개념을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회계와 재무는 그동안 전혀 들어본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기와 교과서를 정독하고 생각하고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 지금은 회계와 재무 과목이 다른 과목들 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이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9. 경영학과는 정말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가요? 보통 얼마나 로스쿨로 진학하나요?

일단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로스쿨 진학과 단1도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로스쿨 기조가 자신의 전공 지식과 법적인 지식을 융합시킨 전문적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것은 모든 과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딱히 경영학과라고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영학과가 로스쿨 진학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학점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아무래도 경제학과 등의 다른 상경계열에 비해 학점을 받기 더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스쿨 진학에 학점이 전부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학점 인플레이와 각 학과의 성적들을 고려하여 로스쿨의 어떤 분들은 경영학과 학우들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그저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이므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는 경영학과가 가지는 로스쿨과 관련된 이점이라면 학점을 받기 더 수월하다와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넓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10. 로스쿨 진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스펙이 있을까요?

로스쿨 진학에 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학점, 리트, 영어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학점과 리트로, 자교기준으로 학점은 4점대 초중반이상이면 손해는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리트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영어는 PASS/FAIL 방식이므로 일정 점수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11. 자유롭게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가끔 친구들과 '만약 1학년으로 돌아가 과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는데 저는 항상 단호하게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경영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으며 어느 정도 이상 만족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경영학과와 가장 큰, 차별화된 장점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 개인의 성향을 가장 덜 탄다는 점입니다. 일단 학문 자체가 처음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성향이 다른 다양한 과목들이 존재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찾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과목을 찾는다면 장래의 진로를 그 쪽으로 택해 그 길로 계속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경영학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으신 분이 라면 가장 좋겠지만, 저처럼 경영학에 별로 관심이 없으나 로스쿨을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겠는 분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경영학과가 현재까지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경영학과와 학점 컷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경영학과에 대한 진학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1학년 때 남들보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씩만 더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학점 컷을 넘으실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혹시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계신다면 어차피 학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학점 관리를 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 좋

으니 학점도 따고 경영학과에 진학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더욱 좋지 않을까요?ㅎㅎ

결국 제가 이야기해드린 내용들은 어차피 당장 내일에도 바뀔 수 있는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후배님들이 직접 학교생활을 하고, 보고 들으며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경영학과라고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 주변에는 경영학과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나, 당연히 선택을 후회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흥미 있거나, 공부를 견딜 수 있는, 본인에게 맞는 과를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이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아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의 앞으로의 전공 선택과 학교생활에 건투를 빕니다!

2. 졸업생 선배 인터뷰

(1) 17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서재환 선배

<공통 질문>

1.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영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경영학과는 크게 경영관리, 국제경영, 마케팅, 회계학, 재무학, LSOM, MIS 등으로 구성됩니다. 같은 Business School이어도 학부 때부터 전공을 Accounting, Marketing, Management, International Business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갖추는 해외 대학의 학부과정 경영학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교들은 학부과정에서는 '경영학과'라는 단일한 명칭 하에 이 모든 분야를 두루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의 [프로그램>학부>학사안내>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를 선택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공필수로 회계

분야의 회계학원리(엄밀한 커리큘럼상 분류로는 전공관련교양)와 중급회계I, 재무금융 분야의 재무관리, LSOM분야의 오퍼레이션스관리, MIS 분야의 경영정보시스템, 국제경영 분야의 국제경영론, 경영관리 분야의 조직행동론과 경영전략, 마케팅분야의 마케팅원론 등을 필수 수강해야 하며, 그 외 15학점은 전공선택으로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전공들과는 다른 경영학 전공만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전공필수 과목들이 서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 모두가 독립적인 별개의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경제학과의 경우, 경제원론1을 바탕으로 미시경제이론을, 그리고 경제원론2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이론을 학습한 이후 여기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경영학과는 이와 달리 과목들이 모두 파편화되어 있는 편이라 전공필수 중 일부 극소수의 필수선수과목을 제외하고는(ex. 중급회계I 필수 선수과목: 회계학원리 => 회계학원리 미수강시 중급회계1 먼저 수강 불가) 어떤 과목을 먼저 수강하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경영학과에 진입한 첫 학기에 재무관리와 회계학원리를 동시에 수강하였는데, 공식적으로는 회계학원리가 재무관리의 선수요건 '권장' 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접점이 없었고 따라가는 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오퍼레이션스관리와 같은 과목의 경우 교수님에 따라 경영통계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가 수강한 강의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의 통계적 지식(평균, 표준편차, 정규분포 등)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서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클루평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39학점 정도를 요구하는 타 학과와 달리 경영학과는 선수과목, 전공관련교양 학점 등을 포함한 총 전공학점으로 51학점을 요구하고 있어 수강해야 할 전공과목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물론 학과에 관계없이 졸업학점은 130학점으로 동일하나,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양 등으로 채울 수 있는 일반선택 과목의 폭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과 진입 후 2~3학년 동안 교양은 한 학기에 한두 과목 정도만 수강하는 게 졸업을 미루지 않는 정석적인 커리큘럼 일 것 같습니다. (ex. 18학점 중 15학점은 공거리/경영 전공, 3학점만 교양)

cf) 아마 처음 경영학과에 진학하시고 교과과정을 보시면 너무 많고 다양한 전공필수 과목에 당황해서 어떤 과목을 먼저 수강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강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중인 경영전공 커리큘럼을 올려드리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겨울계절) 경영통계

<2-1> (경영학 기초 과목 위주) 회계학원리/마케팅원론/재무관리/오퍼레이션스관리

<2-2> (기초 과목 + 기초를 토대로 한 경영학 심화과목) 경영정보시스템(1학기에 수강해도 무방)/경제원론2/중급회계1/전공선택 1과목 정도(저의 경우 광고론을 수강하였습니다.)

<3-1> 조직행동론 등 3학년 티오가 많은 전공필수/그 외 전공선택 2과목 정도

<그 이후> 위 과목들을 수강하셨으면 남은 과목은 본인이 원하시는 시기에 수강하셔도 됩니다. (남은 전공선택을 채워넣고 경영전략과 국제경영론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영전략과 국제경영론의 경우 팀플로 시작해서 팀플로 끝나는 강의가 대부분이고 기초 과목들이 토대가 되는 고학번 전용 전공의 느낌이 강하니 다른 전공필수 과목들을 모두 수강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9년 추가: 저는 원래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국제경영론과 경영전략을 이수하고 올 계획이었지만, 파견 학교에서 수강신청에 실패하는 바람에 국제경영론은 수강할 수 있었으나 경영전략은 수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경영전략을 수강중인데,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경전은 교환을 가시게 될 경우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워크로드가 상당합니다 ππ 물론 경영학과 특성상 엄청난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요하진 않으나 이것저것 시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환가시면 꼭 편하게

해결하고 오세요!

2. 경영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 1) **ppt 능력**: 경영학과에 오시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ppt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케팅 전공들은 ppt를 이용한 발표가 최소 한 번은 필수적이며, 심지어는 ppt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회계 과목에서도 저는 팀플이 있었고 ppt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고로 ppt를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다면 대부분의 팀플에서 한결 수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2) **영어 능력**: 이 부분은 아래의 학과 개별 질문에서 자세히 답하겠습니다.
- 3) **암기 능력**: 개인적으로 경영학과 전공의 경우 어느 정도의 암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케팅과목같은 경우 더욱 그러한데, 얼핏 보기엔 당연한 말인 것 같아 보여 외우는 데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교수님들께서 헛갈리도록 출제하시는 객관식 문제에서 실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을 전공하시면서 경영학과 전공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법학 과목의 학습량과 암기량을 견뎌 내시는 자유전공학부 학부생이시라면 경영학과 전공정도의 암기량은 대부분 무리가 없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D
- 4) **엑셀 능력**: 굉장히 부차적이지만 아주 간혹 경영학과에서 엑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과학같은 과목들이 그러한데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일 뿐(즉, 있으면 조금 유리하다 정도?) 필수적이진 않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엑셀 기본도 다루지 못합니다...)
- 5) **팀플 능력**: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영학과를 애기하면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또한 아래의 학과 개별 질문에서 상세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6) **발표 능력**: 다른 학과와 비교해서 경영학과 특이한 점은 학생들 개개인의 참여가

평가 기준 중의 하나이고 본인의 참여도가 학점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마케팅 과목의 경우 더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회계나 재무는 이런 부분이 덜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참여도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실 것입니다. 물론 성격상 이런 부분이 안 맞으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시험으로 커버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경영전략과 같이 참여도가 정말 중요한 수업이 아니라면 학점이 컷에서 간당간당할 때 컷 바로 윗 등급의 학점을 굳히는 용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 1) **사기업 취직:** 대부분의 경영학과 학생이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흔하면서도, 아래에서 언급할 진로들보다는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진로입니다. (물론, 취업의 난이도 또한 기업 by 기업인 경향이 심하므로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일부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경우 굉장히 취업이 어려우며 SKY 경영학과에서도 바늘 구멍에 실 넣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학 중 활발한 대외활동, 사기업 인턴 경험, 각종 자격증 등으로 갈 수 있는 회사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학점은 일반적으로 3점대 중후반 선만 되면 대기업 취직에 크게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높아서 나쁠 것도 없겠죠. 학점은 어떤 진로에서나 고고익선입니다!) 만약 사기업 취직을 고려중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학과에 열린 여러 경영학 학회들에 가입하셔서 활동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야도 재무금융, 회계, 마케팅, 경영전략 학회 등으로 여러 분야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는 편이며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의 학회에 가입하시면 본격적인 취직 준비 전에 더 실무적으로 경영학을 체험할 수 있어서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CPA(공인회계사):** 이 또한 많은 경영학과 학생이 선택하는 진로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난이도가 쉬운 진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3년 정도의 수험기간을 기본적으로 거친다고 알고 있으며 고시만큼이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하는 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해야 하는 분야 또한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아는 바가 없어 다른 인터뷰를 참고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로스쿨:**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생의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희망 진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후술하겠지만 경영학과생의 경우 학점에 있어서 타 학과보다는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솔직하게 경영학 자체가 로스쿨에 크게 접점이 있는 학문은 아니지만, 만약 후일에 변호사가 되어 기업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신다면 기업의 구조나 기업이 어떻게 작동하고 운영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다소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4) **경영대학원 진학:** 주위에서나 특히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에서 흔한 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한 후 경영학이 의외로 적성에 맞다거나 하는 경우 선택하게 되는 진로이며, 이 경우 석·박사 과정을 거쳐 교수의 진로를 희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학부 과정과 달리 대학원 경영학과생의 경우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어 선택하게 되니, 본인이 관심있으신 분야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전공분야와 비교하여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학문 분야는 재무학과 회계학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영어 시험들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 중 하나로 알려진 GRE에 응시하셔야 하며, 학점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 5) **행정고시 등 각종 고시:** 이 또한 경영학과에서 흔한 진로는 아니나 안정적이면서

고위직을 희망하는 경우 많이들 시도하게 되는 진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난이도는 위에서 언급한 여타 진로들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행정고시로의 진로가 100% 뚜렷하신 편이고 다른 진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실 정도라면 경영학과보다는 접점이 있는 타 학과에 진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과는 그나마 행정고시와 가장 접점이 크다고 합니다.)

- 6)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 취업:** 요즘 안정적인 직장이 많이 뜨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진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경우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은 고시에 준하는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합니다.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전공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스터디를 조직해서 꽤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고시와 다른 점을 꼽자면 경영학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 정도이겠습니다.

4. 경영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부분 자유전공학부생에게 가장 민감하신 부분일테니 최대한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노골적일 순 있으나 제가 체감한 바를 최대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위함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학점:** 학점은 비교적,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잘 주는 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문과대학 학과들이 학점을 잘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경영학과도 전혀 그에 뒤쳐지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경향은 공거리의 법학 과목이나 경제학 과목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과목에서 엄격한 상대평가를 고수하고 있는 또 다른 상경계열인 경제학과 혹은 통계학과,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절대평가이나 그렇다고 (일부 과목을 제외하곤) 학점을 크게 잘 준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법학 전공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강의에서 A+/A의 비율이 30%를 훌쩍 넘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으며, +만을 붙여주시는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 A+를 수강생의 절반 가까이 주시는 교수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ex. 정재웅교수님 투자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두 번 다 미디언(중간값)을 넘으면 A를 노려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극단적으로는 두 번 시험에서 평균만 넘더라도(일반적으로 경영학과 시험들은 미디언보다 평균이 훨씬 낮습니다.) A를 주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경영학과 교수님들의 경향이 대부분 그러한 점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의 강의를 영강으로 진행되다 보니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내고 있어 그런 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학점을 잡으면서도 상경계열이라는 메리트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경제학과, 통계학과와 비교하여) 경영학도가 가장 최적의 선택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학습량: 이 또한 아주 솔직하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부 과목들을 제외하곤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특히 얇은 수준에서 걸핍기와 같이 진행되는 전공필수 과목들은 교양 수준의 학습량이라고 얘기하는 학우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저의 체감을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경영학 전공 2과목 = 법학 전공 1과목 정도의 느낌이었으며 정말 극단적인 경우(즉, 법학 과목이 헬강이고 경영학 전공이 꿀강들로만 채워진 경우) 경영학 전공 3과목 = 법학 전공 1과목이라고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법학 과목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며, 단순 암기가 많은 부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과목들이 시험기간 1~2주 만에 베퉼치기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5. 경영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제가 실제로 수강한 과목 + 건너건너 괜찮다고 혹은 피해야 한다고 들은 과목을 최대한 아는 대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꿀강으로 유명한 과목이라도 본인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도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단 것은 절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꿀강이란 점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하던 기본적으로 열심히 임하셔야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추가) 이 강의 추천 자료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히 강사님들께서 개설하셨던 강의의 경우) 더 이상 열리지 않거나 당분간 열리지 않을 과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꿀강, 명강 트렌트는 언제나 빠르게 변하니, 제 추천에 의존하시기보단 최신 정보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꿀강 혹은 명강**

[전공관련교양 및 경제학 필수과목]

(1) 회계학원리 - 유용근 교수님(수강), 지승민 교수님

저는 유용근 교수님의 회계학원리를 수강하였는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교수님께서 첫 날 오티에서부터 '나는 학점을 짹짹 채워서 잘 줄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만큼 학점에 있어서 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회계학원리 중에서도 필수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서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교과서와 함께 ppt를 공부하시면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또한 객관식 30문제 정도로 부담이 없는 기초적인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교과서에 보면 각 단원 맨 뒤에 multiple questions가 따로 있는데, 딱 그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과서 문제들 중에 이 객관식 문제들만 풀어보고 시험장에 갔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문제은행이란 것도 존재한다고 하던데 풀어본 사람들 말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은행은 못 구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플립드 클래스 방식으로 주

1회만 현강 수업, 주 1회는 싸강 수업이라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단 점도 좋았습니다. (tip : 싸강 후에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동기들과 같이 수강하셔서 답을 맞춰보고 퀴즈를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까지 제출이 가능한데 한 번 제출해보고 틀린 문제는 정 모르시겠으면 구글에 문제를 그대로 복붙해서 검색하면 대부분 문제은행 형태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본인이 생각해보시고 너무 모르는 문제만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점으로는 가장 큰 게 교수님의 발음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야돌쓰가 뭔지 몰라서 엄청 고민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in other words였습니다. 하지만 에뛰리, 예자톨जू비포 등 특이한 교수님의 발음에 금방 적응되실테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그리고 회계에선 드물게 팀플이 있단 점이 단점일 수 있는데 크게 부담되는 팀플은 아니고 제출일도 종강일 이후라 종강 이후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금방 끝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중간고사 만점자를 팀플 조장으로 선정하시고 팀플 조가 항상 외국인 두 세명을 포함해서 랜덤이니 본인이 만점이라면 주의하세요!) 마찬가지로 회계학원리에서 가장 수강신청이 어려운 강의이며 수강신청에 성공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승민 교수님에 대한 얘기는 아래에 중급회계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2) 경제원론1/2 - 김석호 교수님(경제원론2 수강)

아무래도 학점 때문에 유명한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 개설되는 강의가 경영대 전용 경제원론 분반이며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생도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에 실패하셨을 경우 보통 대형강의이므로 정정 때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강생 중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 학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교수님이 착하시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경제학과의 경제원론 강의와 달리 경영대 분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느낌이라

스토리텔링식으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처럼 수업을 진행하셔서 수리적 센스나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도 단순암기로 시작해서 단순암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학점도 비교적 잘 나옵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은 우선 교수님의 필기에서 대부분의 시험문제가 출제되는데 교수님의 필기가 알아보기 힘들 때가 많고 특히나 대형 강의실에서 뒷자리에 앉으신다면 정말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경영대에는 기출문제나 필기가 대대로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는 그걸 구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또, 시험문제가 키워드 위주로 채점되어서 내용이 일맥상통하더라도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내용이 다 맞는데 0점인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단점이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시경제이론이나 거시경제이론을 수강하실 계획이 있는 경우 절대 수강을 비추천드립니다. 내용이 굉장히 얇고 경제학적인 지식보다는 경제학자, 경제학의 역사, 경제학의 사회 현상 등에 초점을 맞춘 다분히 경영학과스러운 강의이므로 딱 경제원론1/경제원론2만 수강하시고 더 이상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실 분들만 추천드립니다!

+2019년 추가) 2019년 2학기를 기준으로 김석호 교수님의 강의는 더 이상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작년 강의평이 크게 좋지 않아서 다른 학교로 거처를 옮기시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대체재(?)로 BISHOP 교수님의 경제원론1,2를 수강하는 것 같습니다.

(3) 경영통계 - 안철욱 교수님(수강), 정의범 교수님

두 분 다 자세한 건 아래의 오퍼레이션스관리에서 서술하겠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철욱 교수님의 경영통계의 경우 중간고사까지는 완전히 고등학교 통계의

기본적인 내용이며 기말고사의 회귀분석 등이 다소 새로운 범위이나 이마저도 깊게 들어가시진 않으셔서 괜찮습니다. 피피티에 나오는 예제나 교수님이 시험 직전 올려주시는 연습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2019년 추가) 안철옥 교수님의 수업 또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때 들었던 바로는 이제 박사과정 졸업을 위해 논문작업에 매진하시려고 더 이상 강의는 하지 않으실 계획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열리게 된다면 추천드립니다!

[전공필수]

(1) 마케팅원론 – Fang-Chi Lu 교수님

마케팅에서 가장 학점을 잘 주신다고 알려지신 교수님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대만 분이셔서 교수님의 영어 발음이 알아듣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팀플 조가 랜덤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잘 주신다고 유명하신 분이므로 만약 팀플 조 운이 없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강의를 수강하였기에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재무관리 – 황준호 교수님, 류두원 교수님(수강)

저는 류두원 교수님의 재무관리를 수강하였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재무의 기초 수준이었고 학습량 자체도 크게 많지 않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험 또한 A+는 칼절평을 고수하시지만 시험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단점은 교수님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 다소 듣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 아직은 강의를 연지 3학기밖에 되지 않으셔서 강의력이 무르익은(?) 정도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영어가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한국식 영어를 구사하신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자체는 시크해보이지만 너무 젊고 좋으신 분이었고 특유의 강의

스타일이 기억에 남는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에 검색해가면서 공부했고 마침 고려대 MBA과정에서 황준호 교수님의 재무관리를 수강하시는 분의 블로그를 참고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꿀팁을 추가하자면 학기 초 첫 시간에 모집하는 반장에 무조건 자원하세요! 가산점 받고 들어가면 아주 든든합니다! 하는 일도 칠판 지우기, 시험지 나눠주기 정도예요!)

황준호 교수님의 재무관리는 류두원 교수님의 강의와 기본적으로 내용 및 시험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류두원 교수님이 불과 몇 학기 전까지 황준호 교수님의 조교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난이도나 학습량에 큰 부담이 없으나 류두원 교수님의 강의와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강의를 수 십년간 진행하신 분이기에 강의를 다소 무르익으신 상태란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관리 중 가장 수강신청이 치열하고 인기가 많은 강의를 황준호 교수님의 재무관리이며, 만약 수강신청에 성공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019년 추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최근 황준호 교수님 수업이 흑화되었다고 합니다. 학점 염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시려면 조심하세요 ㅠㅠ

(3) 중급회계1 – 최우석 교수님, 지승민 교수님(수강)

우선 최우석 교수님은 '중회의 아이돌'로 불리시는 분으로, 수강한 동기의 말로는 수업 자체가 굉장히 명강이며 재미있고 난이도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회계학원리에서 조금 심화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학점도 꽤 잘 주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급회계 중 수강신청이 가장 치열한 강의이며 수강신청에 성공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승민 교수님의 중급회계를 수강하였는데, 우선 교수님의 수업의 장점으로서는 차근차근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진도의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으며 속사포로 설명하고 '너가 알아서 필기해라'는 식이 아닌 하나하나 친절하게 학생들 속도에

맞춰 함께 적으면서 필기를 해주십니다. 교수님과 조교님도 상냥하셔서 질문도 친절하게 잘 받아 주십니다. 또, 학점도 굉장히 잘 주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평균만 넘거도 A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필기를 맨 왼쪽 칠판에 하셔서 지정좌석에서 좋은 자리를 점하시지 못하면 다른 학우분들 머리에 가려 한학기 내내 고생하실 수 있단 점입니다. 저는 무조건 맨 왼쪽 분단 두 번째 줄 끝 자리를 강추드립니다. (제가 고생중인지라...) 그리고 주관식 문제가 꽤 출제되고 난이도 있는 문제가 주관식에서 나오는 편이라 객관식으로만 회계를 접한 저로서는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수준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오퍼레이션스관리 - 안철욱 교수님(수강), 정의범 교수님, 임희주 교수님

우선 제가 수강한 강의는 안철욱 교수님의 오퍼, 일명 '옥퍼'인데요. 장점으로는 교수님이 친절하시고 착하셔서 얼핏 보기엔 좀 같으시긴 하지만 굉장히 예리신 분이라 학생들의 출퇴 등에 굉장히 크게 상처받으십니다. (교수님이 너무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받아주시고, 학생들 입장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시험문제도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었고 내용도 어렵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또, 시험 직전에 exercise를 올려주시는데 그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시험이 출제되어 exercise만 제대로 익혀도 시험에서 괜찮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학점도 칼절평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커브를 넣으셔서 굉장히 잘 주시는 편입니다. (90점 이상 A+ 이런 식으로 최대한 커브 넣으세요!) 다만 단점으로는 교수님이 영어를 조금 힘들어하신다는 점이 있겠고요. Exercise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주관식 계산문제와는 달리 객관식의 경우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엽적으로 출제되어서 ppt를 다소 꼼꼼히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도 객관식 조금 실수하셔도 그걸로 A+가 위험해지거나 하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주변의 의견에 따르면 정의범 교수님과 임희주 교수님의 오퍼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임희주 교수님의 경우 교수님 자체가 굉장히 친절하고 좋으시다고 하네요. 정의범 교수님도 기말고사가 다소 어렵지만 꿀강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수강하지 않은 관계로 더 이상의 코멘트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9년 추가) 안철옥 교수님에 대해선 위에서 언급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강의 개설 x)

(5) 경영정보시스템 – 홍세준 교수님, 함주연 교수님

MIS에서는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수강신청 경쟁이 치열하며 저도 수강신청에 실패하여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했습니다. 최대 장점으로선 중간고사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번에 수강하지 못해서 정확한 평가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현재 수강중인 친구의 말을 전달받아 내용을 추가합니다.

장점 : 중간고사 없음, 팀플 가벼움, 출석체크 별로 안 하며 출석 비중 적음

단점 : 한 학기 분량을 기말고사에 모두 보는 만큼 기말고사 범위가 방대함, 기말고사 한 방이라 다소 리스크가 있음

+2019년 추가) 요즘 경정시의 대세는 함주연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들어보질 않았고 동기들 중에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서 자세한 평가는 어려우나 교수님이 좋으시고 학점을 잘 주신다고 하네요~

(6) 조직행동론 – 이목화 교수님, 권성우 교수님

조직행동론에서 가장 인기 많으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친절하시고 좋으시다고 합니다. 영강이 아니라 국강이란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나 수강신청이 치열합니다.

+2019년 추가) 이목화 교수님 또한 더 이상 강의를 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권성우 교수님 수업도 추천하는 걸 주위에서 들었는데 학습량은 매 시험마다 원서 200페이지 정도로 좀 많지만 학점은 잘 주신다고 합니다.

[전공선택]

전공선택의 경우 아직 많이 수강한 상태가 아니라서 자세한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기있는 전공선택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릴테니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광고론 (Fang-Chi Lu 교수님, 최진희 교수님)
- (2) 경영과학 (박경삼 교수님)
- (3) 마케팅조사론 (김재환 교수님)
- (4) 기업가치평가 (유용근 교수님)
- (5) 기업재무 (황준호 교수님, 류두원 교수님)
- (6) 선물옵션 (김도완 교수님) : A받기 굉장히 쉬운 과목으로 유명합니다!
- (7) IT혁신관리 (홍세준 교수님)
- (8) 유통관리 (김상용 교수님)
- (9) 투자론 (정재웅) – A+ 50%, B+ 50%로 채워주시는 전설의 학점폭격기...
- (10) Topic Course (신명철 교수님)

<헬강>

(1) 국제경영론, 경영전략

사실 헬강이라고 해도 전공필수라서 언젠가는 수강하셔야 합니다. 두 과목은 인기 강의가 명확한 다른 전공 과목들에 비해서 특별히 꿀강이거나 명강이라고 할 만한 강의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팀플이 굉장히 많고 빠센 편이며 팀플 때문에 헬강으로 분류되는 강의들입니다. 다만 작은 팀이 있다면, 교환학생을 가실 계획이 있으실 경우 위 두 과목은 교환하는 학교에서 수강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영대 교환학생들이 경영전략을 교환학생 시기에 수강하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수강하는 강의보다 팀플의 부담이 훨씬 적은 편이고 학점 또한 pass/fail 방식이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교환학생을 가신다면 위 두 과목은 꼭 수강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추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위 두 과목 특히 경전은 교환가면 꼭꼭꼭꼭 듣고 오세요.

(2) 중급회계2, 관리회계, 세무회계, 고급회계 등 전공필수가 아닌 회계 전공과목

회계학원리, 중급회계1 등 필수과목이 아닌 회계 전공과목들은 대부분 영강이 아닌 국강으로 개설되므로 잠시 훑을 수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CPA 합격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CPA들의 싸움이며 만약 CPA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수강하시게 된다면 양학의 희생양이 되실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연유로 저는 전공필수가 아닌 다른 전공선택 회계과목은 본인이 회계학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피해야 할 강의는 몇 개 있지만 공개적으로 적는 것이 교수님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적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강한 강의 모두 자전 다른 반 학우분들도 많이 수강한 강의이니 이 부분은 친한 선배에게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풀강에서 흑화한 과목으로 유명한 과목 (ex. 글로벌CEO특강, 황모 교수님

6. 경영학과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1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1) **경영학과 관련 공지사항:** 타 학과와 달리 경영학과의 경우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생은 페이스북 그룹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톡방 또한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단체 카카오톡이 개설되어 있으니 경영대 사물함 등 기본적인 공지들은 그 곳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을 통해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대학의 경우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의 공지는 경영대학 홈페이지(biz.korea.ac.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 학과에 비해 경영대 행정실 차원에서 문자로 공지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서 장학금, 기업 채용 공고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지는 포털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의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저는 공지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자전으로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 이익이라고 할 건 당연히 없지만 그렇다고 불이익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딜 가나 있는 텃세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공개적으로 표출하거나 기분 나쁜 일을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대학 교환학생 등 대부분의 혜택도 자전 경영생에게는 열려있는 상태라 크게 불편함을 느끼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족보나 대대로 내려오는 필기 등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자전 경영에 진학한 선배들이 많은 편이고 나름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편이라 선배 버프를 이용하신다면 괜찮으실 겁니다.

+2019년 추가) 오히려 이익을 적자면 공거리 중 경제학과 과목의 경우 경영학과에서

이수해야 하는 경제원론1, 2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굳이 경제과목을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제1전공 학우들과의 친밀도: 사실 자유전공학부의 고질적인 고민거리이긴 하지만, 제1전공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팀플로 친해지는 경우를 조금 봤었고, 더 깊은 친밀도를 원하신다면 경영대학 학회 등에 가입하시면 경영대생들과 친분을 쌓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경영대학 학우들과 친해지지 않아도 자전에서 같이 경영학과에 진학한 친구들이 많아서 강의를 맞춰 듣고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별질문>

1. 영어와 수학은 얼마나 잘 해야 하나요? 영어와 수학 능력이 많이 요구되나요?

1) 영어: 어느 정도의 영어 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강의가 영강으로 진행되며 마케팅 과목들의 경우 영어로 발표하고 에세이를 쓰는 팀플이 꼭 포함됩니다. 다만 교수님들께서도 크게 어려운 영어를 구사하지 않으시고 영어에 능숙한 교수님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된 ppt를 읽고, 영어로 된 교과서를 독해하고, 영어로 몇 페이지의 짧은 페이퍼를 쓰고 발표하는 것에 부담이 없는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영어를 싫어하고 소질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외고 출신이 아니더라도, 토플이나 텡스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실 정도의 영어 실력이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수학: 저는 경영학과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서 하나가 수학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우선 직접적으로 수학이 쓰이는 부분은 경영통계 정도이며 그 외의 강의에선 수학적 사고가 거의 요구되지 않습니다. 경영통계에서 쓰이는 수학도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교 통계의 아주 조금 심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에서

등장하는 수학은 대부분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등의 사칙연산이며 그마저도 시험에서 계산기가 허용되기 때문에 계산기만 잘 다루시면 됩니다. 그 외에서 제가 수학을 써본 건 재무관리에서 등비수열이나 무한등비급수의 합의 공식 정도가 거의 최대인 것 같습니다. 경영수학 등의 전공선택을 일부러 본인이 찾아서 수강하지 않으시는 이상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일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전형적인 수학을 매우 싫어하는 문과생이지만 잘 버텼습니다!)

2. 경영학과에서 팀플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하는 경우도 많나요?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많이 힘들까요?’

사실상 경영학과가 자유전공학부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학과를 통틀어 가장 팀플이 많은 학과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마케팅 전공과목의 경우 마케팅원론부터 심화된 전공선택 과목까지 대부분이 팀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경영전략과 같은 경우 팀플로 점철되어 팀플로 시작해서 팀플로 끝나는 수업입니다. 회계나 재무를 들으면 팀플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제가 본 경우 회계나 재무 과목의 경우에도 팀플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MIS, 조직행동론과 같은 경우도 팀플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정말 솔직하게 경영학과에서 팀플을 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팀플이 없는 과목도 꽤 있는 편이니, 한 학기에 경영 전공 서너 개를 수강하신다면 그 중에 두세 개 과목의 팀플이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두 과목 빼곤 모두 팀플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학우들 중에도 팀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 외국인 학생이 아닌 단기성 교환학생의 경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팀플 조가 랜덤으로 배정되는 강의라면 외국인이 조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제가 겪은

극단적인 경우는 저희끼리 조를 짜서 갔는데도 교수님께서 외국인 학생이 조를 구하지 못했다며 저희 조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때까지 모두 좋은 팀원들을 만났었고 외국인 학우가 다소 비협조적이어도 저희끼리 으쌰으쌰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팀원만 잘 만난다면 외국인 학우와의 팀플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팀플로 학점이 좌우되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 편이시라면 경영학과 진학은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이 부분을 진학 전에 많이 고민했었는데, 팀플 조를 저희가 짤 수 있는 경우 동기들과 같이 수강을 신청해서 어느 정도 극복했고, 독강에서 랜덤으로 배정된 경우에도 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소위 '캐리'받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많으십니다!) 혹시나 팀플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을 잘 치면 극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팀플때문에 경영학과 진학을 후회하거나 한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cf) 만약 어쩔 수 없이 독강이 된 경우라도, 조를 본인이 직접 짤 수 있는 강의라면 에브리타임이나 고파스 등을 활용해서서 팀원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곳에서 팀플을 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랜덤 조 배정을 받았을 때보다 팀플이 실패할 리스크가 적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 고파스에서 만난 팀원들과 팀플을 하고 있는데 다들 너무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라 제가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3. 경영학과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모르겠다, 혹은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문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경영학이 '상식을 어렵게 패러프레이징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생기는

오해같습니다. 물론 '학문'의 의미를 응용학문이 아닌 순수학문으로만 간주하신다면 얼핏 보기에 경영학은 학문으로서의 요건이 결여된 학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한 경영학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정교화되어 있고 학문적인 전문성을 갖춘 부분이 더 컸었습니다. 특히나 회계학이나 재무금융의 경우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상당히 정교화가 이루어진 상태라 학문으로서의 전문성이 다른 전공들에 비교해서 우위에 있었으면 있었지 전혀 뒤쳐지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당연한 말을 어렵게 해 놓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마케팅 분야도, 심리학 등의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와 방대한 연구조사 및 검증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정교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경영학이 제가 접한 그 어떠한 학문보다도 더 '살아있는 학문'같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 능동성만큼은 모든 학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라고 느꼈습니다.

4. 경영학 중 특정 관심분야만 공부할 수도 있을까요?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커리큘럼 분야에서 서술하였듯이, 경영학과는 전공필수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공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회계랑 정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계학원리와 중급회계1은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하며, 본인이 아무리 마케팅이 좋다고 하더라도 전공필수로 지정된 다른 과목들을 피할 순 없습니다.

다만 반은 그렇지 않다고 한 부분은 전공필수 외에 전공선택만큼은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 마케팅 과목만을 수강하고자 한다면 전공필수를 모두 이수하고 그 외에 전공선택 15학점을 마케팅조사론, 소비자행동, 광고론, 국제마케팅론, 마케팅전략 등의 마케팅 과목으로 모두 이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관심분야만을 더더욱 깊게 학습하시고 싶으시다면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경영학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안전한 선택으로서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러한 이유로 경영학과를 선택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비슷한 이유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교들을 모두 사회과학계열의 학과들로 지원했던 만큼 수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경계열을 기피하고 싶어했고 원래 경영학 자체에 크게 흥미가 있는 편은 아니었으나 대학교에 진학한 후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 (학점, 진로 선택의 다양성, 재정적 지원, 학습환경 등)로 경영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히려 경영학과 진학 이후에 경영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제 적성에 맞는 학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유의 active한 성격이 제 성향과 잘 맞았고,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공부보다 더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타 학과와 비교해서 경영학과가 가장 호불호가 적은 편이었으며 비슷한 이유들로 경영학 전공진입을 한 경우이더라도 무리없이 잘 따라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본인이 정말 경영학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혹은 다른 확고한 희망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강요나 현실적인 이유들로 반강제(?)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아주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아주 드물게 비슷한 이유로 경영학과를 선택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후회하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2019년 추가: 그리고 실제로 내년 졸업을 앞둔 지금 그 친구들 대부분은 다른 진로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만약 현실적인 이유들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시더라도, 본인의 적성에 아주 잘 맞진 않더라도 적어도 거부감이 있을 정도는 아닌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학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만류 때문에 억지로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공선택은 한 순간이지만 전공과 학점의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니고, 로스쿨이나 고시 등으로 다른 길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 자신의
전공에 따르는 진로를 평생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큼니다. 자유전공학부생의 경우
이중전공 선택의 기회도 없으므로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서술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선배님께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 안정적인 학점 수급: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경영학과는 학점을 비교적 잘 주는
학과입니다. 저는 학점이 매우 중요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고 안정적인 학점 수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학점을 잘 주지 않기로 유명한 학과들은 가급적 피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전공진입한지 두 학기도 안 되었지만 안정적인 학점 수급의 목적에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추가) 3학년이 끝나가는 지금, 학점 수급 목적에는 여전히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재정적 지원: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경영대학은 자유전공학부에서 선택한 단과대학 중
가장 재정적 지원이 풍부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협정교의 경우도 국제처 교환학생으로는 갈 수 없는 대학교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경영학과 (자유전공/복수전공 포함)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국제처 교환학생에 비해 훨씬 낮은 편입니다. 이 외에 단과대학 차원의
자체 장학금도 풍부하며, 학과 차원의 대회나 세미나, 졸업생 멘토링데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이러한 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2019년 추가) 특히나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성적 우수를 이유로 이 때까지 몇

차례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조차 신청해본 적이 없는 상태여서 처음엔 의아했으나 경영대에 들어온 장학금 예산을 모두 배분하고 남은 걸 성적 최우수자 (4.5 혹은 3학점 한과목 A인 4.42정도까지)들에게 나눠준 것 같았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였고 주위 타과 친구들에게선 이런 애길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걸 보면 재정적으론 정말 풍족한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3) 학습 환경: 저는 개인적으로 4년 동안 학교를 재학함에 있어 학습 환경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는 고려대학교 인문계캠퍼스에서는 가장 최신식의 깔끔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과 차원의 건물만 3개(경본, 현차, 엘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청결하고, 개인적으로는 각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다는 것, 의자가 편한 기능성 의자라는 것, 화장실도 넓고 청결하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7. 경영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1) 만족한 점: 첫 번째로 만족스러운 점은 위에서 서술한 모든 사항입니다. 이에 더해서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과정 등에서 느낀 바로는 일 처리의 속도나 정확성 또한 이 때까지 봐온 단과대학 혹은 학교 소속의 행정실 중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초대형 단일 학과이자 독립학부인만큼 운영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단과대학 건물이 반실이 위치한 법학관 구관이나 법학 강의 대부분이 개설되는 법학관 신관과 가깝다는 점도 의외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를 연강이어도 15분 안에 충분히 오갈 수 있으며 화장실까지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현대자동차경영관 2층과 3층에서, 또 LG-POSCO경영관 5층에서 경영본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연결되어 나온 경영본관에서 3층 끝으로 가시면 바로 앞이 중앙도서관이고, 이 루트로 법학관 건물에 오르막없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2) 아쉬운 부분: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영학과 자체에 섞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점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는 경영대학 친구 한 명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죽보, 필기, 강의 정보 등)

8. 경영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없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 경영학과에 인맥이 없다는 점이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들과 스터디도 하고 필기도 구해보고 서로 필기도 공유하고 수정해주고 하면서 함께 잘 극복해 나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가 발표에 소질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만 서면 굉장히 말이 빨라지고 당황하는 성향이 있어서 발표하다가 가끔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80명 앞에서 영어로 발표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학점도 괜찮게 나오고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크게 중요한 점은 아닌 듯합니다!

+2019년 추가) 사실 이때까지 크게 어렵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번 학기 듣는 팀플지옥 과목의 경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과목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 않겠으나 참 쉽지 않네요... 하하.... 그래도 이 팀플 끝판왕 과목 하나(경*전*)말곤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9. 경영학과는 정말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가요? 보통 얼마나 로스쿨로 진학하나요?

우선 경영학 학문 자체가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흔히 알려진 잘못된 오해로는 '상경계열이 로스쿨 진학에 유리하다'라는 속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상경계열의 인원이 많아서 진학자가 많아 보여 발생하는 현상이지 (넓게 보면 고려대학교에만

상경계열로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가 있습니다. 이 숫자만 합쳐도 한 학년에 500명은 훨씬 넘어갈 것입니다.) 상경계열이 절대적으로 비상경계열에 비해서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경영학과가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는 학점 인플레이 경향 때문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는 절대평가 방식 등으로 인해 학점을 굉장히 잘 주는 학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에서 학점을 가장 잘 주는 단과대학은 경영대학과 문과대학입니다. 실제로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뿐 아니라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도 4점대의 학점을 보유한 사람들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으며 4.4 이상의 초고학점자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경영학과가 로스쿨 진학에 유리하다는 점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경영학 자체는 로스쿨 진학에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로스쿨로 진학하는지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의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생이 매년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년도(2018년도)에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자가 6명이었는데, 그 중 한 선배님이 경영학과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로스쿨과 관련해서 필요한 스펙이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은 로스쿨을 생각하고 계신 후배님들이라면 이미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남은 3년 간 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겠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듯 로스쿨 진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점과 리트(학토릿 혹은 학텡릿 중 학과 리트)입니다. 자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점은 일반적으로 4점대 중후반의

학점을 보유해야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최소한 90점 중후반의 학점을 갖고 계셔야 로스쿨 진학 시 학점에 있어 불리한 점이 없으실 것입니다. (100점 환산 학점은 포털의 전체성적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트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논외로 하겠습니다만, 리트에 도움이 된다는 도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빠서 읽지 못하고 있는데 교환학생 중에 쉬면서 읽어볼까 고민중입니다. (+2019년 추가: 라고 해놓고 평평 놀다온 건 안비밀...ㅎ) 메가로스쿨 등의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영어는 제가 알기로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PASS/FAIL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자교 로스쿨 입시설명회에서 올해(2019)에 들은 바로는 아주 뛰어난 어학성적(거의 토플 120에 수렴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아니라면 정성요소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11. 경영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의외로 질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질문에 없어서 한 가지만 자발적으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후배님들께서는 경영학과의 학점 컷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될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17학번)으로 제가 본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진학자 중 가장 저점인 학점은 3.8 후반대였으며, 경영학과 탈락자 중 가장 고점인 학점은 3.7 후반이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3.8x 선에서 학점 컷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추가 및 수정) 라고 한 후 작년 전공자료집에 '따라서 4점대 이상이면 발뻘고 자도 된다, 3점대 후반이 경합권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작성했었는데, 설마설마 했는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전해듣기론 작년 학점 컷이 4점대를 훌쩍 넘겼었다네요. 우선 제 말을 듣고 안심하고 지원하셨다가 광탈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나름의 변명을 해보자면, 우선 저희 학번의 법학통론의 경우 학점이 딱 비율을 맞춰서 주는 칼상평이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민법과목이 나름 학점을 잘 준다는 무크로 통일화되는 경향이 없었고 여러 과목들로 분산되어 있어서 학점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니다. 현재 글쓰기와 자정진으로 대체된 소위 '사표1,2(사고와 표현)' 또한 17학번까지는 칼상평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학점 인플레가 더욱 심해진 이유는 18학번들이 수강한 과목들 중 법학통론 에이쁠 폭격, 민법 무크로 대동단결, 자정진 학점 폭격등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경영학과 학점 컷이 4점대를 넘겨도 안심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네요...

다만 이러한 분석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기반한 것이고, 변수는 언제나 존재하므로 소신껏 1지망으로 지원하시되 경합권 혹은 소신지원권에 자신의 학점이 놓여 있다면 2지망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의 자료를 토대로 어디까지나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참고용으로만 말씀드린 것이니 너무 맹신하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외는 있듯이, 예전처럼 3.5까지도 무난하게 진학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매년 케바케입니다! +2019년 추가: 라곤 적었으나 이젠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컷이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나 '절대'라는 건 없지만 아마 계속 4점대는 방어할 것 같네요ㅠ)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경영학과에 진학한 것이 제가 당시에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경영학과에 100%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대안은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까지도 경영학과 진학을 후회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주저 없이 경영학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이 큰 만큼 어느 정도 단점도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충분히 버티고 헤쳐 나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큰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영학과의 진학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저는 부딪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그 과정은 어렵지 않으며 저처럼 다니면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경영학과로의 진학이 모든 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여타 인문계열 학과들과 비교해서 취업 등에 있어 가장 우위에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어떠한 것도 부단히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과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 모두가 현명한 전공 선택을 통해 주변 환경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D

(2) 14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복금태 선배

<공통 질문>

1.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영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다른 인터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경영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경영학은 적성을 많이 타는 학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입니다. 또 기업과 경영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면 배울 것도 많습니다. 다만 팀 과제(발표)를 좋아하시지 않거나 영어를 못하신다면 학점을 따거나 수업을 따라가는 게 힘들실 수 있고, 기업과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이런 사람이 이 과에 잘 맞는다!**

- ① 기업, 창업에 관심이 많다 ② 영어를 잘한다 ③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다
- ④ 숫자를 다루는 일에 익숙하다 (수학을 잘한다/ 계산이 빠르다) ⑤ 아이디어가 많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경영 전공을 선택하신 많은 자유전공학부 선배님들은 사기업, 금융공기업, 은행 등에 취업하셨습니다.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계리사, 감평가 등 전문직 시험도 많이 준비하셨고, 많은 선배들이 합격하셨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신 선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학도라면 '공인회계사' 자격증 준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영대학에서 준비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뿐더러, 학교수업을 병행하며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기 아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 회계학원론을 들어보고 회계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지 확인해보지 못한 학우가 있다면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에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회계학원론 강의를 한번 수강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계사에 전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회계학 특성상 한번 딱 '종이 울리는'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진 잘 이해가 되지 않다가 그때부터 이해가 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 예습해본다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 CPA에 대한 정보

1) CPA의 기본정보

기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 CPA 준비과정, 휴학 시점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특정 교과 이수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2학년 또는 3학년을 마치고 진입을 많이 하곤 합니다. 또한 '유예 제도' (*참고: 1차 합격 후 2차에서 떨어지면, 다음 1차 시험 및 2차 교과 중 일부 면제)가 있어서 졸업 직전에 준비하는 것보다, 학기를 남겨 두시고 준비하다가 2차에서 떨어졌을 때 남은 학기를 다니면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CPA 취득 시 로스쿨에 도움이 될까요?

금융 등의 전문 변호사로 취업할 때 유리하므로 로스쿨 입시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요소(법학적성시험, 학점)가 중요해졌고, 법학 실력(변시 합격 가능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그 유리한 정도는 과거 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다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4. 경영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고려대학교는 학점을 후하게 주는 학교입니다. 경영대학은 고려대학교 내에서도 학점을 잘 주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영대학에 절대평가 방식인 영강이 많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어서, 현재 경제학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인문계 전공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 이상, 더 이상 경영대학이 다른 인문계 학과에 비해 학점을 잘 주는 대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경제학과를 제외한 인문계 어느 전공을 선택하든 학점 취득의 수월성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5. 경영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꼴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6. 경영학과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1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경영대학 학회, 동아리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배가 경영학부 학회에 소속되어 활동 중입니다. 경영대학교 홍보대사(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mbassador = KUBE) 리크루팅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영대 학생회 자치단체 또는 경영대학 소속

단체에서의 활동에 있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는 한 학번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자유전공학부 출신 선배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족보나 팁은 선배들을 통해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정도 인원이면 경영대학 출신 경영학과를 전공하는 학생과 족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전혀 불이익이 없는 인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 학생들도 서로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클루를 통해 쉽게 강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파스/에타 등을 통해 자료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정보 부족 문제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팀플 조원을 직접 구해야 하는 강의라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테니, 자유전공학부 출신 동기·선후배들과 함께 진입하시면 그런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강이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팀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고, 만약 팀원을 못 구하면, 교수님께서 임의로 조를 짜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조 배정이 되면, 출신 학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팀 과제 기여도가 높으면, 조원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고, peer evaluation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우수한 학점을 받을 것입니다.

<개별 질문>

1. 영어와 수학은 얼마나 잘 해야 하나요? 영어와 수학능력이 많이 요구되나요?

1) 영어: 경영학과에 진학한다면 영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염재호 총장님이 국강을 절평으로 전환해서 그렇지, 과거에 국강과 영강 간에 같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학점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소 완화된 감은 있지만 영강이 학점을 받기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영대 영강 특성상(회계, 오퍼레이션 등 몇 개 제외) 시험문제가 영어로 출제됨은 물론이고, 수업시간의 토론 참여, 발표 점수 같은 것들이

누적되어 학점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좋은 학점을 받기 불리합니다. 반대로, 영어를 잘한다면, 영강 위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신다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예비 경영학도들에게: 토플 텡스 등은 나중에 교환학생 갈 때나 3학년때, 바짝 준비하시고, 시간 많으실 때 영화(드라마)나 책을 많이 읽거나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짜서 공부하길 권해드립니다. 영어는 놓지 마시고 지금부터 졸업 때까지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영어만 잘해도, 졸업 후 취업 기회(혹은 로스쿨 졸업 후 취직 기회)가 매우 많아집니다.

2) 수학: 수리능력 및 표 그래프 이해 능력이 뛰어나면 사회과학 어느 분야에 진입해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에서도 숫자 및 표 그래프를 다루는 교과들이 많으므로 탁월할 것 까진 없지만 기본적인 수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전공 및 선택교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실 수 있고, (고대에 입학할 정도면 사실 이정도 능력은 이미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수리 능력이 탁월하다면,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심화 교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학년 기준으로 보건대, 세계와 한국경제, 경제원론 1, 2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수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이에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1) 경제: 규모의 경제, 비교우위, 탄력성, 한계비용, 단리·복리 등 경제학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경영학에서도 배우긴 하므로 경제 지식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수업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긴 합니다. 또한 경영전략이나 마케팅 수업 등에서 기업 환경 분석을 할 때 Macro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는데, 그때 거시경제/국제경제 지식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경영학과에서 경제 지식을 깊이 배우진 않으므로(겉치는 영역이 적으므로) 반드시 경제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영학과에서 팀플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 학우들과 팀플을 하는 경우도

많나요?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많이 힘들까요?

거의 모든 수업에 1~2회 이상 팀플이 있습니다. (지금 듣는 경영전략은 팀플 5회..) 보통 팀플은 팀 발표(PPT), 팀 과제(레포트), 토론 등으로 구성됩니다. 점수 비중 100점 만점 중 40점 내외 (그보다 다소 적거나 많은 경우도 있음)를 팀플 결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프리라이더를 방지하기 위해서 팀플이 끝난 뒤 Peer evaluation을 진행하여 성적에 반영합니다. 한편 팀 발표나 토론의 경우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점수를 매겨 평균점수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굉장히 피 말리는 팀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팀 발표나 토론에서 학생들의 평가 점수가 성적에 반영되는 경우, 영강이라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셔야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경영학과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모르겠다, 혹은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문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을 겸손하지 못한 자의 지적 허영심의 발로, 혹은 지적 태만에서 기인한 오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학(學)이고,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것이 문(問)입니다. 경영학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강의 자료를 넘어서 내용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고, 분석/종합해보고, 다른 각도에서 고민해보고, 실천해보고, 성과를 내 보는 등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깊이 있는 학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 바로 경영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이 학문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경영학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적성 부족 내지 지적 태만을 애써 감추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4. 경영학 중 특정 관심분야만 공부할 수도 있을까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5. 경영학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안전한 선택으로서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기술하였듯 경영학도 기업에 대한 흥미만 있다면 4년을 알차게 공부할 수 있고, 배울 것도 많은 학문입니다. 본인 전공에 흥미가 없으면, 경영학을 제외한 어떠한 학과에 가도 회의감과 공허함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즉, 공허함과 회의감의 원인은 경영학이란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영학에 대한 적성과 관심의 여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독 경영학에 대해 이러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은 아마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순'으로 경영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영학에 흥미와 적성이 전혀 없는 분은 경영학사 취득이 가져다주는 이익과 전공 불만족에서 오는 각종 손해를 비교해 보신 뒤, 신중하게 경영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법전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만 놓고 보았을 때 경영학 전공 선택이 법전원 진학에 유리한 점이 크진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법학 공부 방법과 유사한 경제학과 등에 진학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있어 기업과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 경영학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점 측면에서는 영강의 비율이 높아 유리했었지만, 지금은 경제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이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무의미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유리함에 현혹된 나머지 남은 학기 동안의 '후회' 혹은 적성에 맞지 않아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 선배님께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7. 경영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 1) 장점:** ① 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② 경영대학의 부대시설이 다양하고 좋다. ③ 경영대학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경영대 전용 교환학생, 인턴쉽 등)이 다양하고 좋다. ④ 교과목이 다양하므로 자기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경영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볼 수 있다. ⑤ 중간/기말 고사만 놓고 봤을 때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비교대상: 경제, 법) ⑥ 평가 과정이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예: 95점 이상 A+, 90점 이상 A, 85점 이상 B+ 등)
- 2) 단점:** ① 수시 과제와 퀴즈가 많다. (예: 퀴즈 10번 중 9번 평균점수가 중간대체 점수) ② 수업자료가 주로 ppt인데, 압축되어 서술되어 있으므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많은 노력(예 : 교과서에 찾아보거나 질문을 하는 등)을 들여야 내용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③ 팀 활동과는 별개로 팀 평가 방식이나, 학생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은 공평에 반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8. 경영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9. 경영학과는 정말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가요? 보통 얼마나 로스쿨로 진학하나요?

경영학만 공부하고 법학 등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공부방법이나 배우는 내용이 법학의 그것들과 괴리가 크므로 다른 사회과학 전공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공공거버넌스와리더십 융합전공을 필수로 이수하므로, 이런 불리함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기업 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는 그것과 관련된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리한 정도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기술한 경영학과에 적합한 인재상을 가진 학생은 좋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학과에서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을 때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영대학은 학점이 후하게 부여되는 영강이 많이 개설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정량 점수를 올릴 수 있어 로스쿨에 진학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이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학점에서의 유리한 정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 진로를 위해 필요한 스펙이 있을까요?

어느 분야든 해당 분야의 기초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역량 향상에 더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격이 부여되는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동기와 영감을 주는 활동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심분야의 논문 공모 참가, 자격증 취득, 모의재판/조정/중재, 토론 대회, 창업대회, 사례분석/발표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려대학교 및 자유전공학부가 추구하는 “공공인재상”에 걸맞게 공동체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활동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과 자기통제를 통해 “공적 마인드”를 함양해 가야 합니다.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공적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활동이므로 추천합니다.

저명한 경영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회사 등에 취직하면 학부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 보다 앞서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면 다른 학과 학생들이 업무에 익숙해지기 때문에(야간대학원 6개월 과정이면 다 배운다고 합니다), 금방 그 경쟁력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른 전공 학생들 예컨대,

철학/정치와 같은 인문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살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결국 이런 학생들이 고위 관리자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영대학 전공을 선택하실 학우라면, 단기간의 우위를 가져다주는 단편적인 학부 전공 지식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게 경영학을 공부해보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문학적 지식을 쌓고,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양질의 도서 위주로 <독서>를 많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1. 경영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선택에 있어 많이 고민하는 케이스 (경제학과 진학 대 경영학과 진학)에 대한 제 견해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는 경제학과 창업 둘 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영학의 경우 경제학만큼 많이 공부해본 적은 없지만, 고등학교 때는 물론 대학생이 되어서도 교내외 창업대회나 창업아이디어 대회, 관련 대외 활동 등에 꾸준히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를 선택할지, 경영학과를 선택할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겪었던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4학년이 되어서도 꾸준히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1) 유형 1: 진로 계획이 전혀 없다(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必)수리능력이 탁월하다 + (必)성실하다 + 적극적인 수업 참여 혹은 팀플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학자형 스타일의 공부를 좋아한다)

☞ **경제학과 추천** (∵ 법전원 및 취업에 유리, 적성에 맞춤)

-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에서도 특히 수학과 표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는 전공입니다.

경제학원론에 속지 마십시오. 수학이 싫으면 가서 고생만 하거나 주류 경제학은 배워보지도 못하고 소위 '유사경제학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제가 많고 중·기말 준비에 큰

노력이 요구되므로 경제학과 진학에 앞서 자신이 성실한 학생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에게 비추천.

(2) 유형 2: 진로 계획이 전혀 없다(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必?)영어를 잘한다 + (必)성실하다 + (必)적극적인 수업 참여, 팀플이 적성에 맞다

☞ **경영학과 추천** (∵ 법전원 및 취업에 유리, 적성에 맞음, 경영대학 부대시설 및 지원 多)

- 수리능력이 탁월하다면 유리하겠지만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어는 '영강' 수업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영미계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할 필요까진 없지만 적어도 일상 회화 및 에세이 쓰기 정도는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국강만 들을 계획을 가진 학생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위에 기술한 것처럼 영강비율이 많고, 영강이 같은 노력으로 좋은 학점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실함이 요구되는 이유는 과제와 팀플 퀴즈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영 전공 교과를 학기마다 평균 3~4개 정도 듣게 될 텐데, 한두 번 구멍이 나면 중간·기말고사로 메우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팀플이나 퀴즈 비중이 크기도 하거니와, 중기말 성적 격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학은 수업 참여 및 팀플, 토론이 많으므로 이런 식의 수업방식이 싫다면,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 적극적인 수업 참여 또는 팀플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학생에게 비추천.

(3) 유형 3: 법전원 등에 가야 한다 (학점을 매우 잘 받아야 한다) + 적성을 모르겠다

① 수학과 영어도 자신 있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 및 팀플이 적성에 맞는 경우

☞ **경영학과** (∵ 같은 노력대비 높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② 수학과 영어에 자신이 없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 및 팀플레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 **경제학과** (∵ 경영학과에서 팀플레이와 영감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함. 경영학과 진학 시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할 가능성 농후.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수리를 적게 사용하는 교과 위주로 수강하면서, 성실함으로 극복하면 될 듯)

③ 수학과 영어에 자신이 없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 및 팀플레이 적성에 맞는 경우

☞ **경영학과** (∵ 같은 노력대비 높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국강 위주의 수업이나 영감 중에서도 한국인 교수님 수업 위주로 수강하면 될 듯)

3. 명예교수님 인터뷰

(1) 경영학과 82학번 오충한 대주회계법인 전무님

1.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지망하면서도 정작 경영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영학이란 대략적으로 어떤 학문이고, 경영학과라는 전공에서는 크게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주로 기업활동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분야를 배우게 되죠..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 평가, 승진 하기 위한 인사관리, 기업활동결과를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재무회계, 제품 등을 알리고 잘 팔리게 대내외적으로 수행하는 마케팅, 제품생산의 효율화를 위한 생산관리, 기업전략수행에 필요한 조직관리 등등 많은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2. 학부 공부와 관련하여 전공 진입 전에 미리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나 따로 해야 할 공부, 또는 진입 후 꼭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외국 학문을 익히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언어인 것처럼 기업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활동의 언어인 회계입니다. 특히

복식부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처음에는 매우 생소하므로 선행학습을 하면 회계학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입니다.

3. 학창시절 학과 공부에 있어서 그룹 스터디 등 자신만의 학습 계획, 또는 선배님만의 학습 방법이 있으셨는지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전공 서적의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다양하지 않아 몇 개 안 되는 서적을 가지고 친구들과 그룹을 이루어 학습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같이 이해하고 공유하곤 하였습니다. 또 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방식 이외의 더 좋은 방법을 찾진 못했어요. 특히 경영학의 학문적 깊이를 연구하기 보다 향후 사회에 나가서 기업활동과정에서 최소한 알아야 할 분야에 대한 공부는 결국 공부한 시간의 양으로 판가름 나지요.

4. 처음 입학하신 때로부터 30년이란 세월이 흘러 어느덧 대선배님이 되셨는데요, 학창시절 당시 기억에 남는 학과 활동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교환학생 프로그램, 동아리, 학회, 학생회 활동 혹은 인턴 등과 관련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당시는 교환학생제도는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석화회라는 통기타 음악동아리에 가입하여 학우들과 즐겁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5. 학창시절 학부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강의 혹은 사건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그 당시 도울 김용욱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았던 교수님이라서 수백명의 학생이 큰 강당에 모여 무슨 대형 세미나 같은 형태로 강의를 이루어졌었죠.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강의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었구요. 그 뒤로 방송 등을 통한 강의로 많은 일반인도

교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죠.

6. 학과 생활에서 가장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과 그 반대로 가장 아쉬운 일은 무엇인지요?

그래도 꾸준히 시험공부를 하여 회계사가 되었던 일이 가장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이고요, 학창시절 공부 핑계로 보다 많은 학우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워요.

7. 현재 대주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계신데요, 지금의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직업 이전에 거쳐 가셨던 커리어가 있으셨는지요?

대학 졸업하면서 회계사 합격하고 바로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회계사라는 전문직, 자유직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이며 지금도 이 직업을 택한 것에 후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호기심이 많은 저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었죠.

8. 공인회계사란 직업과 주 업무내용을 관련하여, 회계법인 회계사의 직업적 특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회계사가 하는 업무는 너무 다양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크게 3가지 업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가장 전통적인 회계사의 업무는 회계감사이지요. 자본시장을 지탱하고 지켜나가는 업무가 회계감사이지요. 또한 개인과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 중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기업을 대리하여 계산하고 신고하는 업무가 있구요, 마지막으로 회계감사나 세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통하여 기업 경영에 각종 필요한 자문을 수행하는 업무 즉 기업 컨설팅이라는 업무영역이 있지요.

9. 학창시절 학과 공부가 현재 직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공부한 점이 현재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영학 자체가 회계사 업무를 하는 데는 아주 필수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학부의 공부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학부에서 공부했던 책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간혹 다시 보기도 해요.

10. 회계사라는 직업에 요구되는 성격이나 자질 혹은 태도가 있을 지요?

끈기와 청렴성이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회계사 직업은 고도의 업무 집중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력적인 강건함 이외에 정신적인 집중력을 요합니다. 또한 회계감사 등의 인증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청렴한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11. 사회에서 경영학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경영에 있어서 또는 경영학에 있어서 회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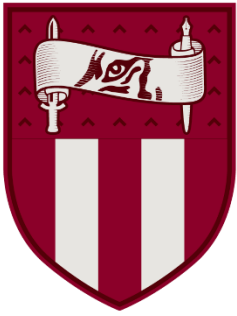
12.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중에서도 경영학과를 선택하여 CPA를 바라보는 학생들이 상당 수 있는데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험생활에 관한 교우님의 수기를 듣고 싶습니다. 수험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유지하셨는지, 수험생활에 있어 고비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창시절하는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운동장으로 교문으로 거리로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며

투쟁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학업 만을 위해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이 일종의 기회주의자로 보여지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꾸준히 시험공부에 몰두하였고 민주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합격증을 볼 수 있었어요. 대신 민주를 쟁취한 학우들에게 지금도 감사할 따름이지요.

13. 이제 2학기가 지나면 자유전공학부 1학년 학생들은 제1전공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 입장에서 제1전공으로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당부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영학을 선택하는 후배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가슴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현실적인 학업에는 당연히 열심히 몰두하여야 하겠지만 학창시절 내내 단지 우리나라만이 아닌 해외의 여러 곳을 여행 또는 교환학생제도 등을 이용한 유학 등을 반드시 경험하여 세계적인 안목을 반드시 가져보라고 당부하고 싶네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Korea University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1. 주 강의동 소개 및 주변 지리

정경대생의 주 강의동 정경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실, 세미나실, 연구실, 학과 사무실, 휴게실 등의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6층에는 고시생을 위한 호림원과 다봉춘이 있습니다. 또한 교양과목들은 정경대학건물 옆에 있는 우당교양관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동선이 매우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대후문, 참살이길 등 고려대 근처 변화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조금 멀다는 단점이 있으나 중앙광장 지하의 열람실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경대 국제 프로그램

1) Asia as the Global Future Summer Institute

홍콩대, 고려대, 인민대가 주관하여 4주간 홍콩, 베이징, 서울에서 진행하는 여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역동적인 동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내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및 국제 관계의 변화를 모색합니다.

2) Campus Asia

고려대, 와세다대, 베이징대 3개 학교의 협력을 통한 학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내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리더를 육성하고 양성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Dual degree program을 통해 타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minor, intensive program, short-term programs, CCDL(cross-cultural distance learning) seminar 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3) Global Internship

정경대 학생들은 뉴욕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의 인턴십(3개월)과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 겸 빈 국제기구 대표부에서의 인턴십(4개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정경대 고유 교환학생 프로그램

정경대 학생들은 정경대 고유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탐마삿대(태국), 국립대만대, 국립싱가포르대 등 다양한 대학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집니다.

1. 경제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는 민족대학 고려대학교와 궤(軌)를 함께하면서 창립 1세기를 넘어서서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입니다. 1999년에는 정부로부터 BK21에 선정되어 한국에서 최고의 경제학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매년 큰 액수를 지원받으며,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인 학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급변하는 경제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용성과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전문경제인을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1999년과 2006년 정부로부터 BK21 1~2차 사업에 선정
- ✓ 2013년 BK21 플러스에 연속으로 선정
- ✓ 중앙일보 전국대학 경제학과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 평가
- ✓ 2005년 'Journal of Asian Economics' 평가 연구 분야 국내 1위
- ✓ 2014년 QS 세계 대학평가에서도 49위를 기록

3. 진로진학

해방 이후 2010년까지의 약 5,000명의 졸업생을 자료로 한 통계입니다.

- 1) 대기업 취직 (40%)
- 2) 공직 진출 (25%)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외교부등 국가고시 등을 통해 공직으로 진출합니다.

3) 금융권 (15%)

금융계에 해당하는 직장은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그리고 시중은행, 보험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이 있습니다.

4) 학계 및 법조계 (약 5%)

4. 학과 프로그램

1) 맞춤형 진로지도

사회 각 분야의 임원과 실무진을 취업준비생과 연결시켜 맞춤형 진로 지도를 실시

2) 선배, 후배의 나침반이 되다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과 경제학과 전공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3) 인력양성 사업 (BK21 플러스)

정부와 협력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 및 신진연구 인력(박사 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4) 국내외 인턴십

국회, 공기업, 금융사 등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5) 교직과정 설치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설치 되어있는 교직 이수과정을 통해

사범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6) 관련 자격 및 시험

행정고시 재경직분야, 변호사시험, 회계사 자격시험 등

7) 해외 교류 현황

중국 북경대, 인민대, 복단대/ 일본 동경대, 와세다대, 히토쓰바시대/ 유럽 훔볼트대(독일), 로마트리대(이탈리아), 맨체스터대(영국), 리즈대(영국) 등/ 미국 펜실베니아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워싱턴대 등/ 캐나다 브리티시컬롬비아대, 토론토대 등

II. 졸업요건

전공필수 (15학점)	경제원론1, 경제원론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의 통계분석
전공선택	24학점
영강	학부 전공과목 영강 3과목 포함 영강 5개 이수
기타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미시경제학

가계와 기업 등 개별경제주체들 간의 경제 활동이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흐름을 파악하는 학문, 거시경제학

모든 개별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한 국가에 주는 영향을 물가, 총생산, 실업률 등과 연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경제이론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는 학문, 계량경제학

경제이론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통계적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재정학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최대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세계의 경제를 분석해보자, 국제경제학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등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경제학

노동이 어떻게 공급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노사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학문으로 노동시장론, 노사관계론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산업조직론

특정한 시장과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끼리의 경쟁관계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혹은 조치를 탐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학문입니다.

한국경제 발전의 역사적 특징을 이해하는 학문, 경제사

인간의 경제생활 발전과정과 그 밖의 사회현상과의 관련을 밝히려는 학문입니다.

금융 시장의 원활유인 화폐에 대해 알아보자, 화폐금융론

금융 제도 및 환경의 변화와 금융 산업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며, 장·단기 금융시장의 환경, 화폐의 수요공급, 이자율의 결정이론, 통화 금융정책 등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경제원론 I, 경제원론 II
2학년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수학, 경제의 통계분석, 경제학사, 노동시장론, 정치경제학개론, 국제무역론
3학년	계량경제학,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한국 경제사, 한국현대경제사, 화폐금융론, 재정학, 국제금융론, 경제발전론, 노사관계론, 경제변동성장론, 경제통합론, 동서양고전의 경제학, 사회경제학, 시사경제

4학년	한국경제론, 동아시아경제사, 수리경제학, 한국경제세미나, 사회복지경제학, 고급이론세미나
-----	---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1) 19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김가현 선배

<공통 질문>

1. 선배님께서 경제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내기때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주변의 동기들을 보면서 저도 잠깐 로스쿨 진학에 흥미를 가진 적이 있었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저는 행정고시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사무관이나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의 두 시험들이 가진 공통점은 2 차 시험 과목에 '경제학'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고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 위해 경제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나중에 고시가 아닌 공기업 취업 등 다른 진로를 준비하게 된다면 경제학과가 상경계열인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도 경제학과를 선택한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2.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제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우선 경제학과에 진입한 이후에는 '경제원론 1'과 '경제원론 2'를 먼저 수강해야합니다. 그러니 경제학과에 진입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두 과목 중 하나라도 1 학년 때 먼저 수강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미시경제이론(선수강 과목 :

경제원론 1), 거시경제이론(선수강 과목 : 경제원론 2)을 수강하게 됩니다. 저는 1 학년 1 학기에 경제원론 1 을 수강했기에 전공에 진입하자마자 경제원론 2 와, 미시경제이론을 함께 수강했습니다. 경제원론 1, 경제원론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과 '경제의 통계분석' 총 5 과목이 전공필수 과목들입니다. 이밖에 다른 전선 과목들로 24 학점을 채우는 것이 경제학과의 졸업 요건입니다.

다른 전공보다 두드러지는 경제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은, 미시와 거시를 수강하면서 개념을 확실히 잡아놓아야지 나중에 각론 과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금융론은 경제수학, 거시경제이론, 경제의 통계분석을 선수강하고 올 것이 'strongly required' 이라고 강의계획서에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TA 수업이 이루어져서 이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강의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개념에 관련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 텀플이 있는 과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있기는 있음)을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경제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경제학과는 다른 문과의 학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수학적 내용을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학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면, 경제학을 전공으로 삼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수적인 자질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전공을 공부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습관도 중요합니다. 경제학 과목들은 대개 선수강 과목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꽤 있는 만큼 배우는 내용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미시나 거시와 같은 기초 과목을 공부할 때 매일 배운 내용을 조금이나마 복습을 하고 머리에 쌓아놔야지만, 수업시간에 배운 기초를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을 잘 칠 수 있고, 각론 과목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학과는 졸업 후 진로가 아주 다양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학이 각종 고시들의 필수과목에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행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이외에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조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이나 금융관련공기업 또는 사기업 취직 준비를 하시거나,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요즘에는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5. 경제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제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도 아니며, 공부량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코로나 때문에 절대평가로 전환된 과목도 조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과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정말 성실하게만 공부한다면 무난하게 A를 받을 수 있지만 A+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경제학과에 진입했을 때 미시경제학의 막대한 공부량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중간고사를 치지 않고, 기말고사에 전범위로 시험을 쳤기에 더 많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비교해봤을때에도 경제학과가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학년 1학기만 무사히 넘긴다면, 나중에는 공부량이 많은 경제 과목들에도 잘 적응하게되니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 경제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명강으로는 윤기호 교수님의 '미시경제이론'과 신관호 교수님의 '거시경제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 모두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경제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되는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이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과정이 경제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강의를 들으며 미거시 개념을 튼튼하게 다진 덕에 각론을 수강할 때도 조금이나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꿀강으로는, 영강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영숙 교수님의 '법경제학', 영강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최은철 교수님의 '지역도시경제론'과 박이택 교수님의 경제사 강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이해'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헬강으로는 '전정경(전략과 정보의 경제학)'을 많이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7. 경제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학과에 진입하기 전에 '경제학과는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절대 가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수학을 아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가 경제학과에 적응하는 것을 보고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지만 않다면 누구나 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좋았던 점은, 저는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공부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러한 부분이 경제학에 잘 부합했던 것 같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과에서는 대부분 답안지를 얼마나 길게 쓰느냐 또는 글쓰기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학점이 갈리는 편이 아니라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8. 1 학년때 경제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경제학과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 학년 1 학기에 경제원론 1 을 수강하였습니다. 하지만 2 학년 1 학기에 전공에 진입하자마자 미시경제이론, 경제원론 2, 경제수학 등을 함께 수강하느라 조금 고생했던 기억이 있기에, 정말 경제학과에 오실 분은 1 학년 1 학기에는 경제원론 1 을, 1 학년 2 학기에는 경제원론 2 를 미리 수강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9.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자전 경제가 아닌 경제학과 학우분들이나 선배님들과는 친해질 기회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겁강인 경제학과 학우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게 되어 이분들과 친해지기는 했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일 것입니다.

<개별질문>

1. 경제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경제학은 공부하며 항상 어렵다고 느낍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계속 반복하며 복습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익숙해지면 조금은 수월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공부하다보면 어느새 강의 내용이 잘 이해되고 문제가 잘 풀리게 되는데, 이때 느끼는 성취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학이 어렵긴 하지만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필요한 수학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학적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 대다수인가요?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과목을 소화하셨다면 경제학과에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또는 유용한 수학적 내용은 '경제수학' 과목을 수강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학적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보다는 수학적 사고를 갖추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과에서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그래프나 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학적 감각은 요구됩니다.

3. 경제수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경제수학(Mathematics for Economists)이라는 강의명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경제수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합니다. 행렬, 최적화, 함수, 미적분과 벡터 등 문과인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접해보지 못한 내용을 많이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당 내용들은 경제학과에서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수학은 꼭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 행동경제학, 비주류경제학, 경제사 강의는 얼마나 개설되나요?

우선, 경제사 강의는 거의 매 학기 개설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박이택 교수님의 동아시아경제사와 서양경제사가 있습니다. 비주류경제학은 정확하진 않지만 1 학기에 주로 개설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홈페이지의 '학과소개 - 강의정보'에서 지금까지 개설된 과목들 목록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5. 경제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후의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난이도 차이는 당연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1 학년 1 학기때 영강인데다가 풀강으로 불리던 경제원론 1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에 미시경제이론을 들을 때 더 난이도 차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경제원론 수업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들을 수 있지만, 미시나 거시는 훨씬 깊게 공부해야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6.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행정고시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현재에는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7.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한가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하는데, 1 차 시험 이전까지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득점한 영어능력 검정시험(토플, 토익 또는 텡스 등)과 제 2 외국어 검정시험 성적표(스넬트, 플렉스 등)그리고 2 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은 선택형인 1 차 필기시험(PSAT 과 헌법), 논술형인 2 차 필기시험(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학제통합논술시험), 3 차인 면접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에도 원하는 과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자유전공', 즉 전공 선택을 1 년 더 유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1 학년 겨울방학에 드디어 제 1 전공을 선택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경제학과뿐만 아니라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고 영어를 잘 하면 유리하다는 소문을 듣고(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경영학과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정치외교학과 진입도 고민했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힘들뿐더러 학점도 가장 받기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던 경제학과에 진학하였지만, 경제학과에 진학한 제 선택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던 이유는 아마 제 성향과 경제학과의 특성이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께서 전공을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학점을 잘

준다더라, 혹은 동기들이 많이 간다더라 하는 이유로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학과는 어디일지, 나의 성향에 가장 알맞은 학과는 무엇일지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 19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황지현 선배

<공통 질문>

1.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제학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경제학과에서는 경제의 흐름을 수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제학을 배웁니다. 자전 학우분들이 경제원론을 수강한 뒤 경제학과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의통계분석(전공필수)'과 '경제수학(전공선택)'에서 배우는 수학적 기본 지식을 배경으로 '미시경제이론(전공필수, 경제원론1의 심화)', '거시경제이론(전공필수, 경제원론2의 심화)'을 배우게 됩니다.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수강한 이후에는 개인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화폐금융론', '노동시장론' 등 미시경제 또는 거시경제 이론에서 심화한 각론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됩니다.

다른 전공에 비해 수리적 지식과 감각의 사용이 잦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회과학 이론을 객관적으로 밝혀볼 수 있고, 가장 실용적인 순수학문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경제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수학적 감각이 있다면 다수 전공과목의 수강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능력이 아닌 수학을 겁내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태도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추상적이고 답이 정해지지 않은 학문보다, 수리적 증명을 통해 명

확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고등학교 때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보다 사회문화 또는 경제 같은 과목을 선호하셨다면 한 번쯤 진입을 고민해볼 만한 전공입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취업을 준비해보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취업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주로 기업의 재무 혹은 금융권에 취직하여 일하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특히 재경직)의 경우 경제학이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경제학과 졸업생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물론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4. 경제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이 짜기로 유명합니다. 학과별로 학점을 평균 냈을 때 문이과 통틀어 뒤에서 5등 안에 들 정도입니다. 타 전공보다 상대평가 비율이 높고 전공 교수님들께서 비율을 칼같이 매기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생각하여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하셨다면 이 부분은 꼭 고민해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제와 적성이 잘 맞고 열심히만 한다면 당연히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로스쿨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경영이 아닌 경제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절대적인 공부량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달리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개념이 다소 모호하지만 공부할 것이 많지는 않은 국어나 생윤 같은 과목을 선호하는 타입의 학생이 있고, 암기량이 많지만 개념이 어렵지 않은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같은 과목을 선호하는 타입

의 학생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공부할 것은 더 많지만 암기량이 적고 개념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수학이나 사회문화 같은 과목을 선호하는 타입의 학생이 있습니다. 본인이 세 번째 경우에 속한다면 경제학과의 공부량은 타 전공 과목, 공거리의 법 과목, 심지어는 교양에 비해서도 적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5. 경제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아직 각론을 수강하지 않은 단계라 각론에 있어서는 클루핑을 잘 보고 골라야 한다는 조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필 과목을 선택할 때는 꿀강, 즉 배우는 양이 적고 학점을 잘 주는 강의는 오히려 피하셔야 합니다. 전필 과목을 잘 배워놓아야 이후 각론 수강에 있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점을 잘 퍼주는 교수님은 경제학과에 없습니다. :)... 따라서 학점은 내가 열심히 해서 따가겠다는 마인드로 뺀세다는 교수님도 피하지 않고 듣는 게 좋습니다. 또, 경제수학 과목이 전공선택에 속해 있는데, 경제학을 배우고 싶어 경제학과를 선택하신다면 사실상 필수과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후 미시/거시경제이론과 각론에 계속 쓰이기 때문입니다.

6. 경제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사실 두려워했던 것보다 학점을 잘 준다고 느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강의 시대를 맞은 학생들을 배려한 교수님들의 일시적 자비였을 확률이 높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경제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탐으로 경제를 선택하여 수학 문제 풀다가 지칠 때쯤이면 꺼내서 즐겁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 순전히 경제학에 대한 호감으로 경제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수학에 대한 흥미는 높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장래희망이 변호사라 학점 측면에서 경영학과를 갈까 마지막까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제학과에서도 학점을 못 딸 정도의 사람이면 로스쿨을 가봤자 거기서 잘 할 수 있을 리 없다는 패기 있는 마인드로 경제학과를 선택했습니다.

2. 경제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공에서 레포트 과제나 발표, 팀플이 거의 없어 좋습니다. 과제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교수님에 따라 중간중간 연습문제 풀이 과제를 내주시는데, 전부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 오히려 없는 것보다 좋았습니다.

3. 경제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수학을 많이 씁니다. 수학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인 건 아닙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수학의 수도 모르는 채로 롤루랄라 살다가, 갑자기 문과생은 배우지도 않은 행렬이나 편미분 같은 것을 "이건 고등학교 때 다들 배웠죠?"라며 스킵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에만 쳐보아도 금방 나오는, 정말 고등학교 때 배웠어야 할 정도의 기초 개념이 대부분이라 초반에 멘탈만 잡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필요한 수학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학적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 대다수인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고 수학이 무섭지만 않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은 그 내용이 문과생에게는 새로울 수 있지만, 난이도는 고등학교 때 배운 미적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미적분을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눈이 감기는 정도였다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학적 감각은 있어야 각론의 기본이 되는 미시/거시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수였던 경제수학 과목이 선택이 되었기에, 수학 좋아하시는 교수님을 피해 미시를 듣고 수학이 중요치 않은 각론들을 골라 듣는다면 수학을 피해 졸업 요건을 채울 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 또한 수학을 싫어하는 측에 속하는 학생이었는데 좋아하는 학문의 기초로 공부할 때는 수능 또는 학교 시험 보려고 억지로 공부할 때와 사뭇 다른 기분입니다. 혹시 경제학을 배워보고 싶어서 경제학과 가고 싶은데 수학이 싫어 고민 중이시라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5. 경제수학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딱 경제를 배워가는 데에 필요한 수학 개념을 골라서 배웁니다. 제가 배웠던 강의의 주요 목차를 나열해보면 비교정태분석, 최적화 분석, 다변수 함수의 극대와 극소, 등식제약하의 최적화 정도입니다. 그 안에 행렬, 편미분, 라그랑지 함수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재화가 여러 개인 시장에서 각 재화를 몇 개씩 사야 효용이 극대화되는가를 수리적으로 도출해내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처음 미적분을 배웠을 때가 훨씬 훨씬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6. 행동경제학, 비주류경제학, 경제사 강의는 얼마나 개설되나요?

행동경제학을 단독으로 배우는 강의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주류경제학 강의에서 일부 분 다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트케인지언을 주로 다루는 비주류경제학 강의의 경우 매년 1학기에 하나씩 꾸준히 개설되고 있습니다. 경제사의 경우 한국경제사 관련 다양한 과목이 꾸준히 개설되고 있고, 이번 학기의 경우 최근 들어 잘 개설되지 않던 서양경제사, 동아시아경제사도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학과소개-강의정보' 들어가시면 학기별 개설된 강의 목록을 볼 수 있고, 관심 있는 강의의 경우 클루에 검색해보시면 각 강의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도 개괄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7. 경제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후의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납니다. 경제원론의 경우 학생들을 배려해 수학적 방법은 거의 쓰지 않고 설명하시는 교수님이 많으셔서 차이가 나는 듯합니다. 경제원론이 재미없었다면 경제학과가 잘 맞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경제원론이 재밌었다고 무조건 경제학과에 잘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희망하고 있습니다.

9.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경제학과와 무관한 부분이라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학점과 리트를 잘 준비해서 로스쿨에 진학한 이후 변호사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경제학과를 선택했을 경우 특히 학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신다면 1학년을 마치고 특정 전공에 진입하기 전

미리 집에서 리트 기출을 풀어보시고, 1학년 학점, 자신의 집리트 성적, 로스쿨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의 대체 진로, 해당 전공에서 배울 학문에 대한 자신의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학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학점 애기에 너무 쫓지 말고, 그러나 그 둘을 아예 무시하지는 말고 합리적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재밌어요 많이 와요 밥 사줄게요 :))!

(3) 18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조민정 선배

<공통 질문>

1.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제학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사로 나뉘집니다. 경제원론1,2에서 미거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운다면 그 이후엔 본격적으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원론을 배우며 차례로 미시각론(재정학, 국제무역론, 산업조직론..) 거시각론(국제금융론, 화폐금융론)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사의 경우 한국의 경제사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경제사를 배울 수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타 전공들과 다른 점이라면 이과가 아니지만 수리적인 측면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2. 경제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데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과목이 수학능력을 많이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식이나 그래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배우고 복습한다면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한 자질과 능력이라면 모든 학과에서도 다 그렇겠지만 꾸준히 복습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ㅎㅎㅎ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로스쿨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행시(경제학 과목이 있기 때문에), 금융공기업(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금감원 등), 사기업, CPA 등 다양한 것 같아요!

4. 경제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을 잘 주는 학과는 아닙니다... ㅎㅎㅎ 열심히 하는 만큼 받아가는 것 같아요... 공부량도 적지는 않아요. 미시경제가 양이 많아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미시각론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 놓을걸 하고 후회를 한답니다... 특히 경제사 과목들이 외워야 할 게 많아서 공부량이 대단합니다!

5. 경제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계량경제학2,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경제변동성장론이 경제학과 3대 헬강으로 유명한데 저 포함해서 주변에 수강하신 분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강의라고 말씀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한국은행 같은 곳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학도로서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듣는 것 같아요. 명강이나 꿀강은 이우진 교수님의 재정학, 이홍식 교수님의 국제무역론, 조성일 교수님의 거시경제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의 두 과목은 영강이긴 하지만 세 교수님들께서 학생들도 잘 배려해주시고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클루핑에서도 다들 정말 좋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수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ㅎㅎ

6. 경제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항상 듣고 싶은 과목들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수강신청하기 어렵더라고요... 좋았던 점은 경제학과를 1전공으로 선택한 학우들이 많아서 겁강인 경우가 종종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는 점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전공 선택 전에 그래도 경제원론을 들어서 진입할 때 경제라는 과목이 어색하지 않았다는 것도 좋은 점이었습니다. 또 공거리 경제전공을 채울 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경제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다른 전공들과 저의 성향을 비교해보았을 때 암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은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염두에 두었던 전공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적인 능력들을 활용하여 정해져있는 답을 구한다는 것이 저에게 매력적인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량은 많지만 익히고 나면 그 속에서 나름 성취감을 얻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얻을 수 있는 쾌감이 좋은 것 같아요...ㅎㅎ

2. 경제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학점 따기가 어렵다는 점이 아쉬지만 또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우리 새내기 분들이라면 잘 해내실 겁니다!

3. 경제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미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미시각론을 공부할 때 마다 항상 제 자신을 반성하게 돼요,,, 그 전에 배웠던 개념이 기억나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다시 복습하면서 익히고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개념과 수식이 많으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진답니다.

4. 필요한 수학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학적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 대다수인가요?

엄청난 수학능력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고등학교 수학을 다 익히신 우리 새내기 분들이라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수학적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들은 경제수학, 계량경제학 등 수학이 많이 사용되는 과목들입니다. 하지만 경제학과의 모든 강의가 이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다른 강의에서 수학이 나오더라도 정말 간단한 계산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의 과목이 수학적 감각을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 경제수학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경제수학에서는 행렬과 벡터, 미분과 적분을 주로 배웁니다. 다른 경제전공과목에서 필요로 하는 수리적인 능력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저도 수강한지 좀 되어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종종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식들을 보며 문득문득 경제수학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수학을 굳이 수강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공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도 배우고 잘 기억해 놓으신다면 다른 과목에 나오는 식들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6. 행동경제학, 비주류경제학, 경제사 강의는 얼마나 개설되나요?

한국경제사나 동서양 고전의 경제학, 환경 경제학 등 경제사 강의와 비주류 경제학 강의는 매학기 꾸준히 개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제사 강의는 들어봤는데 비주류나 행동 경제학 강의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ㅠㅠ 경제사 강의는 배운 역사내용에 나오는 경제부분들만 골라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수업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행동경제학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ㅠㅠ

7. 경제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후의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간혹 가다가 경제원론만 듣고 경제는 본인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들 경제원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경제원론은 미시와 거시의 세계에 살짝 발을 담근 정도라서 전공과목에 진입하신 후에 자신과 맞고 더 쉽다고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확실히 본격적으로 과목을 진입했을 때 난이도가 더 높긴 하지만 열심히 할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8.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로스쿨을 꿈꾸며 자전에 입학했지만 지금은 다른 길로 방향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아서 정확히 희망하는 진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ㅠㅠ

9.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아무 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전공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를 생각하니 여러분의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ㅎㅎㅎ 어느 과목이든 100% 만족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족한 점이 어딜 가나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하지만 지금 경제학과를 희망하신다면 경제학과에 대한 흥미와 경제를 배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기에 앞으로의 대학생활도 잘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캠퍼스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많이 아쉬울 텐데 내년엔 부디 캠퍼스 생활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18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김범준 선배

<공통질문>

1.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제학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경제학과에 진입하게 되면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경제 분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 원론1,2에서 기초를 다진 후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제무역론, 개량경제학 등 여러 각론과목을 듣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공 선택 영역에서 경제사나 비주류 부분을 제외한 과목들이 각론인 것입니다. 다른 전공과 차별되는 경제학의 특징은 우선 상대평가입니다. 자신의 점수 뿐 아니라 같이 듣는 학우들의 점수와 비교해서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나 블랙보드에 기재된 점수를 보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경제학 전공과목 간 연계성도 주요한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단계가 잘 학습되지 않으면 이후 다른 과목을 수강할 때 매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과목이나 기초원론 과목들을 듣지 않고 각론을 수강하지 않길 바랍니다.

2. 경제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 그래프, 수식입니다.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수학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벼락치기로는 절대 공부할 수 없는 과목이기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반드시 메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부분이 꼬이면 자칫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찝찝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하지만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으니 너무 겁내진 마세요!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매우 다양합니다. 행정고시(재경직), 금융공기업, 은행, 연구원, 사기업 등 과목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4. 경제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단호히 아니라고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목이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학과이든 열심히 하면 잘 나오는 것이 성적이기에 진학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원하시는 학점을 얻을 수 있을 테지만 A+ 얻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공부량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고 또 학우들이 꾸준히 공부하는 편이라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5. 경제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꼴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명강: 거시경제학(조성일교수님), 국제무역론(이홍식 교수님) 거시경제학은 정말..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특징을 표현하자면, 이 분의 수업을 듣고 나면 어떤 개념의 정의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정의, 수식, 그래프 3요소를 모두 이용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논리의 흐름을 굉장히 중시하셔서 고시 적합성이 가장 높은 교수님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단, 심각한 경우 F를 주시기도 하니 유의하세요. 국제무역론의 경우 교수님께서 유머도 있으시고 어려운 미시 각론임에도 막힘없이 설명해주십니다. 그리고 영강이긴 하지만 학생들 표정을 보시고 못 알아듣는 듯하면 한글로 다시 설명해주시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클루에서

강의평을 읽어보시면 레포트 과제 양이 어마 어마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쓰다보면 그렇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학점도 잘 주십니다. 두 과목 모두 담기 정말 힘든 과목들이니까 혹시나 수강신청에 성공하셨다면 망설임 없이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선수과목 모두 들으신 후에!)

꿀강: 지역도시경제론(최은철교수님), 동서양고전의경제학(박이택교수님)-현재 동아시아경제학, 서양경제학으로 나뉘어 수업 중이신데 기출이 나오면 꼭 수강하세요!, 경제통계분석(이진혁교수님)

헬강: 경제학과 철학적 논점들(박만섭교수님)-내용도 많고 철학 쪽이라 어려우며 채점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교수님께서 원하는 수준이 다소 높으셔서 자칫하면 재수강하기 쉽습니다.

6. 경제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사실 진입 전에는 이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혼자서 다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웬만한 강의가 아니고서는 거의 팀플도 없어서 교류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공부하다보니 저와 같은 상황의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 같이 공부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도우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팀플보다 더 같이 한 학우들과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A session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조교님들도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너무 외롭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경제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표했던 진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했고 가장 좋아하는 법과목 외에 배우고 싶은 분야가 무엇일지 고민해보니 매력적으로 느껴져 선택했습니다.

2. 경제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만족했던 건 교수님들의 강의력이었습니다! 학점만 따기 조금 어려울 뿐 제가 감히 평가하긴 그렇지만, 교수님들의 강의력은 대체로 아주 뛰어나신 편입니다. 또한 교수님께 질문하시면 답답했던 부분이 사이다처럼 뽕 뚫리는 경험 자주 하실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3. 경제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한 논리의 흐름과 풀이가 다를 때 어렵다고 느낀 적이 많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풀었지만 답지의 논리와 다를 때 허탈함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탓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있기 때문에 잘 넘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어느 학과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 필요한 수학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학적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 대다수인가요?

공부하다보니 확실히 미적분은 알고 있는 게 문제 풀 때 좋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통계분야에서 새롭게 배우는 행렬 등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학적 감각을 요구하지 않는 과목은 거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5. 행동경제학, 비주류경제학, 경제사 강의는 얼마나 개설되나요?

행동경제학은 거의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주류경제학은 매학기 생각보단 많이 열립니다! 각종 어려운 각론들로 심신이 피폐해질 때 빛과 소금같은 과목들이니 한 학기에 하나씩은 시간표에 넣어두시면 좋아요. 경제사 강의는 매학기 열리고 있습니다.

6. 경제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후의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개인적으로 경제원론 1과 미시경제이론은 차이가 많이 났고 경제원론 2와 거시경제이론은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니다. 두 과목 외에 많은 각론들이 기다리고 있고 처음 들으실 땐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다 보면 대부분 기본개념의 응용임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기초가 될 수 있는 과목들을 열심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7.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아직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길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고민의 과정도 나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 18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최현구 선배

<공통 질문>

1. 경제학과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제학과 전공 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경제학과에 진입하게 되면 큰 틀에서는 경제원론,II에서 뺀어 나간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을 가장 먼저 수강하게 되고 그 후에 각론(산업조직론, 국제무역론 등등)들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의통계분석과 경제수학도 2학년 때 주로 듣습니다(경제학과 학우들은 보통 1학년 때 듣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전공과 차별되는 경제학의 특징은 상대평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학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나오기 전에 망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중간값(mean)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간을 평균 이상 봤고 기말고사 시험이 어렵다면 역전의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과목의 경우 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반면에 경제학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의 기초가 중요하고 이를 잘 다지지 않으면 이후의 공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 이를 다시 다룰 수는 없기에 스스로 충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TA 수업이 많다는 것도 한가지 특징입니다. 조교님들이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어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TA 수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제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수학을 싫어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학의 사용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분과 적분은 꾸준히 사용하고 특히 그래프를 매우 많이 사용하기에 수학에 거부감이 있다면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미리 접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들은 후 제때제때 복습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공부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 진로는 다양합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할 수도 있고, 금융공기업, 한국은행 등에 취직을 하기도 하며 상경계열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사기업 취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경제학과에서도 로스쿨을 진학하기도 합니다.

4. 경제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확실히 학점을 잘 주는 학과는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A 학점이 나올 수 있고 A+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부량은 어느 전공이든 2학년 때 전공에 진입하면서 1학년 때에

비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학은 꾸준한 공부량을 요구하고 개인적으로 주변의 다른 학과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경제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아직까지 들은 수업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을 몇 개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종화 교수님의 거시경제학은 교수님의 강의력은 좋으시지만, 초심자를 배려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명강이자 헬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진도를 빠르게 나가시는 편이셔서 예습을 하지 않는다면 수업시간에 내용을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면, 방대한 범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나가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할 수 있습니다.

영강은 김범수 교수님의 미시경제이론, 조원기 교수님의 경제수학, 김덕파 교수님의 경제의통계분석을 들어보았습니다. 김범수 교수님의 강의는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질문에 직접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는 친절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범위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시는 편이고 쉬운 영어 단어를 위주로 사용하십니다. 중간고사는 기출과 많이 유사하여 쉬웠고 기말고사는 기출과 많이 달랐습니다. 조원기 교수님은 강의력이 정말 좋으시지만, 과제가 어렵다는 점이 흠이었습니다. 과제 문제 중 답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증명을 하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어 어려웠습니다. 다만 최종 성적을 통해 돌이켜보면 과제풀이의 정답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필기를 해주시기에 별도로 필기노트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김덕파 교수님의 강의는 현재 수강 중인데 강의력이 정말 좋습니다. 중간고사까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필기 위주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필기 밖의 추가적인 공부를 많이 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6. 경제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경제학과에 처음 가졌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경제학 공부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팀플이 없어서 편하고, 과제가 자주 있지만 보통 수업 진도를 따라가고 복습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도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점은 학과 진학 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경제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학교에 진학하여 1학년 때 경제원론 수업을 들으며 경제 수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생각도 있었지만, 경제학에 학문적으로 매력을 많이 느껴서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스쿨 생각이 확고하지는 않아서 다른 길을 함께 생각하다보니 상경계열인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 진학 외에도 행정고시도 함께 고민 중이었기에 경제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고 길이 확고하지 않으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과를 가든 본인과 맞지 않는다면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경제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경관의 시설이 약간 아쉽습니다. 칠판이 잘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었고 컴퓨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도 경영관이나 이번에 새로 지은 SK미래관 등과 비교했을 때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크게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경제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늘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은 수업을 들을 때 어렵고, 거시경제학은 수업을 들을 때는 쉬우나 공부해보면 어렵습니다. 현재 거시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는데 각 학파마다 가정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전개되는 이론이 다른 것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내용이 많이 헛갈립니다. 사람마다 미시경제학이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거시경제학이 더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시경제학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한, 시험이 대개 서술형이라서 자신의 논리를 잘 전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감점을 많이 당한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4. 필요한 수학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학적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 대다수인가요?

고등학교 수학을 잘 수강했다면 경제에서 다루는 수학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행렬이나 벡터 등을 처음 배우게 되면 낯설겠지만 낯선 것에서 오는 어려움을 제외한다면 경제학과에 진학한 후에 수학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적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으로는 계량경제학 등이 있고, 그 외에는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와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 강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5. 경제수학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집합, 함수, 행렬, 벡터,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최적화(극대화 및 극소화), 미분, 적분, 등을 배웁니다. 어려운 점은 증명을 위주로 수업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좀 더 근본적인 증명을 다루는 부분도 어려웠고 행렬과 벡터는 낯설어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과 수학을 배우지 않은 문과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 만큼, 차근차

근 수업 진도에 맞춰서 공부해나간다면 커리큘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수학이 어려워 보인다고 수강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다른 강의에서 행렬, 최적화, 미적분을 다룰 때 혼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지만 필수적으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6. 행동경제학, 비주류경제학, 경제사 강의는 얼마나 개설되나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홈페이지 econ.korea.ac.kr에 들어가서 강의 정보를 보면 2017년 이후의 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 강의는 매 학기 있고, 비주류경제학은 1학기에만 보통 열리는 것 같습니다. 행동경제학은 단독으로는 개설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어떤 강의를 얼마나 빈번하게 개설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7. 경제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후의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제원론이 커피이면 전공 진입 후 배우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은 T.O.P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학과를 선택할지 고민중이라면 경제원론은 꿀강을 찾아서 듣지 말고 명강 내지 헬강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배울 때의 고난을 미리 겪어본다는 일환으로 비교적 어렵게 경제원론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꿀강'인 경제원론을 수강하였다고 해서 경제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거나 책을 읽어보는 등 경제학을 미리 접하고 익숙해질 시간은 충분합니다.

8.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직 진로를 확실하게 고정하지 못한, 과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1학년 때는 로스쿨 진학을 꿈꿔왔고, 2학년 지금은 로스쿨과 행정고시 두 방향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법학만 수강하면서 로스쿨 진학을 확고하게 생각했지만, 2학년 전공 진입 후 경제학

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새로운 길이 나타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9.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3학년으로 진급할 때에는 본인의 진로와 방향 설정이 어느 정도 확고한 틀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는 여러분이 미래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진로에 대한 탐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개최하는 강연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다른 학과 및 대학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강연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진로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1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자유전공학부라는 과를 선택할 때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1학년 때 1년간 여러 전공을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해야 하지만, (저도 느꼈지만) 그러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한 고민을 해 보시고 후회 없는 전공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어떤 가치(학점, 흥미 등)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학에 매력을 느낀다면 경제학과에 진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경제학과를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그 심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고 복습도 하지 않고 진도가 밀리다 보면 경제학의 매력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점만 유의한다면 경제학과에 진학해서도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졸업생 선배 인터뷰

(1) 17 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이지선 선배

<공통 질문>

1. 경제학과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제학과 전공 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우선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면, 전공필수 15학점과 전공선택 24학점, 총 39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2학년 때까지 전공필수를 모두 수강하고 전공선택을 한 두 과목 정도 듣습니다. 경제학과의 경우 다음 커리큘럼을 위해서 들어야 하는 선수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저학년 때는 대부분 비슷한 과목을 듣습니다. 경제원론1,2를 들어야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을 들을 수 있고, 미시와 거시를 바탕으로 각론 수업을 듣습니다.

경제학과 수업은 1학기에는 미시, 2학기에는 거시가 분반이 많습니다. 자전은 2학년 때 전공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아무것도 듣지 않은 상태로 경제학과에 오게 되면, 1학기에 경제원론1을 듣고 미시 분반이 적은 2학기에 미시경제이론을 수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듣게 되면 수업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만일 경제학과 진학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1학년 때 경제원론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1-2에 경제원론1을 수강하고, 2-1에 경제원론2와 경제수학, 미시경제이론, 경제통계분석을 수강했고, 2-2에 거시경제이론과 동서양고전의 경제학을 수강했습니다.)

원론을 듣고 미시와 거시를 듣고, 그 후에 여러 각론을 듣는 일련의 과정이 다른 전공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단식으로 쌓아가는 느낌이어서 이전 단계의 수업을 충실히 이해해야 다음 단계의 수업을 듣기 편합니다. 반대로 이전 단계 수업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경제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 다만, 수학적 지식 보다는 수학적 사고가 경제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수학적인 사고에 강한 편은 아니어서 어떤 개념을 배우면 직관적인 이해를 먼저 한 후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학적 사고에 강한 친구들은 같은 개념을 배우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개념 응용이나 증명에도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적 사고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전공수업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질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미리 공부해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 과목들은 대부분 수업에서 개념을 배우면 시험에서는 수업 때 배운 개념들에 대한 응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배운 것을 미리 미리 복습하면서 착실하게 이해해두면, 암기 자체는 많지 않아서 오히려 시험공부하기에는 편합니다. 다만, 수업과 시험의 괴리가 큰 과목이 많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학과는 졸업 후 진로가 매우 다양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공기업이나 한국은행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일반 사기업에 취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행정고시(특히 재경직)를 준비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법전원 진학을 목표로 삼는 분들도 많습니다.

4. 경제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경제학과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 절대평가와 달리 다른 학우들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비율 내에서 학점을 채워주는 경우도 적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부량은 전공선택으로 어떤 과목을 듣는지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전공필수인 미시경제이론은 한 학기동안 소비자이론과 생산자이론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저는 2-1에 윤기호교수님 미시경제이론을 수강했었는데, 강의 판서만 노트 두 권이었습니다... 다만 경제학 전공과목들은 이해와 응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해만 제대로 한다면 암기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5. 경제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앞으로 수업이 개설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이택교수님의 중국경제론은 제가 들었던 경제학 수업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전선 중에서 제일 꿀강이었고, 명강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중국경제론은 개발경제학이론을 중국 경제에 적용해보는 수업입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개발경제학이론들을 중국 경제와 접목시켜 배웁니다. 개발경제학이나 중국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평가이기는 하지만, 경제학과에서 보기 드문 별물이기에 학점도 받기 편했던 것 같아요!

명강은 조성일교수님의 거시경제이론을 꼽고 싶습니다! 교수님 설명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수업도 체계적이고 수업 전반이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학점을 매우 짜게 주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업을 정말 너무 잘 하세요!

저는 아직 헬강이라고 할 만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을 헬강으로 많이 꼽는 것 같습니다.

6. 경제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처음 전공 진입했을 때에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고,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좋은 점은 (성적을 잘 주지는 않지만) 성적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글쓰기 능력이나 교수님의 주관 등이 성적을 좌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정해진 답이 도출되는 방식의 시험이 이루어지다보니 성적 평가가 비교적 객관적입니다.

크게 기대한 바가 없어서 기대와 달랐던 점은 없지만,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현상, 혹은 정책들에 대한 철학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고민해볼만한 지점을 제공하는 수업이 매우 적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경제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전공을 선택할 당시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못 했었지만, 행정고시를 크게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진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경계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과 경제학과와 많은 수업들이 행정고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그 당시의 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전공이라고 판단해서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경제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족하는 점은 위의 답변에서 언급한 것인데, 성적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계절학기 수업이 많이 개설되는 편이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팀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특히 이번 학기에 전공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열리지 않아서 전필을 다 들은 고학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강신청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학수번호 체계도 바뀌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경제학과는 대부분 저학년 때의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서 각론은 3학년부터 많이 듣게 되는데, 가령 노동시장론은 실질적으로 3-4학년이 많이 들음에도 학수 번호가 2로 시작해서 3-4학년 티오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3. 경제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진입학기에 미시경제이론을 들었을 때 경제원론과 난이도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 이후에 수업을 들으면서 크게 어렵다고 느낀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계량 경제학이나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등 흔히 어려운 강의로 꼽는 수업들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4. 필요한 수학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학적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 대다수인가요?

얼마만큼의 수학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수학적인 사고에 능숙하면 개념 이해나 응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학은 경제학을 이해하는 큰 도구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해도 학부 수준의 경제학 이해가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공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열리는 편이니 만일 수학이 싫다고 한다면, 전공선택에서 수학을 잘 사용하지 않는 과목을 골라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5. 경제수학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경제수학은 '경제학 공부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지식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만을 다루지는 않고, 경제모델에 수학을 적용하는 등 경제학을 중심으로 그에 필요한 수학을 다룹니다. 행렬, 편미분, 라그랑지나 최적화(optimization) 문제 등을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6. 행동경제학, 비주류경제학, 경제사 강의는 얼마나 개설되나요?

주류경제학에 비해 많은 수가 개설되지는 않습니다. 과목 예시로는 '비주류의 경제학', '사회경제학', '동서양고전의 경제학', '북한경제론', '경제학과 철학적 논점들' 정도가 열리는 것 같고, 경제사 수업은 '한국경제사'와 '한국현대경제사' 정도가 개설되는 것 같습니다. 2019-2학기에는 동서양고전의 경제학과 북한경제론, 한국현대경제사가 개설되었습니다.

7. 경제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후의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경제원론1이랑 미시경제이론은 정말 난이도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다만, 경제원론2와 거시경제이론은 전자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8.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헌법재판 연구를 하고 싶고, 현재는 법전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법전원 진학에 관해서는 경제학과와 크게 관련이 없고, 자전 내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실 것 같아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0.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클루에서 듣지 말라는 수업은 절대 듣지 마세요... 족보가 중요한 수업은 꼭 족보를 구할 수 있을 때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학기에는 공부량 때문에 힘들었는데, 전공필수만 잘 넘기고 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2) 13 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김희도 선배

<공통 질문>

1.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경제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2. 경제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사실 경제학과가 꽤 어렵다고는 하지만 크게 별다른 것을 미리 준비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고 복습을 철저히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해당 전공에 대한 서적이나 내용을 미리 읽고 공부해가면 훨씬 수월하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이나 경제를 선택하는 학우분들은 때때로 친구들이 많이 선택한다고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남은 대학생활을 허무하게 의미 없이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학과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 크게 금융업계, 행정고시, 로스쿨, 사기업 취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업계와 행정고시를 비롯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은 공기업 취직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4. 경제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학과의 경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경제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는 절대평가로 했을 때 더 가혹하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셔서...) 게다가 행정고시나 금융업계에

취직하기 위해 공부를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학점을 따기 까다롭습니다.

5. 경제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6. 경제학과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 1 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개별 질문>

1. 경제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제학과의 장점은 단언컨대 배움의 즐거움에 있습니다. 한 과목 한 과목 배워나갈 때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이전의 강의들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며 더 포괄적인 이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 안에도 편재된 경제과목들을 수강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의 방향도 매우 다양하게 보장되어 있으며, 로스쿨을 진학할 경우, 경제학과 법학의 논리구조가 유사하여 이해하기 좀 더 수월하다는 점 역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히 들어 알다시피 포괄적인 이해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공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성적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를 반드시 염두하고 경제학에 대해 관심이나 적성이 있는 분이 선택하길 권장합니다.

2. 필요한 수학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학적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 대다수인가요?

수학공부는 정말 상관없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수준에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만 경제수학을 수강할 예정이라면 본인이 수학에 좀더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3. 경제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후의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 같은 경우 경제원론과 세계와 한국경제를 수강하고 경제학에 적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경제학과로 진학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1학년 때 배우는 개론 수준에서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충분히 경제학과로 진학을 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틈틈이 복습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강의에도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의를 듣지 않고 집에 가서 혼자 책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제 경험상 불가능한 듯합니다. 강의시간에 집중하는 것과 복습을 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4.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전공을 선택할 때 많은 선배들의 얘기를 듣기도 했고 전공자료집도 참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것을 진로로 할지도 정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왜냐하면 어떤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당연히 교양이나 전관교와 전공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과에 먼저 진학한 선배지만 현재 저도 공부하는 입장으로 경제학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우습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짐작하건대 앞서 말했듯이 포기하지 말고 강의시간에 집중하며 복습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그리고 꼭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고 장래의 진로는 어떤 것으로 할지 특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것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명예교우님 인터뷰

(1) 03학번 경제학과 김상순 선배님

1. 많은 학생들이 경제학과를 지망하면서도 정작 경제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학이란 대략적으로 어떤 학문이고, 경제학과라는 전공에서는 크게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에 대해 교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뉩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주제가 약간 다릅니다. 미시경제학은 어떤 상황이나 제약 하에서 최적의 결론을 얻기 위한 인간의 선택을 논하는 학문입니다. 미시경제학이 인간 개개인의 선택을 다루는 반면 거시경제학은 국가규모의 경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제 충격이 있을 때, 국가 전체적인 생산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을 다룹니다.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서 파생되거나 특정분야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한 과목들입니다. 미시 과목들은 그 주제가 '인간의 선택'인 만큼 심리학·철학 등 다른 학문들과 밀접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심오하기도 해서 순수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시 과목들은 현실경제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학부 공부와 관련하여 전공 진입 전에 미리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나 따로 해야 할 공부나 전공 진입 후 꼭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으신지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은 학과에서 전공필수로 정해져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과 과목 하나하나 모두 매력이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고, 자신의 상황이나 흥미, 진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학과 전공 공부에서 그룹 스터디 등 자신만의 학습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것이 전공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재경직을 준비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경제학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또 심도 높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시경제학·거시경제학에 대한 기초가 탄탄했고, 이를 다른 과목에도 응용해 끝까지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경제학의 기초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경제학 교과서를 한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파고드는 치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기타 교환학생, 동아리, 학회, 학생회 활동, 인턴 등 기억에 남는 학과 활동이 있으신지요?

대학 때 태권도부 생활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과 공부, 아르바이트 등 할 일이 많아 여유시간이 별로 없었던 대학생활이었지만, 시간을 쪼개 운동 동아리를 했던 것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신체를 단련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기·선후배 간에 끈끈한 우애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 때 말고는 누리기 어려운 것인 만큼 자신의 취미나 흥미에 맞는 동아리 활동은 꼭 한 가지씩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5. 학부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강의나 사건이 있으신지요?

제가 들었던 수업들 모두 좋았던 것 같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 4학년 때 들었던 ‘고급이론 세미나’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은 매시간 마다 다른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한 가지 주제를 던져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담당 조가 강의 형식의 발표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내내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발표자는 자신이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물론 발표를 맡았을 때, 부담감이 있지만, 스스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다루시는지, 직업의 특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2010년부터 약 3년간 중앙부처사무관으로 일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국가가 운영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문제라고 생각해서 경제부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주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수립 및 수행 업무를 했습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 통계 작성 및 수집 업무, 부품·소재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기술개발 지원 업무, 중견기업 지원정책 수립 등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로 제가 있던 부서들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부부처 중에서는 민간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부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 이슈들이 민간 경제의 흐름을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과의 접촉도 많아 조직문화 또한 민간기업과 많이 닮아 정부부처 중에서는 가장 개방적인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뜻한 바가 있어 경찰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실무수습 중이라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찰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학부에서의 전공 공부가 현재 직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공부한 점이 현재 직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에게는 경제학과에서의 학부 공부가 현재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경제학과에 와서 여러 경제학 과목을 공부했던 것이

행시 재경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워낙 구체적인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학부에서의 공부가 직접적으로는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는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나가야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하는 방식이나 보고서 쓰는 방법, 경제흐름을 읽는 능력 등에 있어서는 경제학과에서의 공부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 경제학과 및 경제 분야의 진로를 지망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면서 동시에 순수학문의 성격도 갖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만큼 다른 학문과 접목시킬 수 있는 외연이 넓은 학문입니다. 자신의 흥미에 따라 발전방향을 무한히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의 영역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경제학의 기초정도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으로서 경제학은 정말 강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학적인 테크닉을 익힌다든지 경제학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수 있으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 학과 공부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칫 흥미를 잃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9.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중에서도 경제학과를 선택하여 국가고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 수 있는데요, 수험생활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고시 준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행정고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학 중에 행시 준비를 하려면 학과 공부와 병행하셔야 했을텐데 학과 공부와 행시 준비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등 병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뭘까

생각해보니 행정고시 재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자연스럽게 고시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합격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열심히 하기도 했고, 운도 따라줘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시공부와 학과공부는 언뜻 보면 양과 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행시는 특정과목을 깊게 공부하는 것이라면, 학과 공부는 폭 넓게 여러 과목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다보면 학과 공부를 소홀하게 되는 우를 범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과공부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시 답안지에서 남들과 차별되는 '어떤 무엇인가'를 써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고시준비 중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었는데, 휴학했을 때는 고시공부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하고, 복학했을 때는 학과공부에 비중을 높이 두고 공부했었습니다. 행시공부와 학과공부 비율 조절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고, 여러분이 고시준비를 실제로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신에 맞는 비율을 찾으시면 됩니다.

10. 혹시 행정고시 준비를 하시면서 특별히 도움이 되었다 하는 스펙이나 공부 방법 등을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가장 좋고,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를 읽어보면 대충 감이 올 것입니다. 간단히 초창기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시에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자신이 선택한 교과서를 1회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교과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지만 나중에 가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교과서를 보는 과정에서 기초가 형성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공부량이 많아져 교과서를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1회독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끈기를 갖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아주 모르겠는 것은 과감히 넘어가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회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2회독, 3회독은 이전 보다 훨씬 쉬워지고 기간도 단축되며, 이전에 몰랐던 것도 새롭게 알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미·거시 경제학 교과서를 모두 사서 한 번씩은 읽어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주 교과서 하나를 정하고 그 책에 있는 것들을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치외교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1946년에 설립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학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학과는 정치학이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전제하에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분야에 관한 구체적, 체계적, 유기적인 교육 및 연구를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삶의 가치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정치제도와 질서 및 역동적인 국제정세와 다양한 이슈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천적 방안 모색에 주력해왔고, 이미 그 성과를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우수 연구인력 및 정책전문가 양성 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 특이사항

- ✓ 1999년에 단일학과로는 유일하게 BK21사업단으로 선정, 이후 평가에서 1위 교수
- ✓ 2013년 정치외교학과로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BK21 플러스 사업단으로 선정
- ✓ 2001년과 2010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정치외교학 부문 1위
- ✓ 2011~2014년에는 전국의 정치외교학과 중 최상위 판정
- ✓ 2010-2012년 3년 연속 중앙일보학과별 평가 1위
- ✓ 2012년 국제대학평가기관 QS에서 실시한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국내 1위, 세계 42위

3. 진로진학

2013년 기준 졸업생 58명 중 41명 취업(70.7%)으로 취업률 전국 최상위권 / 취업 제외 진학자 12명(20.7%)으로, 90%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 또는 진학을 통해 경력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행정고시에 차석을 비롯하여 4명 합격, 외무고시에 4명이 합격하였고, 2014년 행정고시 4명 및 입법고시 1명 합격 등 공적 영역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1) 학계: 대학교수, 연구원 등
- 2) 정관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외교관, 공무원, 국제기구직원
- 3)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 4) 언론계: 신문사 및 방송사 기자, PD
- 5) 재계: 제조, 금융,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임직원

4. 학과 프로그램

1) 해외 복수학위제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국내 최초의 학과단위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여 일정 학점 취득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와 와세다대학교의 정치외교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국내외 인턴십 및 교류 프로그램

스웨덴 룬드대학, 싱가포르국립대학,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 벨퍼연구소, 동아시아 연구원(EAI), 정당 사무국 등 국내외 우수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정을 맺어 인턴 및 교환학생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3) 학과 내 학생자치

아남민국 모의국회를 비롯해서 정치 외교를 배우는 학과답게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학생참가 대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 전국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에 참가해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5) 우당워크샵

전공자들과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연을 듣고, 식사를 하며, 운동회 등 놀이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6) 고래(高來)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저녁식사를 하며 진로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7) 교직과정 설치

학부 내 교직과정이 설치되어있어, 교직이수를 통해 사회과 교사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II. 졸업요건

선택교양	10학점
------	------

전공필수 (9학점)	*(필수) 정치학전공입문(POLI215) *(선택) 아래 4과목 중 2과목 선택 서양근대정치사상(POLI214), 국제정치론(POLI231), 비교정치개설 (POLI234), 한국정치론(POLI373)
전공선택	30학점
영강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 영어강의 3과목을 포함하여 총 5과목 이수 ※ Academic English I, II & 외국대학 교환학생 이수학점 또한 영강으로 인정 (본교 교과목으로 대체인정한 경우는 불인정) / 본교 국제하계동계대학 영강 인정
기타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정치의 뿌리를 배운다, 정치사상

사상 없는 정치인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치의 개념이 도입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정치의 진리인 사상을 배우는 것이 정치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서양고대·중세정치사상, 서양근대정치사상, 현대정치철학, 동서양정치사상 비교연구, 정치사상세미나 등 동서양과 시대의 구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치사상을 공부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를 분석하라, 비교정치

정치 이념에서부터 실제로 존재하는 정치 제도까지 여러 나라 정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다른 나라 정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정치 개설, 정당론, 정치경제론, 선거와 의회, 의회와 입법과정, 세계의 정치체제, 현대비교정치학의 이해, 정치과정론, 한국정치세미나, 북한정치론, 중국정치론 등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화의 시대 속에 있다, 국제정치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할 때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어떤 외교정책을 펼치며 안보, 경제,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국제기구와 NGO 등의 역할도 살펴봅니다. 국제정치론, 국제관계이론, 20세기 국제관계사, 현대국제안보론, 국제 정치경제론, 국제기구론, 동북아 국제관계론, 한국외교정책론, 미국외교정책론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정치학의 기본탐구, 정치학원론
2학년	한국정치사상, 서양고대 · 중세정치사상, 비교정치개설, 정당론, 국제정치론, 외교사
3학년	국제관계이론, 현대정치철학, 국제평화 연구, 한국외교정책론, 국제윤리학, 민주주의와 헌법, 동아시아정치론, 정체성정치, 동아시아 국제정치 경제론, 국제무역의 정치경제, 한국정치, 선거와 의회
4학년	현대국제안보론, 정치사상세미나, 비교정치경제, 유럽정치론, 현대외교정책 결정론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1) 19 학번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김미성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외교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말을 하고 싶기도 하였고, 정치와 법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에 변호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를 배워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와서도 이 생각이 변하지 않아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정치외교학과에서는 크게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전공필수 2 과목, 전공선택 10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다양한 강의가 열리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하거나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공유하는 형식의 수업이 많다는 것이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수업이나 과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법조계 쪽으로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우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통해 그 분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5. 정치외교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시험이 (특히 자신의 생각을 쓰는) 논술형인 경우가 많아 학점은 랜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선호하시는 방식, 교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등에 맞게 잘 작성한다면 전반적으로 학점을 매우 잘 주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물론 논술형이라도 명확한 답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객관식 시험도 있기에 이 경우 학점은 본인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량은 특히 수업에서 요구하는 리딩의 양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딩이 적고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작성하는 형식의 시험이라면 공부량이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리딩이 많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녹여내어 자신의 생각을 함께 쓸 것을 요구하는 형식의 시험이라면 공부량이 배로 증가합니다.

6. 정치외교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김동훈 교수님의 수업이 정말 재미있고 수업 중 학우분들의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과제대체 시험을 선호하시는데, 문제가 공개된 후부터 그 문제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적어 꿀강이기도 합니다. 학점도 잘 주시는 편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말 길게 써야 합니다. 영강의 경우 김성은 교수님의 수업이 매우 좋았습니다. 해야 하는 과제가 상당히 많고 거의 칼절평을 하시긴 하지만, 점수를 잘 주려고 하시는 편이고 수업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기에 영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따라가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많이 생각해 주십니다. 헬강으로 유명한 것은 주형민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명강이긴 하지만 학점이 매우 짜고 리딩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7.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외교학 강의에 의외로 팀플 수업이 많아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8. 1 학년때 정치외교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정치외교학과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학년 때 '정치학의 기본탐구' 수업을 듣고 정치외교학과와 맞는지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 대신 이정남 교수님의 '현대민주주의의 미래' 수업을 들어 정치외교학과 강의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은 강의력이 별로 좋지 않고 학점도 매우 랜덤이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정치외교학과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정치외교학과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로스쿨에 가면 서술형(논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서 정치외교학과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논문들을 읽음으로써 글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배경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리트 시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정치외교학과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10.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과의 만남, 친목은 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같은 자전, 같은 반 출신의 선배님들과 친하게 지냈지만, 팀플을 통해 알게 된 정치외교학과 선배님과 친분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개별질문>

1.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저명한 학자들의 의견을 저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에서 허점을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2. 정치와 외교 중 하나만 세분화하여 공부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만 할 수 없다면 각각의 학습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거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 강의들을 수강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와 외교가 '명확히' 나뉜 채로 강의를 열린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한 분야를 세분화하여 공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글을 잘 못써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논술형의 시험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글을 쓰는 것은 하다 보면 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잘 찾아 제시할 수만 있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 정치외교학과 수업에는 논문을 비롯한 읽기 자료가 많이 활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꽤 많아 하나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 논문들을 읽는 것이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글을 읽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독해력 자체가 늘기 때문에 논문 읽는 것에 차차 적응되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4-1. 읽기 자료 중 영어로 된 자료들이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수업을 잘 따라가려면 영어 능력이 많이 요구되나요?

영어로 된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강인 수업도 자료는 영어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영어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남들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5. 선생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최근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6.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를 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학회 등을 통해 법학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준비 중이라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7.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과제와 리딩이 많은 편이라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얻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학우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힘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19 학번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김희경 선배

<공통 질문>

1.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정치외교학과의 수업은 크게 정치사상 / 비교정치 / 국제정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공필수 과목 4개(서양근대정치사상, 국제정치론, 비교정치개설, 한국정치론) 중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전공선택 30학점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선수과목 없이, 저 세 가지 중 자신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 수업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전공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이라면, 단순히 정치학뿐만 아니라 한국사, 세계사, 국제관계, 정치철학 등도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처음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을 때에는 고리타분할까봐 걱정했는데, 정치외교 자체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얹혀있기 때문에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 계절학기에서 수강했던 '외교사'에서는 근대 유럽 세계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외교적 전략과 당시 유럽 국가 간 조약 등을 다루었는데,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사까지 배우고 분석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2.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딱히 요구되는 지식은 없습니다. 정치나 외교 관련 상식이 없어도 수업을 따라잡는 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자료를 빠르게 읽고, 자신의 의견을 글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평가 방식 자체가 글쓰기인 경우가 많고, 시험 범위에도 교수님의 강의안이나 ppt 외에 여러 읽기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에 따라서는 그 읽기자료 양이 상당한 경우도 많습시다... 그래서 읽고 쓰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문과가 그렇듯,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도 로스쿨이나 행시 생각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로스쿨이 정말 많습시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도 공거리를 이중전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외과 분위기 자체는 거의 자전인 것 같아요..ㅎㅎ 드물게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 본적이 없어요.

4. 정치외교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을 잘 주는지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특히 진리의 '교바교'(교수 바이 교수)가 심합니다. 잘 주시는 분은 정말 잘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은 B+부터 시작하는 교수님들

도 계셔요. 그래서 클루핑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점을 잘 주시면서 강의력도 좋은 교수님의 수업은 1픽으로 노력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ㅠ 공부량은 당연히 교양 수업들보다는 많아요. 하지만 다른 과에 비해 팀플이나 발표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수준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의 회계 수업들과 달리, 정치외교학과 시험은 외울 것만 확실히 외워가고, 시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쓰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문제풀이에 약한 대신 서술형 시험에 강한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대신 강의나 과제를 밀리지 않고, 필기 정리를 그때그때 잘 해두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5. 정치외교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학점도 잘 주며 강의력도 좋은 꿀강+명강 교수님으로는 김성은 교수님, 알렉산드로바 교수님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학기에 수강했던 김성은 교수님의 '정치학방법론'은 내용 자체는 어렵고 과제도 많았지만, 웬만해서는 감점도 잘 안 하시고 학점도 잘 주셨어요. 대신에 같이 들을 친구 한 명을 꼭 데리고 수강하는 걸 추천드려요. 알렉산드로바 교수님의 '외교사'는 읽기자료의 양은 굉장히 많았지만,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에 각별히 신경쓰시고, 읽기자료도 대충 읽어도 시험에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신재혁 교수님의 '정치제도론'도 아직 학점은 나오지 않아 꿀강인지는 모르겠지만 명강인 것 같습니다. 딱딱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굉장히 흥미롭게 가르쳐주십니다. 그 밖의 평이 좋은 강의로는 김남국 교수님의 '법과 정치사상', 정주연 교수님의 '중국정치론', 김현준 교수님의 '국제정치와윤리', 정재관 교수님의 '내전연구'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정치외교학과 수업에서 조심해야할 것은, 정말정말 명강인 동시에 학점은 짜고 시키는 건 많은 '헬강'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형민 교수님이나 이동선 교수님의 경우, 다들 입을 모아 명강이라고 하지만, 학점은 정말 짜다고 합니다. 특히 이동선 교수님 '국제관계

이론' 학점은 B+부터 시작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도 졸업 전에 꼭 한번 들어보고 싶지만, 학점도 중요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ㅠ.ㅠ 그래서 수업을 듣기 전,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고 특히 클루핑 정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며 기대했던 것은, 아는 것도 많아지고 글도 잘 쓰게 되는 거였어요. 확실히 정치외교가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 아는 것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이 끝나고는 다 잊어버리긴 하지만요;;) 그리고 다양한 읽기자료와 논문을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도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2학년이라 수업을 조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리트 준비를 위해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정치외교학과에는 국문 읽기자료보다 영문 읽기자료가 훨씬 훨씬 많습니다. 체감상 제가 읽었던 자료 중 80%는 영문이었습니다...ㅎㅎ 그래서 국문 읽기자료를 많이 읽을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놀라거나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학과 선택 마감 당일까지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과 중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제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 탓에 경제학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경영학과는 전공필수인 회계 수업이 저와 맞지 않아서, 행정학과는 제가 관심 있는 사회 자체보다 정부를 중심으로 배우는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과를 놓고 한참 고민하

다가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정치외교학과에서는 국제정치나 외교 등 사회학과에선 배울 수 없는 것들도 배울 수 있다는 이유가 제일 컸어요. 그리고 사회학과는 인문학적으로 사회를 탐구하는 분야도 있지만 숫자를 통해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 통계 분야도 있는데, 저는 전자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후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낼 수 없는 '정치'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면 정치학에서도 그래프나 숫자를 이용해 탐구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공필수 과목으로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 등을 두고 있는 사회학과보다는 조금 덜해요.)

2. 정치외교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족했던 점은, 정치학 자체가 다양한 학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참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중세정치사상' 수업을 들으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국제정치론' 수업을 들으며 국제정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학을 배우면 철학이나 역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에서 팀플이 없다는 점도 저한테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팀플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는 게 편하거든요. 하지만 팀플이 없다고 평소에 한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써서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 특성상, 생각했던 점수보다 낮게 받은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답이 있는 경제 시험에 비해 정치외교 시험은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의견을 쓰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니까요.

3.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지만, 다른 고학번 선배들을 보며 놀랐던 적은 많습니다. 특히 '정치학방법론'에서는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기말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다른 학우들의 주제 퀄리티가 상당해서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학과 공부를 통해 더 성장하려면 본인이 교수님께서 주시는 읽기 자료도 다 읽고, 평소에 관련 분야 자료도 더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4. 정치와 외교 중 하나만 세분화하여 공부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만 할 수 없다면 각각의 학습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정치사상/비교정치/국제정치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상 외교 분야 수업보다 정치 분야 수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 세 분야 중 하나만 선택해서 수업을 듣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학점을 잘 주시는지, 학습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많고, 다 고려해서 듣고 싶은 강의를 정했다 하더라도 수강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개설되는 강의를 보았을 때, 학습 비중은 체감상 정치사상:비교정치:국제정치=1:3:2 정도인 것 같습니다.

5. 글을 잘 못써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글을 잘 쓰면 좋기는 하죠. 하지만 시험에서의 글쓰기는 멋있게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글을 잘 못 쓴다는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두괄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실제로 제 전직 대학 정외과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문단을 시작할 때 첫 문장은, 그 문단의 내용을 짧고 굵게 포괄해야 해요. 두괄식으로 명확하게 쓴다면 시

험에서 글을 못 써서 점수를 못 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배운 내용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해 꼭 들어가야 할 키워드를 빠뜨릴 때 감점이 되니, 글쓰기 실력보다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6. 논문을 비롯한 읽기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ㅎㅎ;; 잘 하실거예요! 그리고 읽기자료는 고등학교 내신 공부하듯이 꼼꼼히 읽으실 필요 없고, 빠르게 스키밍하면서 읽어도 지장 없어요. 다 안 읽어도 학점 잘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수업필기와 수업내용 더욱 중요하니 너무 걱정마세요.

7.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로스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중이긴 해요.

8.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학.토.릿이죠! 학점+토익+리트..입니다. 리트는 아직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대부분 선배님들을 보면 3학년 말부터 리트를 준비해서 4학년 때 시험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점관리 무조건 잘 해두세요!

9.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학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전공관련교양 수업에서 관련 학과 강의를 들어보면 이 과와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저는 회계학원리 수업을 듣고 경영을 포기했죠..ㅎ) 고민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싶은 예쁜 마음이니, 그 순간순간

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외교학과는 선수과목이 없어서, 어느 수업을 듣든 부담이 적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오세요.

(3) 19 학번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강은교 선배

<공통질문>

1.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정치외교학과는 우리 사회에서 삶의 가치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이상적 정치제도를 고민하고 역동적인 국제정세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고찰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배웁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크게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 전공의 특이점은 현실과 이론 둘 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중에는 순수학문만을 다루는 전공도 있고 현실에 치중해 적용이 목적인 전공도 있습니다. 반면 정치외교학과는 이론을 깊이 배우지만 현실과 아주 밀접해 적용이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이론을 배워 지식이 깊어지는 한편 이론을 실제 세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특별히 필요한 자질은 없지만, 굳이 꼽자면 평소 자신의 의견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제를 보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생각해보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는 대부분 이론을 주로 배우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만의 의견이 확실한 사람이 질문의 답을 생각하고 구성하는 것도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공기업, 법조인, 정치인, 외교관 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정치외교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쁠을 받는 것은 힘들지만 에이와 비쁠은 노력에 따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부량은 많지 않습니다. 법학 과목들과 달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외교학과는 공부량이 많지 않은 대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학점도 여기에 달렸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정치외교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저도 올해 전공에 진입해서 4개의 수업 밖에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헬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외교학과 학생이라면 주형민 교수님의 비교정치개설은 들어봐야 하는 명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필수 과목이고 손에 꼽히는 리딩 양을 자랑하는 수업이지만 교수님 수업이 정말 매끄럽고 말 그대로 비교정치개설이기 때문에 비교정치를 알아가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훌륭한 강의입니다. 그러나 꼭 친구와 함께 듣길 바랍니다. 저는 혼자 들었다가 리딩 때문에 큰 절망에 빠진 경

힘이 있습니다.

6.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은 전공 수업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클루 평 좋은 과목들이 꽤 있어서 시간표 짜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별 과제가 있는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만의 공부를 묵묵히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저는 토론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점은 안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교수님이나 학우들과의 토론 등 수업 중에 말할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이 흥미와 현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정치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제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제 경우는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배님들도 전공을 선택할 시간이 되면, 일단 정말 대학에 와서 배우고 싶은 학문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 다음, 현실적으로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를 생각해 흥미와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치외교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재밌습니다. 평소에 정치와 사회 모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공부를 더 하고 알아갈 수 있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현실 정치(예를 들면 국내 정치 등)는 다루지 않고 생각해볼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론을 많이 배우다 보니 평소 우리가 정치라고 부르는 것과 사뭇 다른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정치 이론은 잘 알지만, 막상 현재 국내정치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3.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정치외교학 수업을 들으면 다른 학우의 의견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우분들의 지식과 이해력에 놀라곤 합니다. 저 나름대로 정치학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 지식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전공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정치외교학은 이론을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내야 하는 학문입니다. 어떤 정치체제와 정책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고 표현해내는 것은 역사상 수많은 학자가 도전해도 답을 내리지 못했을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정치와 외교 중 하나만 세분화하여 공부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만 할 수 없다면 각각의 학습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정치를 주로 다루는 전공이 있고 외교를 다루는 전공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듣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정치 관련 전공이 더 많이 열려서 외교 전공만을 택해서 듣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와 외교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정치와 외교 각각 세부적으

로 다루는 범위가 다르기에 한 분야만 듣는 것보다는 여러 전공을 들어보고 관심이 있는 분야는 더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 글을 잘 못써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글을 잘 못 씁니다. 이런 제가 글쓰기 실력으로 괴로워했던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정치외교학과는 생각보다 수려한 글쓰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이 매끄럽지 않아도 배운 것을 적용해 자신만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논문을 비롯한 읽기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번 학기에 정치외교 전공 중에 가장 많은 리딩 양을 자랑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리딩을 읽는 순간은 물론 힘들겠지만 일일이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하시겠지만 법 과목을 들으면 많은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암기해야 하는데 리딩은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의 목적으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이 리딩 양이 많은 것은 아니니 한 학기에 리딩이 많은 수업을 여러 개 듣지 않는다면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리딩이 많은 수업이 듣고 싶다면 친구와 함께 들어서 분배해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제 희망진로는 법조인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해 법조인이 된 다음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했던 좋은 세상에 대한 고민을 몸소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8.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사실 저도 2학년이라서 스펙이나 준비라고 했던 것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리트나 공인영어시험, 학점 등에 있어서는 제가 조언할 것이 없습니다. 학점관리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으라는 선배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꿀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냥 선택하기보다는 흥미롭고 관심 있는 수업을 선택하시면 학점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꿀강 콜렉터가 되는 것보다는 대학생 때 맘껏 해보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학점도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생활하시면서 여러 경험해보시는 게 후에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9.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할 때는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학점을 못 받으면 어쩌나,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과를 가야 하나, 취업이 안된다는데 어떡하지 등등의 걱정을 여러분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공에 진입해보니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데 그때 왜 고민을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기는 자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데 사실 즐기는 자는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즐기지 않는 사람은 즐기지도 못했는데 이기기라도 하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즐기는 자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꿀강만 수집하기보다는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 것이 학점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듣고 싶은 전공을 듣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본인이 배우고 싶고 인생에서 실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셔서
자유전공학부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4) 18 학번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문성준 선배

<공통 질문>

1.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C반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문성준입니다. 정치외교학은 크게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치사상은 정치의 규범적 문제를 다루는 분야인데요, 정치사상사, 정치철학, 정치이념이 이에 속합니다. 해당 분야는 정치학을 함에 있어 어떤 질문을 던져야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정치학을 통해 알아야할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정치사상 분야에서 《현대정치철학》, 《헌정주의》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둘째로, 비교정치는 정치학의 분야 중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비교정치학 교수님께서서는 정치학의 80~90%는 비교정치이고, 정치사상과 국제정치의 비중은 10~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비교정치학은 다양한 국내정치 현상을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경험이나 현상과 비교하려는 특징을 갖습니다. 저는 비교정치 분야에서 《비교정치개설》과 《선거와 투표행태》 등을 수강했고, 이번 학기엔 《정치제도론》을 듣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제정치는 국가를 비롯해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다국적 기업과 같은 여러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확립해나가는 방식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외교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후배님들께서는 국제정치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국제정치 분야에서 《국제기구론》을 수강했고, 이번 학기엔 《동북아국제관계론》을 듣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은 '텍스트'를 중시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수업 전에 일정한 분량의 텍스트를 읽고 수업에 참여하길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정치외교학은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정리하고, 비평할 수 있어야 강의 시간에 더욱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안에서도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고,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교정치] 교과목의 비중이 많기는 하지만, 원하신다면 관심 있는 한두 가지 분야의 교과목만 집중하여 수강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은 저처럼 세 분야를 두루 학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이와 같은 특징들 덕분에 정치외교학과를 통해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2.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들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과학적 정치학은 1930~5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서양권에 퍼져나갔고, 클래식한 서적과 논문들 역시 서양에서 저술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문으로 된 읽기 자료를 접할 일이 많은 편입니다. 국강이라고 하여도 국내정치를 다루거나 교수님께서 특별히 국문으로 된 읽기자료를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대부분 영문으로 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물론 강의마다 부여하시는 텍스트의 양과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강한 과목들은 주당 평균적으로 100~200페이지 정도의 리딩을 요구하셨습니다. 때문에 텍스트에 익숙하신 분, 특히 영문으로 된 문헌을 읽는 데에 큰 거부감이 없으신 분이라면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시는 데에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 진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만난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처럼 로스쿨 진학과 행정고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거리를 함께 전공하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간혹 정치외교학을 활용해 외교관, 국제기구직원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제정치] 분야의 교과목을 들으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신화 교수님의 《국제기구론》을 수강했을 때, 교수님께서 국제기구에서 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업무와 현실적인 고민의 지점들을 짚어주시고,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소개해주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진학, 언론인, 정치인, 기업가 등의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정치외교학은 인문사회계에서 선택가능한 대부분의 직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정치외교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을 잘 주는지,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에 선뜻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강의시간에만 충실하면 B+, 리딩까지 읽어 녹여내면 A, 거기에 본인만의 생각까지 더하면 A+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에 동의합니다. 소위 엄청난 꿀강이나 헬강이 아닌 이상에야, 평균적인 과목들은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 전공의 학점을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리딩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답안에 ‘키워드’가 담기지 않았거나 읽지 않은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답안을 작성하면 A 이상을 보장할 수 없고, 본인의 생각을 함께 서술했다고 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A+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외교학과에서 A+를 받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이것은 어느 학과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자면, [2019 학과별 졸업 평균학점]을 기준으로 정치외교학과의 졸업 평균 학점은 3.66으로, 고려대학교 전체평균(3.56)보다 높았습니다.

공부량은 교수님마다, 과목마다 정말 다릅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의 경우에는 한 수업 당, 한 강의마다 평균적으로 50~100페이지 정도의 리딩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험범위가 너무 많거나 난이도가 다소 높은 경우엔, 교수님들께서 범위를 줄여주시거나 예상문제를 뽑아 주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과목들도 있습니다...^^)

5. 정치외교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정치외교학과 전공수업 중 학습량도 적고, 학점까지 잘 주시는 뚜렷한 꿀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량이 많지만 학점은 비교적 잘 주시는 강의까지 시야를 넓히면, 꽤 많은 전공과목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들 중에서는 이신화 교수님의 《국제기구론》, 신재혁 교수님의 《동남아시아정치론》, 조계원 교수님의 《현대정치철학》 등이 학습부담은 있지만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해주셔서 학점을 얻기에는 수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공수업 중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명강은 주형민 교수님의 《비교정치개설》과 오향미 교수님의 《헌정주의》인데요. 《비교정치개설》은 비교정치 분야에서 다루는 민주주의, 권위주의, 자본주의 등의 체제 전반을 개괄하는 과목이고, 《헌정주의》는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의 헌정질서를 살피며 한국의 헌정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두 수업 모두 교수님들의 강의력이 정말 좋으시고, 얻어갈 수 있는 배움도 많았습니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부여하시는 리딩이 양이 상당하고 요구하시는 답안의 수준도 여타 전공과목에 비해 높은 편이라 꿀강이라고 추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몇 강의들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관심 분야와 텍스트 이해력, 그리고 답안작성 수준 등이 천차만별인 만큼 각자 명강과 꿀강, 그리고 헬강을 평가하는 기준은 각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첫째로, 정치외교학의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1전공 선택 당시에 국제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정치외교학과에 진입했는데요. 오히려 학습을 하다 보며 국제정치 과목을 수강하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치사상과 비교정치 분야를 두루 학습하며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각 세부분야만의 특징이 뚜렷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정치외교학의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로, 학습의 템포와 방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치외교학과의 교과목은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영과 행정 등의 타 학과에 비해 팀플의 비중이 비교적 적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원한다면 팀플 없이 모든 전공학점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텍스트를 읽으며 비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보니 학습에 있어 저만의 템포와 방식을 따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혼자만의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정치외교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토론이나 토의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의외였습니다. 전공진입 전에 생각했던 정치외교학과의 이미지는 수업 중에 교수님과 학생들 간, 또는 학생과 학생 간에 수많은 논의가 오가는 강의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공과목을 듣다보니 교수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형식으로 강의 시간이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open question을 제시하시는 경우에도, 그것에 관한 토론으로 수업을 채우기보다는 교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거나 혼자 생각을 정리해볼 것을 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강의에서는 토론과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서는 조계원 교수님의 《현대정치철학》이 그러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개인마다 선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 경험으로는 공론장으로서의 강의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치외교학과에 진입하시면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난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의 '이주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정치외교학의 세부분야 중 국제정치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치외교학이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전공의 '법' 과목과도 연결되거나 상호 보완하는 지점이 있으리라는 기대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학습을 계속하며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여타 소수자 집단의 삶 전반으로 시야가 확장되고, 교차성과 기회다원주의를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범위나 목적을 국한하지 않고 정치외교학 전공과목 전반을 두루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팀플이 별로 없고, 텍스트에 집중하며 혼자만의 학습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저와 맞아 전공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2. 정치외교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앞선 [공통질문] 6번 질문의 응답에서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하자면, 정치외교학과 법과목이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를 이해할 때에도 헌법학과 정치외교학적인 접근이 다소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 법학은 법문의 해석과 적용을, 정치외교학은 법의 이전과 이후, 그리고 법에 대한 비평을 탐구하는 데에 집중한다고 느꼈습니다. 때문에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 법학을 이해하는 데에도 곧바로 도움이 되

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외교학을 통해 법과 제도를 법학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3.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전공진입 초기에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의 시선으로 글을 탐독하다보니,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강조하신 부분과는 다른 개인적인 관심사에 쏠려 평가에서 요구하시는 키워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텍스트에서 학생이 관심 있는 파트에 집중하는 과정 역시 유의미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탐독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개념을 이해할 때에 그것만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을 넘어, 다른 개념어들과 비교·대조하는 작업이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영문으로 된 글을 읽을 때에 국문자료 보다는 읽는 데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한번은 교수님께서 한문으로 된 150페이지 이상 분량의 문헌을 읽고 답안에 녹여내기를 요하셔서 당황한 경험도 있습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다가 간혹 언어장벽을 느낄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텍스트를 읽다보면 키워드를 뽑아내 텍스트를 축약하는 본인만의 스킬이 늘기도 합니다.

4. 정치와 외교 중 하나만 세분화하여 공부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만 할 수 없다면 각각의 학습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한 학기를 기준으로 정치와 외교 중 하나만 세분화하여 학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경우 외교학보다는 정치학에 개설된 전공과목이 훨씬 많기에, '외교학'만을 가지고 전공학점 전체를 채우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학의 분야

중 정치사상, 비교정치가 정치학에 해당하고, 국제정치 분야 안에서도 정치학과 외교학을 접목한 전공과목이 많기에 정치학의 학습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외교학으로 개설된 전공과목으로는 《외교사》, 《한국외교정책론》 등이 있습니다.

5. 글을 잘 못써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작문실력 자체는 정치외교학과에 적응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지, 논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정치외교학과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려한 문장을 작성해도 텍스트에서 키워드와 근거를 찾지 않은 허울뿐인 글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입니다. 역으로 조금은 투박한 문장이더라도 키워드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고, 논증이 탄탄하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 자체가 다소 빈약하다면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표현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6. 논문을 비롯한 읽기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치외교학과 진입을 결정하실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외교학의 전공과목 대부분은 논문이나 서적과 같은 읽기자료가 많이 주어지고, 거듭 강조 드렸다시피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드리자면 읽기 자료의 분량 자체는 법학 교재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한 독학을 하며 텍스트를 탐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기에,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로스쿨 진학만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금은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

학원을 진학하려는 목표는 명확하지만 로스쿨에 진학할지,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할지, 혹은 인권과 공익의 가치를 탐구할 수 있는 여타 대학원에 진학할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진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인권과 교차성, 그리고 회복적 사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향후 소수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8.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진로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학점 관리와 영어성적 취득,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로스쿨의 경우에는 법학적성시험의 준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저는 1학년 때와 2학년 때에는 학점관리와 자유전공학부 내의 동아리 활동(형사문제연구회, 소수자인권위원회 등)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조금씩 법이나 정책,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교내외대회와 활동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인 현재 법학적성시험은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하지는 않고 있고, 영어공인인증시험에서 일정한 성적 이상을 얻기 위해 학기 중에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아리 활동이나 대회출전 등은 적성을 탐구하고,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이 훨씬 커서 스펙과 준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9.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Politics is the art of the possible, the attainable — the art of the next best.

(5) 18 학번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선현지 선배

1.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정치

외교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1) 배우는 내용 및 특이점

정치란 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하며,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행정과도, 재화나 서비스를 분배하는 경제와도 크게 맞닿아 있습니다. 외교란 국제 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국가 간 대외관계를 맺는 활동을 의미하며, 요즘같은 글로벌·세계화 시대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명명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치와 외교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정치외교학'입니다. 정치외교학과와 전공은 크게 <정치사상·비교정치·국제정치>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각 카테고리에 관한 설명은 상기의 '교과목 소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지만, 개인적 주관과 직관에 빗대어 쉽게 풀이하자면 정치사상은 '철학', 비교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국제정치는 '외교'를 배운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정치외교학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소개의 역할과 동시에 정외 전공과목만의 특색을 잘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카테고리 당 들어야 하는 과목 수 등에 제한은 없으며,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 위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2) 커리큘럼 (졸업요건)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20학번 학부생을 기준으로, 130학점(졸업요구학점)을 어떻게 채워야 졸업요건을 만족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교양으로 '자유정의진리 I·II(6학점), 1학년 세미나 I·II(2학점), 정보적사고(1학점), 글쓰기(2학점), Academic English I·II(2학점)'가 있는데, 한마디로 1학년 필수 교양을 다 들었다면 13학점이 채워집니다. 또한, 핵심교양 중 <정략적사고·과학과기술·사회의이해>의 카테고리에서 1과목(3학점), <세계의문화·역사의탐구·문학과예술·윤리와사상>의 카테고리에서 1과목(3학점)을 이수해야 합

니다. 여기에 전공관련교양에서 6학점(18학번까지는 전관교 중 정치학의기본탐구가 필수 과목이었으나, 19학번부터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정치학원론은 정외과 졸업요건의 전관교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교양에서 7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공의 경우 전공필수인 '서양근대정치사상, 국제정치론, 비교정치개설, 한국정치론'의 4과목 중 2과목(6학점), 전공선택 중 10과목(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외과 전공과목 3과목을 포함하여 총 5과목의 영어강의를 이수해야 하는데, Academic English 및 외국대학 이수 과목도 인정되므로 Advanced English로 면제받았거나 영강을 선호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전공 3과목만 영어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자전 소속인 만큼, 제1전공인 정외 과목뿐만 아니라 공거리를 위한 학점 이수도 필요합니다. 필수 과목으로 '민법, 헌법, 형법, 고전학(총 12학점)', 선택 과목으로 <법·경제·행정>의 카테고리에서 각 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8과목(총 24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우님들의 경우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카테고리의 수업을 위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우님들의 경우 경제와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조건인 2과목만 이수하고, 나머지 4과목을 포함한 총 5과목의 법 강의를 수강하여 'LIPG(추천 교과목 인증제도)'를 취득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교양 32학점 / 정외 전공 36학점 / 공거리 36학점으로 총 104학점이 채워지는데, 130학점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26학점의 경우 카테고리과 상관없이 본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으로 채우면 됩니다. 기타로는 공인 영어 성적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 매년 1회 이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정치외교학'과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졸업요건을 합쳐 간결히 정리한 것이므로, 언급된 내용 외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의 졸업요구조건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학문적 특성과 현실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란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행위입니다. 그 안에는 진보-보수 간의 갈등과 정치인들의 활동 양상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 젠더 갈등, 각종 차별 문제 등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정치적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많이 전달되는 내용이자 지적 대화를 위한 기본 지식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자연스레 접할 수 있으며, 그만큼 입문이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외교도 정치에 비해서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나, 유사한 맥락에서 진입장벽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현실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첫 번째는 '수업'입니다. 정치외교학과 수업에서 활용되는 리딩 자료는 국강과 영강을 가리지 않고 영어 원서 혹은 논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영어 텍스트를 읽는 데 부담이 없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술할 내용과 같이 조금만 신경쓴다면 '리딩이 없는 수업' 혹은 '리딩이 선택사항인 수업'으로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고, 요즘은 번역기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현대 문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수강에 차질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영어 능력의 경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영어 능력과는 별개로 텍스트 자체를 많이 읽어야 하는 편은 맞으므로 본인이 읽기에 거부감이 없거나 거부감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고 싶은 학우분들께 적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물론 교수님과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치외교학과의 시험은 대부분 서술형(에세이형) 문제로 구성됩니다. 그중에서는 단순히 수업내용을 열거하는 암기형 문항도 있으나, 수업내용과 본인의 주관을 연결시켜 설득력 있게 기술해야 하는 가치판단형 문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읽기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본인이 글쓰기에 자신이 있고 또 좋아한다면 시험 방식에 대한 적응의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여기서의 글쓰기는 ‘유려한 필체의 화려하고 정교한 글쓰기’가 아니라
라는 점입니다. 교수님들은 껍데기보다는 알맹이를 보십니다. 따라서 글솜씨가 받쳐준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만’ 갖추어서는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본인의 생각 및 가치관과 연계하여 사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
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글솜씨가 뛰어나지는 않아도 지식을 받아들이고 생각하
는 시간을 좋아한다면 성적 확보에 불리한 점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아마 이 질문의 경우 저의 견해보다는 공식 통계자료 및 졸업생 선배님들의 의견을 참
조하시는 편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정치외교학은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지식인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특정 직종에서 선호하거나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실용적이고 특별한 학문
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본인이 희망하시는 직종이 어떤 특별한 역량이나 지식을 갖
추어야 한다면 아마 정치외교학이 아닌 다른 전공을 희망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2019년도에 수강했던 모 정외 수업의 거수 통계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과 행
정고시 준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대학원 진학, 정계 입문, 국제기구 종사, 일반 취업 및
기타 직종 희망이 그 뒤를 순서대로 있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정치외교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1) 학점

기본적으로 정치외교학과는 ‘절대평가’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 같은 절대평가라
도 평가기준은 교수님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칼절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대적 절
평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평가방식을 취하시는지는 강의계획서 혹은 클루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두 곳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비공개일 가능성이 큼니다.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기 전에 동일한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선배들이 “A0는 어렵지 않으나 A+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배들의 조언이 맞다는 것을 약 2년 동안 정외 전공을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서술형’의 시험방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학점에 인색하신 교수님들만 피한다면, A0까지는 수업 내용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와 본인의 생각을 타당하게 풀어내는 능력으로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수업 내용 외에도 본인의 배경지식이 얼마나 받쳐주는지, 그것을 수업내용과 연계하여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 있는지, 답안이 교수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완츠(wants)에 얼마나 근접하게 부합하는지 등의 요건과 상황도 따라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수업을 들으면서 특별히 ‘인색하거나 불합리하게 학점을 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은 교수님은 없었기 때문에, 클루의 학점평을 잘 참고하셔서 시간표를 구성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공부량

정치외교학, 그중에서도 정치학은 고대부터 존재해왔던 학문인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양도 방대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정치외교학과와 공부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교수님이나 과목의 스타일에 따라 공부량도 매우 다릅니다. 위의 학점에서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클루평에서 학습량이 4점대 중후반인 교수님들을 제외한 수업으로 학업 계획을 잘 수립하신다면, 적당한 수준의 공부량으로 이루어진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정치외교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특정 과목이 명강인지, 꿀강인지, 헬강인지에 관한 것은 강의 자체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의 특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동일한 과목일지라도 교수님에 따라 수업 내용 구성, 시험 방식, 성적 평가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꿀강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인 '하는 건 없는데 학점은 매우 잘 주는 강의'로 이해한다면 정외과에는 사실상 꿀강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꿀강은 '적은 학습량이나 쉬운 학업 성취에 비해 학점이 후한 강의'로 이해해주시시오.

저와 동기들의 경험에 클루핑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으니, 학우분들께서는 차후 시간표의 구성에 간단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표에 없는 강의이거나 18학번이 수강했던 시기와는 변화된 모습을 띠는 강의를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경우의 꿀강·명강·헬강의 여부는 클루핑을 참고하시면 대부분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강+준꿀강	- 비교정치경제, 현대정치이론 (권혁용 교수님) - 서양고대·중세정치사상, 서양근대정치사상 (김병곤 교수님)
	☞ 내용이 쉽거나 학습량이 적은 것은 결코 아님 ☞ 그러나 강의력이 출중하시고 성적을 후하게 주시는 편
명강+꿀강	- 동북국제관계론, 현대국제안보론 (Alexandrova 교수님) - 정치학방법론, 환경협력의정치경제 (김성은 교수님) - 동남아시아정치론, 비교정치특수과제연구, 정치학방법론 (신재혁 교수님)
	☞ 위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쉽거나 학습량이 적은 것은 결코 아님 ☞ 그러나 강의력이 출중하시고 성적을 매우 후하게 주시는 편
명강+헬강	- 미국외교정책론 (김영수 교수님) - 20세기국제관계사, 국제관계이론, 현대국제안보론 (이동선 교수님)

📖 내용이 어렵고 학습량도 매우 많은 편

📖 대신 강의력이 매우 출중하시나, 성적이 후하진 않은 편

6.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1) 의외로 좋았던 점

의외까진 아니나, 막상 겪어보니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사상과 국제정치에 비해 비교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그에 나름의 비중을 두고 학습을 해왔습니다. 비교정치 중에서도 한국의 정치에 대해 배우는 과목들이 있는데,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한국의 정치사가 한국사 및 헌법사와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업내용의 이해에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미묘하게 그 사건을 바라보거나 평가하는 관점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2) 기대와 달랐던 점

사실 처음부터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엄청 특별한 기대를 하거나 하진 않았고, 일반적인 기대 정도는 했었지만 대부분 부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같은 경우 정치외교학과만의 특색을 찾아서 전공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고, 다음과 같은 저의 3가지 개인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여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는, 정외과의 서술형 시험 방식이 저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말하기·읽기·쓰기를 좋아하는 편으로,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이 이러한 저의 강점을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시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새내기 시절에도 레포트 등의 글쓰기 과제 혹은 에세이형·서술형 시험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물론 객관식도 거부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의 방식 각자가 나름의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교양 수업의 경우 객관식 시험이 많은 편이며 법 과목의 경우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술형 위주의 정외 전공을 수강함으로써 제 기준에서 객관식/서술형 시험이 적절한 비율로 구성된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둘째로는, 로스쿨 진학에 정치외교학의 특성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줄곧 언급하였듯이 많은 것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본인의 텍스트로 풀어쓰는 것은 정치외교학과에서 가장 중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 함양해야 할 필수 자질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외교라는 학문에 대한 넓은 지식의 축적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로스쿨 입시, 특히 리트 시험이라는 가까운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로스쿨 학부생으로서 공부 과정과 법조인으로서의 직장 생활이라는 먼 시점에서까지도 저 자신의 강점이자 큰 도움이 될 능력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셋째로는, 정치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제고하여 저의 꿈에 한 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좁게는 '검사'가 되는 것을, 넓게는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정치'라는 분야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소 모순되게도, 평소에 대중매체에서 정치 관련 뉴스, 정치인들 간의 격한 언쟁, 그와 관련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정치에 막연한 관심은 갔으나 그것이 구체적인 흥미와

학습으로 연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제가 평소 정치외교에 대해 커다란 흥미가 있었던 것도 우수한 배경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오히려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되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외교학과의 진학을 선택했던 것도 상당한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그를 통해 다양한 정외 전공 과목을 수강하며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얻었고, 정치에 관한 뉴스는 예전보다 주의깊게 듣는 습관이 생겼으며, 결론적으로는 정치외교에 대한 흥미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주위에서도 제가 정치외교학과와 잘 맞는 것 같다고 많이 말씀해주시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정치외교라는 전공에 대해 만족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비슷한 성향이나 특징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치외교학과로의 진학을 추천드립니다.

2. 정치외교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1) 만족한 점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기 그리고 선배들의 의견이기도 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점은 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님들의 출중하신 강의력 하에서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외교과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공부했을 것 같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배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다면, 정치 이론의 변천사, 다른 국가의 정치 행태나 정치사, 정치심리학 등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2) 아쉬운 점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1학년 때 정치외교와 관련된 학문의 전반을 훑고 수업에 임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은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전생의 경우 2학년 1학기 때부터 제1전공에 따른 본격적인 전공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본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내용을 다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일 때 조금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혹은 교수님께 질문 등을 통해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2학년 이상 전공과목들은 학생들이 기초지식을 함양했는 가정 하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는 자전생뿐만 아니라 이중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등을 하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므로 스스로 대비 및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다루는 것도 학과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전공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쌓아놓고 싶거나 혹은 본인이 정치외교학이라는 학문과 맞는지 고민되는 학우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 미리 정치외교학과 관련 교양을 들어보는 것도 좋고, 만약 그것이 늦었다면 ‘정치학의 이해’ 혹은 ‘정치학원론’ 등의 관련 도서를 도서관에서 대여하여 훑어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3.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줄곧 언급하였듯 정치외교라는 학문 자체가 제 기존 지식과 완전 동떨어진 내용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엄청 심화된 수준의 학습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업 내용 이해 자체에 어려움을 느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사에는 관심이 많았던 반면 세계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동남아시아정치론’ 과목을 수강할 때 스리비자야, 마자파힛 등 처음 듣는 왕조 혹은 지명이 많이 나와서 그 생소함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함양하고 있는 기초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고 친절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수업 내용과는 별개로 시험 유형 중에서 다소 어렵다고 느껴진 것이 있었는데, 바로 '현대정치이론'의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 간 비교·분석을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인 시험은 각 목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는 않고, 목차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서술하는 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목의 시험은, 예를 들어 2강에서 a라는 개념을 배우 8강에서 p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이 a와 p에 대해 비교·분석한 내용에 개인적 견해를 녹여내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당황했지만, 기출문제에 대한 예상답변을 작성해보고 자체적으로 결이 비슷한 개념을 묶어가면서 학습하는 습관을 기렀던 덕분에 본시험의 답안 작성은 무난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께서도 주변 동기 및 선배들의 조언,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공생 카페'를 애용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치와 외교 중 하나만 세분화하여 공부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만 할 수 없다면 각각의 학습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이름이 정치외교학이라고는 하나 양자 모두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해당 학과의 진학을 꿈꾸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학문 중 하나만 세분화하여 공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자가 상호 간 완전히 분리되어있지 않으므로, 양자 중 하나'만'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교관계 안에 정치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외교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자 중 한 쪽에 비중을 두고 듣는다는 것은 매우 가능하고, 실제로 저도 지난 학기 동안 정치 쪽에 큰 비중을 두고 학습을 해왔습니다.

대체로 이름에 '국제' 혹은 '외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과목인 이상 외교에 대해 비중있

게 다루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저는 외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정치 쪽에 관심 비중이 몰려있었기 때문에, '한국외교정책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외교에 대해 깊이 배운 적은 없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므로, 외교 쪽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정외과에 오는 것을 망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치 위주의 수업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외교'만' 공부하고 싶고 정치에 거부감 있는 학생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외교 쪽의 직업군을 희망할지라도 정치에 관한 전공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정치외교학과로의 진입을 정치에 대한 거부감 타파 및 지식의 넓이 확장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글을 잘 못 써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배양하고자 하는 능력은 OX퀴즈나 객관식 문제를 통해 선지의 맞고 틀림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수업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소화하여 본인의 텍스트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글쓰기 실력이 좋다면 당연히 편하겠지만, 뛰어난 글쓰기 실력이 학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낮은 학점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닌 텍스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교수님들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보십니다. 서술형 시험과 백일장은 같은 글쓰기이나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사여구와 유려한 문체로 구성된 '아름답고 정돈된 글쓰기'를 요구하는 백일장과는 달리,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게 핵심 위주로 배운 내용을 최대한 많이 토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나아가 학생의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라면, 수업 내용과의 본인의 주장이 논리적 모순이 없이 잘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픈북 시험이 아닐 경우,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수

업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암기가 없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글을 잘 쓰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서술형'이라는 시험 방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이며, 그것이 있다면 글솜씨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6. 논문을 비롯한 읽기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정치외교학과의 큰 특성 중 하나가 많은 양의 리딩 자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수강했던 과목 중에서 절반 정도는 교재 및 PPT를 제외한 리딩이 없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리딩이 있는 수업도 정말 리딩을 읽지 않으면 수업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퀴즈로 학습 여부를 확인하시는 등의 필수 리딩과, 리딩을 들으면 학습에 더 도움이 되는 정도의 선택 리딩이 있습니다. 선택 리딩의 경우 그 내용을 시험에 녹아 낼 때 +와 0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말 그대로 그것을 읽을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클루핑을 잘 보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리딩 및 학습량이다 싶은 수업은 피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외과의 특성 상 강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전략적으로 시간표를 잘 짜면 본인의 한계 수치 이상의 리딩을 읽으면서 고생하는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7.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검사'라는 장래희망을 꿈꿔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생기부를 보아도 법과 관련된 스펙이 가장 많았고, 전망하던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여 이렇게 법학과 정치외교학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된 지금도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다는 목표는 여전합니다. 실제로 대학생이 되

어 공부를 해보니 법학 과목의 공부에 제일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 인생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조인이 가장 적합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되고 싶다는 저의 꿈은 불변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확고부동하기보다는 법적 흥미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러 직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8.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여기서는 검사가 아닌 '법조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단기적인 목표는 '로스쿨 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점, 리트 점수, 공인어학점수, 자소서, 면접의 5가지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각 대학 별로 영역에 대한 반영 방식이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특정 대학 로스쿨이 있다면, 학교 홈페이지의 커리큘럼을 참조하여 그에 맞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정량 평가인 학점, 리트 점수, 공인어학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고익선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높은 성적만 받을 수 있다면 정성 평가를 등한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2학년 때 법과 관련된 혹은 본인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나 학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스쿨 입시의 정성 평가를 위한 스펙으로서도 좋지만, 무엇보다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건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1~2학년 때 밴드부인 후, 형사문제연구회, 법대철학회의 3가지 동아리를 했는데 각자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저에게 큰 보람, 성취감, 추억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학우님들께 동아리 활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쿨 졸업 이후의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대학 학부생인 저보다는 졸업생 혹은 로스쿨 학부생

선배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시는 후배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전공자료집을 읽으며 전공에 대해 고민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전공자료집을 작성하다니 다소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이미 앞쪽의 질문들을 통해 제가 해 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많이 전달드린 관계로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말을 적으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후배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 조그마한 조언 몇 가지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독서와 뉴스 시청 등을 통해 많은 배경지식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의 학업 그리고 로스쿨의 진학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 지식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 또한 충분하다 싶었지만 돌아보니 또 부족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발견해내고 꾸준히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고 배움에는 끝이 없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반복하다 보면 과거보다 훨씬 발전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방학을 알차게 보낼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대학 생활에서 딱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1학년, 2학년 방학을 별 다른 성취 없이 보낸 것입니다. 방학 동안에 이를 성취는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취득, 다음 학기 복습과 같이 학업에 관련된 것이어도 좋지만, 아르바이트, 여행, 봉사, 꾸준한 취미 등 학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진로 고민 및 준비, 각종 다양한 사유로 온전히 스스로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학년 방학을 보람차게 보내실 수 있다면 그것이 후회없는 대학 생활을 만드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하고 열망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만큼, 후배님들이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스스로를 가꾸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니 전공 선택에 너무 큰 부담과 걱정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정치외교학과와 관련하여, 혹은 그 외 다른 부분에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진입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후배님이 계시다면, 저의 글을 포함한 모든 전공자료집의 내용이 후회 없는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2. 졸업생 선배 인터뷰

(1) 16 학번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권혁준 선배

<공통 질문>

1.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정치외교학과는 전공진입과목인 '정치학의 기본탐구' 과목과 함께 정치외교학과에 개설된 전공선택을 12과목 수강하는 방식으로 총 39학점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선택 중 3과목 (9학점) 이상은 영강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타과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원론' 수업은 수강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전공선택 12과목 중에는 국제정치론, 한국정치론, 서양근대정치사상, 비교정치개설의 전공필수 4과목 중 2과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른 전공과 다른 정외과 전공과목 만의 특이한 점은 전공 선택 과목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정치, 비교정치, 정치사상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개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정치 안에는 동남아시아정치론, 한국정치론, 일본외교정책론, 중국정치론 등 지역 및 분야 별로 세분화된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고, 정치사상 안에는 서양근대정치사상, 현대정치철학, 서양고대중세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등 시기 및 지역별로 세분화된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강신청이 쉽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개설 강의 유형에 따라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정치학이라는 학문 안에서도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부 분야의 수업들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정치외교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현대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모두 자연스럽게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회,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고, 그래서 특별히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수업들을 들어보면서, 읽기와 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수업과 시험 준비에 조금 더 수월하겠다고 느낀 적은 있습니다. 정외과의 수업들은 대부분 강의자료의 보충자료로서 읽기자료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데, 복습을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읽기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정치학 원문, 원서일 때도 있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 형식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복습이나 시험 준비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기의 경우, 정외과 수업들은 시험이 대부분 긴 서술형 문제들로 구성됩니다. 정외과에 개설된 일반교양과목만 들어봐도 아실 수 있는데, 시험 자체가 객관식이나 단답형이 거의 없고 (과목별로 편차가 있지만) 5개 이하의 약술형이나 서술형로 구성되므로 시험을 보는 동안 쓰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하고 암기한 수업의 중심내용, 혹은 그것을 토대로 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면 시험을 보는 데에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먹을 필요는 없는 게, 제가 2년간 느낀 바로는 수업을 들으면서 읽기와 쓰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논리성 보다는 본인이 그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수업을 잘 듣고 원하는 성적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정치외교학과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외교학이 실용적으로 어떤 직업군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학문이나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고시 공부, 로스쿨 준비, 대학원 진학 등으로 진로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 채용, 정계 입문, 일반 사기업 혹은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소수의 학생들도 본적 있습니다. 위의 대표적인 3가지 진로 중 대학원 진학은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진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진로인 것 같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른 학과의 학생들처럼 앞선 두 개의 진로들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4. 정치외교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을 잘 준다, 안 준다고 절대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전공진입을 했던 시점부터 정외과의 모든 수업들이 절대평가로 평가기준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교수님들이 성적부여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모든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여준다면 모두에게 A+가 부여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듣는 수업에도 손에 꼽히는 수의 학생들에게만 A+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상대평가 등 일정한 성적 쿼터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수업과 시험에서 한만큼 학점이 부여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중에서 저명하신 분이나 해당 분야의 권위자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도 처음에는 학생들에 대한 눈높이가 높으실 것 같아서 걱정했으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학부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에 맞게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설정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수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출석하고 수업에 임하고 배운 내용을 시험에 성실하게만 작성한다면 성적을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부량의 경우, 교수님들이 대부분 학계에서 권위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는 수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업의 난이도는 학부생 수준에

맞춰주시고 설명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해주시지만, 평균적인 공부량 자체는 다른 과에 비해 절대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량이 적지 않은 만큼 그 과정을 잘 따라가기만 하고, 시험에서도 배운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서술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정치외교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들은 과목 중 꿀강이라고 부를만한 강의는 없었습니다. 또한 적어도 제가 들어온 강의들 중에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라고 불릴만한 강의도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신재혁 교수님의 동남아시아정치론, 권혁용 교수님의 현대정치이론, 서복경 교수님의 한국정치론 수업 이렇게 3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정치론은 영강으로 진행). 세 강의 모두 교수님들께서 매우 수준 높은 강의력과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인상 깊었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성적도 짜게 주시진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정치론 수업의 경우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 관한 수업이라 그런지 한국 근현대사를 더 분석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인 모델들을 적용해보면서 조명하는 접근 자체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수업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정외과 교수님들께서 전달력이나 강의력이 매우 좋으셔서 수업을 듣는 그 자체는 매우 유익하고 성취감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6. 정치외교학과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 이 있나요? 그리고 제1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공지사항은 정외과생들을 위한 카페에 가입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카페에는 과거 정외과 수업들의 기출문제와 족보들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학생들에게만 족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등의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전으로서의 특별한 이익이나 불이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공진입을 하시는 순간 출석부 등 학적 자체가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로 표기되어 학번까지 보시지 않는 한 자전학생들을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선 다른 정외과 학생들을 몰라도 팀플레이 없는 수업들이 대부분이고, 대다수의 수업은 강의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제1전공 학우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당위크샵 등의 기회도 있긴 하나 이미 그들은 서로 알고 친해진 상태에서 자전 학생들이 새롭게 친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회도 많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여하려고 한다면 자전 학생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학문 보다는 순수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나 경영학보다는 순수 사회과학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개인적으로 정치나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정외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을 선택하던 시기인 2016 년 말에는 국정농단으로 인해 사회가 정치적으로 활발한 시기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본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먼저 사회와 정치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외과 지망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역시도 정외과 지망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외과 수업의 읽기량이 부담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를 오히려 기회를 승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외과를 선택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할 때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책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책을 자발적으로 많이 읽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제가 수준 높은 글들을 접할 기회를 늘리고 싶어서 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외과 수업과 시험 형식이 제 성격과 맞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팀플을 좋아하지 않고 답이 딱 정해진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시험들을 선호하는데, 정외과 수업은 팀플 없이 대부분 강의형식으로 진행되고, 시험은 서술형, 논술형으로 출제된다는 점이 저의 선호와 부합하였습니다. 저는 1 학년 2 학기 때 들은 정외과 교양과목을 통해 저의 선호가 정외과의 특성과 잘 맞는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외과를 지망하시는 분들이라면 1 학년 기간 동안 한 번 정도는 정외과 교양수업을 선택교양으로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2. 정치외교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족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교수님들의 강의력과 설명력이 매우 출중해서 수업을 들으면 남는 것이 많고 성취감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부분 수업을 팀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바쁜 시험기간을 제외하면 비시험기간에는 경영학과 동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들이 과제가 많지 않은 데다 난이도 높은 과제는 거의 없어서 과제에 치이지 않고 시험기간에만 집중하고 공부를 해서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가지고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제가 워낙 정외과와 잘 맞는 편이고 정외과를 고민 없이 바로 선택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많은 학습량이나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 참여도 정도를 제외하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3.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느낀 점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사상의 수업들은 지금까지 현대정치철학, 서양근대정치사상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에서 배운 정치철학자들 각자의 철학적 입장이나 기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치사상의 수업들은 대부분 정외과 학생 모두에게 어렵게 다가오다 보니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반복해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학설대립이나 비교정치의 의회구조 및 입법과정 등등에 대해 배울 때 처음에는 복잡한 점들이 많았으나, 전공진입 과목인 정치학의 기본탐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목들을 들으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면 모두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 정치와 외교 중 하나만 세분화하여 공부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만 할 수 없다면 각각의 학습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위에서 다 설명을 한 대로, 정치와 외교로 세분화되지 않고 국제정치, 비교정치, 정치사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교라는 분야가 학문적으로 이론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정외과 수업 대부분은 굳이 둘 중에서 고르자면 더 포괄적인 정치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는 전공선택 과목 중 '외교사'나 '일본외교정책론' 등 외교라는 이름이 포함된 과목들 중에서 적성이나 흥미에 따라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의 학습비중은 외교학이 정치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굳이 따진다면 개설과목 수나 강의 주제 등을 바탕으로 정치와 외교가 7:3, 혹은 8:2 정도로 다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글을 잘 못써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글을 잘 못 쓰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수님들이 보시기엔 학부생들이 75 분의 제한된 시간 동안 작성한 글의 수준이 대동소이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고 암기한 내용이나 자신의 주관을 글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러한 방식에 대한 거부감만 없으면 수업과정을 따라가는 것이나 성적을 받는 데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6. 논문을 비롯한 읽기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읽기자료가 많은 과목도 있고 적은 과목도 있는데, 대부분의 과목들은 읽기 자료가 필수적으로 매번 수업에 읽어가야 하는 수업자료라기 보단 복습을 하면서 보충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자료로서의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과목의 경우 시험 답안에 읽기자료의 내용이 첨가가 된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데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 자료 자체가 모든 학생들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읽기를 매번 완벽하게 해오는 것도 아니라서, 자신이 필요한 곳에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큰 문제없이 수업을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명예교우님 인터뷰

(1) 05학번 정치외교학과 김송아 변호사님

1. 많은 학생들이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면서도 정작 정치외교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치외교학이란 대략적으로 어떤 학문이고, 정치외교학과라는 전공에서는 크게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에 대해 교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치외교학이란 정치 이론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치의 흐름을 배우고 전망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크게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의 세 분야로 나뉘는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는 다양한 전공수업들이 마련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치외교학이라는 개념에 대해 막연했지만, 글을 읽고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잘 맞는 전공일 것이며, 정치외교학 전공 졸업생들은 국회, 사무관, 법조인, 국제기구, 재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더 넓은 식견을 갖추기 위한 전제가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학부 공부와 관련하여 전공 진입 전에 미리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나 따로 해야 할 공부, 진입 후 꼭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정경대에서 마련하고 있는 교양과목들이 있습니다. 정치학의 기본탐구(전공탐색과목), 한국과 국제사회, 국제정치의 이해 등 교양과목들을 접해보으로써 정치외교학에 대한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경대에서는 정치외교학 이외의 다른 전공에 대해서는 전공탐색과목 등 다양한 입문적 교양과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전공선택 전 수강을 통해 자신의 전공 탐색에 충분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학과 전공 공부에서 그룹 스터디 등 자신만의 학습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셨는지요?

정치외교학은 그룹스터디 등이 필요한 학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책을 읽고, 이해하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과목별로 요구되는 학습방법이 다르겠지만 실라버스에서 미리 필수 또는 참고 도서로 지정된 책들을 준비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표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팀을 이룬 수강생들과 학기 내내 발표와 과제 준비를 하기도 했었구요. 정경대에 마련되어 있는 학술통아리 등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4. 기타 교환학생, 동아리, 학회, 학생회 활동, 인턴 등 기억에 남는 학과 활동이

있으신지요?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교류회(KUBA)에서 활동하면서 외국 친구들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또,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설정한 후 남은 대학생살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마음에 교환학생을 신청하였고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호주 University of Newcastle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교환학생기간동안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발표하던 경험, 다양한 여행경험, 호주 기숙사에서의 외국 학생들과 어울리던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아울러 학부시절에 동아시아재단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전국대학생 모의유엔대회에 고려대학교 대표로 나가서 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

5. 학부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강의나 사건이 있으신지요?

국제정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신화 교수님, 강성학 교수님의 수업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고, 대부분 학부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교환학생과 교류회 활동, 그리고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던 것들이네요.

6. 학부 생활을 돌아보실 때 스스로 가장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과 그 반대로 가장 아쉬운 일은 무엇인지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운이 좋게도 차근차근 하나씩 잘 경험해 온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진로 결정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고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입시를 준비했던 그 순간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7. 삼성전자 사내변호사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현재의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로스쿨 진학 시 고민이 많았던 것처럼, 로스쿨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로스쿨 졸업 후에는 법원, 검찰, 로펌 변호사, 사내변호사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다니면서 법원, 로펌, 사내변호사를 두루두루 인턴십 경험을 통해 탐색해 볼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사내변호사는 역동적인 기업 속에서 업무를 하고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8. 현재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내변호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다루시는지, 직업의 특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로펌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와 어떻게 다른지요?

사내변호사는 주로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여 사업의 추진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과 함께, 발생한 법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기업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역동적이고 신속성을 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초일류 대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케이스들과 다양한 법적문제들이 많아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들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역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사내변호사가 적성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펌 변호사가 주로 소송이나 자문사건을 수임해서 대리인의 입장에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내변호사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소송의 경우에는 로펌변호사들과 코웁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전반적인

진행방향과 구체적인 소송전략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 학부에서의 전공 공부가 현재 직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한 점이 로스쿨 공부와 현재 직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조인은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이해해서 글로 풀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는 다양한 글을 읽고 쓰는 훈련을 많이 해 나가기 때문에 법조인의 기초적인 소양을 쌓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하는데도 글을 읽고, 이해, 분석, 비판하는 능력, 언어표현 능력의 함양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상식과 이론들이 로스쿨 공부뿐만 아니라 현재 변호사로서의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10.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로스쿨 진학에 유리하다는 이유 한 가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문인지, 자신이 즐기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공부인지를 잘 고려해보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분석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정치외교학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좋은 학점과 아울러 다양한 진로에 대한 선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허용되는 교양 학점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전공탐색과목을 수강해보고, 자신의 전공을 현명하게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1. 학점이 좋아야 로스쿨을 진학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따로 학부생활을 하면서 학점관리 뿐 아니라 로스쿨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혹시 학부생활을 하면서 로스쿨을 준비할 재학생들이 꼭 해야 할 것 같은 활동이나 공부가 있나요? 흔히들 로스쿨 입학하기 위해 영어, 학점, LEET, 제2외국어, 봉사활동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는데 과연 모두가 필요한지요?

학점은 로스쿨 진학뿐만 아니라,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학점은 본인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죠.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성적을 관리해 좋은 대학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명문대학의 훌륭한 인프라 속에서 자신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스스로 좋은 학점을 성취해낸다면 자신의 성실함을 충분히 입증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기 중 시험 대비에 충실하시고, 출석 및 과제에 충실하여야 하며, 방학 중 실라버스를 통한 예습도 학점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 학점, 리트, 봉사활동 모두 중요한 요소 일 것입니다. 하지만 몇 점 이상, 몇 시간 이상으로 정해놓기 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일정한 분야로 정해놓고 일관되게 쌓아왔음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류회 활동, 교환학생 활동, 인턴 활동, 대회 참가 경력 등 일관적으로 국제적 경험과 감각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로스쿨 입시에 임했었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12. 로스쿨이 막 생겼을 당시에는 로스쿨에 대한 확신이 지금보다도 더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사실 정치외교학 대학원과 법조인의 진로를 두고 고민했었습니다. 법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했었구요. 저는 05학번인데 그 당시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중전공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었고, 저는 법학을 이중전공으로 하여, 매학기 정경대학과 법대를 뛰어다니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부 2학년 때쯤 로스쿨이 도입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마침 이중전공으로 하고 있던 법학에도 매력을 느껴 로스쿨 진로를 결심했습니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첫 기수로서 앞이 보이지 않는 도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로스쿨 진학결정을 가장 잘한 선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3. 혹시 고시생활을 하셨다면 고시 공부와 로스쿨 공부의 차이점과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고시 생활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고시 공부는 신림동 또는 학원 강의, 수험서 등을 통해 혼자 하는 공부가 대부분이라면, 로스쿨 공부는 대학원의 교수님들과 동기들과 함께 해 나가는 공부라는 점이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시 생활에서는 법학 이론적인 측면만 공부하지만 로스쿨에서는 압축적이기는 하나 법학 이론뿐만 아니라 연수원에서 공부하는 실무공부도 병행하게 됩니다.

법을 처음 접하는 동기들의 경우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벅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로스쿨 입시를 뚫고 들어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모두 잘 적응해내고, 결국에는 법을 처음 공부해 보신 분들이 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조금 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교양과목을 통해 법학에 대한 이해를 다지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14. 로스쿨 내에서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생회 활동 등의 교내 활동이 궁금합니다.

학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로스쿨의 동아리 활동은 체육활동과 친목활동, 법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등이 있습니다.

축구, 농구 동아리, 산악동아리 등이 있으며, 공익인권법학회, 국제법학회, 환경법학회 등이 있어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더 심도 깊게 할 수도 있고, 교수님 및 동기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5.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이외에 검사나 판사 임용을 위해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로스쿨에서의 성적이 중요한가요?

검사의 경우에는 정식 서류지원, 면접을 통해 정식 검사로 임용을 받게 되고, 1년간은 법무연수원에서 검사의 기초소양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각 지검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로스쿨 졸업 후 즉시 임용은 없으며, 로클릭이라는 재판연구원의 활동을 통해 법원에 배치되어 판사님들의 업무를 보좌하며 법원 업무를 2년간 익히게 됩니다. 2년이후 총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쌓이게 되면 이후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앞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6. 로스쿨생활을 하며 학부생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신지요? 저희 자유전공학부 특성상 로스쿨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유독 많은데요, 로스쿨 준비에 대한 충고가 있으신지요?

로스쿨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분야에 욕심을 내다보니 힘든 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기 로스쿨의 경우에는 선례가 없어 정해지지 않은 길을 걷다보니 불확실성과 두려움도 많았구요. 그런데 로스쿨도 벌써 5기에 접어들고 있고 노하우를 쌓아놓은 선배들이 많을테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시절 기초체력을 좀 더 보강해둘 걸 하는 후회가 종종 들었습니다. 특히 로스쿨 3학년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총 4일간 평균 10 시간씩 앉아서 객관식,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봐야하는 변호사 시험은

정말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할 때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수준의 운동을 해나감으로써 기초체력을 보강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앞으로의 로스쿨 생활,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통계학과

I. 개괄

1. 학과 소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경제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에서 실증적 분석 분야의 고급 인재의 양성을 위해 1963 년 국내 최초로 정경대학 내에 만들어졌습니다. 통계분석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였고, 그간 본과가 배출한 수많은 졸업생들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 전문가로서 학계뿐 아니라 금융 및 경영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데이터 과학으로서의 통계학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 통계적 사고와 정량적 자료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교육과 연구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구하고,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양성, 우수교원 확보, 기금 마련과 시설확충을 통하여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를 배출함으로써 국내외 최정상 통계학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고려대 통계학과는 이론과 응용의 균형을 지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앞으로는 응용과 연결되는 이론적 연구와 이론에 기초한 탄실한 응용으로써 우리 사회와 글로벌 커뮤니티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통계이론 및 방법론의 균형 있는 교육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통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과학의 새 시대에 고려대 통계학과는 수리적 사고와 계산 능력을 겸비한

융합적 인재의 본산임을 자부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들의 헌신과 재학생들의 노력을 통하여, 창의적 연구와 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2. 특이사항

- ✓ 전국 통계학과 중 교수 1 인당 국제 논문 수 1 위(2009)
- ✓ 교내 연구소 평가 사회과학분야 1 위(2010)
- ✓ BK21 플러스 사업팀 선정(2013 & 2020)
- ✓ 통계학분야 세계 100 대 대학에 선정(영국 QS 사) (2013~)

3. 주 강의동 소개 및 주변지리

통계학과는 정경대학 소속으로 모든 전공 강의가 정경관에서 진행됩니다. 안암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며, 법학관과의 접근성 또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4. 진로진학

- 2011~2015 년 기준 평균 취업률: 75.7% (최대 86.2%)

- 1) 금융계 (국책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 2) 기업계
- 3) 학계, 연구소 및 기타

5. 학과 프로그램

- 1) 국외 인턴십 프로그램

네덜란드의 국제통계기구(ISI), 호주의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 미국의 Partnerships in Prevention Science Institute 등의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2)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한국거래소, Ernst & Young, 한국 인터넷진흥원, 통계청, Accenture, Deloitte, 우리투자증권, 네이버, 대우증권, KOBACO 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기관,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 인턴 파견

3) 진로상담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의 강연 및 식사자리에서의 편안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II. 졸업요건

선택교양	7학점
전공필수 (9학점)	수리통계학, 확률론입문, 회귀분석
전공선택	27학점
영강	학부 전공강의 영강 3과목 포함 영강 5과목 이수 (실용영어, 외국대학 이수 과목, 국제하계대학 과목은 영어강의로 인정)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기초통계학

통계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러 분야에 통계학을 적용시키는 능력을 교수합니다.

통계수학

통계학에 필요한 미적분학, 집합론을 포함한 기초해석학, 선형대수학을 교수합니다.

기초전산통계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실습합니다.

통계프로그래밍 입문

최신 컴퓨터 언어를 이용한 통계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응용을 다룹니다.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적방법

통계적 자료탐색 및 추론의 개념, 비교실험의 계획과 분석,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 통계방법론을 교수합니다.

확률론입문

확률의 개념과 확률적 사고, 확률모형, 그리고 기댓값, 적률생성함수, 조건부분포이론을 포함한 확률분포이론, 극한정리 등을 수학합니다.

수리통계학

통계학의 수리적인 기초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해석합니다. 확률변수, 변수변환, 표본분포, 추정 및 가설검정의 이론을 포함합니다.

행렬이론

행렬대수의 개념과 기법을 소개하고 통계적 응용을 설명합니다. 행렬식, 역행렬, 고유값과 고유벡터, 비정칙치 분해 등을 포함합니다.

시계열분석

시계열 자료의 분석을 위한 ARIMA분석, 전이함수분석, 개입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소개하고,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습합니다.

통계적데이터과학 I

기초적 통계이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과학 방법론을 학습합니다. R/Python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고 데이터의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구조 및 SQL, 텍스트마이닝, 온라인학습 등 탐색적 자료 분석을 위한 데이터과학 지식을 다룹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통계적데이터과학II

데이터과학에 필요한 방법론의 원리와 이론을 통계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룹니다. 모든 데이터 기반 학습방법의 원리인 의사결정 이론과, 분산-편향 상충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과학에 널리 활용되는 정규화 학습, 커널 학습, 차원축약, 위계적 학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방법론의 작동 원리를 다루며, 나아가, 응용상황에 알맞은 방법론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통계적머신러닝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를 통계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료 분석(분류, 회귀, 차원축소, 군집, 감정분석)을 통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지식을 추출하고,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공부합니다. Python을 통해 실제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실제 사례 연구와 team project를 통한 통계적 머신러닝 이해와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2. 학년별 권장 과목

1학년	1학기	통계수학	기초통계학
	2학기	행렬이론	사회과학을위한통계적방법
2학년	1학기	확률론입문, 통계계산소프트웨어	
	2학기	수리통계학, 회귀분석, 통계조사론입문, 통계계산프로그래밍	
3학년	1학기	실험계획법, 범주형자료분석, 통계계산방법, 금융통계학	
	2학기	시계열분석, 비모수통계학, 다변량통계분석, 통계적데이터과학 I, 보험통계학	
4학년	1학기	법과통계학, 통계적데이터과학II,	

		생명과학데이터분석, 선형방법론, 통계학특강
	2학기	베이지스통계입문, 데이터마이닝입문, 통계적머신러닝, 수리통계학특강, 통계논문세미나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1) 17학번 자유전공학부 통계학과 구본혁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통계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글을 읽고 쓰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 것이 재밌었고, 비교적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학문이 적성에 맞았는데, 통계학이 취업에도 강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계학과에 진학했습니다.

2.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통계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학문의 기초 과목인 기초통계학, 전공필수 3 과목을 포함한 전공 12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총 13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영강을 3 과목 이상 들어야 하는데 전필이 대부분 영강으로 열리기 때문에 영강 과목 채우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통계학과 과목들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기초통계학과 사회과학을위한데이터과학은 통계학의 전반을 다루는, 자전의 법학통론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계수학에서 배우는 미적분 개념을 토대로 확률론입문과 수리통계학의 전필 라인들을 수강하게 되며,

R 이나 SAS 등의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통계계산소프트웨어나 통계계산프로그래밍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렬이론이나 선형대수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회귀분석과 다변량통계분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통계학과는 비교적 팀플이 적고, 텍스트를 읽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공부보다는 문제를 풀거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공부가 주를 이루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팀플이 매우 적은 반면, 문제 풀이 위주의 과제를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3. 통계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수학을 잘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수학을 많이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수학에 자신 있으시면,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4. 통계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과에 비해 비교적 학점을 잘 안 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점수대별로 칼같이 커트라인을 나누어 A+부터 F 까지 모든 구간의 학점을 선사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공부량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문과 분들은 수학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문과여서 이과 수학을 접해보지 않았었는데, 2-1 에 통계학과에 진입하고 들었던 통계수학이 꽤 힘들었습니다.

5. 통계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매 학기 통계수학과 행렬이론이라는 강의를 여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강의들을 명강이자 헬강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자전 통계 학생들은 2-1 에 통수, 2-2 에 행렬을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미적분 2 와 선형대수를 배워본 적 없으신 분들은 고통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주 과제가 나가고, 시험도 주말에 3 시간가량 봐서 한 학기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교수님의 강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스파르타식으로 배운 덕에 기초는 확실히 잡힌 것 같아요.

꿀강보다는 팁을 한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언급한 통계수학과 행렬이론은 앞으로 통계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전필은 아닙니다. 즉, 이 과목들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학과에서 열리는 통수와 행렬을 듣는 것보다 타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 전공인 선형대수 I 및연습은 행렬이론에서 다루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데, 통계학과 전공을 들은 것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이 과목으로 도망(?)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수학과 분반이 따로 개설되고, 대부분 정경대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6. 1 학년때 통계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통계학과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기초통계학 책을 빌려서 본 것이 유일하게 통계와 접해본 경험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학문의 기초 과목인 기초통계학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통계학의 기초의 전반을 훑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상 노베이스로 진입했고, 통계학과 커리큘럼을 따르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학 때 무언가를 준비해보고 싶으시면 미적분 공부를 추천합니다. 통계수학 수업이 Stewart 의 calculus 책으로 진행되는데, 이 교재를 설명하는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도 있어서 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7.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통계학과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통계학과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통계학을 배움으로써 로스쿨을 진학하는 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타과와 비교해서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로스쿨 도전해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상태로 전공 선택을 했는데, 학점을 잘 주는 학과를 선택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재밌는 걸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학점을 잘 주는 학과여도 나랑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학점을 오히려 통계보다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법도 재밌고 통계도 재밌어서 통계학과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법이랑 통계는 어떻게 보면 전혀 판판인 과목이라 법 공부하다 통계 공부하다 하면 질리지도 않고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로스쿨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통계학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통계학이 재밌는데 로스쿨에 확신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도전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통계학과에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8.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통계학과에 한 해에 5 명 내외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과들과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교류가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류가 많고 적음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별질문>

1. 어느 정도의 수학(數學)능력이 필요하나요? 수학이 많이 쓰이고 중요한가요?

미적분과 선형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통계학과에서 수학이 많이 쓰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메리트가 상당할 것이지만,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통계 커리를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과 동시에 수강하게 될 통계수학이나 이로부터 이어질 확률론입문과 수리통계학 때문에 진입장벽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구간들만 지난다면 수학보다는 코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학이 걱정되신다면 8 번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적분을 선행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컴퓨터 사용 능력도 많이 중요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컴퓨터 사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2 번 질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저학년 때는 수학을 도구로 사용하여 통계의 기본적인 모형들을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 배우고 나서는,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다루는 수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코딩 능력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3. 혹시 통계에 대해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어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지장이 없을까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도 통계학 수업을 단 하나도 들어보지 않고 통계학과에 진학했습니다.

4. 통계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통계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통계학 수준의 과목을 수강하거나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계학뿐만 아니라 어느 전공에 진입하더라도 해당 전공의 개론 수업에 준하는 지식을 알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분명 그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적성을 탐색하는 데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개설되는 강의를 수강신청 실패 등의 이유로 들어보지 못하고 전공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도서관에서 개론서를 빌려서 훑어보는 정도의

노력만 들여도 훨씬 나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1 학년 때 통계학 수업을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기초통계학 책을 빌려서 본 것이 통계학을 1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정보와 지식으로 3 년간 혹은 그 이상 배울 전공이 자신에게 꼭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를 알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새내기 시절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확실히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싫어하는 것부터 하나씩 배제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글로 적어내거나 발표하는 일이 정말 적성에 맞지 않고 흥미가 없습니다. 1-1 에 수강한 정치외교학과 교양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제 생각을 가미하여 논술형으로 작성하는 시험이나 글쓰기 수업은 정말 어렵고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상경계만이 선택지로 남게 되었고, 영강과 팀플이 많은 경영학과는 별로였고, 맨큐의 경제학보다 기초통계학이 덜 재미없었습니다. 통계학을 선택했던 순간에서 통계학에 큰 재미를 느꼈다거나 통계와 관련된 진로를 꿈꾸며 그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에 최우선으로 집중하시되,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보고 내가 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들의 조언이나 전공자료집 등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20학번 자유전공학부 통계학과 정우성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통계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로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분야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문에 대해 고민하던 중 통계학이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통계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통계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못해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진학 초기에는 통계학을 위한 기본적인 수학 과목을 수강한 후, 고학년 시기에는 본인이 고려 중인 통계 분야를 위한 전공선택과목을 듣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3. 통계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나 꼼꼼한 성격 등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통계 중에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분야를 염두하고 학과에 진학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게 전공을 명확히 살려 취업을 하고 싶다면 대학원 진학은 필수라고 생각하기에 보통 학사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 통계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을 따기 쉬운 학과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공부량은 중상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6. 통계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통계수학 과목 수강시 교수님 선택에 신중해야하며, 아직까지 명강과 꿀강을 판별할만큼의 통계강의를 듣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7. 통계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수학이 생각보다 어려워 벽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지만, 고진감래라고 졸업 이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며 버틸 생각입니다.

8. 1 학년때 통계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통계학과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연관과목을 1 학년 때 듣지 않고 진학했으며, 미리 듣는다면 기초통계학정도를 추천합니다.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통계학과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통계학과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솔직히 로스쿨을 희망한다면, 통계학과는 비추합니다. 학점을 따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거리와 통계학의 연관성이 떨어져, 공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10.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통계학과에 진학하신 후배님들을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지만, 솔직히 자전통계 선배님들과의 연결은 쉽지 않은 듯합니다.

<개별질문>

1. 통계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아직 학과에 진학하고 1학기라는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어려운 점은 없었으나 역시 문과출신이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어느정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2. 어느 정도의 수학(數學)능력이 필요하나요? 수학이 많이 쓰이고 중요한가요?

어느정도 필요하며 중요도는 고학년이 된 이후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3. 컴퓨터 사용 능력도 많이 중요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컴퓨터를 이용한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없어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으나, 통계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4. 혹시 통계에 대해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어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지장이 없을까요?

열정만 있다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5.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일단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며, 제가 좋아하는 것과 통계를 연결지을 방도를 모색 중입니다.

6.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통계과목을 수강할 것, 대학원 진로를 염두할 것.

7. 통계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확신이 없다면, 하나의 차선택으로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학과가 통계학과라고 생각합니다.

(3) 19학번 자유전공학부 통계학과 김지수 선배

<공통질문>

1.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통계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커리큘럼은 통계학과 홈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크게 수학을 배우는 (미적분, 확률론 등) 수리통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코딩, 빅데이터 활용 등을 배우는 응용통계로 나뉩니다. 특이한 점은 수학이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1학년이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인 통계수학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이과 수준의 수학을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수업을 따라가는 데 유리합니다. 전공과목 하나하나의 연계성이 짙어서,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수강했더라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 역시 그다음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전공 공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통계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수학을 좋아하시거나,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자신 있으시다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하지만 꼭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전공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3. 통계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당연한 말이지만 본인이 하는 만큼 나옵니다. 대체로 수학 관련 과목들이 교수님의 기대치가 높으셔서 다른 전공(공거리)과목들보다 더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된 과목들은 그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퍼주는 느낌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4. 통계학과와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공부량도 많고, 과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과제량도 많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통계 전공을 총 3과목을 들었는데, 이틀에 한 번 복습하지 않으면 양이 밀려서 시험 기간에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자전생들은 본전공과 공거리를 둘 다 공부해야 해서 심적인 부담이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과제도 거의 격주로 하나씩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평소에 복습을 잘해 놓으면 시험 기간에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5. 통계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헬강과 명강 그 사이 어딘가에 조영경 교수님의 '통계수학' 이 있습니다. 극악의 난이도와 극악의 공부량을 자랑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력이 그 극악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줍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고 패기롭게 신청했는데 정말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평소는 물론이고 시험 기간마다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적분을 사랑하고 미적분에 대한 열의가 불타

오른다면 추천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꼭 피해야 할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통계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단순히 통계가 재미있어 보여서 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단순히 암기하고 적용했던 이론들의 배경을 배우면서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추론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7. 통계학과에서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통계' 라 하면 수학을 떠올리기 쉬운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루면 여러모로 편할 것 같더라고요.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통계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을 살려 1년 동안 다양한 과목들을 들어보면서 전공을 골라보자, 라는 마음에 1학년 때 여러 전공과목들을 들어보았는데, 그중 통계 과목들이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다른 전공 중 딱히 끌리는 전공이 없었고, 무엇보다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2. 통계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반적으로 다 만족합니다. 학과 공부도 재미있고, 교수님들 강의력도 좋으시고, 늘 강의에

서 많이 배워갑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전-통계가 얼마 없다는 점입니다. 18학번에도 몇 분 안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공을 선택하기 전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19학번에도 통계학과는 저 혼자인데, 아무래도 전공과목을 전부 혼자 들어야 하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생겨도 같이 공부할 친구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3. 통계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4. 어느 정도의 수학(數學)능력이 필요하나요? 수학이 많이 쓰이고 중요한가요?

수학이 많이 쓰이고, 또 중요합니다. 통계학과와 거의 모든 전공에서 이과 수준의 미적분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과 수학만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아서 입학 전이나 1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이과 수학(미적분, 기하와 벡터 등)을 미리 공부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념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능숙하게 문제 풀이와 증명 등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1. 통계학과에서는 컴퓨터 사용 능력이 많이 중요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컴퓨터를 잘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딩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과목들에서도 일단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제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학부 때 필요한 능력들은 갖추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나 R 등의 프로그래밍을 다룰 줄 안다면 공부하기 유리할 것 같습니다.

5. 공부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나요?

저는 지난 학기 주말을 빼놓고는 매일 복습했습니다. 과제는 격주로 나왔고, 과제를 풀고, 다시 피드백 받은 후 다시 풀어보았기 때문에 매주 전공 복습 외에도 과제를 따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목 외에도 미분적분학 공부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따로 미적분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전공 자체의 공부량도 많지만, 무엇보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다른 과목들의 필요성도 느껴서 부차적인 공부에 시간을 더 쏟았던 것 같습니다.

6.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통계대학원에 진학해서 전공 공부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학부에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부보다는 석사로서의 메리트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석사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생각 중입니다.

7. 통계학과를 선택한다면 로스쿨 진학에 어떤 연관성이나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자유전공학부에 정시전형으로 입학해서, 처음부터 로스쿨 진학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로스쿨을 고려하신다면 통계학과는 그다지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사실 통계학과가 로스쿨 진학에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노력을 들인다는 가정하에 학점을 그다지 잘 주는 편도 아니고, 통계와 법의 연관성도 크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8. 통계에 대해 한 번도 접해보는 적 없어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지장이 있을까요?

기초통계학 강의는 수강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과 통계와 비슷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정과 회귀분석을 같이 배우는데 통계학에서 중요한 줄기들이라서 기초통계학을 배우고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으면 통계학과 선택을 고려해봐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 통계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통계학과를 생각하고 있어도 자전에서 통계학과를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학점을 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과, 같이 가는 동기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사실 공부가 적성에 맞고 재미있으면 학점은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목들도 혼자 듣는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제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과 불안 때문에 다른 전공을 선택했으면 크게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4) 16학번 자유전공학부 통계학과 황수연 선배

<공통 질문>

1. 통계학과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통계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통계학과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확률론입문, 수리통계학, 다변량통계분석 총 9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선택으로 27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통계학과와 대부분의 수업들이 과목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연관성이 매우 긴밀한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연관성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과제를 수행할 때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통계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한단계 한단계 지식을 쌓아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확률론입문에서 배운 내용이 베이스가 되어 수리통계학에서 다시 다루게 되고 가지를 뻗어나가듯 연장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행렬이론 과목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후에 다변량통계분석을 수강할 때 기반이

되어 더욱 확장해 간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통계계산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른 과목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귀분석 수업에서 실제 데이터를 R 을 통해 분석하거나, 비모수통계학에서 손으로 푸는 방법 외에도 SAS, SPSS 등의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과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큰 틀에서 통계학과의 다양한 수업들이 하나의 순환과정처럼 반복되고 이어진다는 것이 통계학과만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통계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가장 우선적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열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의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을 좋아한다면 통계학과 수업에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공진입 후 첫 학기에 통계수학이라는 과목을 보통 듣게 되는데, 이는 미적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며 이후에 듣게 될 전공필수과목들이 이때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업이었습니다. 다만, 이과에서 배우는 수학을 압축적으로 한 학기만에 배워 나가기 때문에 따라가기에 벅찬 수업일 수도 있어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뻘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실함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수시과제(수업 내용에 대한 문제 풀이)를 내주시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꾸준히 복습하는 것과 과제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많아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과제가 있기에 복습을 밀리지 않고 하게 되며 나중에 시험공부를 할 때에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통계학이 요구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여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금융관련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통계학과 진로상담회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공기업에 취직하신 선배님들을 뵈 수 있었고, 보험계리사, 회계사이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약회사와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검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통계학이 요구되는 또 하나의 분야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화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학·석사연계과정(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여 학사학위과정을 7 학기, 석사학위과정을 3 학기에 이수)을 통해 5 년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도 있어서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학·석사연계과정도 참고하여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통계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수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목에 얼마나 흥미를 갖고 임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공부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문제 풀이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므로 공부량이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낯선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수업과 과제에 충실히 임하여 꾸준히 공부해 나간다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통계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통계학과 전공필수 과목 중 송성주 교수님의 수리통계학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영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통계학과와 또다른 필수과목인 확률론입문을 바탕으로 더욱 확장하는

느낌의 수업이어서 처음에는 부담도 많이 되고 수시로 진행되는 과제로 인해 복습과 과제를 철저히 그리고 꾸준히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설명이 매우 매끄러웠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잘 전달해 주셔서 과제나 수업 내용 복습에 더 열의를 갖고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되돌아보니 수업 내용 자체도 제가 정말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많았고, 더욱이 교수님의 수업 자료와 설명이 좋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얻어가는 측면이 많았던 명강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통계학과로 전공진입을 한 후 처음으로 수강한 통계학 과목들 중 조영경 교수님의 통계수학 과목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 내용 자체가 미적분학이기 때문에 낯선 개념들이 매우 많았고 절대로 쉬운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내용과 수시로 있는 과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시험 역시 4 시간 정도 진행되어서 부담도 많았던 수업이지만 되돌아보면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간 수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수시과제를 풀면서 평소 자연스럽게 꾸준한 복습을 할 수 있었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개념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크게 남는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통계수학에서 다룬 내용은 이후 전공 과목들에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해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통계학과 전공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이재원 교수님의 실험계획법이나 비모수통계학, 생명과학데이터분석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가정이 하나씩 어긋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검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단계별로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 나가는 재미도 있고, 다양한 통계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에 녹여서 제시해주시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은 많지만 그만큼 한 학기가 지났을 때 스스로 많이 성장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통계학과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 1 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통계학과 관련 공지사항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통한 알림이 제공되고 정경관 게시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학과 진로상담회나 각종 행사의 경우 문자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통계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결정적인 이유로 수학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고등학교 때에도 수학 과목에 상대적으로 더 흥미를 느껴서 제 1 전공을 선택할 때 통계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실 통계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공진입 후 과목을 수강해보니 이과 수학 내용까지 한 번에 다루게 되어 낯선 부분이 많아 버거웠지만, 그에 반해 새로이 알아간다는 느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통계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2. 통계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난 2018 년 1 학기에 통계학과 진로 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분야에 대한 설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선배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로부터 학업에 관한 직접적인 조언은 물론이고 실제 현업에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

고민하던 중이었던 저에게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에는 통계학과 교우회에서 '2인3각' 행사를 주최하여 졸업생 선배님들과 식사를 하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나 고민, 취업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통계학과 자체적으로 실제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는 점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통계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처음 미적분을 공부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적분을 다뤘던 통계수학 과목이 방대한 양을 한 학기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데에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의 모든 수업들이 별개가 아니라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도 다른 과목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던 것 같고, 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어느 정도의 수학(數學)능력이 필요하나요? 수학이 많이 쓰이고 중요한가요?

통계학과로 전공진입을 한 후 첫 학기에 통계학 수업을 여러 과목 들었는데, 그 중 통계수학 수업에서 배웠던 미적분 관련 전반적인 내용이 다른 모든 수업에서도 기반이 되고 계속해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통계학 수업을 듣더라도 미적분 등 수학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모든 수업들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확장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확률과 통계를

넘어서서, 이를 배우기 위한 과정에서 일반수학의 내용까지 사용되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는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 공부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나요?

아무래도 배운 개념이 있다면 이를 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업을 듣고 직후에 복습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전공필수 과목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과목들이 과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복습을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공통질문에서도 대답하였듯이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6. 선생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저는 통계학과로 전공진입을 한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수리와 통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계리사 시험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회사에서 상품개발 또는 계리결산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2023 년부터 시행되는 IFRS17 의 영향 등으로 인해 보험상품·부채 관련 전문가 수요의 증가로 주목을 받는 진로이기도 합니다. 보험계리사 시험은 1,2 차로 진행되며,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주로 보험사에 취직을 하거나 은행, 증권사, 계리컨설팅법인 등에서도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 등 보다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전공을 살려서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7. 통계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통계학과를 선택하면서도 사실 걱정이 들었던 부분도 많았고, 실제로 처음 전공진입을 하였을 때 생각보다 방대한 양과 낯선 개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업 내용이 낯선 만큼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의 희열과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도출했을 때의 기쁨은 통계학과에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도 통계학과에서 최대한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고 졸업할 수 있도록 과목도 가능한 한 많이 개설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하는 것보다도 수학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통계학과에 오셔서 배움을 확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졸업생 선배 인터뷰

(1) 17학번 자유전공학부 통계학과 임채휘 선배

<공통 질문>

1.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통계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통계학과에서는 기초통계학, 수리통계학, 통계수학, 행렬이론과 같은 기초 과목으로 통계학에 대한 전반과 기반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다변량 통계분석, 비모수통계학과 같은 조금 더 심화한 통계학에 관한 공부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중에는 R, SAS 와 같은 통계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학습 또한 병행됩니다. 통계전공은 다른 인문계 전공과 달리 수학 공부가 많고 컴퓨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2. 통계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모든 학과가 그렇듯이, 꼭 필요한 능력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당연히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수리적인 사고를 잘한다면 통계학과에서는 유리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래밍을 즐기고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대기업 입사를 하는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이 외에 제약회사,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통계학을 필요로 하는 추세이기에 관심사에 따라 보통 진로를 정하십니다.

4. 통계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통계학과는 시험 점수에 따라 학점을 주는 편이라, 학점을 보통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량은 딱히 타 전공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타 전공들은 통 암기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면 통계학과는 웬만해서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통계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은 허명회 교수님의 통계계산프로그래밍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허명회 교수님의 강의력은 정말 깊은 내공이 느껴질 정도로 깔끔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것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이재원 교수님의 비모수통계학도 정말 꼭 들어야 할 강의에 들어갑니다. 사실 모든 강의를 흥미진진하고 통계학의 분야마다 자기만의 매력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강의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헬강이라고 하면 통계수학은 인문계생으로서 조금 힘든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피할 수 없는 필수강의라 열심히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6. 통계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통계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통계학과에서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롯이 수리적인 분야만 공부할 것이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오히려 통계학과 진입 후 프로그래밍까지 배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통계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통계학과에 관한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도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연음대학교의 응용통계학과)를 고민할 정도로 통계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통계학이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상황을 찾을 때 모델링을 통해 그에 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암기 위주의 사회탐구는 정말 싫어했고, 이해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특성도 제가 통계학을 선택한 것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워야 하는 것들이 많은 타 인문계 전공보다는 수리적 사고와 이해력을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는 통계학이 제 적성에 맞았습니다.

2. 통계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통계학과에 대해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수업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 강의력 좋은 교수님들께서 좋은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기에 지식 또한 원활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3. 통계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통계학의 이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수학적으로 이 학문을 증명하는 과정이 한눈에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처음 이론 통계를 접했을 때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하나의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했고 이를 이해하는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증명은 이미 위대한신 통계학자님들께서 몇 백년 전에 해주셨고 저희는 이를 이해만 하면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 어느 정도의 수학(數學)능력이 필요하나요? 수학이 많이 쓰이고 중요한가요?

수학능력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공 특성상 수학이 정말 많이 쓰이고, 수리적 사고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선형대수학이 정말 중요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통계전공의 핵심을 꿰뚫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공부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나요?

너무 공부량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절대 통계학과라고 해서 타 전공보다 월등히 공부량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본인의

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만 한다면 절대 공부량이 많은 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우는 시간이 적어서 더 편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6.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원 진학을 통해 전문성을 조금 더 쌓은 후, 이를 바탕으로 제약회사 또는 은행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통계지식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 단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이른다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이를 바탕으로 저의 경력을 전개해나가고 싶습니다.

7.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한국은행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은 필수이며, 또한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싶다면 학사 또는 박사학위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대학원 진학은 필수이고 학문에 대한 애정이 많고 더 깊게 공부할 욕심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통계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리통계학, 회귀분석 필답고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인원을 뽑기 때문에 이 두 과목에 대한 애정과 깊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8. 통계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는 절대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했던 신뢰구간 찾기, 경우의 수 찾기, 길찾기... 정도로 끝나는 학문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찾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절대 경우의 수만 분석하는 지루한 학문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학문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통계학이 중요해지고 있고, 통계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학과를 희망하는 자유전공학부 후배님들은 꼭 통계학과에 진학해서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3. 명예교우님 인터뷰

(1) 82 통계학과 신동구 선배님

1. 통계학과와 연계되는 진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통계학은 금융과 관련하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마케팅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은 그것을 넘어서 사실 거의 모든 분야의 밑바탕이 되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은 감성에 의해 결정하는 것들을 객관화시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어떤 물품을 더 사려고 하는지 어떻게 광고하는 것이 소비의 욕구를 증폭시키는지, 또는 어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주관적인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두어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논리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설명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계학은 그 학문 자체에 중점을 두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범용성, 즉 실용성과 유용성을 바라보고 통계학과를 지망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분야든 통계학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통계학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계학과 현대사회의 방향이 부합한다고 봅니다.

2. 교우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본인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기획팀장과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그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을 얼마나 되는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입각하여 계산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다중회계분석과 같은 통계학적인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정밀하면 할수록 회사가 효율적이게 됩니다. 즉 통계학과에서 배웠던 내용이 현재 본인이 이 직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용적으로 작용합니다.

3. 대학교를 다니면서 현재 교우님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학시절에 열정을 가지고 정치에 관해 토론을 하고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그런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틀이 존재했었고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현재 자유전공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자유전공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좋은 과를 지망하는 것이 소위 후광이라는 득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과가 인기가 많은 과이고 그 과가 다른 과에 비해 더 유리하다는 것은 테스트하기 모호합니다. 즉 어느 전공을 지망하더라도 본인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지향점을 잘 비춰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견딜 것. 지금의 고통과 행했던 것들이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5. 특히 통계학과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통계학과를 지망하는데 있어서 통계 그 자체만을 보고 지망하기보다는 하나의 logic으로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통계를 수단으로 하여 넓게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지향점을 보고 통계학과로 지망했으면 좋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사회에 먼저 진출하신 선배님으로서 후배들에게 얘기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세상에 공짜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할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있지 않으면 사회의 변혁을 따라가고 감당할 수 없어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본인의 사고 혹은 신념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만의 신념과 색깔,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교환학생을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글로벌한 사회이므로 그런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교환학생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인의 삶을 위해 최소한 악기 한두 개 정도 자유롭게 연주를 할 줄 알고, 또한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행정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1955년에 법과대학에 소속된 형태로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행정학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다양한 공직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공공부문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의 주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위해 국제적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행정학과 전국 평가 전부문 1위 (1994년 시사저널, 2005년 중앙일보)
- ✓ 2단계 BK21 사업단 종합평가 1위 (2009년 법, 정치, 행정 분야 최우수사업 선정)
- ✓ 행정학과 평가 전국 1위 (2014년 중앙일보)
- ✓ BK21 PLUS 사업팀 선정 (2015년)
- ✓ 2017 QS 전공별 세계 대학 랭킹 28위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uacquarelli Symonds)
- ✓ 2021 QS 전공별 세계 대학 랭킹 38위

3. 진로진학

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공-사 부분을 막론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직자

- 2)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 3) 입법고시를 통한 국회 행정전문가
- 4) 공사,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 5) 국제기구 및 해외협력기관
- 6) 시민사회 및 비정부조직(NGO)
- 7) 학계와 교육계 및 연구기관
- 8) 대기업과 금융 및 보험기관

4. 학과 프로그램

1)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한국갤럽,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인턴 파견 및 학점 인정

2) 행정네트워크 포럼

매년 졸업생과 재학생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3) 행정고시 멘토링 프로그램

합격생 멘토링 및 수험계획 상담지원, 전용고시실 및 각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과 교수의 답안 첨삭지도 및 합격생 관리, 현직 국·과장 선배 공직자와 학과 교수의 면접지도

4) 행정고시 합격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국어, 회계, 통계 등 역량강화 세미나 진행, 해외연수기회 제공(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5) 행정학과 운영 국제교류 프로그램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교환학생 프로그램

(2017년 개시)

- NEURUS(Network for European and U.S. Regional and Urban Studies) 장기연수 프로그램

- University of Hong Kong 사회과학대학과 Global Citizenship Summer Institute 프로그램

공동 운영

6)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지도

법학 전공 교수의 전공 강의와 진학 상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청 입학설명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선배 멘토링, 법대 행정학과 출신 법조계 선배와의 네트워킹

II. 졸업요건

학문의기초 (3학점)	행정학원론
전공선택	42학점 (전공필수 지정 과목 없음)
영강	5개 이상 (전공 3과목 포함)
기타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토대가 되는 과목! 기초과목

행정학에 대한 이해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초이자 다른 행정 전공과목을 듣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주요과목:** 행정학원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조직이론, 공공철학과 윤리, 민주주의와 행정

정부도 환경이 중요해! 행정·정책 환경 분야

공공부문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정치적·경제적·제도적 환경을 다룹니다. 공부할 때 주변 환경이 중요하듯 행정 역시 행정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요과목:** 복지국가론, 정부와시장, 정부와시민사회, 통치제도와 정책, 행정과 법,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등

정부도 조직이다! 행정·관리 분야

공공부문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다룹니다. 정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효율적이고 좋은 조직이 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 **주요과목:** 행정이론, 지방행정, 인사행정, 예산과 재무관리, 공공관리, 정부회계와 감사,
정부부패, 정부관료제, 조직행태론 등

정부의 일을 배우자! 정책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정책을 다룹니다. 행정은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정책들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것이므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 **주요과목:** 과학기술정책, 복지정책, 정책의 규범적분석, 도시관리와 정책, 도시계획론, 환경정책, 위험사회와 정책 등

어떻게 공부하지? 방법론 분야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필요한 연구방법과 이를 활용한 사례분석을 다룹니다. 어느 학문 분야나 나름의 공부하는 방법이 있기에 행정학에서도 행정학 연구를 위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 **주요과목:** 행정통계분석, 정책사례분석, 행정사례분석 등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1학기	행정학원론
	2학기	조직이론, 민주주의와 행정
2학년	1학기	정책학, 공공철학과 윤리, 조사방법론, 공공부문의 경제적 분석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1, 예산과재무관리, 인사행정
	2학기	정부와 시민사회,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2, 조직행태론, 정부부패, 공공정책형성, 행정통계분석
3학년	1학기	행정과법, 공공관리, 행정이론, 한국행정론, 공공기관인턴십1, 정책분석 및 평가, 정책기획론, 복지정책
	2학기	정부와 시장, 복지국가론, 정부회계와 감사, 정부관료제, 지방행정,

		도시계획론, 도시관리와정책, 환경정책, 정책의 규범적분석, 연역적방법론
4학년	1학기	국제행정, 정보관리와 전자정부, 행정학 특강1, 공공기관 인턴십2, 비교정책, 지역개발론, 과학기술과 정책, 행정학특강2, 행정사례분석
	2학기	비교정부, 행정과리더십, 행정학연습1, 위험사회와정책, 갈등관리와 협상, 행정학연습2, 정책사례분석, 행정 및 정책실무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1) 19학번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곽지현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행정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직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왔고, 그 기반인 법을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에 자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로스쿨을 희망하는 많은 학우분들을 만나 스스로도 로스쿨 진학에 대해 잠깐 고민해본 결과, 사후적으로 법률을 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법원을 찾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다보니 돌려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공직자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고요. 자연스레 행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정학과가 행정고시에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저는 경제를 무척 싫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 존재하는 학부 중에서 법과

가장 많이 연관 있는(특정 방향으로이지만)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학과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2.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행정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국가를 디자인하라’라는 슬로건처럼, 행정학과에서는 국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크게 행정-정책 환경(법, 정치, 경제,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 행정-조직 관리(조직, 인사, 재무, 리더십 등), 정책(계획 및 기획, 집행, 복지 등), 방법론(통계 분석, 행정 실무 지식 사례)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다른 학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공필수가 없고, 모든 과목이 전공선택이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정해져있는 커리큘럼도 없고, 각자 수업의 내용이나 수업 스타일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저학년때는 행정학원론, 조직이론, 정책학 등 각 분야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수강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정책 분석 등 실제 사례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행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전공수업을 많이 수강해본 것은 아니어서, 일단 행정학 자체만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토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거시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행정학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에 비교해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 하나인 반면 행정의 목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경제적 발전,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그에 상충되는 평등권 및 형평성의 추구,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용 등 하나의 관점에 집중해서는 절대 파악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확실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학문이어서 정확하고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맞지 않는 학문일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에서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에게는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잘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들어본 수업들로 이야기드리자면, 글 쓰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글쓰기에 자신있는 분에게는 무척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거리 과목은 무조건 객관식시험을 치는 강의를 택한 프로객관식러인데, 행정과목에서는 슬프게도 객관식 시험을 딱 한번 치뤄봤습니다. (그것도 중간에만 그랬고, 기말에는 서술형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운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에 적용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사례에 이론을 접목시켜 에세이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잘 맞는 사람에게는 매우 재밌지만 명확한 답을 도출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꽤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학과 홈페이지에서는 졸업생 현황을 민간기업, 정부 및 공무원, 진학, 금융, 기타전문직, 법률 및 기타 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1-2013 통계라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으로는 행정학과인만큼 행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합니다. 자전이 아닌 행정학과 선배께 그래도 주변 행정학과 사람들 모두 한번씩은 행정고시를 준비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 자전 행정학과 동기 및 선후배님들을 봤을 때는 로스쿨을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행정고시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인 진로는 아니겠지만 일반사회 과목으로의 교직이수도 가능해서, 저는 현재 교직이수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매년 1 명씩을 선발하지만, 그만큼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제가 교직이수 지원했을 때에는

저까지 포함해서 단 2 명이 면접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사회 과목이라 교직과목과 더불어 사회학과, 정외과, 경제학과 수업들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그쪽으로 진로를 잡으면 5 학년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5. 행정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못주시는 편은 아니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제가 아예 없는 수업이 드물다 보니 어느정도의 성실함이 요구되고, 또 암기해야 할 기본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암기를 기본으로 이해를 하는 타입이라 처음에 무턱대고 이론들을 암기하는 데에서 조금 버거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기만 하면 학점을 후하게 주시기로 유명한 수업들을 골라 들으시면 학점에 대한 걱정은 어느정도 더하지 않을까 합니다.

6. 행정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들은 과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레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임현 교수님의 통치제도와 정책,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일단 공거리 과목인 헌법과 행정법을 다루는 수업이라 수업 내용이 거의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치제도와 정책, 헌법을 한 학기에 같이 수강했고 공부를 0.6 과목 정도 덜 할 수 있었습니다(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있어하는 법 수업이기도 했고, 강의안의 자료가 풍부하고 친절해서 혼자 복습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학과 의 행정법 수업은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1,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2, 행정과 법 순서대로 강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저는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2 부터 들었지만 공부할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임현

교수님 수업은 잡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잡으셨다면 중간부터 들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헬강이라고 생각한 수업은 없었지만 과목들 중 통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수업, 많은 리딩이 있는 수업, 토론이 많은 수업 등 개인에 따라 힘든 수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신청 실패하셨다고 아무거나 잡지 마시고 꼭 강의계획서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감이 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7. 행정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 1 전공으로 행정학과를 택하고, 저에게 행정학과를 매우 추천해주신 자전 행정학과 선배에게 이를 알렸을 때 그 선배가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내용과 경영 다음으로 많은 팀플과 빠센 분석과 정경대식 서술형이 있는 행정에 온 걸 환영해” 였는데요. 이 말을 행정학과에 진입하고 하나하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팀플이 있는 수업이 굉장히 많고, 또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초반에 암기해야 할 이론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점과 뒤에서 말씀드릴 행정학에 대한 어려웠던 부분이 겹쳐져서 초반에는 전공공부가 조금 많이 재미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적인 이론 부분을 다져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좋았던 점은, 행정학과의 수업이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공철학과 윤리’ 수업을 들으며 사회 이슈에 대해서 다른 학우분들과 토론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아직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통계 수업, 재무 수업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된 수업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것들을 선별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수업 스타일이거나 흥미가 가지 않는 내용인 경우 듣지 않으면 된다는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이외 과목들을 수신 성공 하신다면요^^.)

8. 1 학년때 행정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행정학과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수강 해보실 과목으로는 행정학원론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행정학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론들을 훑어주고, 각 분야들을 조금씩 접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양이 많기도 합니다.) 공거리 과목이니 행정 부분 공거리를 채울 겸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공거리로 조직이론이나 정책학 등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학년 때 행정 과목을 두개 채우시는 것 보다는 다양한 과목을 들어보시면서 정말로 흥미가 생기는 전공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행정학과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행정학과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로스쿨에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주변 자전 행정분들 중에서는 로스쿨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 외의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보다 많은 것 같고, 정경대 행정학과와 경우도 보통 문과 학과들이 그렇다시피 로스쿨을 희망하는 분들이 어느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학과 홈페이지의 비전에서도 법률전문가 양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공과도 연관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행정학과 자체의 헌법, 행정법 수업이 있어서 법학 수업을 다른 관점에서 수강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10.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알던 선배님들, 학우분들을 제외하고는 알지 못합니다. 대면 수업을 했다면 알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학과를 진학한 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행정학과에 진학하는 학우님들의 수부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원래 알던 사람들끼리, 혹은 마이웨이로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슬픈 저는 후배님들을 매우 환영하니 혹시 행정학과에 진학하게 되시면 꼭 밥약 걸어주세요!

<개별질문>

1. 행정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행정학은 정답이 없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행정학에서는 어떠한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행정학을 공부할 때는 그 이론들이 무척 방대하고, 또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 라는 이론을 배우면, 다음에는 A 를 반박하는 이론이 나오고, 또 그 이론을 반박하며 A 를 수정 보완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탈~주의, 신~주의 등 각종 이론들의 변형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익히는 데에도 꽤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이론이 이해가 되고, 그 이론들이 등장하는 시기의 사회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면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행정학의 각 분야, 예를 들자면 조직이론이나 정부론,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 모두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2. 행정학과는 강의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수강신청할 때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저는 좋아하는 강의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팀플 비선호, 토론 비선호, 시험 위주의 평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형식의 수업들을 제외하다 보면 2-3 개 정도 전공 수업이 남아있었고, 과목과는 상관없이 이를 최우선으로

수강신청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선호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하며 수강신청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몇번의 정정을 거치다 보면 그럭저럭 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되긴 합니다. (교수님께 간절한 증원 메일을 보내고 정정때 열심히 붙잡고 있으면 어떤 수업이든 자리는 나옵니다^^...) 사실 (3 학점 기준) 14 과목의 전공선택만 수강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3. 행정학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후의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실 행정학원론은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과 내용에 많이 갈리는 편이라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행정학원론은 얇고 넓게 행정학을 한번 훑는 느낌이라면 실제 전공은 그 훑은 각 분야를 깊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는 1 학년 때 행정학원론을 수강했는데, 그 방대한 내용이 너무 힘들었고 행정학과 진학에 대해서 잠깐 다시 고민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행정학원론을 포함한 행정 전공들 중에서 행정학원론의 학점이 제일 낮습니다. 주변 선배들과 동기들 중에서도 행정학원론이 제일 재미없었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전공과목에서는 행정학원론에서 스쳐지나가듯 배운 이론에 대해 좀 더 깊게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버거울 정도의 난이도 차이는 느끼지 못했어요.

4.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행정고시(국가공무원 5 급 공채)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5.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행정고시를 통해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인 PSAT과 2차 서술형 시험, 3차 면접 시험을 약 1년의 기간 동안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되면 공직 적성 검사인 PSAT과 면접 시험인 3차 시험 보다는 2차 시험을 중시하여 이에 전념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직렬 별로 과목이 다른데요, 일반행정의 경우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의 4가지 필수 과목과 1개의 선택과목을 각 과목별 2시간씩 10장 내외의 분량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준비기간이 꽤나 긴 시험이라 진입을 결정하시기 전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통 3학년 1학기 끝나고, 혹은 남자분들의 경우 군대를 전역하시고 준비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시국에 육해서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던 행정고시를 2학년을 마치자마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일찍 진입한 것이 조금 후회되기도 합니다. 합격유예도 이제 최대 1년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니, 자신의 학업 일정에 맞추어 진입시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의 지원은 다른 학교에 비해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행정학과에 진학하시게 된다면 정경대 고시실인 호림원, 행정학과 고시실인 공공인재원, 자전 고시실인 범올터에서 공부 공간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소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고시실의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자체에서 행정고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숙, 열람이 가능하고 도서, 스터디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아직 신림을 갈 용기가 없는 저는 만족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합격하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따로 스펙이나 준비는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자신이 정말 이 일이 하고싶은지 충분히 고민해보신 뒤에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파스 고시 게시판 등에서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6.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행정학과에 진학하는 자전 학우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학과를 희망하시더라도 정보가 많지 않아 망설이는 후배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적어보았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본인이 정말 하고싶은 것은 무엇인지, 또 무엇을 공부했을 때 재밌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배님들은 그 선택을 최선의 결과로 만드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실테니까요, 너무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원하는 전공을 택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학과에 흥미가 있으시거나 흥미가 생기신 분들, 또 행정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밥약 걸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19학번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류세현 선배

<공통 질문>

1. 행정학과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행정학과 전공 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다른 사회과학 계열 학문도 학제적 접근을 통한 확장을 이루고 있지만, 행정학은 특히 복합적인 성격이 짙은 학문입니다. 여타 학문과 비교해볼 때 본격적인 등장과 발전의 생애가 그리 길지 않은 학문이고, 대체로 사회의 여러 분야와 맞닿아 발전하면서 그 복잡성도 다소 강합니다. 특히 법, 경영, 정치 등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행정학의 세부 분야는 이러한 영역들을 흡수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행정학 자체를 발전시켜올 정도로 그 정체성이 명확히 확립된 바가 없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호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행정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공간으로서 그 자체 융합적 성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정책관리(그 형성, 결정 및 집행), 지방자치 관리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학과 강의는 이와 관련하여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법이나 경제, 경영, 정치 등과의 융합적 성격을 띠는 강의들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진입한 지 3학기 정도 되었는데, 아직 다양한 영역의 행정학 강의를 접한 바가 없어 특별히 덧붙일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세 학기를 거치면서 주로 행정법 관련 강의를 들었는데, 행정법은 공법적 성격이 짙은 분야이면서도 형법, 헌법 등의 전통적인 공법 영역보다는 사법적(私法的) 성격도 가미되어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민법이나 상법과 유사한 내용도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법은 국가 작용 일반 중 입법과 사법을 제한 나머지로써의 행정 영역을 두루 다루는 법체계인 만큼 “법질서의 정점인 헌법과의 긴밀한 관계”가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강의와 행정법 강의를 함께 듣거나 각 강의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들은 후에 나머지 강의를 듣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2. 행정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행정학은 다른 학문보다 실용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특히 민감한 학문이고,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내용을 확장해나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의 특성을 흥미 있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를 유리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실(실제 사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강의와 관련하여 말해보자면, 행정학과 강의를 팀플과 발표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능하다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덧붙여서, 다른 행정학 강의와 비교하여 볼 때 실례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분석 및 내용 적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정법 영역에서도 -법체계 및 관련 이론과 판례 위주의 강의를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례 분석과 이에 대한 법규 적용 및 결론 도출을 내용으로 하는 과제 또는 시험이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여기서도 생각해볼 수 있듯이, 행정의 영역은 결국 이론

적 검토 위에서 이루어지는 “적용”의 영역, 즉 실용의 체계에 관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볼 때, 순수 학문적 내용을 더 선호하는 학생이라면 행정학과로의 진입을 재차 숙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고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행정고시에 도전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행정고시 공부에 있어서 행정학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평이 많고, 오히려 경제학 계열의 강의를 듣는 것이 고시 공부에 일부나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4. 행정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아직 강의를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한 편”이라는 경향을 주장할 만한 경험치가 없습니다. 하는 만큼 주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학과 강의 중에 학점을 잘 주는 강의를 찾고자 한다면 행정학과 선배에게 ‘밥약’을 걸어주세요.)

5. 행정학과의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학과에 들어와 이제껏 행정학 관련하여 다섯 개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강의 모두 공부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행정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행정학과의 공부량이 많다는 얘기를 적잖이 들었는데,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I, II’, 그리고 ‘통치제도와 정책’, ‘행정과 법’ 등의 강의에서는 공히 법 관련 강의답게 수많은 판례와 법이론, 그리고 관련 법령들이 매시간 등장합니다. 각종 난해한 법이론과 실무상·강학상 용어들로 가득한 강의안을 보고 있자면 가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계에서 논의되는 법이론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법리로 특

정 사안에 접근하는지를 분석해보는 작업은 늘 흥미롭고 유의미했습니다.

6. 행정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수강한 강의 대부분을 맡으셨던 임현 교수님 강의는 꼭 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제공되는 강의안도 잘 구성되어 있어 공부하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행정법 관련 강의라 조금 생소한 감이 없지 않는데 교수님이 판례를 활용해 개념을 설명해주시는 덕분에 이해가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적으로 함부로 개별 강의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하고, 또 행정학과로 진입한 자전 학우분들이 저마다 특정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낀 바는 있었을 것이니,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행정학과 선배에게 '밥약'을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7. 행정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아직 크게 와닿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공부하는 내용이 재밌지 않습니다. 그나마 법 관련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은 들을 만하지만, 행정학원론을 공부할 때만 해도 다소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행정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법학을 배우고자 하던 학생입니다. 법조 교육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학부생으로는 법학을 전공할 수 없게 되자 그저 법학과 가장 비슷한 학문이 무엇일까 대강 살피다가 행정이 그나마 비슷해 보여 이를 전공 삼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2학기에 행정학 원론 등 기초적 강의를 수강하지도 않고 덤석 전공을 선택한 셈인데, 기대했던 바와

달리 법학과 유사한 것은 거의 없고 행정학 특유의 방대한 이론적 내용만 두껍게 쌓여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속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정 관련 강의라고는 "행정학 원론"과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I, II", "통치제도와 정책", "행정과 법" 이렇게 겨우 5개 수강했습니다. 이렇듯 행정학 입문자와 다른없는 제가 무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느낀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행정학과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우 한 명도 저와 비슷한 경로로 행정학과에 들어왔는데, 느끼는 바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2. 행정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공으로 삼겠다고 생각해놓은 학과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학과 전공으로 개설되는 강의 수가 다소 적고, 그에 따라 수강신청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행정법 관련 강의("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I, II", "통치제도와 정책", "행정과 법")들은 공히 법학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나마 흥미롭게 들었지만, 다른 행정 관련 강의들은 이론에 이론이 더해진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조금 걱정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강의를 듣게 된다면 조금 아쉽다든지 실망스럽다든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3. 행정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모든 학문이 그렇듯,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면 이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학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꾸준히, 더 많이 쏟을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흥미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행정 관련 강의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난이도를 논할 만큼 깊이 있는 접근을 해본 바가 없어 죄송합니다.

4. 행정학과는 강의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졸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저도 일찌감치 수강신청을 할 적에 강의 수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졸업에의 지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언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강신청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학과와 비교하여 볼 때 더 치열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행정학과생이라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행정학과 강의 수강신청이 어려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양자 모두 일응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 행정학에서 배우는 정책학과 행정학원론과 정치외교학부에서 배우는 정치학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정책학 강의는 수강해보지 못했고, 정치학 관련 강의도 들어보지 못해 뚜렷한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정치외교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우의 말을 빌려보건 대, 정치학은 순수학문의 성격이, 행정학은 실용학문의 성격이 짙다고 조심스레 얘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학이 공동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는 공간이라면, 행정학은 이러한 문제 진단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의 구체적 조정을 꾀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정치학은 인간사회가 형성된 이래로 오랫동안 인간 군중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정치 현상'을 탐구해온 데에 반하여 행정은 단기간에 경영, 정치, 법 등의 영역을 흡수하며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학제적 성격이 더욱 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외교학부에서는 국내의 정치적 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 정세와 국가 간 이해관계 및 정치 작용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다루는 데 반하여 행정학과는 주로 국가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내의 여러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행정학은 다양한 전공내용을 다 배워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혹은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질 듯합니다. 물론 저는 학문의 정의를 스스로 내릴 만큼 그 어떤 식견이라고 할 것이 없어 명확히 답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행정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정 현상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비대해짐에 따라(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방식, 예컨대 국가 주도 사업의 민영화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 등) 역시 다채로워지고 있는바, 행정학 자체에 내재하는 정체성이 더욱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학문과 맞닿아 발전한 학문이라는 것, 즉 행정학만의 뚜렷한 색채가 없다는 것 자체가 행정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 어떤 학문도 타 학문과의 교류 없이 홀로 성장할 순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학은 그 정도가 조금 더 클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학의 학문적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행정학이 곧바로 국가 조직 운영과 갈등관리라는 실무로 이어진다는 것에 기인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학은 사회과학 계열의 학문으로서 과학적 방식에 따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고, 행정 현상에 관한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학문적 정체성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실무로의 전환 역시 이론적 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한 뒤에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학은 학문적 성격을 필연적으로 함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건으로는 행정학을 이론적 논의와 실례에의 적용이 공존하는 영역, 또 양자 간의 상호 교류가 대단히 빠르고 다채로운 영역이라 설명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행정학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이후 행정학과 전공과목과의 난이도 차이가 큰가요?

아무래도 원론은 행정학 전반을 개괄적으로 다루는 강의임에 반하여 여타 행정학 강의들은 세부 분야로 심도 있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체감상 난도가 올라갔다고 느끼게 될 듯합니다.

다만, 행정학 원론도 그 양은 꽤 많습니다. 방대한 행정이론과 관련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운영되는 게 특징입니다.

8.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희망 사항입니다.

9.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벌써 3학년 1학기이지만 크게 준비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학점에 신경 쓰고 있는 정도입니다. LEET(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점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고 해서 곧 이를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0.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탐색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주위의 조언을 통해 현명한 결정 내리기 바랍니다. 전공 선택 전에 전공 관련 강의나 전공 관련 서적을 한 번씩 접해보고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행정학과도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18학번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박서은 선배

1. 행정학과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행정학과 전공 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다양하지만, 모두 공공분야나 정부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로 정책, 예산 편성과 관리, 인사행정, 행정조직, 행정이론 등에 대해 배웁니다. 행정학원론에서는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개괄적으로 배

우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학과에는 전공필수 과목이 없고 모든 과목이 전공선택 과목이어서,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행정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영강이 꽤 많아서 영어를 잘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히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은 없고, 기업가적 마인드보다는 공직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행정학과에서 하는 공부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그 학과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잘은 모르지만, 행정고시나 로스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고시 때문에 행정 본전공 학생들 중 경제 이중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4. 행정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교바교가 매우 심한 학과입니다.. 학점을 잘 주시는 교수님들이 정해져 있어서 수강신청 시 그 교수님들이 여시는 수업에 많은 학생들이 몰립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학점을 잘 주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경영학과처럼 인원수가 많은 학과와 달리, 행정학과는 같은 학수번호의 수업을 여러 교수님이 여시지 않습니다. 만약 로스쿨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학점을 챙겨야 하는 학생이라면 듣고 싶은 수업이 아니라 학점을 잘 주시는 교수님들이 여시는 수업을 따라가게 되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행정학과의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도 수업별로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강 중에 영어 도서나 논문 리딩자료를 올려주시는 과목이 몇 개 있지만 읽지 않아도 딱히 큰 지장이 없고, 리딩을 읽는 학생은 많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수업에서 요구되는 것이 많은 편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인과제, 팀플이 모두 있는 수업이 종종 있고, 팀플에서도 프레젠테이션과 10~15장 정도의 페이퍼가 항상 같이 요구됩니다. 팀플이 있는 수업은 조금 백세계(?) 흘러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행정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꿀강은 없습니다...! 학점을 잘 주시는 교수님들이 여시는 수업은 모두 공부량이나 과제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꿀강은 없습니다.. 임현 교수님이 행정학과에서 학점을 잘 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교수님이 여시는 수업인 '통치제도와 정책'은 헌법과 유사하고,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은 말 그대로 행정법 강의입니다. 법 강의이기 때문에 암기량은 매우 많지만, 그만큼 학점을 정말 후하게 주시기 때문에 항상 인기가 많은 강의입니다.

헬강의 기준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커리큘럼 상 주어진 것을 모두 했으나 학점을 잘 주시지 않고, 학점부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강의를 피하는 편입니다. 행정학과 특성상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에세이를 쓰는 방식의 시험이 종종 있는데, 이런 수업은 교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배운 내용을 다 써도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위험사회와 정책'이라는 수업이 제 기준 가장 헬강이었습니다..하지만 교수님은 정말 좋으시고 내용도 꽤 흥미로우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7. 행정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수강신청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듣고 싶은 수업과 학점을 잘 주는 수업 사이에서 갈등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어느 과에 가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좋았던 점은, 정경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행정학과 차원에서도 장학금 제도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학생들이 놓치지 않도록 매번 메일과 문자로 잘 공지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행정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법조인이나 공직자가 되고 싶었기에 대학 입학 전부터 행정학과와 자유전공학부 중 어느 학과를 쓸지 고민했었고, 국가 행정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와서 여러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조언을 들으며 고민이 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경영학입문을 들었었는데,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만족스럽지 못한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스쿨을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학과에서는 학점을 받기 어렵다고 들어서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 중 고민하다가 정외과는 리딩이 많고, 행정은 암기가 많다고 해서 둘 중 더 자신있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문과대학, 통계학과, 컴퓨터학과 등은 제 적성과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행정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공통질문 7번 질문에서 답한 것과 같습니다.

3. 행정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중 어려웠던 수업은 행정법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정책분석 과목에서는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하는데,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정책 관련 논문을 보면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분에서 회귀분석을 사용한 표가 나오는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 들었는데, 주위 사람들 얘거나 클루핑을 보면 난이도가 극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이 전공선택이기 때문에 졸업 때까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4. 행정학과는 강의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졸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앞서 말했듯 행정학과는 전공필수 과목이 없어서 졸업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정정 전 정규 수강신청 때에는 모든 과목에 마감이라고 뜨는 황당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증원 요구에 정정 전에 조금씩 증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차피 인원이 몰리는 강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정정까지 끝나고 나면 티오가 남은 수업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매 수강신청마다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 있지만 전공 수업을 꾸준히 들어놓는다면 졸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5. 행정학에서 배우는 정책학과 행정학원론과 정치외교학부에서 배우는 정치학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외교학과에서 여는 전공이나 전공관련교양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행정학은 다양한 전공내용을 다 배워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혹은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만큼 실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7. 행정학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이후 행정학과 전공과목과의 난이도 차이가 큰가요?

행정이론, 조직행태론, 정책학 등은 큰 난이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다른 수업들은 행정학원론에서 다루는 개괄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사례에 대해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난이도 차이에 대해 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계 프로그램과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정책분석 수업은 행정학원론과 다른(?) 내용이고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8. 행정학과에서 교환학생을 갈 때, 전공학점 인정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행정학 전공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강의가 외국대학에 많이 열리는 편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교환학생 준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9. 행정학과에서도 교환학생을 많이 가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단과대나 학과 등 교환학생의 기회가 꽤 주어지는 편인가요?

행정학과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많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 자전 행정 선배 중에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과 차원에서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ice School과 MOU를 체결해서 매 학기 교환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회와 모집 일정 등은 메일로 보내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앞서 말했듯 로스쿨이나 행정고시 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1.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행정고시를 볼 생각이라면 행정학과보다는 경제학과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보통 행정고시를 보기로 마음먹은 학생들은 3학년쯤에 휴학하고 행정고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은 '학점+리트'면 된다고 하지만, 이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이고, 그렇다고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소서를 쓸 때 소재고갈로 힘들 수 있습니다. 꼭 법 분야에 한정해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선택할 자신의 제1전공과 관련된 활동도 해두면 좋습니다. 봉사활동도요..! 그래도 이런 활동을 하느라 학점에 영향이 가면 안 되고, 일단 3학년까지는 학점을 최우선으로 잘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12.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전에서 다수가 경영, 경제를 가기 때문에 행정은 이 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이 오는데, 그만큼 자전 행정 학우들을 보면, 자신이 그 많은 전공들 중에 행정학을 선택한 이유가 확고하고 소신 있는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정책 분야에 관심 있으신 후배님들, 또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 하는 후배님들도 행정학과에 오시면 후회 없이 즐겁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4) 18학번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김다빈 선배

<공통 질문>

1. 행정학과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행정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행정학과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행정학원론 이외에 전공필수나 선수과목처럼 필수적으로 졸업을 위해 들어야 할 과목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특정한 분야가 없었기에 최대한 많은 세부 분야를 접해보고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을 이후에 더 수강해보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세부 분야가 정말 다양한데, 분야 외에도 이론적인 부분인지 방법론적인 부분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행정학이 처음 나오게 된 배경도 현실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의 중점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생기는 문제들의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국가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에 꽤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행정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저는 무엇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정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과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행정학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나라살림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떤 조직이 좋을 것인지, 정책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것이다 보니 궁극적인 가치가 비슷한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데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행정학과의 시험 유형을 생각해보았을 때 교수님들마다 다르시지만 대체적으로 긴 서술형을 작성하는 형태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 쓰는

것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글쓰기 능력이 절대적으로 성적을 좌우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성실하게 하시는 것이 글쓰기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글쓰기 능력은 부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능력 정도일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아직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행정고시와 같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학과에서 고시반이라든가 행정고시 설명회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주시다 보니 행정고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준비를 보다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제 1 전공을 행정학과로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로스쿨 진학이나 공기업 혹은 사기업 취직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4. 행정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을 잘 준다, 못 준다는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체로 하는 만큼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들었던 과목 중에 공부량 대비 학점이 엄청나게 잘 나온 과목도 없고, 반대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과목은 있어도 공부량 대비 학점이 너무 못나온 과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량 역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험 전 3 주 정도 넉넉하게 잡고 공부하시면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5. 행정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꼴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아직 그렇게 많은 수업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좋았던 강의로는 김태일 교수님의 '예산과재무관리'라는 수업과 임현 교수님의 '통치제도와정책'이 있습니다. 예산과재무관리는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예산에 대해 어렵쫘한 정보만 지니고 있었던 저에게 매우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또, 통치제도와정책은 헌법과 배우는 내용이 유사해서 헌법을 수강하실 때 같이 수강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중 판례가 많이 등장하는데 교수님께서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해주셔서 인상 깊게 듣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심동철 교수님의 행정학원론도 행정학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넓은 틀에서 행정학에 대해 분야별로 조금씩 가르쳐주셔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행정학을 접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강이라기 보다는 분야가 낯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목은 허웅 교수님의 '정부회계와감사'입니다. 교수님께서 회계사이신데, 회계에 대해 베이스부터 알려주시기는 하시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가르쳐주시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벅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회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일반 기업의 회계와는 다른 정부회계의 특징들이 많기에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6. 행정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저는 행정학과에 기대한 부분은 거의 유사하였기에 크게 달랐던 점이 없었습니다. 굳이 있다면 행정학과의 경우 팀플이 많은지 적은지를 잘 모르고 진입을 하였는데, 1 년 동안 개설된 강의들의 팀플 여부를 살펴보니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하였습니다. 물론 강의 중에는 팀플의 비중이 매우 큰 강의도 있지만, 자신이 팀플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면 충분히 팀플이 없는 강의들만 수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행정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학과를 결정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학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학과를 결정해야 하는 하루 전까지도 전공자료집을 붙들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많은 1 전공들이 저희에게 열려있지만 만약 특별하게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이 없다면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전공들 중 고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선택한 과에 진학하게 되면 앞으로의 전공 수업들은 모두 독강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정보들도 앞선 선배들로부터 구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 관심이 가는 행정학과,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중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자료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행정학과 선배님의 인터뷰 중 '만약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별다른 불만 없이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나, 어떤 조직의 대표로 임기를 마쳤거나 자원해서 이러한 활동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 기본적인 흥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학과는 결국 국가 내에서 공익을 위해 국민들에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는 학생회나 조직 내에서의 사업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 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행정학과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진로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정하지 못했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행정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2. 행정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만족하는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행정학 강의들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들어보았던, 또 듣고 있는 강의들이 모두 제가 행정학에서 배우고자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행정학도 그 안의 세부 분야가 다양해서 여러 분야를 접해볼 수 있고, 거기서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배워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학과는 대부분이 전공선택이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거의 없다 보니 자신이 진짜 듣고 싶은 강의들로 학점을 채워도 된다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강의 개설 수가 적은 편이라 수강신청을 할 때마다 전공과목을 신청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점 외에는 아직까지 아쉬웠던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3. 행정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가끔은 답이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답은 존재하지 않은 채 어떤 정책, 결정이 더 좋은 결과, 영향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행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각자가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이 저로 하여금 저에게 그 기준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려운 고민인 동시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활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공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행정학은 다양한 전공내용을 다 배워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혹은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학이 융합학문이다 보니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학이 영어로 public administration 인데 이 중 public 을 강조하면 행정의 공공성이 두드러지며 정치학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administration 을 강조하면 행정의 특수성이

두드러지며 경영학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진다고 강의 중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곳에 방점을 두는지에 따라 행정학을 이루는 융합된 학문 중 어떠한 학문과 유사해지는 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행정학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후의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리고 공거리 과목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저도 이번 학기에 행정학원론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많은 과목들이 그러하겠지만 행정학원론은 특히 '교수님 바이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문에서 원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기초를 쌓는데 듣고 이후 다른 과목들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데, 행정학원론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학원론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이론적인 부분 위주이기에 흥미를 크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다른 행정 전공과목과의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의 경우 어떠한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쉽다 할 것 없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 차이는 극명하지 않기에 각자의 성향에 따라 원론적인 것과 보다 실질적인 것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느낄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이시라면 공거리 때문에 행정학 과목을 최소 2 개 수강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행정학원론과 다른 과목 하나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학은 공거리에도 포함되어있기에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행정학에 대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의 2019 년 목표는 진로를 뚜렷하게 정하고자 함이었는데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2 학년 말까지는 진로를 정해야 앞으로 3,4 학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한 올해의 목표였는데 역시 진로 고민은 해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로 고민을 하면서 답답했던 점은 너무 좁은 시야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로스쿨 아니면 행시'가 마치 한 공식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 넓게 보고자 하는 시야를 막는 듯했습니다. 다만, 고민을 통해 조금은 명확해진 것이 있다면 전문직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사회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직업이 변할 수 있을 텐데 전문직이 아니라면 그 때마다 방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문적인 나만의 분야가 존재하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어떤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 진로의 특성이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올해 고민의 결과입니다.

7.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 다른 분들처럼 특정 진로를 정해지 못해 이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ㅜㅜ 죄송합니다! 다만, 이 글을 읽는 아직 진로를 선택하지 못해 걱정하시는 19 학번 분들에게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18 학번도 있으니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치열하게 고민해보자는 심심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없는 고민이다 보니 생각할수록 머리도 아프고 마음은 급해지는데 고민은 치열하고 열심히 하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설레고, 열정을 다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8.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행정학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늘 대학에 와서 시험공부가 아닌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험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공부만으로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행정학 강의들을 들으며 그러한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아직은 너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2년 간 계속해서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해간다면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라는 큰 조직에 대해 골똘히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 행정학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학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혹시 저와 안면이 없으시더라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후회 없는 학과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5) 17학번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서혜진 선배

1. 행정학과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행정학과 전공 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항상 홍보영상마다 하는 말이 있더라구요. 행정학과에서는 “국가를 디자인”합니다! 이 말이 되게 거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보면 배우는 과목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행정학과의 커리큘럼은 크게 조직관리/정책/(행정정책)환경/방법론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행정관리에서는 공공부문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다룸으로써 정부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효율적이고 좋은 조직이 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2) 정책분야는 흔히 아시다시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정책을 다룹니다. 3) 행정정책환경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을 둘러

싸고 있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환경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4) 방법론 분야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 내지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방법과 이를 활용한 사례분석을 다룹니다.

그리고 행정학과는 전공필수가 없어서 그냥 전공선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 없어서, 자신이 원한다면 무난 무난한 과목으로도 전공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또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영강요건입니다!!! 행정학과는 영강이 필수는 5개라고 돼 있는데, 꼭 전공이 아니어도 아잉과 다른 외국어 강의로도 충족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가 약한 편이어서, 행정학과 영강은 1개만 듣고 요건을 다 채웠습니다!

2. 행정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크게 필요한 능력은 없지만,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논문과 같은 리딩자료를 내주시고, 이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거나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나가시곤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도 종종 자료가 나와서 영어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행정고시나 공기업, 또는 사기업으로도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로스쿨로도 정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행정학이 법학과 밀접한 만큼 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 행정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사실 학점은 정말 자신이 하기 나름이지만, 소문에는 행정학과가 다른 과보다 절대적으로 학점을 안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험범위에 있어 우선순위를 잘 택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학과의 공부가 사실 양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만 몇 번 훑고 그중에서 예상문제 한 5개 정도? 만 뽑아서 그것만 외워가면 다 거기서 나오는 편입니다. 즉 양은 방대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시험공부하는 양은 별로 되지 않는 것이죠. 불의타를 내시는 교수님들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만 공부하셔도 괜찮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도 학과 선택할때는 오히려 A+가 아닌 A만 많이 주셔서 학점을 잘 주는 편이 아니라는 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저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행정전공에서 1개 빼고는 다 A+이고 A는 아예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걱정은 조금은 더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행정학과의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우선 행정학과 과목은 이론과목과 사례분석 또는 토론을 하는 과목으로 나뉩니다. 주로 이론과목에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강의자료는 양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원론, 정책학 등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 과목들은 무조건 나올 주제만 선택해서 외우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다 외우려고 하다간 막상 시험문제에 중요한 주제가 나왔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3,4학년 되면서는 사례분석이나 수업시간에 토론을 많이 진행하는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양이 정말 적은 편이고, 시험없이 2번의 2쪽짜리 레포트로 학점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수업시간에 소그룹끼리 30분정도 토론하고 그다음 시간엔 이를 발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6. 행정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명강] 공공철학과 윤리(김희강 교수님) / 정책의 규범적 분석(김희강/조계원 교수님)

[명강과 풀강 사이]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1,2 / 행정과 법 (임현 교수님) / 통치제도와 정책

[풀강] 인사행정 (최상옥 교수님) / 정부관료제 (박종민 교수님)

[헬강] 정부회계와감사

7. 행정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처음 가졌던 생각에서는 정책학이나 통치제도와 정책 등 관련 과목을 들으면, 뭔가 대단히 사회를 보는 눈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 들어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실무경험이나 다른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좋았던 점은 생각보다 더 공익을 강조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공'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학문이다 보니 제 평소 생각과 맞닿아있어 공부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행정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저는 원래 대학입시 자소서에서도 제1전공을 행정학과로 선택하겠다고 적었을 만큼 흔히 "소신행정"이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지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게 입법이나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둘러싼 정부구성과 해결방식에 관심이 많아 이를 배우는 학문을 선택했습니다. 행정은 전공과목들이 모두 전선(전공선택)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골라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는 이쪽으로 골라 정책학, 정책의 규범적 분석, 공공철학과 윤리, 정부관료제, 인사행정들을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 학과선택에 고민이신 1학년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딱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우선 선택지를 마련해놓고 소거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행정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족한 점은 법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법전원에서 열리는 행정법 단일 과목이 아니라 행정학과 행정법 1,2,3를 다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1, 2, 행정과법) 2학년 때 기본법들을 듣고, 3-1, 3-2, 4-1에 들으면서 오히려 헌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이나 매커니즘이 종종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더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계시는 임헌 교수님께서도 너무 인간적으로 좋으시고, 강의자료 또한 정말 깔끔해서 혼자 공부하기도 편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셔서 최신 판례도 많이 다뤄주시구요! 더불어 여러 과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워서 공부하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리트 지문에도 알게모르게 기시감이 들기도 하고, 경제, 정치, 심리, 사회학 등 여러 분야의 개념이나 이론들을 알게 돼서 좋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제 학번 때 동기들 중 행정학과 선택한 친구들이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전공과목을 들을 확률이 낮아서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표 잘 맞춰서 들으면 팀플을 자전끼리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3. 행정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택해서 버리는 공부가 어려웠어요. 저는 원래 지엽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외워서 시험을 보러가는 편이었는데, 행정전공만 듣는 게 아니고 법과목이랑 해서 18학점을 듣게 되니까 시험기간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법과목도 그렇고 양이 많은 과목에서는 나올 쟁점만 공부하는 것이죠. 아 근

데 물론 두 학문 모두 약술형이나 사례형인 경우에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단답형이나 객관식이면 그냥 최대한 외우고요! 그거 말고는 어려웠던 점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4. 행정학과는 강의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졸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졸업에는 정말 지장이 없어요, 나중에 4학년이라고 하면 따로 손들라고 해서 넣어주시는 교수님도 많이 봤고, 1,2학년 때나 수강신청이 힘들지 그 이후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5. 행정학에서 배우는 정책학과 행정학원론과 정치외교학부에서 배우는 정치학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외교학과와 정치학을 들어보지를 않아서 차이점을 알려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ㅠㅠ

6. 행정학은 다양한 전공내용을 다 배워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걸 오히려 행정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행정학만 전공해서는 사실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린 법학도 같이 공부하는 셈이니깐 둘 간의 시너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대학생활동안 전공수업 들으면서 크게 느꼈어요. 간혹 행정학에서는 어떠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사실 입법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답할 수 있는거죠. 사실 그렇게 보아서 학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전공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대응하는데 있어 더 이상 단일 학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졌으니까요.

7. 행정학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이후 행정학과 전공과목과의 난이도 차이가 큰가요?

이걸 모르시는 학우님들이 굉장히 많던데, 행정학과의 4대 헬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학원론이 포함되구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학과에 진입하시지 않는 후배님들께서는 행정학원론을 공거리로 채우시지를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행정학과에 진입할 후배님들께서는 그냥 행정학원론만으로 행정학에서 배울 '이론'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행정학과의 전공수업들은 행정학원론이나 행정이론 (사실 둘이 비슷합니다) 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현실의 정책에 대입해서 사례분석을 하는 등 생각해 보는 것을 주로 다룹니다.

p.s. 행정학과의 4대 헬강에는 정책학도 포함되므로 공거리를 하신다면 이 두 개는 피하시는 걸 권합니다ㅎ

8.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제 우선 1차적 목표는 로스쿨에 가는 것이고, 이후 졸업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입법행정에 힘쓰고 싶어요! 저는 행정학과 법학을 같이 배우는 건 정말 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9.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사실 이건 학과와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학교생활하시면서는 학점을 최대한

높이 따두시는 게 나중에 후회는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리트점수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낮으면 복구하실 수 없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전공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파보고 싶은 분야를 하나씩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노동법이랑 행정법이었는데, 학교다니면서 관련 사회주제 나오면 또 열심히 공부해보기도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10.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행정학과가 제 윗기수만 해도 1명이었던 걸로 아는데, 제 학번인 17학번 때 10명 내외, 그리고 요즘은 진짜 많아졌더라구요. 소신행정을 지원하신 만큼 행정학과에 오시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학과 족보있는 과목 은근 많습니다.... 행복한 시험기간 되시길 바랍니다ㅎㅎ)

(6) 17학번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임준 선배

<공통질문>

1. 행정학과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행정학과 전공 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전공소개가 '행정학'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학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가 다양한 국가운영의 제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체국가와 각 사회 부문간의 균형적 발전 방향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응용사회과학입니다. 특히 행정학은 '문제 해결(problem solving)'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여타 사회과학과 차별화되며, 정부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인접학문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학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공공문제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진 복잡한 문제들이며, 따라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접학문들의 접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커리큘럼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행정학이 어떤 과목이며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는지를 맛보기로 배울 수 있는 행정학원론을 가장 먼저 수강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선호하거나 수강 신청한 결과에 따라 상이한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많은 행정학 과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과목은 정책학, 조직이론, 인사행정, 예산과재무관리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과목을 저학년 때 수강해야만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과목을 수강할 때 초반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내용을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전공수업을 따라가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행정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꽤 방대한 이론적 내용을 암기하고 시험에서 이를 그대로 적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잘한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과는 별개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 분석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거나 이러한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재미있게 행정학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 진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선불리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의 인문사회계열 전공들이 그러하듯, 로스쿨, 행정고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유전공학부가 아닌 정경대학 행정학과 친구들을 보면 공기업 내지 사기업 취업준비도 많이들 하는 것 같

습니다. 요약하자면, 행정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특정 진로만 선택 가능한 것도 아니며, 반대로 특별히 어떤 진로로 나아가는 데 엄청만 메리트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공계열처럼 특정한 기술이나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닌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본인이 해당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면서 고민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본인의 역량을 키웠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행정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예전에 얼핏 학과별 성적과 관련된 자료를 봤을 때, 행정학과는 모든 학과 중 중간 정도에 위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한 바와 행정학과 동기들 및 다른 전공의 동기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확실히 학점을 엄청 잘 주는 편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발표와 레포트로 이루어진 팀플, 수업 중 참여도, 자료 리딩 등 학점을 받기 위해 해당 과목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과목마다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학점 받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한다면 웬만해서는 일정정도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행정학과의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과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법학 과목이나 경제 과목 등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배우는 내용이 엄청 많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행정학과의 술한 과목들이 중간, 기말, 팀플(발표, 레포트), 수업 중 참여, 자료 리딩 등 수업에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강 신청한 과목에 따라서는 굉장히 바쁜 학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신청이 무척 중요합니다.

6. 행정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명강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꼭 집어 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부패 과목을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고, 이때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과 연관시켜 학회에서 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간단한 설명과 학생들의 참여와 발표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본인의 기대와는 달라서 별로였다고 평했고, 또 다른 동기는 저는 수강하지도 않은 특정 과목을 듣고 나서 해당 전공의 대학원으로 진학을 고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특정 과목이 명강인지의 여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꿀강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문서일 수 있는 이곳에 교수님 성함이나 강의명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클루핑이나 선배들에게 물어본다면 알려줄 테니까요. (사실 꿀강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학점을 비교적 잘 주시는 교수님들은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선배로부터, 행정학과 전공 중 중간고사 없는 과목이 꿀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과제까지 있는 과목은 되도록 피하라는 말이죠.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특히 헬강 역시 없다고 생각되지만, 앞서 말한 기준에 따르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보고 다른 과제까지 해야 하는 과목이 헬강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대체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의 영강을 들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도 수업 중 수시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말하는 게 평가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그런 것이지만, 영어를 잘하는 교수님과 그러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손을 들고 발표까지 해야

하는 수업은 저 같은 학생에게 헬강인 것 같습니다.

7. 행정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배우는 내용에 관하여 기존의 생각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수업의 방식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수업 중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고, 팀플을 요구하는 수업이 많다는 점은 미리 알고 진입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을 배우고 해당 이론을 적용할 사례를 선정해 분석하는(대안제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것으로서, 5인 내외로 팀을 구성해 15분가량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거친 후 피드백을 반영해 15쪽 내외의 레포트를 쓰는 과제가 매학기 한 과목 이상씩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가치와 의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려면 장점입니다만, 이런 수업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행정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학이나 수학을 많이 요구하는 경제학과 통계학 등에 별다른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공들을 소거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전공이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였습니다. 두 전공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공적 가치의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공공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의 구성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해 자신이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과 행정작용이 대부분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학이 헌법과 행정법 등의 법학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행정학이

저의 가장 큰 관심분야인 법학과 연계하여 공부하기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 행정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선, 행정학의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다학제적인 학문 자체의 특성답게 여러 타 전공의 개념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컨대, 조직이론에서는 경영학이나 심리학적이 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학습합니다. 물론 사적영역의 개념을 공적영역인 행정학에 맞춰 다소 수정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특정한 사회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행정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학과와 행정 및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 내 소모임을 만들어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행정법 판례 연구 스터디, 교수님과의 프로젝트 참여, 외국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절학기로는 공공기관 인턴십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방학동안 행정학 관련 연구원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서의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방학 2개월 동안 인공지능 데이터셋 가공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타 학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행정학과 특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경대학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그러하듯, 학과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수업을 듣는 정경관의 강의실 시설이 다소 열악하다는 점이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통계, 경제, 정외가 함께 정경관을 사용하다 보니 늘 공간이 부족하고, 이에 교양관에서 전공 수업이 개설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행정학 전공과목을 수강신청하기가 무척 힘든데, 이 점은 아래 4번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배우는 이론이 버거울 정도로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운 이론으로 실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은 사회 문제에 대한 평소의 관심이 투영되는 것이자, 본인의 지식과 통찰력이 상당부분 요구된다는 점에서 간혹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과목이 평상시 관심이 없던 분야라면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2학년 때 복지국가론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특정 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팀플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인턴 경험을 하면서 코딩을 하거나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문과생들에게는 정해진 시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 정리할 수 있는 힘이 가장 큰 역량이라고 느꼈습니다. 행정학과에서 사례를 찾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힘을 기를 수 있고, 이를 ppt로 만들어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일정한 형식의 완성된 텍스트로 만드는 경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유의미한 연습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4. 행정학과는 강의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졸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떻게든 다들 졸업은 합니다. 2, 3학년 때 원하는 만큼의 강의를 수강하지 못해서 4학년 때 전공을 많이 듣거나, 불가피하게 계절학기로 남은 학점을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실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매학기 개설되는 행정학과 전공 강의 수가 줄고 있고, 개설된 강의 중 적지 않은 수는 영강으로 개설되며, 요일과 시간도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들은 과목을 제외하고 시간표를 짜

기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 이에 대해서 행정학과 학생회가 본격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학과장님과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배님들이 행정학과에 개설 강의 수가 적은 점을 우려해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 행정학에서 배우는 정책학과 행정학원론과 정치외교학부에서 배우는 정치학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의 정치학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학과의 수업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학원론은 행정학의 대부분 영역을 알은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말 그대로 "원론"과목입니다. 행정학의 역사부터, 행정학에서 기본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정책학, 조직이론, 인사행정, 예산과재무관리를 비롯한 행정학의 수많은 영역을 모두 다루려다 보니 내용도 굉장히 많고 처음 행정학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만,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80년대 대공황 이후 다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큰 줄기정도만 이해하고, 행정학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부한다는 점만 인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학 수업에서는 국가의 정책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을 공부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국가가 정책을 형성하는 정당성 내지 근거로서의 시장실패로부터 출발하여, 의사결정과정 및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하고,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과 정책확산을 설명하는 이론 등을 공부합니다. 교수님마다 다르실 수는 있지만, 보통 그렇게 배운 다양한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해 사례에 적용하여 해당 사례를 설명하는 팀플을 진행합니다. 저는 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을 적용하여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주제로 팀플

을 진행했습니다.

행정학원론과 정책학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학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감히 생각해보건대, 행정학이 지향하는 공공의 가치와 정치학이 지향하는 가치간의 상이함에서 두 전공과목의 차이가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행정학은 다양한 전공내용을 다 배워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혹은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전공내용을 활용하여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 행정학입니다. 사회문제가 지니는 복잡한 면모와 그로부터 요구되는 다양한 전공지식이 행정학의 다학제적 특징을 필수불가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정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다양한 전공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정체성이 모호하다거나 학문이 아니라는 비판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행정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니까요.

7. 행정학원론 수업과 실제 전공에 진입한 이후 행정학과 전공과목과의 난이도 차이가 큰가요?

앞서 말씀드렸듯, 행정학원론은 넓고 얇게 배운다면 전공과목은 해당 영역을 더 깊고 세밀하게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과목이 훨씬 어렵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학에서 배우는 이론들은 실제 현상을 이론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들이 많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사고과정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공과목에서 배운 이론을 어떤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원론 수업과

는 구별되는 전공과목의 핵심 포인트이자 학점을 가르는 중요한 판가름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8. 행정학과에서 교환학생을 갈 때, 전공학점 인정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행정학 전공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강의가 외국대학에 많이 열리는 편인가요?

제가 교환학생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을 봤을 때 행정학과 전공생으로서 교환학생을 가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고, 설령 갔더라도 행정학 전공 학점을 채우는 경우는 아직까지 본 기억이 없습니다.

9. 행정학과에서도 교환학생을 많이 가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단과대나 학과 등 교환학생의 기회가 꽤 주어지는 편인가요?

교환학생에 대한 답변은 위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싱가포르 대학 내지 정부와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년 모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 싱가포르에 상당기간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있는 내용이니, 관심이 있는 후배님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1.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많은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이 법조인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후배님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저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거나 이미 로스쿨에 진학한 학우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답변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좋은 학점을 받아 학점관리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학점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하지만, 학점이 낮을 때의 디메리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학점관리를 제외하고, 법학 적성시험인 리트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4학년 진입 시기 이전까지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준비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내에서는 법학 과목을 수강하고, 학생회 활동, 공익법률상담소 CLEC 인턴이나 법학연구원 인턴, 소모임 활동, 자전 학술대회, 학회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외에서는 타 대학이나 기관에서 개설되는 각종 강연이나 여러 모의재판 대회 내지 소논문 경연대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기자단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로스쿨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당연히 어떠한 활동도 안하는 것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 학술적인 책이나 논문도 많이 읽어 두어 여러 방면의 지식도 쌓고 텍스트를 읽는 힘을 미리 키우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대학에 들어와 1년 동안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전공학부생만의 특별한 권리인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이 본 전공자료집을 보고 있을 시점에는 전공 선택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겠지만, 자신의 적성과 진로희망 등을 충분히 숙고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학과에 가셔든 훌륭한 결과물

을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만약 공공부문에 관심이 있거나, 국가나 정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배우고 싶거나, 법학과 관련 깊은 전공을 찾고 있다면 제가 선택한 행정학과가 여러분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대로 된 대학생활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모든 21학번 후배님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2. 명예교우님 인터뷰

(1) 03학번 행정학과 여성가족부 사무관 임종필 선배님

1. 많은 학생들이 행정학과를 지망하면서도 행정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행정학이란 대략적으로 어떤 학문이며, 행정학과에서는 크게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한 교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도 아니어서 저도 처음에 수업을 들었을 때 생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정학을 논할 정도로 공부한 것은 아니어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끼기엔 정부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 전반이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그것을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책, 인사, 예산을 비롯하여 철학, 정치, 경제, 법까지 다양하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2. 학부 커리큘럼과 관련하여 전공 진입 전에 미리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나 따로 선행해야 할 공부, 혹은 진입 후 꼭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행정학이 워낙 다양한 학문이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 과목이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경제원론이나 정치학원론 같은 과목이나 경제, 정치, 사회학과 관련된 교양 과목을 들으면 전공 수업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학 전공 중에서는 특별히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신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는 행정이론이나 행정철학 같은 과목이 좋았던 것 같고, 공무원 실무적으로는 정책분석이나 예산행정 같은 과목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교환학생, 동아리, 학회, 학생회 활동, 인턴 등 기억에 남는 학과 활동이 있으신가요?

사실 학과 활동이나 다른 활동은 별로 하지 않아서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1, 2학년 때 중앙동아리인 합창부 활동을 한 것과 학부에서 행정학과 모임을 통해서 다른 행정학과 동기, 선후배를 알게 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도 만나는 동기, 선후배 중에는 그 때 만난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4. 학과 전공 공부에서 그룹 스터디 등 자신만의 학습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셨는지요?

학과 전공공부에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수업시간에는 노트 정리를 하지 않고 두서없이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도서관에서 그 날 들었던 수업 내용을 노트로 정리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이나 놓친 부분은 친한 행정학과 친구들끼리 서로 물어보거나 노트도 교환하면서 수업 내용에 대해 많이 얘기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5. 학부 생활 중에서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강의나 사건이 있으셨나요?

제가 최흥석 교수님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방행정, 도시행정, 정부 혁신론을 들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최흥석 교수님 수업이 100명이 넘는 대형강의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졸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를 제시하시거나, 수업 내용 외에도 관련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졸리는 대형강의 분위기에서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최흥석 교수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100명 넘게 출석을 부르시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6. 학부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가장 아쉽다고 여겨지는 일은 무엇인지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아무래도 아쉬운 것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인터뷰 질문을 합격 후에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제가 학과 생활을 너무 무색무취로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학부생활을 했고 그다지 후회도 없다고 여겼는데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고시 공부를 위해 휴학을 하는 것과 교환학생을 가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고시 준비를 위해 휴학을 했는데요, 지금 그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교환학생을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7. 중앙정부 부처의 사무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신데요, 현재의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무관이 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의 꿈은 아니었지만, 행정학과에 들어오게 되면서 공직 쪽으로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막연히 사기업 보다는 정치나 정부와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대학에 오면서 행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배우는 것들이 공공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8. 현재의 직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무관으로서 주로 어떤 업무를 다루시는지, 직업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사무관의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앙정부 업무 전반의 가장 기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법령 제·개정, 각종 정부 대책(부동산 대책,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방지 대책 등), 예산 사업(보육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등이 대표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보는 “정부는~”이라고 시작하는 소식이나 정부의 입장, 정책 방향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사무관의 역할입니다. 물론 사무관의 의견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이 수정되곤 합니다. 또한 밖에서 보는 공무원의 이미지와는 달리 어딜 가나 격무에 시달리고 (물론 어느 조직이든 안 그런 곳도 있긴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도 많이 느끼는데요, 특히 자신이 만든 정책이나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거나 뉴스에 나오거나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9. 학부에서의 전공 공부가 현재 직업을 갖게 된 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또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공부한 내용이 직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경우에는 행정학과에서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된 경우여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자체가 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전공 공부와 직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목이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건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과 실제 실무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며,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에서의 공부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역량과 사고를 형성하고 넓혀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러한 역량만 있으면 경험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학은 정부의 업무를 직접 다루다 보니 어떤 과목은 실제 업무와도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도움이 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0.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중에서도 행정학과를 선택한 후에 국가고시를 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험생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고시 준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행정고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학 중에 행정고시 준비를 하려면 학과 공부와 병행하셔야 했을 텐데 학과 공부와 행정고시 준비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요, 제대가 다가오면서 행정고시를 보기로 결정하고 복학했습니다. 복학 후 1년(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을 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신림동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신림동에서 1년 반을 보내고 다시 복학(3학년 2학기)한 시기에 2차 합격을 하고, 최종 면접(3차)까지 봐서 합격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되도록 학교 공부에만 신경 쓰고, 휴학을 한 기간 동안에는 고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점을 포기하고 고시 공부에만 전념하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대신 행정학 전공 과목을 중심으로 경제학(경제원론, 미시, 거시)이나 정치학(정치학원론, 정치 관련 교양과목 등) 위주 수업을 많이 듣도록 해서 학과 수업이랑 고시랑 되도록 연관 지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때는 행정법이 전공에 없었지만 이제는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법이나 경제학은 학부 수업으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휴학이 많이 남아있다면 휴학을 하고 고시에 전념하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11. 마지막으로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께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행정학이 인기가 없다는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정학이 어떻게 보면 학문의 실체도 잘 모르겠고, 행시 말고는 할 게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행시에 많이 합격(저희 합격 기준으로 고대 내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과였습니다.)하기도 하고, 취업난 속에서도 고시가 아니라도 다들 알아서 취직을 잘 하더라고요. 특히, 공무원이 되면 여기저기 선배님들께서 많이 계셔서 여러모로 도움받을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고대 행정학과에서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I. 개괄

1. 문과대학 소개

1946년 출범한 문과대학은 현재 인문학부(국어국문학과, 철학과, 한국사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한문학과)와 국제어문학부(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로 구성된 2개 학부에 14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리더십 육성을 위해, '7+1' 제도를 도입, 1학기를 외국의 특약 대학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 인턴십 제도를 통해 해외 우수 기관에서의 연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외국인 교수와 외국 유학생들이 문과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강의를 외국어로 진행함으로써 글로벌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은 인문학을 다루면서도 여타 다른 대학의 문과대학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을 몇 가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문과대학에 사회학과 포함

- 사회학은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인문학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과는 다른 대학에서는 사회과학계열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우리 고려대학교는 사회학을 인문학으로 보고 문과대학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사학과와 한국사학과의 존재
 - 타 대학의 문과대학은 역사학과가 사학과로 통합되거나, 각각 한국사학과,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로 구분되어 있거나, 국사학과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특이하게 역사를 한국사와 세계사로 구분하고 이들을 각각 한국사학과와 사학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 코어 사업단의 존재
 - 코어사업은 인문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대학교가 도입한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면 학생들이 이를 신청하여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해외 석학 초청강연, 고전강독, 해외 어학연수, 유적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 2006년 영국 'The Times' 세계 대학 평가: 인문과학 분야 세계 89위
- ✓ 2007 년 한국 연구재단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논문발표 현황 분석":
기관별 논문현황 인문학 분야 1위(501편)
- ✓ 2009 중앙일보 국내대학 평가: 인문사회 중심대학 중 1 위
- ✓ 2015 QS 세계대학평가 11 개 인문학 분야에서 세계 100 위권에 포함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BK21 플러스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사업으로, 현재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이 BK21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중)

3. 주 강의동 소개 및 주변 지리

국제관, 인촌 기념관 등과 근접해 있으며, 고려대학교 문과 캠퍼스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여 타 강의동, 중앙광장 등과도 매우 접근성이 높습니다. 신법학관과 해송법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우들에게는 매우 편리할 듯합니다. 기숙사생들은 인촌기념관 쪽으로 가는 길이 문과대학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신법학관이나 개운사 길을 통해 올라가던 것 보다는 더 쉽고 빠르게 기숙사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문과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 (문과대학 Visiting Student Program)

VSP 프로그램은 본교와 전세계의 명문교들이 협정을 체결하여 본교 학생들을 대규모로 해외 대학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국내 여타 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로, VSP 방문학생 참가자는 본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는 교환학생 제도와 달리 본교와 본인이 수학할 국외 대학 2곳 모두에 등록금을 내고, 협정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국외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귀국하여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 문과대학 VSP 7+1

문과대학 학생이 해당 언어권 대학에 최소 1학기 이상 파견되어 현지 대학에서 수학한 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 문과대학 VSP UC Berkeley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제도로, 문과대학과 UC BERKELEY의 Division of Arts and Humanities와 Division of Social Sciences간의 학생 교류 협정에 따라 방문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1. 국어국문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한국 문학의 뿌리와 학문의 미래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말했습니다. 또한 지성과 감성의 언어를 노래했으며 지성의 갈등을 해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과거의 고전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공부하며, 오늘도 새로운 말을 하고 참신한 글을 쓰며, 오늘보다 새롭게 쓰고자, 말하고자 합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는 故조지훈, 홍일식, 故박병채 등 당대 학계에서 훌륭한 업적과 성과로 주목받는 학자들이 전임으로 재직하여, 진지하면서도 열띤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구에 정진하여 후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는 한국문화와 정신사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어 및 한국문학에 대한 소양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학 자료를 자유롭게 감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언어 이론 및 문학 이론에 근거해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문학창작 연습을 통해 문학작품 창작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한문학, 한국어교육학 등 각 학문 영역의 세부

전공마다 전임 교수가 있음

-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생 중 현재 200여명이 국내 대학 전임 교수로 재직중이며
중고등학교 교원도 상당수 존재
- ✓ 학자와 교육자의 길 외에도, 시인, 소설가, 평론가, 방송작가, PD, 기자, 연극배우,
광고 카피라이터, 출판 기획자, 기업홍보전문가 등 활동 분야가 매우 다양함
- ✓ 코어 사업을 통해 전공 다양한 비교과 과정과 융합 학문을 경험할 기회 제공
- ✓ 대학원 진학 예정자에게 학업지원금 지원
- ✓ 대학원 BK사업을 통해 장학금과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외국석학 초청강연
등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진로진학 (2011-2015년도 졸업생 285명 대상)

1) 학계·교육계-63명

대학 교수, 국어교사, 다문화교육 종사자, 한국어 교원 전문기관 연구원 등

2) 언론·출판·문화계-12명

신문·방송기자, 아나운서, PD, 방송작가, 성우, 가수, 출판물 기획자, 출판물 편집자,
출판사 경영, 시인, 소설가, 평론가, 극작가, 번역가, 연극 연출, 배우, 광고기획자 등

3) 정부·공공기관·법조계-15명

국회의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등

4) 기업계-95명

대기업 등 일반기업체, 개인사업 등

4. 학과 프로그램

1) 국어국문학과 교직과정 설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2) 랩(LAB)

개설학과 세부전공별 교수님, 대학원생과 함께하는 연구 모임으로 매학기 개설됩니다.

3) 교과과목 내 다양한 현장학습

교실 내에서의 이론 수업 외에 교과목에 따라 박물관 탐방, 방언조사, 구비문학 답사, 공연 관람 등의 실외 활동이 진행됩니다.

II. 졸업요건

선택교양 (6학점)	2외국어/고전어 이수: 독어, 불어, 중어, 노어, 일어, 서어, 한문 중 1개 언어를 선택하여 6학점 필수 이수(동일 교양외국어 I/II 또는 초급/중급 한문 이수)
전공필수 (6학점)	한국문학의이해(KORE201), 한국어학의이해(KORE230)
전공선택	36학점
영강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과목 이수 ※ 전공, 교양 구분 없음
기타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외국어) 성적 취득 본교시행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통과 또는 지정 국가공인시험 자격 취득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우리말, 우리글 언제부터 생겼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국어학

한국어의 생성과 관련한 역사와 한국어가 보이는 고유 현상에 관해 공부할 수 있고 한국어를 연구한 선구자들의 업적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 국어학의 이해, 국어발달사, 국어음운의 이해, 국어학사, 국어문법, 의미론, 방언론 등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꽃핀 고전문학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창작, 향유된 작품을 통해 선조들의 시대적 고민을 이해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익힐 수 있습니다. 고전문학에 대한 탐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고전문학사, 한국한문학강론, 구비문학론, 고전소설론, 고전문학배경론, 향가와 고려가요, 근세시가론 등

한국 사회와 문화를 알고 싶다면 문학을 읽자, 현대문학 분야

한국의 근현대 사회와 문화가 담긴 문학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문학작품을 마음껏 읽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와 문화는 물론, 역사까지 섭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공부하고 직접 문학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후에는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발휘해 볼 수도 있습니다.

☞ 현대시론, 현대소설론, 현대희곡론, 현대문학강독, 현대문학사, 현대비평론, 소설창작연습, 시창작연습, 희곡창작연습 등

동아시아를 품은 지식과 상상의 보고 한문학

한문학은 문학 · 역사학 · 철학을 아우르는 동양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익히고, 한문원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합니다.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지적 · 문화적 성과의 대부분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동양의 지혜를 느끼게 합니다. 또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유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자산이 됩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열풍, 세계인이 한국어를 원한다, 한국어문화교육학

한국어를 한국인만 할 줄 안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한국인의 문화가 한국인만의 것이 아닌 전 세계인의 것이 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학문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응용국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등

2. 노어노문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노어노문학과는 노어학, 노문학 및 러시아CIS 지역학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기초적인 학문 탐구를 토대로 학문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을 닦아 다원화된 국제 환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러시아CIS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며,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맞추어 러시아어의 실용적인 구사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의 심층적인 연구와 통섭적인 학습을 통한 전인 교육의 완성과 아울러 고급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갖춘 21세기형 글로벌 전문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2. 특이사항

- ✓ 고려대 출신의 박형규 전 교수님, 석영중 교수님, 그리고 김선명 선생님께서 러시아 정부에서 수여하는 푸쉬킨메달 수여

3. 진로진학

1) 학계 교육계

러시아문학, 러시아지역학, 법학 등 학문연구, 대학 교수, 정부 · 민간 연구소 연구

2) 기업계

국내 대기업,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 외국인 회사 등

3)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PD, 방송작가 등

4) 출판·문화계

작가, 번역가, 통역가, 출판업자 등

5) 정부·공공기관·법조계

공공기관 공무원, 판 · 검사, 변호사, 정부 부처, 국가정보원 등

6) 금융·회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등

4. 학과 프로그램

1)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3~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소재 한국 및 외국공관 · 기업 · 민간 기구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2) 교환학생 프로그램

매 학기 러시아의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우크라이나의 끼예프 국립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파견합니다.

3) CORE사업단 프로그램

-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십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해외 및 국내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역학 LAB 프로그램

본 LAB프로그램은 학부생(학업지원금 수혜자)-대학원생-연구교수-전임교수로 구성된 연구 팀으로 서 '창의적 의제'를 통한 자율적 공동연구를 지향합니다. 러시아 문화 및

지역학과 관련된 주제라면 모두 연구가 가능합니다.

- 인문고전 학습 프로그램

재학생의 인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다양한 고전의 고전어 학습과 원어 강독을 지원합니다.

II. 졸업요건

학문의 기초 (9학점)	노어노문학과(3학점)	RUSS171 러시아어 I , RUSS172 러시아어II
	영어영문학과(3학점)	ENGL155 고급영어
전공필수	21학점 RUSS201 (중급러시아어I), RUSS202 (중급러시아어II), RUSS205 (러시아문학기행), RUSS213 (러시아어의 구조), RUSS369 (러시아사회의이해), RUSS373 (고급러시아어I), RUSS374 (고급러시아어II)	
전공선택	21학점	
선택교양 (외국어)	6학점 RUSS131 교양러시아어 I , RUSS132 교양러시아어II	
한자이해능력인증	국가공인시험 중 학교에서 인정하는 시험 2급 이상 (본교에서 시행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으로 대체 가능)	
공인외국어성적	TORFL 공인 1단계 이상, SNULT 2등급 (61-70점) 이상, FLEX 2B등급 이상 中 택 1	

영강	외국어(영강, 원어강의) 5과목 이상 이수
----	-------------------------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러시아어를 파고들자! 러시아어학

중급 러시아어, 중급 러시아어회화, 고급 러시아어, 고급 러시아어 회화, 러시아어 작문연습, 러시아어 번역연습, 러시아어의 구조, 러시아어와 우리말, 러시아어특수연구

러시아문학으로 러시아어 배우기!

러시아문학기행, 근대 러시아소설, 현대 러시아소설, 러시아문학사, 도스토예프스키, 푸슈킨, 톨스토이, 러시아문학사, 러시아문학과 영상예술, 러시아문학과 대중문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먼저 문화를 알자! 러시아지역학

러시아사회의이해, 다인종다문화사회, 러시아지역학, CIS지역학, 러시아경제와 국제통상, CIS권역코리안디아스포라, 러시아역사세미나, 러시아기업문화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공통교양과목과 핵심교양과목, 러시아 문학 기행 러시아어 I, 러시아어II, 교양러시아어 I, 교양러시아어II
2학년	노어학과 노문학 2개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기초 탐구 및 기본적인 내용학습 - 중급러시아어(외국어강의), 중급러시아어 회화, 러시아어의 구조, 러시아어 번역 연습
3학년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2개 전공영역에 대한 전문학습 - 근대 러시아소설, 러시아 문학강독과 번역, 고급러시아어회화 근대 러시아 문화와 시, 고급 러시아어
4학년	회화 중심의 노어학과 작가 중심의 노문학의 심화학습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슬라브 언어와 문화, 러시아 사회와 문화, 도스토예프스키, 러시아어 교과교육론, 러시아 문학과 논술, 러시아 문학과 대중문화, 러시아 문학과 한국문화, 러시아사회의 이해, 러시아어 토르플

3. 독어독문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독어독문학과는 1963년 설립된 이래 2천여 명의 문학사, 160여 명의 석사 및 50여 명의 박사를 배출했고, 이들은 현재 학계, 교육계, 기업계, 법조계, 출판·문화계, 언론,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어독문 학과는 현재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대학교, 튀빙겐(Tübingen)대학교 등과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이를 통 해 많은 학생이 단기연수 또는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대학원 차원에서도 2013년부터 본(Bonn)대학교 및 일본의 츠쿠바(Tsukuba)대학교와 공동으로 복수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2016년 독일의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대학, 튀빙겐(Tübingen) 대학, 본(Bonn)대학, 일본의 츠쿠바(Tsukuba)대학 등과 학과 차원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독어독문학과 학생은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ESP) 또는 방문학생(VS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진로진학

독어독문학과 의 졸업생은 독일어 능력과 독일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현재 학계, 교육계, 기업계, 법조계, 출판·문화계, 언론,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 번역가 또는 문화 커뮤니케이터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볼 만합니다. 국제적 소통이 증대하고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해당 언어권에 정통한 지역전문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활동은 단순히 언어 전달에 목표를 두는 기존의 통번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문화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거나 보다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4. 학과 프로그램

1) 일본 독일어 캠프 참여

일본에서 연 2회 열리는 Interuni-Seminar에 참여할 초청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합니다. 파견 학생은 일체의 비용을 지원받으며 4박 5일 동안 일본학생들과 함께 독일어도 배우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흥미로운 문화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2) KiS-DaF

매년 8월에 독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일어 캠프입니다. 3박 4일 동안 국 내 여러 대학의 학생, 독일 인턴학생, 초청받은 일본 및 중국 대학생들과 어울리며 새롭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독일어와 독일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TüKo-Tandem 프로그램

튀빙겐(Tübingen) 대학교의 한국학과에서 파견되어 온 독일학생들과 고려대 학생들이 1 : 1 또는 2 : 1로 짝을 이루어 학기 단위로 언어교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 비교과 창의학습 프로그램

1학기에는 독한 / 한독 언어문화 번역대회, 2학기에는 독 - 한 지역문화 정보탐구대회 및 창의실용 학술공모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일어권지역학을 학습하고 이를 창의적, 실용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II. 졸업요건

학문의기초 (9학점)	GERM171 독일어 I, GERM172 독일어II ENGL155 고급영어	
선택교양 (15학점)	필수	교양독일어 I, II / 독일어 III, IV
	선택	선택교양 과목 자유 3학점
전공필수 (6학점)	GERM351 (독어 CEFR B I - I), GERM352 (독어 CEFR B I -II)	
전공선택	36학점	
공인외국어성적 (입학 후 취득 인정, 유효기간 제한 없음)	ZD 또는 TestDaF 합격 (단, ZD는 Goethe-Institut B1 Zertifikat Deutsch (ZD)합격을 말함)	
한자이해능력인증	국가공인시험 중 학교에서 인정하는 시험 2급 이상 (본교에서 시행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으로 대체 가능)	

<기타 유의사항>

- 2015학번부터 입학 전에 유럽공통참조기준 B1 레벨 이상의 독일어 국제공인 인증서를 학과에 제출 및 승인받은 신·편입생은 교양독어초·중급과 전공독어 I, II을 자과 전공관련 교양 또는 전공선택으로 대체하여 수강가능(자세한 내용은 학과내규 참고).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교과과정은 기초적인 독일어 구사능력, 독일어학과 독일문학, 독일지역학, 번역과 문화간 소통능력의 제고를 위해 학년 및 수준별로 편성되어 있다. 다음의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을 참고하면 단계별로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공 커리큘럼은 크게 기초적인 독일어 학습, 독어학과 독문학, 독일 지역학과 문화, 번역으로 나뉘어 있고, 전공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독일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 독일 지역과 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 독일어와 독일문학에 대한 체계적 학습, 독한 및 한독 번역능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1학년	교양독어초급, 교양독어중급, 전공독어1, 전공독어2
2학년	1학기	독어 CEFR(A2-1), 회화연습(A2-1), 독일의 생활문화,

		독어학개론, 독문학개론, 독한번역의 이해
	2학기	독어 CEFR(A2-2), 회화연습(A2-2), 독일의 대중문화, 독어학과 문화이해, 독일명작의 고향, 독일문화사, 독한 번역연습
3학년	1학기	독어 CEFR(B1-1), ZD 회화연습(B1-1), 독일어권 문화와 예술, 독어학연습, 독희곡의 이해, 독시선독, 독문학 작품번역
	2학기	독일 CEFR(B1-2), ZD 회화연습(B1-2), 독일의 정치와 경제, 의사소통의 독어학, 독산문강독, 독소설의 이해, 인문사회 번역
4학년	1학기	독어 CEFR(B2-1), 독일사상과 문화의 흐름, 독일어와 수사학, 독일동화와 민담, 독일문학과 정치, 시사번역
	2학기	독어 CEFR(B2-2), 문화이론, 실용독어학, 독일청소년 문학, 한독 번역연습

4. 불어불문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1963년에 설립된 불어불문학과는 서구인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비판정신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언어와 문학을 심도 있게 문화의 국제교류와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문학의 주요 사조 및 장르를 망라하고, 불어학의 주요 분야 및 이론들을 포괄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프랑스 간 문화 및 사상의 교류를 도모하고, 인문학 탐구의 다양성에 주안점을 둔 '번역'을 학과 특성화 키워드로 삼아 학문 간 소통과 사회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학제적 교과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프랑스어 상용인구는 영어 학습 인구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불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어불문학의 미래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한국-프랑스 간 문화 및 사상의 교류를 위한 '번역' 부문 특성화
- ✓ 2학년 1학기까지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 한해 2학년 2학기부터 프랑스 리용 카톨릭 대학에 1학기 교비 어학연수 가능 (단, 3학년 1학기 참가를 권장하며 매학기 20여명)

이내 선발)

- ✓ 매년 2학기 불문인의 밤에서 원어연극, 상송 대회 등 재학생들의 발표와 함께 선배와의 교류 및 진로에 대한 멘토링 진행
- ✓ 매 2학기마다 '불문인의 밤' 행사에서 La Scène(라쎬느)연극팀이 원어 연극을 진행
- ✓ 프랑스어 말하기 학회에서 프랑스어 말하기 위주의 프랑스어 스터디 진행

3. 진로진학

1) 출판·문화계

작가, 번역비평가, 번역가, 통역가, 출판업자, 문화·예술 관련 직종

2) 학계·교육계

프랑스어문학, 법학, 사회과학 등 학문연구, 대학교수, 교사, 정부·민간 연구소 연구원 등

3) 금융계·회계 분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및 회계 관련기관

4)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 PD, 방송작가, 감독 등

5) 정부·공공기관·법조계

각종 고시 및 임용시험을 통한 정부 부처 관료, 법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6) 기업계

대기업 등 국내 일반 기업체,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 외국계 회사 등

4. 학과 프로그램

1) 창의적 자기주도 설계 프로그램 (Creative Challenger Program)

대학교육개발원이 지원하는 학부생 대상의 창의적 자기주도 설계 프로그램 활동인 CCP는

학부생 3~5명이 그룹을 형성하여 지도교수와 함께 관심분야에 대해 문제 해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방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소규모 연구회

불문과에서는 학과 교수님과 함께 관심분야를 토론하고 불어공부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전공원어강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프랑스어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전공강의의 상당부분을 프랑스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소설 강독모임, 프랑스 중세문학 연구모임 등.

4) 소규모 모임

학과 교수가 정규수업과는 별도로 지도하는 소규모 학습모임을 의미합니다. C'est si bon(불문과 밴드), La Scène(불문과 연극 소모임), 프랑스어 말하기 학회 등.

5) 졸업요건 DELF B2

프랑스어 언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DELF를 B2단계까지 취득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불어구사 능력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6) 불문인의 밤

불어불문학과와 졸업생과 재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훌륭한 선배와의 교류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진로에 대한 멘토링까지

제공합니다.

II. 졸업요건

전공선택	42학점 ※ 전공선택 중 '외국어강의'로 표기된 전공선택 6과목(18학점) 이상 이수. 단, 선택교양 (FRAN501, FRAN502), 학문의 기초 (FRAN171, FRAN172) 및 외국에서 수강한 과목은 '외국어강의'로 인정되지 않음.
선택교양	9학점 교양 프랑스어 I, II (각 3학점, 총 6학점) 이수 나머지 3학점은 이수구분 내 자율이수
학문의기초 (9학점)	프랑스어 I, II (각 3학점, 총 6학점) 이수, 고급영어 3학점 이수
전공어 인증	공인프랑스어자격시험 DELF B2 이상 합격증 제출
한자인증	본교에서 시행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합격 (국가공인 시험 중 지정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본교의 한자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III.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더 이상 불어에 bonjour 만 아는 일은 없다! 프랑스어 습득

불문학의 가장 기초인 불어를 습득하도록 마련된 수업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심도 있게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도록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교양불어, 전공불어, 집중불어, 프랑스어 말하기, 프랑스어 글쓰기, 프랑스 언어학의 이해, 프랑스어 문법 등

어린왕자는 내가 정복한다! 프랑스 문학

프랑스의 역사와 철학이 녹아 들어 있는 문학을 통해 인문학의 세계에 초대합니다.

☞ 프랑스 문학사와 프랑스 시의 이해, 소설과 작가, 프랑스 희곡과 시나리오, 프랑스 현대소설과 시, 프랑스 고전시, 고전산문, 프랑스 문학과 비평의 흐름, 비교문학 등

프랑스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프랑스 문화에 대한 공부

프랑스 문화 익히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프랑스어권의 삶과 만나도록 안내합니다.

☞ 프랑스의 언어와 역사, 프랑스어권 언어와 문화, 프랑스어와 미디어 등

프랑스어 한국어 두 가지가 자유자재로! 불한, 한불 번역과 실무불어에 대한 공부

번역과 프랑스 문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불어불문학과는 BK21PLUS 사업에 참여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을 진작하고 있습니다.

☞ 불한대조분석, 문학과 번역, 번역의 이해, 프랑스 소설과 번역, 번역분석과 평가, 프랑스 어 텍스트번역연습, 실용텍스트번역, 한불번역의 실제 등

5. 사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1946년 8월 15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민족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 사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로 한때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사학과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60~70년대에 배출된 졸업생들이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9년 사학과는 한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로 3개 학과로 나누어졌다가, 2004년 3월 동양사학과와 서양사학과를 통합, 사학과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사학의 경우 한국사학과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진로진학

1) 학계·교육계

대학교수 및 교사

2) 연구소

문화재, 문화, 역사분쟁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등)

3) 언론·출판·문화계

신문·방송기자, 방송PD, 작가, 출판기획자, 집필가, 문화콘텐츠제작자, 극단연출 등

4) 정부·공공기관·기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문화재청, 지역 문화원, 국가기록원 등), 박물관 학예사, 판·검사·변호사, NGO활동가

3. 학과 프로그램

1) 국제 교류 프로그램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맺은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역사학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학과는 전공강의를 영어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한국인의 눈으로만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눈으로 보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객관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정기답사

사학과는 매년 정기답사활동을 합니다. 동기들과 직접 역사유적지를 둘러봄으로써 역사공부와 연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동기들과의 우정도 끈끈해질 수 있는 1석2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매 학기 외국인 교수 초빙

매 학기마다 외국인 역사학 교수 1명 이상을 객원교수로 초빙하여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교류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II. 졸업요건

선택교양 (12학점)	제2외국어	독어, 불어, 중어, 노어, 일어, 서어, 한문 중 1개 언어를 선택하여 6학점 (동일언어 I, II) 이수
----------------	-------	---

	기타 선택교양	6학점
전공필수 (6학점)	HOEW201 역사학개론, HOKA203 한국역사입문1, HOKA204 한국역사입문2 중 택 1 (3학점) + 기타 전공필수 과목 (3학점)	
전공선택	36학점	
영강	5과목 이상 이수	
기타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 본교에서 시행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합격 (국가공인 시험 중 지정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본교의 한자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Ⅲ. 전공 교과목

HOEW 307 중국 근세사

송 · 원 · 명 · 청 시기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근세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목입니다.

HOEW 311 서양 고대사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정치, 경제적 삶의 커다란 윤곽을 파악하고, 아울러 그들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들을 검토하는 과목입니다.

HOEW 313 서양 근세사

르네상스 · 종교개혁 시대부터 계몽주의 시대까지의 근대 사회의 형성 과정을 개관하는 과목입니다.

HOEW 315 서양 최근세사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정치혁명과 산업 혁명의 진행과정을 민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의 이념들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고찰 속에서 정리해 보는 과목입니다.

HOEW 365 독일문화사

게르만민족 이동기부터 현대까지의 독일 역사를 개관하면서 유럽사 속에서 독일의 위치와 역할 및 의미를 정리해보는 과목입니다.

HOEW 367 미국문화사

미국의 역사를 그 기원부터 현재까지 개관하되 특히 현대사의 위상을 살피는 데 역점을 두는 과목입니다.

HOEW 401 일본사

일본역사의 전시대를 개괄하는 과목입니다. 정치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한국사를 참조함으로써 일본사에 대해 이해를 높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일본적 특수성이라 보여지는 현상들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본 과목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HOEW 403 인도사

인도사에서의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밀도 있는 강의를 하는 과목입니다.

HOEW 409 동아시아 현대사

중화민국 수립 시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목입니다.

HOEW 411 중세교회와 세속문화

서양에서 봉건제의 다양한 형태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HOEW 417 서양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1차 대전부터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20세기의 역사를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HOEW 431 서양사 특강

서양사 가운데서 선택한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HOEW 451 중국 사학사

사(史)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중국의 역사학에 이르기까지 중국사학의 발전과정을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HOEW 204 서양사 입문

서양사의 전 시대를 개괄하여 서양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입니다.

HOEW 306 중화제국의 분열과 통일

위진 남북조 시기부터 당대까지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목입니다.

HOE W 308 동아시아 근대사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 시기까지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최근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목입니다.

HOEW 312 서양 중세사

중세문명의 신비를 푸는 주제를 중심으로 중세문화의 주요한 흐름을 파악하는 과목입니다.

HOEW 314 서양 현대사

19세기의 70~80년대 이후, 적어도 1960년대까지의 서양현대사를 개관하는 과목입니다.

HOEW 352 일본 근대사

근현대 일본의 역사적 흐름을 기초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사건들을 검토해 결과적으로 일본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과목입니다.

HOEW 363 영국 문화사

앵글로 – 색슨시대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영국사를 개관하면서 특히 튜더시대 이후에
주안점을 두는 과목입니다.

HOEW 364 프랑스 문화사

프랑스사의 형성기 이래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개관하면서, 그 특성을 밝히는
과목입니다.

HOEW 366 러시아 문화사

러시아의 역사를 그 기원부터 현재까지 개관하는 과목입니다.

HOEW 402 동남아시아사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10개국이 포함됩니다. 본 강의는 10개국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루는
과목입니다.

HOEW 404 이슬람 문화사

이슬람 세계의 형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문화사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밝히는 과목입니다.

HOEW 406 한중 관계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중관계를 개관하되, 특히 근세 이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입니다.

HOEW 412 오리엔트 문명사

근동지역의 고대문명의 정치사와 문화사를 개관하되, 그것과 서양의 고전고대와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과목입니다.

HOEW 416 19세기 유럽사회사

서양사상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개관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연원과 그 전개과정을 정리하여 국가정치사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과목입니다.

HOEW 418 과학혁명과 근대사회의 형성

17세기 과학혁명을 중심으로 근대사회의 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입니다.

HOEW 454 일본사 특강

일본사의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HOEW 462 서양 혁명사

서양사상에 있었던 여러 혁명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및 그 영향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과목입니다.

HOEW 466 서양사학사

고전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서양역사서술의 실재를 개관하면서 역사학 이론의 발달과 역사사상의 형성 과정을 정리해보는 과목입니다.

6. 사회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는 1963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11명의 교수, 450여 명의 학부생, 100여 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한국 최대의 사회학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약 3천여 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이들은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학과는 학생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학을 현실 사회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일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유명 대학의 사회학과 및 연구소들과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발전시켜가며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사회학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해외 교류 현황

중국 후단대, 싱가포르 국립대, 일본 와세다대, 동경대, 미국 유타주립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회학부, 미국 버클리대 사회학과와 교류협력관계에 있습니다.

✓ 사회학과 워크숍

오직 사회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행정, 장학금, 교환학생과 관련한 대학 생활 안내의 장을 마련해드립니다. 또한 학년별로 수강해야 하는 전공과목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어, 졸업하기까지의 원활한 사회학 전공 이수를 돕고 있습니다.

✓ 관련 자격 및 시험: 사회조사분석사자격증

3. 진로진학

1) 일반기업 (50%)

광고 및 홍보, 마케팅, 헤드헌터 등 다양한 직종의 회사에서 활약

2) 금융업 (13%)

은행원, 회계사 등

3) 학계 (10%)

교수,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조사기관 연구원, 강사, 해외유학 등

4) 언론·출판·방송계 (8%)

방송기자, 신문기자, 아나운서, PD, 출판업 등

5) 정계·공무원 (7%)

정부부처 공무원, 공기업, 국회의원 등

6) 교육 (5%)

중고등학교 교사, 전문학교 교사, 교직원 등

7) 자영업 (2%)

8) 법조계 (1%)

판사, 검사, 변호사 등

9) 기타 (2%)

시민단체 활동가, 사회복지사 등

4. 학과 프로그램

1) 교직과정 설치

본인이 원한다면 지원을 통해 교직이수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필수 과목과

4주간의 현장실습을 거치면 됩니다.

2)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회학과는 동아시아 지역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서 학술대회 등 교류가 용이합니다. 그 밖에도 세계 주요대학의 사회학과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II. 졸업요건

전공필수 (12학점)	SOCI291(사회학적 상상력), SOCI292(사회학발달사), SOCI294(사회조사방법), SOCI295(사회통계)
전공선택	30학점
기타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 본교에서 시행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전공, 교양 구분 없이 외국어 강의 5과목 이상 이수 (Academic English 교과목 포함)

III.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한 '분석의 틀', 이론

콩트(Auguste Comte)에서 마르크스(Karl Marx), 베버(Max Weber) 등 사회학 거장들의 이론을 배우고 잘 다지는 것이 사회학의 시작입니다. 사회 현상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기 위해서는 현실을 분석,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고전 사회학 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해석의 방법과 뿌리입니다. 변화해 가는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각종 현대 사회학 이론은 상당수가 고전 사회학 이론에 일정 부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학적 기초를 다지는 '사회학적 상상력', 고전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회학 발달사'와 현대 사회학을 살펴보는 '현대사회학이론'은 우리 학과의 필수과목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시작, 통계와 연구 방법론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가공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며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 학과에서는 '사회 조사 방법'과 '사회통계'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조사실습', '질적 연구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야'를 정해 분석해 보기, '○○사회학'

주요한 사회학의 분야에는 가족사회학, 경제사회학, 교육사회학, 노년사회학, 노동사회학, 도시사회학, 농촌사회학, 문화사회학, 범죄사회학, 사회심리학, 역사사회학, 예술사회학, 정치사회학, 젠더사회학, 조직사회학, 종교사회학, 지식사회학, 환경사회학 등이 있습니다. 선택한 분야에서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 어떻게 변해갈 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 자유전공학부가 아닌 사회학과 학우님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재학생 학우/선배 인터뷰

(1) 21학번 사회학과 이수진 학우

1. 학우님께서 사회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기르고 싶어 사회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저는 학창시절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 보고, 또 해결책을 강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2. 사회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사회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보통 초반에는 '사회학적 상상력'과 '사회학으로의 초대'라는 사회학 입문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학적 상상력 수업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의해 익숙해진 사고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주로 합니다. (콩트, 베버, 마르크스와 같은 사회학의 대표 학자들의 이론도 이 수업에서 다룹니다.) 사회학으로의 초대 수업은 패논패 강의로, 여러 사회학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의료사회학, 젠더사회학, 경제사회학, 통계사회학, 국제사회학, 범죄사회학, 종교 사회학 등 여러 교수님이 본인이 전공하고 계시는 사회학에 대해 짧게 설명하시는 수업입니다. 선배분들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사회조사방법, 사회학 발달사, 사회 통계 등의 필수 과목을 들은 후 다양한 사회학 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사회학을 골라 심화 과정을 배운다고 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 전공 과목에서 토론, 발표 등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생각을 자주 물으십니다. 사회학으로의 초대라는 과목에서는 특히 교수님과 2~3 시간동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동기들도 있을 정도로,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사회 문제나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3. 사회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비판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전반적인 수업이나 과제, 평가에서도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당위성을 띤 문장들을 버리고 꾸준히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합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법 관련 분야와 정치계로 진출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고, 사회부 기자로 나가는 사람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5. 사회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잘 주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부량이 크게 없고, 아마 사회학에서 또 세부 전공을 정할 때 (ex. 젠더 사회학, 경제 사회학 등)부터 심화과정이라 공부량이 많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6. 사회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1 학년이라 잘 모르겠지만, 꿀강은 '사회학으로의 초대', 3 학점이지만 패논패 강의고 시험도 없고 과제도 거의 없어서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헬강은 사회조사방법과 사회통계...? 두 수업 다 교수님에 따라 공부량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7. 사회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실제 진학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았던 점은 민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나 현상에 대하여 학우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교수님이나 학우분들 모두 대부분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으셔서 건강한 논의가 가능해서 사회 문제를 떠나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싶다는 저의 바람과는 부합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호해지는 것...? 정확하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명확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더욱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많은 수업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일수도 있습니다.

8.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사회학과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사회학과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양-사회학 입문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사회학과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사회학과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학우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사회학과에서 로스쿨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기도 했고, 자유전공학부에서 사회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꽤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 로스쿨 준비할 때 엮어서 쓸 내용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개별질문>

1. 사회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업과 과제가 조금 모호하다는 느낌이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과제와 문제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시험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이 스스로 수정이 어렵다고 느낄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2. 사회학과 교수님들의 성향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다들 굉장히 열려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심재만 교수님과 신은경 교수님 너무 좋으신데, 주로 영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3. 사회학과에서 수업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참여형 수업이 많은가요?

참여형 수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발표하라고 하는 시간도 있고, 가끔 교수님께서 질문 던져 주시면 아무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는 방식의 수업도 꽤 있어요!

4. 사회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사회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수업이 많이 열리는지, 또 학우님께서서는 어떤 분야의 수업에 흥미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수 사회학			
로드맵	ECONOMY (조직·기업·노동·정보)	POLITICS (정치·불평등·시민운동·정책·법·범죄)	SOCIETY (환경·인구·건강·도시·마이네리티)	CULTURE (문화·성·가족·사회사·국제화)	
2,3학년 핵심전공	경제사회학	정치사회학 사회계층론	환경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변동론	도시와사회	문화사회학	
	노동사회학	한국사회의 구조와변동	농촌사회학	가족사회학	
	사회발전론	사회문제와복지국가 사회문제론	한국의 사회와문화	사회인류학 역사사회학	
3,4학년 응용과목	과학기술 사회학	집합행동론	생애과정의 사회학	대중문화론	
		사회운동조직론		영상사회학	
	직업과사회	복지사회학	건강과 의료의 사회학	몸과 섹슈얼리티 젠더, 국가와 정책	
		복지국가의 비교사회학		국제지역사회연구	
		빈곤과빈곤정책	정신건강의사회학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	
	조직과 환경	실업과고용정책	식품과 사회	비교사회학	
		법과사회			
	정보사회학	범죄사회학	노년사회학	종교사회학	
		북한사회의이해			
교직	일반사회교과교육론, 일반사회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일반사회교과논리및논술				

>> 응용과목은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국제지역사회연구, 국제이주와 다문화 사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5.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자유전공학부 학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게 되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기회가 생기고 전보다 열린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확실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또 동기들이나 교수님과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사회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할수록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를 배우는 것보단 상식이나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는 점을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17학번 자유전공학부 사회학과 김지원 선배

<공통 질문>

1. 사회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사회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사회학과는 인간과 사회상의 숨은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삶과 집단,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학의 분야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데에서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을 연구하는데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100 명의 사회학자가 있다면 100 개의 서로 다른 사회학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사회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점이라면 어떤 현상이든 당연하게 보지 않고 표면 아래에 있는 원리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 사회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사회학과를 전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은 없는 것 같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든 그 이면에 있는 원리나 배경, 이데올로기를 찾으려고 하는 학문이라 소위 말하는 뼈뺀 시선이 있으면 좋습니다. 과목 특성상 논문이나 교과서 등 읽을거리가 많고 시험도 서술형이나 에세이 형식이라 주류 경제학과 같이 딱 떨어지는 답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진짜배기(?) 사회학과 소속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학석 연계를 통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회학과 잘 맞을 줄 몰라서 아예 생각을 안 했던 진로인데, 학석 연계를 하게 되면 5 학년 만에 석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으니 혹시 관심있는 분이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이 다루는 것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집단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해당되다 보니 진로는 딱히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사회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저도 사회학과 수업을 골고루 많이 들은 편이 아니라 추천드리기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학점을 잘 주시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과마다 희대의 꿀강이랄지 그런 것들은 분명 있지만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과 수업에 비해 유독 제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들이 많았고 그런 과목은 로드가 힘들어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학점 퍼준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본인이 즐기고, 또 열심히 하면 학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량 역시 진리의 과목 by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 사회학의 경우 덕업일치 교수님의 플레이리스트를 외우고 로큰롤 역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변동론 같은 과목은 두꺼운 책을 한 학기에 걸쳐 나가고 별개로 사회 현안과 관련된 발표도 있는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즐겁게 공부하시면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행정학이 너무 안 맞아서 절대적 양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버겁게 느껴졌어요.

5. 사회학과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 1 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자전으로서 받는 불이익은 없고요, 오히려 자유전공학부 사회학과라고 소개하니 반갑게 맞아주시는 교수님은 계셨습니다. 오히려 자유전공학부에서 드물게 진학하다보니 더 대견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자전 학우들이 없는 만큼 독강이 많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전공과목을 겹강 해본적이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독강이 편하기도 하고 교양 과목도 헬강을 위주로 들어서 이미 습관이 된 터라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팀플도 대부분 (제가 들은 강의에서는) 교수님이 조를 짜주시기 때문에 팀원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습니다.

제 1 전공 학우들과 팀플을 통해 친해질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저는 한 분도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딱히 친해지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스스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기타 추가해주신 부분입니다!

사회학과 경제학은 완전히 동떨어진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제학과 수업도 함께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름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경제학적 시각이 없으면 완전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물론이고요. 저는 부전공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경제학 복수전공 학위를 하는 중인데 올해부터 부전공이 없어진다고 하니 공거리 융합전공 제도를 활용해서 경제학을 많이 접하시거나, 더 관심있으시면 저처럼 복수 학위를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사회학을 하면 절로 철학을 곁가지라도 배우게 되는데, 이는 사회학에서 현상 이면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비판사회학이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철학과 교양, 전공강의를 몇 개 들었는데 관심있으신 분은 교양부터 차근차근 났어나가셔서 전공강의도 몇 개 들으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강의로는 서양철학 입문, 현대사회의 윤리적 쟁점들, 사회철학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양철학을 주로 공부해서 동양철학 쪽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분야도 동양철학입문부터 시작해서 교수님께 관련 도서를 추천받으시거나, 전공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홍중 교수님께서 특강을 한 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사회학과 과학의 연관성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워낙에 과학 머리가 없는 탓에 이과 교양은 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사회학은 과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과학사회학, 기술사회학 분야를 떠올릴 수 있겠군요. 요즘 같이 문화지체 현상이 뚜렷한 때에는 과학과 기술을 사회학과 접목시키는 안목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과학도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책은 브뤼노 라튀르의 저서들입니다.

사회학을 하면서 의외로 좋았던 점은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뼈뼉하게 바라보는 것을 권장하는 학과라 그런지 이제껏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이면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P.S.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경제학과 법학 전공 인정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사회학과는 정말 교환학생 가기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학과 과목이 없는 학교가 잘 없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대부분 전공 인정을 잘해주는 편이라 다양한 과목을 마음 놓고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소소한 장점입니다.

<개별 질문>

1. 사회학과 교수님들의 성향은 어떠하신가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모두가 당연하게 느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진보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과목을 들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모두 사회학과에 대한 애정이 정말 넘치시는 분들이고 학생들을 애정하시는 게 느껴지는 따뜻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2.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덕질(?)해야 수업을 재밌게 듣는 타입이라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학과에서는 김철규 교수님, 김수한 교수님, 심재만 교수님, 홍성태 교수님, 장안식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특히 김철규 교수님의 경우 농촌 사회학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농촌과 먹거리에 하등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커리를 따라가며 올바른 먹거리와 식량안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정도로 인품도, 실력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수업도 알차거니와 정말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종강하고도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관련 질문을 메일로 드릴만큼 다방면으로 박학다식하시고 경험도 풍부하십니다.

심재만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박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나십니다. 영강을 할 때 간혹 교수님도 불편하고 듣는 저희도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하시고 고르시는 논문도 게오로그 짐멜부터 김리카까지 양질의

논문들입니다. 사회연결망이나 행위론 분야에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논문도 하나같이 다 재밌습니다. 행위론 수업을 들으면서 외국인 노동자 등 이민 혹은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상당히 쎈틀하시고 멋지십니다.

김수한 교수님은 제가 합동 수업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긍정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내고 교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당시 고르셨던 참고 문헌에도 토크빌, 혹실드 등 재밌는 글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수업도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홍성태 교수님, 장안식 교수님이야 사회학과의 아이돌(?)같은 존재들이라 클루핑을 읽어보시면 더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팬들도 많고 저도 장안식 교수님 수업은 열린 것을 모두 들을 정도로 재밌게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친절하시고 허를 찌르는 사고도 많이 하십니다.

지면의 한계로 모두 언급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사회학과 교수님들은 모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수업을 들으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3) 15학번 자유전공학부 사회학과 손원재 선배

<공통 질문>

1. 사회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사회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 사회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의 기본은 과거 사회학자들의 이론들입니다. 사회학의 창시자인 콩트부터, 가장 유명하고 혁명적이었던 마르크스까지 사회학자의 이론들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사회학이론들을 배운 후에는 현실사회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면서 이론에 접목시켜보고 직접 연구, 발표하면서 실체적으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커리큘럼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회학 필수 선행과목들 사회학적 상상력, 사회학발달사, 사회조사방법 등의 필수과목들을 듣고 나머지 전공 선택과목들을 수강하면 되는데 과목의 풀이 엄청 크지 않아서 선택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전공과 다른 사회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점은 사실 현실사회문제를 다루는 역량을 기르는 과목이다 보니 팀플을 통한 직접적인 연구들이 많습니다.

2.사회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사회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수업을 통해 배우는 점들을 체화하기 힘들고 이를 따라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학과의 특성상 현재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 다루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다 보면 논의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생각과 사회문제의 대한 관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는 직접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정치적 담론의 장이나 연구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고시, 로스쿨 등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사회학적 지식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정 진로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보기 힘듭니다.

4. 사회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회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나 탐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과 더불어 팀플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순간적으로 공부량이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시험을 위한 시험을 출제하지 않다 보니 공부량이 극심한 편은 아닙니다.

5. 사회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사실 사회학과 전공수업에서 교수님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정말 다양하다 보니, 저는 그러한 교수님의 성향과 맞는 수업의 경우 명강과 꿀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노년사회학을 가르치시고 현재 빈곤과 빈곤정책을 가르치고 계신 김수영교수님의 수업을 특히 좋아하고 열리는 강의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헬강 역시 교수님의 스타일에 따라 극명하게 본인과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한 경우 피하시면 되고 저는 아직까지 헬강이라고 느낀 강의는 없었습니다.

6. 사회학과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 1 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사회학과를 제 1 전공으로 선택하면 사회학과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 메일로 항상 옵니다. 이러한 점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전으로서 받는 불이익 중 하나는 1 학년 전공필수과목이 여전히 사회학과 1 학년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타과학생과 전공필수과목을 들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 학우들 중에 사회학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적다 보니 처음 2 학년이 되어 전공선택을 했을 때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제 1 전공 학우들과 팀플을 많이 하다 보니 친해질 기회는 항상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친해지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 실제 이중전공으로 사회학은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질문>

1. 사회학과 교수님들의 성향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사회학과의 반 이름이 '악칠반'인 것만 봐도 진보적인 성향의 학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들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들을 주로 강의로 개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 현실사회문제의 모습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노력을 강조하시는 성향이 있으니 이런 점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김수영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김수영교수님의 수업을 통한 팀플을 하면서 진정한 팀플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대학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구하는 내용의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사회학과를 적극 추천합니다.

2. 졸업생 선배 인터뷰

(1) 10학번 자유전공학부 사회학과 윤동환 선배

<공통 질문>

1. 사회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사회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2. 사회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문과 전공들도 비슷하겠지만,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의 진로는 굉장히 다양해서 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화해서 진로 분야를 말하자면, 사기업 취직, 공기업 또는 정부부처(행정고시), 로스쿨, 국제기구, 언론계(기자, PD) 등 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학과 공부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분야에 치중해서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과 졸업 후 진로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회학 공부가 도움이 되는 진로로서 꼭 하나를 집어 말하자면 언론계통으로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회학과 공부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나 PD 같은 경우 우리사회의 이면을 포착하여 그것이 갖는 함의를 이야기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 사회학적인 시각, 통찰력, 사회현장에 대한 접근성 등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는 사회학을 공부하여 다져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사회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5. 사회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6. 사회학과 관련 공지사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1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개별 질문>

1. 사회학과 교수님들의 성향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직 전공수업들을 많이 들어보진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수업이 단방향적인 정보전달로 그치는 것을 경계하시는 편입니다. 또한 사회학과 교수님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소통하려고 하신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수한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김수한 교수님께서서는 유머러스 하시고 무엇보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7. 서어서문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스페인어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이해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상되던 1983년,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가 설립되어 스페인어권 연구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어서문학과는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미국 등에서 수학한 권위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연구로 한국 서어서문학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여 스페인어권 국가와의 교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만들어져 있으며,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등지의 대학과 교환학생 협정을 맺어 학생들 간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2014년 기준 취업률 94.3%
- ✓ 2015년 전국 인문사회 학과 취업률 1위

3. 진로진학

1) 학계기업계

교수, 국제무역 등

2) 언론·출판·문화계

언론사, 방송국 등

3) 정부· 공공기관· 법조계

사법부, 행정부, 외교통상부, 입법부, 국가정보원, KOTRA, KOICA, 약 4% 일반 공무원, 외교관,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국제변호사, 통역사, 해외주재원, 회계사 등

4) 금융계· 기타

금융기관, 항공사, 기업 CEO, 등

4. 학과 프로그램

1)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3~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소재 한국 및 외국공관 · 기업 · 민간기구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2) 진로워크숍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선배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I. 졸업요건

선택교양	선택교양 (6학점)	스페인어 회화, 작문, 독해, 문법1, 문법2 총 5과목 중 3과목 필수 이수 (총 3학점)
	교양외국어 (6학점)	독어, 불어, 중어, 노어, 일어, 서어 중 동일언어 I, II 이수
학문의 기초		스페인어 I, II 및 고급영어 이수

(9학점)	
전공선택	42학점
한자이해능력 인증	국가공인시험 중 학교에서 인정하는 시험 2급 이상 (교내 한자시험으로 대체 가능)
공인외국어성적	DELE B1 이상 또는 FLEX 듣기/읽기 500점 이상 또는 SIELE global B1 이상

<기타 유의사항>

가. 스페인어권 지역에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들의 경우 (교환학생 포함) 학문의 기초 과목 대신에 서어서문학과에 개설된 학수번호 SPAN300 또는 SPAN400 단위에 해당하는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합니다. 단, 이 경우 학문의 기초 과목 대신에 이수하는 전공선택 과목은 서어서문학과 졸업을 위한 전공이수 42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나. 본교 입학 이전 스페인어권 지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증빙서류가 있거나 DELE B1 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의 경우, 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독해, 스페인어문법1, 스페인어문법2 총 5과목 중 최소 3과목(총 3학점) 이수규정에서 면제됩니다. (단,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Hola! 초급부터 고급 스페인어까지! 스페인어학

스페인어 구사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문법, 작문, 시청각 스페인어, 강독, 회화, 번역 등의 다양한 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합니다.

돈키호테? 흥미진진한 스페인 문학 및 문화를 배워보자!

중세, 황금세기, 근 · 현대로 이어오며 근대소설의 기원을 열고, 유럽 바 로크 문학의 정점에 오르며 찬란하게 피어오른 스페인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각 장르별 주요 텍스트 독해를 통해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 더 나아가 서구문화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찬란한 마야, 아스테카, 잉카 문명! 라틴아메리카 세계를 알아보자!

20세기에 들어와 가장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작품들을 쏟아 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라틴아메리카 문학 학습을 통하여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 서구 와 비서구의 경계선상에서의 성찰적 사유를 통하여 글로벌 / 지역 문화를 조망합니다.

스페인어권 세계의 문화를 배운다!

서어서문학과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미래사회 스페인어 전문가를 기르기 위해서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언어구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어 언어학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하여 스페인어 언어구조 및

실제언어,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페인 언어학뿐 아니라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는 한편, 스페인어권 국가들의 역사, 사상,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에 정통한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교양 스페인어 초급, 교양 스페인어 중급, 스페인 문화의 이해, 라틴 아메리카의 이해
2학년	시청각스페인어, 중급스페인어연습, 스페인어 산문 강독, 중남미 단편 소설 강독, 고급 스페인어 회화
3학년	스페인어 음성·음운·형태론, 스페인어 어원 및 계통론, 중남미 문화사, 서중남미 지역학, 서문학사, 스페인 시, 스페인·라틴아메리카 경제와 사회발전·정치와 사회변동
4학년	스페인어 통사·의미·화용론, 스페인 문학과 신화, 스페인 문학과 여성, 중남미 식민지 시대 문학, 중남미 문학 비평, 라틴아메리카 문화사회학, 인디오세계연구, 빅데이터분석, 기호학마케팅방법론, 인턴십

8. 언어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언어의 독창적 사용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며 특전입니다. 언어를 바탕으로 과학과 예술, 학문이 존재하며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류 문명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은 전통적으로 인류문화 연구의 필수 분야로 여겨졌으며, 근래에는 인간정신의 본질을 밝히는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언어학과는 이와 같은 학문의 인문학적 역할과 함께 정보화 사회를 주도해 가는 미래 지향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1989년 개설된 이래 학문의 첨단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고급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언어정보연구소 운영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 자연언어 텍스트 및 정보처리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 연구)
- ✓ 응용문화 연구소가 설립 (교육, 연구, 작품 생산 등 세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

3. 진로진학

1) 기업계

광고회사, 통역회사, 음성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기계번역이나 자동인터넷 검색 등과 같은 정보·전산처리업체, 영어 학습 프로그램과 한국어(한국학, 한국문화)

학습 프로그램 개발업체 등

2) 연구소

언어학연구원, 국립국어원, 사설언어연구소 등

3) 언론·출판·문화계

언론사, 신문기자, 방송PD, 작가, 번역가, 통역가, 평론가, 출판업자, 출판사, 교구·교재개발
원, 번역회사, 국내외 언어교육원 등

4) 정부·공공기관·법조계

정부부처 공무원, 법조인 등

4. 학과 프로그램

- 제2외국어 강좌 수강

언어학과가 속한 문과대학 국제어문학부에서는 졸업 규정으로 제2외국어 강의를 전공
수준의 교양 강의로 12 학점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 이론언어학, 기호학,
전산언어학, 그리고 실용 언어학으로 전공 과정을 특화할 예정입니다.

II. 졸업요건

전공선택	42학점 (전공필수는 없음)
선택교양 제2외국어 (6학점)	독어, 불어, 중어, 노어, 일어, 서어 개설과목 중 6학점 이수 (동일언어 혹은 다른 언어)

영강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과목 이수 (전공, 교양 구분 없음)
----	-------------------------------------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음성학과 음운론

대부분의 언어들은 글보다는 소리로 먼저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소리는 언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음성학과 음운론입니다. 음성학은 좀 더 물리적인 소리에 주목을 하고, 음운론은 한 언어에서 그 소리가 가진 기능과 유효성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먹 - 다, 먹 - 고, 먹 - 으니, 먹 - 었다, 형태론

형태론은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 단어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과정 그리고 그 원인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국어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인 형태소, 그것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이 형태론입니다.

I love you, 나는 사랑해 너를? 통사론

형태론이 단어의 의미와 변형을 공부한다면, 통사론은 그 단어들이 이루는 한층 큰 범위인 문장에 관해 공부합니다. 단어들 사이의 관계, 문법, 문장이 가지는 의미 등을 분석합니다.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라... 의미론과 화용론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말의 의미와 상대가 의도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말의 의미이고 이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의미론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발화자 - 청자의 관계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언어와 담화 상황 간의 다양한 관계를 공부하는 분야를 화용론이라고 합니다.

일본어와 한국어 문법이 비슷해요! 역사비교언어학

지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문법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충돌과 접점이 있었던 만큼 언어도 비슷해진 것입니다. 또 한 독일어 화자들은 영어를 비교적 쉽게 말할 수 있고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역시 매우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언어들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내고 더 나아가서 가장 초기 상태의 언어가 어떠하였나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역사비교언어학입니다.

장미 = 열정, 과연? 기호학

어떤 사람에게 장미는 사랑의 상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 돋힌 새침하고 도도한 사람을 연상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 사물, 혹은 추상적인 이미지가 사람에게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와 그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다루는 분야가 기호학입니다.

If (\$text=~ /^[A-Z]/) 전산언어학

초록창, 파란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주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

과정에도 자연어처리, 형태소분석 등 언어학적 원리들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연언어의 통계적이고 논리적인 모형을 만들어내는 분야가 전산언어학입니다.

법정에서는 법정용어, 병원에서는 의학용어, 사회언어학

분명 같은 사람인데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말투와 다른 단어들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안에 숨겨져 있던 다른 인격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그에 걸맞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언어학입니다.

이외에도 사전을 편찬하는 사전편찬학, 언어 처리 체계를 인지심리적 기능과 행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심리언어학, 언어 장애를 관찰하여 분석하고 치료하는 언어병리학도 우리 언어학과에서 다루는 분야들입니다.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공통교양과 핵심교양 (고급영어, 제2외국어, 전공외국어 등)
2학년	일반언어학, 음성학, 도구로서의 컴퓨터, 의미론, 기호학, 세계의 언어, 언어와 첨단과학 등
3학년	음운론, 언어학사, 언어 자료와 컴퓨터, 통사론, 언어와 컴퓨터, 언어와 논리, 화용론, 형태론, 인지기능문법, 담화분석, 광고언어학, 언어유형론, 시각기호학, 문자학, 언어병리학, 언어학과 인류학 등

4학년	역사비교언어학, 언어학이론응용, 개별언어(인구어, 중동어 등), 언어와 미디어, 생성문법, 논증방식탐구, 언어학연습, 언어학강독, 문법론, 응용기호학, 사회언어학, 언어와 시각예술, 언어학특강, 언어습득 등
-----	--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졸업생 선배 인터뷰

(1) 15학번 자유전공학부 언어학과 이정주 선배

1. 언어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언어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언어학과는 인간 언어가 (인간 또는 동물의)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 다른 인간의 특질과 다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서부터 출발하여 언어의 성립 과정과 구조, 복잡성을 밝히고 응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언어를 가장 작은 단위 (음소) 부터 큰 단위 (문장과 대화 양상) 로 나누어 배우는 이론언어학(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언어학과 다른 학문을 접목시켜 다루는 응용언어학¹, 컴퓨터를 통한 언어 처리와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전산언어학,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를 다루는 기호학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4분의 정교수님이 응용언어학을 제외한 각 분야를 전공하셨으며 전산언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2분이기 때문에 좀더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¹ 응용언어학은 개별 언어에 주목하는 어문계열 학과, 언어의 실제 사용에 주목하는 사회학과, 심리학과 등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언어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언어에 대해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언어에 주목했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언어를 통한 소통이 답답하고 막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 지리, 사회, 정치외교,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기심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늘 저를 가로막았고 그래서 더 호기심을 가지게 했던 건 언어였기 때문에 언어학과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언어학과에 진학 시 그 진로와 연계되는 점이 무엇인지요? 답해주신 진로 외에는 언어학과와 연관된 진로가 어떤 것이 있나요? (고시, 취업 등)

저는 컴퓨터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컴퓨터라는 도구는 저에게 정말 친구 같은 도구이며, 컴퓨터로 인간의 언어를 구현하고 다른 언어나 형태로 자유자재로 변형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어학을 제1전공으로, 컴퓨터학을 제2전공으로 두고 있습니다. 언어학과의 주요 진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2학년이라 체험하지는 못했으나 대학원, 고시, 로스쿨, 취업 등 다른 문과대 학과들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혹시 언어학과의 FM커리큘럼이 있다면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어학과는 교양필수 과목, 전공필수 과목, 선수과목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수번호상(LING2XX, LING3XX, LING4XX)으로도 이론언어학 과목이 LING2XX로 지정된 것 외에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학년 때부터 일반언어학과 이론언어학 과목 (매 학기 4개 개설), 응용언어학/개별언어 과목 (언어병리학, 인지언어학, 사회언어학, 개별언어 등으로 매 학기 4개 개설), 기호학 과목 (매 학기 2개 개설),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 (매 학기 1개 개설) 등을 개인의 기호에 맞춰 골고루 듣는 편입니다.

4. 언어학과에서 꼭 들어야 하는 골강/명강,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황유미 교수님의 언어병리학 강의는 언어병리 현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신 편이며,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통해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호학과 인류학을 다루시는 김성도 교수님의 강의는 강의에서 다루는 지평이 매우 넓은 편이며, 수행해야 할 과제, 필기량이 많고 지필고사의 형식도 매번 바뀌어 취향에 맞거나 조별 과제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주로 수강하게 됩니다.

5. 전공 선택 및 언어학과의 전공 공부에 있어 자유전공학부의 학생들에게 조언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혹시 타과생들이 언어학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학우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는 문과대학에 속해 있지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등 사회과학적이거나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외국어를 잘 구사하기 위한 학과도 아닙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도 언어학을 공부하는 데 특별히 장애가 될 요소는 없습니다. 또한 언어학과 전공 과목들은 타전공생 및 이중전공생의 비중이 매 강의마다 10%를 넘는 편이고, 50% 이상의 과목에서 조별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언어학과만의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강범모 학과장님. <언어-풀어 쓴 언어학 개론> 등 다수 저술. 또한 언어학과 출신 선배분들이 연구원으로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주점 등 학과 행사에서 뵈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영어영문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는 1946년 8월 문과대학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교수진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어영문학과는 영어학과 언어학, 영미 문학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및 영연방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를 모든 장르에 걸쳐 개설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학문적 추구의 마당인 동시에 실무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도록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회화, 작문 강좌 또한 개설하고 있습니다. 영어영문학과는 영어영문학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장래 지성인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판적, 창조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국제어로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특이사항

- ✓ 영미문학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및 영연방 문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에 걸쳐 다양한 과목 개설
- ✓ 대체로 고전 영문학, 근대영문학, 미국문학, 영어학의 네 분야로 나누어진 교과목

3. 진로진학

1) 학계·교육계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교수, 정부 · 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2) 기업계

대기업, 국내 일반 기업체,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 외국인 회사 등

3)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PD, 방송작가 등

4) 출판·문화계

작가, 번역가, 통역가, 출판업자 등

5) 정부·공공기관·법조계

정부부처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등

6) 금융계·회계분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등

4. 학과 프로그램

1)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3~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소재 한국 및 외국공관·기업·민간기구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2) 전공영어 강의

전체 전공과목중 60%가 넘는 과목이 영어강의로 진행됩니다. 부담을 느낄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전공생들의 영어실력이 유학생 못지않게 높아진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II. 졸업요건

학문의 기초	고급 영어(3학점)
--------	------------

선택교양 (외국어)	6학점 (독어, 러시아어, 불어, 서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개 언어의 초급 + 중급 또는 1,2 이수)
전공선택	<u>필수과목은 없음</u> 단, 200단위 수업은 4과목(12학점)까지만 전공으로 인정되며, 다섯 번째 과목부터는 교양으로 처리됨(심화전공을 하더라도 200단위 수업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공 이수학점	42학점
한자	본교 시행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통과 또는 국가공인시험 중 학교에서 인정하는 시험 2급 이상

<기타 유의사항>

-영어 성적: 2016학년부터 공인영어성적 제출이 폐지되었으며, 2015학년까지는 선택사항으로
변경(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인영어면제신청서'양식 제출)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영어의 언어 현상을 역사적,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학문

-> **주요과목:** 영어학개론, 영어발달사, 영어학습이론과 전략

영미문학영역! 고전영문학과 근현대영미문학과 영어권문학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탐구

-> **주요과목:** 영미시개론, 영미문학과영화, 현대미국소설, 19세기 영국소설, 영미문학과젠더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통합적 영어 능력

-> **주요과목:** 전공영문 글쓰기, 영어구문론, 번역연습, 영어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전공영문강독, 영미단편강독, 영어학입문, 영미문학입문, 영미대중문학읽기,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2학년	영미시개론, 영미소설개론, 영미희곡개론, 영어학개론, 응용언어학개론, 영문법, 영어음성학, 전공영문 글쓰기, 고전 영문학의 흐름, 근대영문학의 흐름, 미국문학의 흐름, 영미문학과 대중문화
3학년	영미문학과영화, 영어의사회언어학, 셰익스피어, 현대미국소설, 영미시연구, 현대영국소설, 현대영국시, 미국시, 19세기영국시, 19세기영국소설, 영어발달사, 19세기미국문학, 특수장르문학, 초기영국소설, 영어통사론, 미국흑인문학, 비평이론, 중세르네상스문학, 영어권문학의 이해, 미국영화, 영국희곡, 미국희곡, 영국산문, 미국산문, 영어음운론, 번역 연습, 영어의미론, 영어습득론, 영어학연구

4학년	초기미국문학, 응용언어학특수과제, 영어학특수과제, 미국소수민족문학, 영미 문학과 젠더, 영미문학특수과제 I, 영미 문학특수과제 II, 심리언어학, 문화이론 연구, 최근영미문학,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영어교과 논리 및 논술, 영문학과 계몽주의, 영문학과법
-----	---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졸업생 선배 인터뷰

(1) 15학번 자유전공학부 영어영문학과 이승준 선배

<공통 질문>

1. 영어영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영어영문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서양의 정서와 문학 작품을 접해보고 싶어서 영문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2.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영어영문학과에 진학 시 그 진로와 연계되는 점이 무엇인지요? 답해주신 진로 외에는 영어영문학과와 연관된 진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영문과에서는 정말 정해진 진로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활동합니다.

저는 시나리오 작가 쪽으로 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영문과가 여러 곳에 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영어의 범용성 덕이 아닐까 싶네요!

3. FM커리큘럼이 있다면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M 커리큘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ㅠ

4. 꼭 들어야 하는 골강/명강,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조원, 남호성 교수님께서 각각 문학, 언어 쪽을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피해야 할 강의는 잘 모르겠네요!

5. 전공 선택 및 영어영문학과와 전공 공부에 있어 자유전공학부의 학생들에게 조언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혹시 타과생들이 영어영문학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학우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단순히 영어가 좋다고 해서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어를 통해 여러가지를 습득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문학을 느끼는 곳이라기 보다는,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곳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할 수 있겠지만, 학문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딱딱할 수 있습니다.

10. 일어일문학과

I. 개괄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정부 기관 등에서는 일본의 언어, 문화, 사회, 경제 등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갖춘 일본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일어일문학 전공자의 사회진출 전망은 실로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는 일본어문학과 일본문화에 정통한 일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일본 전문가를 양성하고 일본어문학과 일본문화에 깊은 이해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은 일본학과 일본인에 대하여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일본의 문화와 사회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성인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나아가 한일관계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한일 우호와 교류증진에 앞장설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본교 문과대학 학과들 중 상위권의 취업률: 76.1% (2010, 전국 일문과 중 최고)

3. 진로진학

- 1) 학계·교육계 (대학교수, 중·고교 교사, 정부 및 민간 연구소 연구원 등) : 약14%

- 2) 기업계 (국내 대기업, 일본 대기업, 공사, 항공산업, 기타 외국계 기업 등) : 약 38%
- 3)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PD, 방송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동시통역사 등) : 약 1%
- 4)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외교관, 법조인, 변리사, 국제변호사, 일본법 전문가 등):
약 4%
- 5) 금융계 (은행, 증권사, 회계법인, 일본전문 투자설계사 등) : 약20%
- 6) 국제 통상계 (국제 통상업체, 해운업체, 무역진흥기구, 상공회의소 등) : 약 23%

II. 졸업요건

선택교양 (12학점)	선택교양	6학점
	교양외국어	독어, 불어, 중어, 노어, 일어, 서어 중 동일언어 I,II
학문의기초 (9학점)	일본어	일본어 I, II 6학점 이수
	고급영어	3학점 이수
전공선택	42학점	
영강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개 이상 이수 ※ 전공, 교양구분없음	
기타졸업요구조건	JLPTN1급 혹은 JPT715이상 본교시행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통과 또는 지정 국가공인시험자격취득	

11. 중어중문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중어중문학과는 크게 나누어 중국어, 중국어학, 중국고전문학, 중국현대문학, 중국문화 분야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분야에서는 중국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서 유학을 가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어학 부분에서는 중국어의 역사와 구성원리 등을 배우고 중국어 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중국 문학 부분에서는 중국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학을 탐구합니다.

2. 특이사항

- ✓ 제1단계 BK21사업단 선정(1999~2002)
- ✓ 제2단계 BK21사업단 선정(2005~2012)
- ✓ 2013 중앙일보 전국대학 중문과 평가 1위
- ✓ 제3단계 BK21사업단 선정(2015~2020)
- ✓ 2014 중앙일보 전국대학 중문과 평가 1위
- ✓ 제4단계 BK21 사업단 선정(2020~2027)

3. 진로진학

1) 학계

- 대학 교수, 교사, 연구원

2) 언론.출판.문화계

- 신문.방송기자.방송PD.작가, 아나운서, 영화번역가, 동시통역사, 출판사, 편집인 등

3) 정부.공공기관.법조계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외교관 등

4) 기업계.금융계

- 일반기업체.해외(특히 중국)파트,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관세사, 무역사무직 등

4. 학과 프로그램

1) 교직과정 설치

졸업 이후에 중국어 관련 교직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2)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3~4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의 한국 및 외국공관.기업.민간 기구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진로워크숍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先輩들이 후배들의 진로 상담을 위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II. 졸업요건

선택교양 (9학점)	동일언어 교양외국어 I, II 이수 (각 3학점, 총 6학점) 잔여 3학점은 자율이수
학문의기초 (9학점)	중국어 I, II (총 6학점) 이수 고급영어 3학점 이수
전공선택	42학점
영강	전공, 교양 구분 없이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개 이상 이수
기타졸업요구조건	본교에서 인정하는 한자인증시험

III.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선택교양

CHIN105 중국문학 산책

CHIN120 중국어 번역연습

전공 선택

CHIN203 중국어회화 I

CHIN204 중국어회화II

CHIN205 중급중국어강독 I

CHIN206 중급중국어강독II

CHIN211 현대중국어문법 I

CHIN212 현대중국어문법II

12. 철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철학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고 인간다운 삶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는 인식론, 윤리론, 존재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합니다. 본 학과는 1946년에 창립된 이래 반세기여 동안 수많은 철학적 성과를 이룩한 연구자들을 배출하고 한국 철학계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광범위한 분야의 우수한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서양 철학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진로진학

철학과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시야, 그리고 모든 학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철학과 졸업생들은 학계, 언론계, 재계뿐 아니라, 법조계, 정계, 관계, 종교계 등 사회 각 방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학과 프로그램

1) 열린 책들 장학금

도서출판사 '열린 책들'에서 오직 고려대 철학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학년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부 졸업 후 본교 대학원 철학과에 진학하여 철학을 계속 공부할 뜻이 있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교직과정 설치

철학전공생들 중 교직에 뜻이 있는 학우들을 위해 교직 이수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Ⅱ. 졸업요건

전공선택	42학점
영강	5개 이상 * 교양, 전공에 상관없이 영어(외국어, 원어)강의 이수가능
기타 졸업요구조건	한자 *2016학번부터 공인영어 성적제출 면제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서양철학사

철학적인 탐구가 형성된 과정을 소개하는 과목들입니다. 해당 과목에는 <서양고대철학>, <서양근세철학>, <독일고전철학>, <현대유럽철학>, <현대영미철학>이 있습니다.

동양철학사

동양철학사 영역은 서양철학사영역과 마찬가지로 철학의 역사에 관한 과목이지만 동양철학은 서양철학과는 매우 다른 관점과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과목으로 <한국철학사>, <중국선진철학>, <도가철학>, <불교철학>, <인도철학사>가 있습니다.

논리와 이론철학

논리학은 생각의 올바른 형식이나 법칙에 대한 학문이고, 이론철학은 현상이나 대상 자체의 본질(本質)을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형이상학>, <기호논리학>, <인식론>, <과학철학>이 이 영역의 주요 과목들입니다.

윤리와 실천철학

윤리와 실천철학 영역은 도덕적 당위와 실천적 가치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윤리학>, <미학>, <사회철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서양철학입문, 동양철학입문, 비판적 사고와 논리, 논리학 입문,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양사상의 이해, 동양사상의 이해, 서양고전의 이해, 동양고전의 이해, 서양사상 TopicCourse, 동양사상 TopicCourse 등
------------	---

2학년	유교철학, 불교철학, 철학 TopicCourse, 도가철학, 형이상학, 윤리학, 인식론, 기호논리학
3학년	중국선진철학, 중국송명철학, 한국철학사, 한국성리학, 중국양한위진철학, 인도철학사, 중국근현대철학, 서양고대철학, 서양중세철학, 서양근세철학, 독일 고전철학, 현대유럽철학, 현대영미철학, 심리철학, 과학철학, 언어철학, 논리철학, 해석학, 종교철학, 귀납논리, 과학철학, 고급논리, 현상학, 수리철학, 철학적 인간학, 시민윤리, 미학
4학년	동양철학연습, 서양철학연습, 동양철학 원전연구, 한국철학특강, 한국철학연습, 불교철학특강, 도가철학특강, 유가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특강, 서양고대철학특강, 서양현대철학특강, 서양철학원전연구, 서양고대철학연습, 논리학연습, 이론철학연습, 특정학파의 철학연구, 철학교과 교육론, 철학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철학교과논리 및 논술, 철학연구 방법론, 윤리학 특강, 실천철학연습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졸업생 선배 인터뷰

(1) 10학번 자유전공학부 철학과 성준혁 선배

<공통 질문>

1. 철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철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철학과에서는 동양철학, 서양철학, 논리와 이론철학, 윤리와 실천철학 각 영역에 하나 이상씩의 강의를 듣고 전공선택과목으로 30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시기별로 혹은 주제별로 비슷한 강의들이 있어서 혹시 수강신청을 한다면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철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일단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독서량과 논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수업교재가 따로 있는 강의는 별로 없지만 강의가 이해가 안 갈 때 찾아봐야 할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글을 쓰는 능력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강의 특성상 거의 모든 문제들이 약술형 혹은 서술형이기에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철학과 전공을 살려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철학 과목에 대한 교직 이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문과 특성상 고시나 취준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4. 철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교수님에 따라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대로 같은 시기의 철학자들이나 같은 주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교수님의 관점에 따라, 논리 전개방식에 대한 취향에 따라 답안에 써야 할 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고 글을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철학과 전공 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철학과에서 열리는 강의가 적어서 시간표를 짜려면 거의 모든 강의를 검색해보고 짜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강의들이 공부량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명강의라고 생각하는 강의는 하종호 교수님의 '인식론'입니다. 서양철학에 대한 개괄적인 면을 알 수 있고 강의력 또한 뛰어나십니다. 하지만 성적을 잘 받기는 힘들다는 게 함정! 정말 열심히 한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추천하는 꿀강은 정창호 교수님의 모든 강의들! 출석 잘하고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고 참여만 잘한다면 성적을 정말정말정말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시험을 치고 성적을 받게 된다면 대단히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피해야 하는 헬강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인교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수님이 열심히 강의하시지만 전달력이 아쉽고, 강의 내용도 기초철학 같은 어려운 강의들이라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공부량이 많은 것은 본인이 열심히 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만 교수님의 강의 전달력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OT 때 확인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전공필수라 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함정)

6. 철학과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1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철학과 관련 공지사항들은 2학년 들어와서 학적이 문과대학으로 자동으로 바뀌더라구요. 학생회를 했지만 몰랐던 사실들... 그리고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철학과 학생회에서 꾸준히 문자로 안내해주십니다.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과 불이익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철학과 학생들은 서로 친해서 독강이 없는 반면 자전 학생들은 독강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팀플로 만난 학우들과 교류를 하면서 친해져서 같은 과목 강의를 몇 번 같이 들었는데 그게 제일 쉽고 편하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철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학년 때 학교생활(?)에 바빠서 학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1전공으로 선택했던 경영학과가 떨어지고 철학과에 오게 되었다는 슬픈....! 하지만 철학이 인문학의 정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망도 있었습니다ㅎ

2. 철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철학과에는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고 복수전공으로도 타 전공 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강의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 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의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논문을 찾고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시험과 관련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가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항상 아쉽습니다. (시험에서 내가 생각한 것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강의를 바로 위에서 추천드린 정창호 교수님 수업!)

3. 철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을 공부한 것이 사~알짜 도움이 되었지만 정말 아는 철학자의 이름이다!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강의 시간 및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이 들었죠. 공부에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자전 특성 상 철학과에 오는 학생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서 독강이 많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양이 너무 많아요!! (학점 따기 어려워요!)

4. 문과대학 전공은 로스쿨 갈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과대학 전공이 서술형 시험이 많아서 학점관리가 어렵다는 것 외에는 불리한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문과대학 전공 분들 중에서도 다수 로스쿨에 진학했기 때문에 학점관리와 리트 준비만 잘한다면 따로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희망하시는 진로가 있으실 경우)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고시를 준비하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죠... 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해보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로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ㅎㅎ

6. 선배님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일반적인 타 문과 학과와 똑같습니다!

7. 자유롭게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지만 철학과는 글로 알려주는 것이 힘든 매력과 어려운 것이 공존하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전공이 공거리 때문에 복수전공 신청이 안되고 공거리 과목 내에서도 철학과 강의가 없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한번 정도는 들어보고 싶은 매력을 지니고 추천하고 싶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들어보세요!

"철학과로 오세요!"라는 말씀은 솔직하게는 못 드릴 것 같아요ㅋㅋㅋ 다들 원하는 전공 선택해서 남은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 10 학번 자유전공학부 철학과 유성열 선배

<공통 질문>

1. 철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철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2. 철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주변의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철학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철학은 순수한 학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직업을 갖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철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5. 철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6. 철학과 관련 공지사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1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철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0학번 때에는 각 학과별로 쿼터가 있었고, 철학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 철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학부시절을 되돌아보면 학업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됩니다. 특히나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텐데, 스펙 쌓는다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3. 자유롭게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도 전공자료집의 인터뷰를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10학번 이후에 철학과에 간 후배가 많지 않다는 반증이겠지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이 인터뷰를 재미가 아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철학과 전공에 대해서 깊이 고민 중이신 후배님은 학생회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3. 한국사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는 1946년 8월 15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준비하여야 하는 민족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문과대학에 설립된 사학과에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학과는 학풍과 업적을 계승하고 한국사 연구와 강의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9년에 기존의 사학과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분과하면서 독자적인 학과로 출범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학계의 연구 흐름을 이끌어 온 고려대학교 사학과와 한국사학과는 다수의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하여 한국역사학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졸업생들도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 과정의 강의는 물론 학생들 간의 자체적인 세미나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고 현장경험을 위한 답사도 전공시대별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2013년 중앙일보 평가 '최우수'학과 선정
- ✓ 2단계 BK21 인문학 분야 평가 교육부장관상 수상
- ✓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유명대학과 학술교류 및 학생교환

3. 진로진학

1) 학계·연구계

교수, 교사, 박물관 학예연구사, 연구행정직, 역사유적전문가 등

2) 언론·출판·문화계

신문·방송기자, 방송PD·작가, 출판기획자·집필가, IT 콘텐츠제작자, 프리랜서 등

3) 정부·공공기관·법조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역사·문화재 관련), 법조인, 회계사, 외교관 등

4) 금융계·회계분야

일반기업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4. 학과 프로그램

1) 국제 교류 프로그램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맺은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역사학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2) 국내 최초 외국인 교수 초빙 한국사특강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는 특별히 외국인 교수님도 계십니다. 외국인 교수님께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새롭게 조망하게 합니다.

3) 정기답사

“역사는 발로 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사가 역사학의 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기마다 역사적 의미가 큰 유적을 답사함으로써 한국사에 대한 안목을 기르게 됩니다. 답사는 한국사학도만이 누릴 수 있는 대학생활의 낭만이기도 합니다.

II. 졸업요건

전공필수(12학점)	HOKA 201(고적조사실습), HOKA 203(한국역사입문 I), HOKA 204(한국역사입문 II), HOEW 201(역사학개론)
전공선택	30학점
영강	해당없음
기타 졸업요구조건	*2016학번부터 공인영어 성적제출 면제

III. 전공교과목

1. 교과목 소개

한국의 고대사를 쉽게 풀이해보자! 한국고대사

선사시대, 초기국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후삼국시대 등 한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문헌학, 고고학, 금석학, 인류학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융합해 역사적으로 연구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모르고 넘어갈 수 없지! 한국 근현대사

일제강점하의 민족운동과 분단시대의 민주화 및 통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보인 사상적, 이론적 바탕을 역사적으로 고찰합니다.

중세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국 중세사

한국의 중세시대의 특정 문제를 택하여 이와 관련된 논저와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하도록 하는데, 왕조의 성립과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한국 사학도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양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 공통

초기한국사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과 이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되는 연구논저를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HOKA 003 Topic Course, HOKA 004 Introduction to Korean and East Asian History 및 전공세미나, 교양과목
2학년	한국역사입문, 한국현대사, 고적조사실습 등
3학년	고고학개론, 북한사의 이해, 기록학개설
4학년	한국예술사, 한국상공업사, 한국의고문서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1) 16학번 자유전공학부 한국사학과 이현승 선배

<공통 질문>

1. 전공배정 후 과 내 동아리나 학생회에 가입할 수 있나요?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2. 해당전공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크게 두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한국사를 전공하여 교수나 연구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경우는 이중 전공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경제학, 컴퓨터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3. 해당전공 선택 후 정보 부족이나 적응 문제로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신입생, 진입생, 복학생, 편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영회가 있어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전공과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어떤 과목은 매주 읽어야 할 논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전공 과목은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쉽 융합 전공과 함께 공부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량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부족의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른 학과와 달리 먼저 진입한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기행사인 답사를 다녀오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보 부족을 조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보 부족과 적응 문제 모두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학과 진학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나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있나요?

고등학교 수준의 한국사를 공부해두면 수업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험에 그대로 쓰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의 기본적인 방식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수준의 배경지식은 기본으로 갖추되 혼자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문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사학과에서는 대부분의 과목이 과제와 발표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문을 많이 읽게 됩니다. 심지어는 시험 범위 자체가 논문으로 주어져 논문 읽기가 곧 시험 준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의 논문을 읽고 각 연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A+를 바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자를 읽는 능력은 기본입니다. 논문의 경우, 오래된 논문은 조사를 한자어가 한자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못 읽는다고 해서 수업을 듣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과제나 시험 준비를 위해 논문을 읽을 때에는 한자를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한문(한자로 표기된 문장)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문을 읽는 것은 한자를 읽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논문을 읽고 사고하는 능력'과 '한자를 읽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5. 전공 선택 후 적성문제로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자신이 기존 한국사학과 학생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성의 차이가 아닌 정보의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수번호만 믿고 전공필수 과목을 신청했는데, 그 과목의 실질적 난이도가 4학년 수준이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 한국사학과 학생들은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쉬운 과목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 자체는 진입생과 기존 재학생이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사학과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정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고, 시험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면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6. 전공 진입한 선배들이 생각하는 학과의 장점과 단점

한국사학과의 장점은 인맥을 쌓을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신입생, 복학생, 진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영회가 있어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례행사인 유적 답사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사교성이 좋지 않더라도 한 다섯 명 정도 친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조별과제도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들께서 면담을 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류 학과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생활하기 수월합니다.

반면 단점은 역시 전공과목이 난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과제가 많고, 시험에서 자신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부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실제로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로감이 많이 쌓입니다.

7. 각 전공은 학점을 후하게 주시는 편인가요? (과마다 학점을 주는 특성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한국사학과는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는 점수대로 학점을 주는 것이 아닌 교수님이 절대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사학과 내에서 교수님에 따른 학점 편차가 굉장히 큼니다. 무난하게만 하면 A+를 주시는 교수님이 계신가 하면, 웬만해서는 플러스를 안 붙여주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때문에 역시 교수님과 과목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8. 어떤 사람이 한국사학과에 잘 맞나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사학과는 굉장히 매니악한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과에 잘 맞습니다. 소위 '역덕'에 해당하는 사람, 특히 주변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미래의 한국사학과 진입자입니다.

9. 각 전공별로 선배들께서 추천하는 도서가 있다면?

사실 저도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도서를 추천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개설서를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0. 자유롭게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배우인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한 강의에서 세상을 향해 “Get out”라고 외칠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자신이 하는 일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따르면 타인을 의식하다가 스스로를 헐뜯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역시 그와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국사학과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한국사학과 학생들과 스스로를 계속 비교하다 보니 주눅이 들어, 교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스쿨 입시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후배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14. 한문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는 동양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익히고 한문원전에 대한 체계적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로, 문학·사학·철학을 아우르는 한문 원전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꾸준히 훌륭한 한학자(漢學者)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문학과는 한국의 기록문화를 정리·번역·연구하여 우리의 사유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자산을 제공하는 젊은 전문가를 키움으로써 학문적·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2. 진로진학

- 1) 학계 (교수, 한문문헌 전문연구원, 한문 번역 전문 연구직 등): 약 15%
- 2) 교육계 (교사, 한국고전번역원 산하 고전번역교육원 한학 교수): 약 5%
- 3) 정부·공공기관·기업계·언론계 (정부기관 및 공기업, 대기업과 금융기관, 언론사): 약 70%
- 4) 기타 (한의사, 한적전문사서, 동양서전문번역자, 한문고전리라이터 등): 약 10%

II. 졸업요건

선택교양	제2외국어/고전어의 이수
	독어, 불어, 중어, 노어, 일어, 서어, 한문 중 1개 언어를 선택하여 6학점

	(제2외국어 동일언어 I, II 또는 초급, 중급 한문) 이수
전공필수 (12학점)	맹자읽기 I, 맹자읽기II, 한국한문학사, 논어읽기
전공선택	24학점
영강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개 이상 이수 ※ 전공, 교양구분없음
기타졸업 요구조건	공인영어 (외국어)성적 본교시행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통과 또는 지정 국가공인시험 자격취득

Ⅲ. 전공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옛 선인들의 풍류를 느껴라! 한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던 이백과 두보, 최치원과 정지상을 기억하십니까? 입시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한시를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한시를 감상하고, 그 이론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도 글 썼다니까요? 한문산문

한문으로 창작된 문학, 역사, 철학의 다양한 문장들을 배웁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슨 글을 남겼는지, 그 글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 소설은 어땠을까? 한문소설

한문으로 된 소설이라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우리가 현대소설을 즐겨 읽듯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를 즐기는 소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즐겁게 읽었는지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비평은 요즘만 하나? 예전에도 했다! 한문학 비평

예전에도 글을 쓰면 그 글에 대해 비평을 하고 서로 토론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때 중시했던 미의식은 무엇인지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공자 왈, 맹자 왈, 이게 바로 경전이지! 경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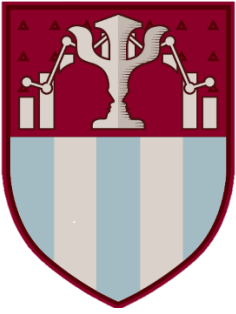
한문을 공부한다 하면 왠지 떠오르는 게 바로 '공자 왈, 맹자 왈'이지 않나요? 경학이란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서삼경'이 유교 경전에 해당됩니다. 딱딱한 교훈만이 아니라, 삶의 잔잔한 깨달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글귀를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알려줘야지! 한문번역

한문 번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자의 구성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문자 자체를 연구하는 한자학부터 고전 번역을 위한 이론과 실제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좋은 한문 선생님이 되어야지. 한문교육

한문을 좀 더 쉽고 흥미롭게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이론과 교재 분석, 교수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Korea University
School of Psychology

I. 개괄

1. 학과소개

심리학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른 학문들이 인간을 하나의 대표적 존재로서 연구하는 것에 비해 심리학은 개별 인간의 행동을 미시적으로 혹은 거시적으로 직접 연구합니다. 무엇보다 심리학은 인문학에서부터 예술, 공학, 의학 및 자연과학 분야와 긴밀한 학문적 교류를 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1959년에 문과대학 교육심리학과로 출범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는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성백선 교수의 주도 하에 개설되어 지난 50여 년의 역사 동안 한국 심리학계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점해 왔으며 2021년 국내 최초로 단독 '심리학부'로 승격하였습니다. 전국 각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교수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심리학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는 문화사회성격 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행동인지 신경과학, 임상 및 상담심리학의 5가지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심리과학적 지식을 가장 체계적인 수준으로 교육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 및 산업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목을 운영 및 개설하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2021년 심리학부로 전환
-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융합교육
- ✓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취득 학취 (인문학사 or 이학사) 선택
- ✓ 전통적 학문체계 중심에서 혁신적 사회주제 중심으로 교과과정 개편
 - 주제 중심의 5개 교과 과정 범주 모듈 설정
 - (1. 심리학과 경영/경제/정치 2. 심리학과 공학 3. 심리학과 데이터(방법론)
 - 4. 심리학과 문화/인문/예술 5. 심리학과 건강/교육)
 - 기존 3학점 교과 이외에 1.5학점 소단위 심화교과 제공
- ✓ 첨단 연구방법 역량 강화
 -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및 AI 관련 교과목 신설
- ✓ 학생개별지도 활성화
 - Independent Study 과목을 통한 자기주도형 연구 수행 지도
- ✓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9~2021년) 심리학과 국내 3년 연속 1위

3. 주 강의동 소개 및 주변 지리

심리학부의 주 강의동은 법학관 구관입니다. 또한 실험실은, 법학관 구관뿐만 아니라
운초우선 교육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4. 진로진학

1) 학계·교육계

교수, 전문상담교사, 연구원 등

2) 정신건강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 학교심리전문가, 신약개발 연구원 등

3) 언론·문화계

기자, 작가 등

4) 정부·공공기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 범죄분석 심리관, 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요원 등

5) 기업계

광고 및 홍보전문가, 시장 및 여론조사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II. 졸업요건

전공필수 (9학점)	심리학의기초 I, 심리학의기초II, 심리통계및실습	
문학사, 이학사 선택에 따른 이수 요건 구분	문학사	- 전공선택 33학점 중 A 또는 SA 교과 24학점 이수 - 문학사 선택교양 지정 교과 중 6학점 이수 - 핵심전공 8과목 중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
	이학사	- 전공선택 33학점 중 S 또는 SA 교과 24학점 이수 - 이학사 선택교양 지정 교과 중 6학점 이수

		- 핵심전공 8과목 중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
영강	영어 (원어, 외국어) 강의 5개 이상 이수 ※ 전공, 교양 구분없음	
기타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 (외국어) 성적	

III.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선택의 뇌과학

이 과목에서는 신경과학분야에서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의사결정 신경과학 그리고 신경경제학을 다루며 강의내용에는 의사결정 관련 뇌기제의 핵심 요소인 도파민 기능, 접근 및 회피회로, 가치계산, 안정성 대 유연성의 딜레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의사결정의 신경과학적 모형에 대해 배우고 이를 다양한 선택의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소비자트렌드 분석실습

최신 소비자 트렌드를 이해하고, 실제 기업의 브랜드 사례를 통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경험합니다.

인간의 비합리성

인간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보여주는 비합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들과 연구들을 개관합니다. 대인지각, 사회적 귀인판단, 선택과 의사결정들의 사회적 사고과정에서 비합리성의 본질, 원인, 원리 등을 학습합니다.

빈곤의 심리학

빈곤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심리치료, 미디어, ICT 등의 기술을 결합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개인의 안녕감에 대한 심리적 완충장치를 제안합니다.

예술심리학

예술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활동이자, 지각, 인지, 정서, 및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심리학의 주제와 연관되는 고차원적인 주제입니다. 본 교과는 예술적 경험, 창작, 및 감상과 연관된 심리학의 오랜 분야 중 하나인 경험미학의 관점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리더십의 심리학

리더십에 관한 심리학 이론들을 학습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리더십에 관한 주요 심리학적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영, 교육, 종교, 문화, 학문 및 가정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의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실습을 통해 리더로서의 개인적인 자질을 함양합니다.

공감의 기술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감적 이해와 소통 기술의 심리적 모형을 학습합니다. 사적인

관계에서의 공감적 소통과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에서의 공감 기술이 가지는 특징과 심리적 원리를 이해하고 공감적 이해 역량을 발달시킵니다.

심리학을 위한 프로그래밍

본 교과목에서는 심리학 연구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합니다.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기억, 지각, 의사 결정 연구의 고전적인 실험 패러다임들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Python의 구문, 함수 및 알고리즘 패턴들을 학습합니다.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 과거 인터뷰는 '심리학과'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1) 20 학번 자유전공학부 심리학부 오은솔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심리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로스쿨이 목표였기에 대학원을 가기전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학문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 경제, 행정에 전혀 흥미가 없어서 처음부터 1 전공으로 사학과와 심리학과 중에 고민하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역사와 관련된 교양이 상당히 많이 개설되는 것 같아 사학에 대한 흥미는 교양을 통해서 충족될 것이라 보았고, 심리학부에서 개설하는 과목들과 계획서들을 살펴보니 재밌을 것 같아서 심리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심리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심리학부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심리학 전반을 다루는 심리학의 기초 1,2 와 실험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심리통계 및 실습이 전공필수과목으로 있습니다. 핵심전공으로 학습심리, 생물심리, 발달심리, 사회심리, 감각 및 지각 심리학, 인지심리, 성격심리, 심리학연구와 활용 과목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전공선택과목들이 있습니다. 심리학과가 학부로 전환되면서 문학사로 졸업할지 이학사로 졸업할지 정할 수 있게 된 점과, 1.5 학점짜리 강의가 새로 많이 개설되면서 과목이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점이 다른 과와 다른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심리학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이 짜기로 유명한데, 직접 와서 겪어보니 실제로 교수님들이 +을 잘 안 붙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높은 학점을 받기 힘든 요소이기도 합니다. 공부량은 많습니다. 물론 과목 바이 과목이지만 전공필수 과목은 피피티 기준으로 200p 는 가뿐히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국강이어도 교재 혹은 피피티 내용은 영어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과를 가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계시고, 공부량이 많은 과목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심리학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데 단지 학점이 짜다는 이유로 포기하기에는 도전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이른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4. 심리학부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심리학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1 학년 때 들은 심리학 기초 2 가 사회파트 쪽이어서 뇌과학을 배울 것이라 상상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2 학년 때 과학파트 쪽을 배우면서 심리학에서 뇌, 신경 등을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식, 감각, 지각, 기억, 학습 등과 관련된 생물학을 학습하는 점이 의외로 개인적 취향과 잘 맞아 심리학에 더 흥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5. 1 학년때 심리학부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심리학부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1 학년 1 학기에는 심리학부가 아니라 사학과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심리학부 선택을 확정시하면서 2 학기부터 심리학부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 학년 2 학기에는 공거리 전공들을 수강해야 해서 심리학의 기초 2 한과목만 수강했습니다. 심리학부를 희망한다면 심리학의 기초 1,2 를 미리 수강해 놓아야 2 학년 때 본격적으로 다른 전공선택 과목들을 듣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리학의 기초 1,2 가 선수과목으로 있는 전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 분야 중 사회계열 쪽과 맞는지 알고 싶다면 심리학의 기초 2 를, 과학계열 쪽과 맞는지 알고 싶다면 심리학의 기초 1 을 수강해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저는 심리학 교양을 안들어봐서 교양과목 수강을 통해 전공과 잘 맞는지 판단가능여부를 모르겠습니다...)

6.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20 학번을 제외하고 심리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 저는 자유전공학부 심리학과 선배님들과 따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고 자전이 아닌 심리학부 선배님들과는 더욱이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21 학번 후배님들은 자전 20 학번에서

예외적으로 4 명이나 심리학부를 왔기 때문에 자전 심리학부 선배님들과는 그나마 연결이 잘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개별질문>

1. 심리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통계를 배울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보니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계수업은 이론과 SPSS 실습 모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을 처음 배울 때 내용 자체가 생소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심리학부에서 뇌과학분야를 위주로 다룬다고 들었는데 미디어심리학, 범죄심리학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분석 관련 수업도 많이 열리나요?

학부로 개편되면서 여러 교과목목이 신설 혹은 폐지되었는데, 개편내용을 살펴보니 좀 더 다양한 분야와 심리학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뇌와 관련된 강의 외에도 상담, 심리치료, 성격장애 등에 대한 강의도 있고, 소비자광고심리학, 뉴미디어심리학, 예술심리학, 한국인심리의식특성 등 흥미로운 강의들도 있고, 프로그래밍이나 AI 와 심리학을 연결시킨 강의들도 존재합니다. 아쉽게도 범죄심리학은 없으며 더 자세한 심리학부의 교과정보는 심리학부 홈페이지 학부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심리학부에서도 수학이나 영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어느 정도의 수학과 영어 수준이 필요할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국강인 경우에도 전공교재가 영어 원서인 경우가 많고, 수업 자료(PPT)도 영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부 자체 강의가 영강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강 자체를 이해할 수 없거나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필수과목으로 심리통계 및 실습이 있는 만큼 수학 중에서도 통계에 관한 것들을 배웁니다. 저도 아직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몇몇 전선 과목들에서도 통계(SPSS) 프로그램을 사용한 과제를 내시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통계 지식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던 통계 개념들도 전필 수업에서 교수님이 다 다루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열심히만 한다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본인이 원하는 학문을 위해 소위 '소신 지원'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나 어려움 등은 없으셨나요?

학점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을 체감하면서 어려움은 느끼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소수의 학우들이 심리학부를 선택하기에 심리학부 지원이 소신 지원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유전공학부 제도상 2학년 때부터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과를 선택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라도 자신이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부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용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실용적인 전공지식을 배우는 것이 뿌듯해서 1 전공 선택에 대한 일말의 후회는 없습니다.

5. 심리학부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 1 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심리학부 관련 굵직한 공지사항들은 웬만하면 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중요한 공지(심리학부 전환 설명회) 등은 문자 혹은 메일로 공지가 오기도 합니다.

자전이라서 받는 이익 혹은 불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학부 단독방에 올라오는 세세한 공지나 홍보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팀플이 있는 수업을 듣지 않는 한 자전이 아닌 1 전공 학우들과 딱히 연결고리가 없어서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6. 심리학부를 졸업할 때 이학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배님은 현재 문학사와 이학사 중 어떤 것을 취득하려고 하시나요?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저는 문학사로 졸업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로스쿨이 목표여서 굳이 이학사로 졸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학사로 졸업하는 요건으로 여러가지 이과 과목들을 수강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학을 싫어해서 수강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ㅎ

7. 심리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대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혹은 로스쿨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통계를 못한다고 이 학부에서 공부하는 것에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 생각보다 재밌는 심리학부 많이 오셔서 밥약 걸어주세요 :)

(2) 20 학번 자유전공학부 심리학부 이혜인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심리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심리학부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심리학에 대한 흥미와 소신 하나로 선택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희망 진로가 심리학부 학사를 필요로 하기도 했습니다.

2. 심리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심리학부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고려대 심리학부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심리학 책 속에 나오는 사회학적인 내용만 배우지는 않아요. 이과적인 지식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Ex 필수 전공인 심리학의 기초 1에서는 인체의 감각기관에 대해 배우고, '심리통계 및 실습'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운 통계를 심화해서 배우며 (기초통계학 과목과 거의 유사), spss 라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조작 방법 등도 배웁니다.

*** 커리큘럼은 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년 구분은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1 학년

(전공필수) 심리학의 기초 1&2, 심리통계, 심리통계실습, 심리학 연구와 활용

2 학년

(전공핵심) 생물심리학, 학습심리학, 감각 및 지각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 심리학,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3 학년 (각 영역 당 한 과목 이상 이수)

1. 행동인지신경과학

행동신경과학, 신경심리학, 심리생리학 실험 및 실습, 언어심리학, 기억심리학, 의사결정심리학

2)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행동수정, 성인노인심리학, 문화와인간행동, 집단역동, 대인관계 심리학

3) 사회와 산업적 응용

산업심리학, 조직심리학, 소비자심리학, 뉴미디어심리학, 광고심리학, 통일과 심리학,
가족심리학, 사회적행동과 개인차

4 학년 (각 영역 당 한 과목 이상 이수)

1. 행동인지신경과학

행동유전학, 행동신경약물학 및 실습, 동기와 정서, 인지신경과학, 주의와 반응선택,
사회신경과학

2)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심층심리연구법, 건강심리학, 집단상 담, 심리측정 및 실습, 학교심리학, 정신재활, 성숙한
삶과 심리학, 심리학사, 사회인지

3) 사회와 산업적 응용

인적자원개발의 심리학, 디자인과 행동, 브랜드심리와마케팅, 여가와 대중문화, 법과
인간행동, 사용자경험과 심리학, 리더십의 심리학

3. 심리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흥미가 가장 중요하고, 생명과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유리한 것 같아요! (굳이 미리 알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생명과학 공부가 너무 싫은
사람들은 전공 공부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심리학은 정말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는 학문인 만큼 어떤 과보다도 진로가 다양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5. 심리학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문과에서 가장 학점을 안 준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공부량은 당연히 강의마다 다르지만 여론을 보면 (?)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 고학번 수업일수록,,)

6. 심리학부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명강 - 허지원 교수님 수업이 좋다고 합니다 (수강신청이 매우 어려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꿀강 - 박선웅 교수님 발달심리학

헬강 - 헬강보다는 공부량이나 학점 측면에서는 피해야 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쓰면 안될 것 같아서 ,, 나중에 직접 물어봐주세요 ㅎㅎ

7. 심리학부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심리학이라는 수업이 제가 들어보고 싶었던 내용의 심리학이라 좋았고, 다른 몇개의 과목들은 과학을 생각보다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8. 1 학년때 심리학부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심리학부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리학부에 올지 말지 고민 중이라면: 교양 - 심리학의 이해 (백연지 교수님)

심리학부에 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전공 - 심리학의 기초 1&2 (이 두 과목을

선수강과목으로 해둔 강의들이 꽤 많아요)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심리학부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심리학부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로스쿨과 심리학부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학점 받기가 힘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20 학번 선배들은 현재 3 명 정도 있어요! 다른 학과에 비해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심리학부에 오겠다고 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아마 다들 도와줄 거예요

ㅎㅎ

<개별질문>

1. 심리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위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과학의 비중이 큼니다,, 학점 따기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

ㅎㅎ

2. 심리학부에서 뇌과학분야를 위주로 다룬다고 들었는데 미디어심리학, 범죄심리학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분석 관련 수업도 많이 열리나요?

자세한 것은 위에 커리큘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심리학 수업은 현재 열리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교류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

3. 심리학부에서도 수학이나 영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어느 정도의 수학과 영어 수준이 필요할까요?

수학은 고등학교 통계 정도가 쓰이고, 영어는 영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되나, 그렇게 영강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4. 본인이 원하는 학문을 위해 소위 '소신 지원'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나 어려움 등은 없으셨나요?

심리학부 강의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애초부터 심리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흥미 없는 과들의 전공을 듣는 것을 생각한다면, 소신 지원한 것이 결코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5. 심리학부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 1 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지사항은 본전공생에 비해 늦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제 1 전공 학우들과 친해지는 것은 오로지 개인 노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겹강인 동기들, 소개로 알게 된 동기들 등 1 학기에 새로 사귀 동기들이 6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심리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해 먼저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pi.\pi$

6. 심리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 심리학부에 특별히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주로 어떤 분야의 심리학 수업이 많이 열리는지, 어느 쪽을 주전공으로 하신 교수님이 많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뇌과학 분야가 강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과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강의들이 많아요)

7. 심리학부를 졸업할 때 이학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배님은 현재 문학사와 이학사 중 어떤 것을 취득하려고 하시나요?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이학사를 취득하려 합니다, 문학사보다 몇 개의 강의를 더 들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저는 취업을 plan a로 두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학사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소견입니다)

8. 심리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학점, 소수 인원 등 ..?) 그럼에도 대학교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전공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후배님들은 주저하지 말고 소신 지원해보시길 바라요 ~!

(3) 18 학번 자유전공학부 심리학과 송채연 선배

<공통 질문>

1.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심리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먼저 심리학과는 전공필수 과목이 3 개 있습니다. 심리학의 기초 1, 기초 2, 심리통계가 그것인데 각 과목마다 학습량이 비교적 많고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학 학기에 하나씩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전에서 심리학과를 간다면, 2 학년 1 학기에 기초 1 이나 2 을 수강하고 (배우는 내용이 구분되어있어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2 학기에 남은 기초 과목 또는 심리통계를 수강할 것 같습니다. 심리통계는 spss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긴 하지만 내용이 만만치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같이 듣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심리학과에는 핵심전공이라고 해서 6 개의 전공이 있고 각 전공마다 세부 트랙이 있습니다. 다른 전공에 비해 들어야 되는 학점이 많고(45 학점) 위에서 말한 기본 전공 6 개를 모두 들어야하기 때문에 남은 학기 동안 바쁘게 들어야합니다. 특히 기본 전공은 매우 인기가 많고 타 전공 학생들도 굉장히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이 원래 뻥세기로 유명한 학과이지만, 교수님들도 그걸 잘 아시고 계시고 자전 학생들은 1 전공이 심리학과로 바뀌기 때문에 본전공학생들에겐 비교적 빌낱을 잘 받아주십니다.

2021 년 3 월 2 일자로 모든 심리학과 학생이 심리학부 학생으로 바뀌고 심리학부 체제로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그렇게 큰 변화를 실감하진 못했지만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은 본인이 원한다면 이과학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반 학기 단위로 커리큘럼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같습니다. 또한 학부로 바뀌면서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생기고 아마 이과학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과의 과가 될 것 같습니다.

2. 심리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심리학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방법론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이 많고 기초 소양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하셔서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을 실험 계획, 실행, 분석을 통해 배우며 수업 또한 과학 논문을 보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인간의 심리가 뇌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뇌 관련 내용이 많아 생물을 좋아하고 관심있는 학생에게 굉장히 유리한 학과입니다. 전공 이름만 보아도, 생물심리학, 감각 및 지각 심리학(두 개 모두 기본 전공입니다), 인지심리학, 기억심리학 등 굉장히 생물 그중에서도 우리의 뇌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영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단 교재가 다 원서이고

교수님들께서도 PPT 를 영어로 사용하시며 용어 자체가 영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국강이어도..) 그래서 영어를 잘 읽고 이해하는 학생이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심리학'이라는 전공을 살리기 위해선 대학원을 가야되기 때문에ππ 대부분의 심리학과 학생들은 대학원을 많이 진학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업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어 심리학과 학생들끼리 모여 로스쿨 준비동아리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수의 학생들은 심화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심리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심리학과는 문과 학과들 중에 학점을 굉장히 짜게 주기로 유명한 top3 에 들어가고 공부량이나 내용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학과인것 같습니다. 또한 이중전공으로 심리학을 한 학생들과 같이 전공을 듣게 되는데, 이중전공으로 심리학과를 한다는 것은 이미 본전공에서 4 점대가 넘는 학생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부량은 사람마다, 과목마다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언하진 못하지만 적진 않습니다. 일단 내용이 생물과 뇌과학 쪽이라 생소하기도 하고 전공 자료나 강의가 영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저한테는 공부량이 많게 느껴졌습니다ππ.. 그래도 재미있는 개념들도 많이 배우고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과목이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지루하진 않고 재미는 느낄 수 있습니다.

5. 심리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제가 들어본 강의 중 제일 명강이었던 강의는 심리학과와 빛이라고 불리시는 허지원 교수님의 발달심리학, 인지치료 강의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을 가르쳐주시고 좋은 말씀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있는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용도 실생활과 맞닿아 있고 무엇보다 심리학과 전공 중에서 그나마 학점을 후하게 주시기 교수님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들을 수 있다면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좋았던 강의는 허태균 교수님의 사회심리학입니다. 사회심리학 내용 자체가 재미있고 교수님 자체도 굉장히 유머러스하셔서 한 학기동안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험을 매우 지엽적으로 내시고 학점을 후하게 주시는 편은 아닙니다.. 백연지 교수님 강의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다만 퀴즈 3 번 중간기말 그리고 레포트까지 있어서 공부량은 굉장히 많았던 강의였습니다. 꿀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못 찾고 졸업할 것 같네요...하하 꼭 피해야하는 헬강은 남기춘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아마 한학기에 심기초 1 이나 전공선택(인지심리학이나 기억심리학) 과목을 개설하실텐데 피할 수 있으면 꼭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수님 자체는 좋으신 분이지만, 일단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평가기준이 모호하며 학점을 상상한 것 이상으로 짜게 주십니다.

6. 심리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같은 학번 자전 학생중에서 심리학과를 저 혼자 가게 되면서 어느정도 각오한 부분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독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 소외된 느낌을 받진 않았습니다. 심리학과가 이중전공으로 굉장히 인기있는 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의 본전공 학생들이 와서 듣습니다. 하지만 팀플이 있을 땐 팀 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회심리학 교수님께선 교수님께서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알아서 짜라고 하셔서

힘들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토플 있는 수업을 제외하곤 수업 듣는 것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 행정실에서 여러 행사나 알아야하는 정보를 잘 보내주시고 저는 심리학과 18 학번 비대위장께 부탁해서 18 학번 독방에도 들어가서 정보면에서 저만 소외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달랐던 점은, 실험실을 사용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문과 등록금이 아니라 자연대와 똑같은 액수(400 만원 좀 넘음)를 내야하고 안전교육을 매학기 이수해야합니다. 21 년부터는 심리학부로 전환되기 때문에 컴퓨터 수업도 심리학 전용 분반으로 개설되는 등 이학사 쪽의 수업이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 따기도 어렵고 내용도 쉽지 않고 자전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도 아니지만 소신과 용기만 있다면 심리학과에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넘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과이며 또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배우고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과여서 저는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과학에 흥미가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한번쯤 고민해볼만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질문>

1. 뇌과학분야를 위주로 다룬다고 들었는데 sns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예측한다든가, 범죄심리학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분석 관련 수업이 있나요?

학부생으로서 배우는 심리학과 수업은 대부분이 기초심리학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용적인 응용심리학(범죄심리학 등)을 배우진 않습니다. 고학년 수업으로 행동수정이나 대인관계심리학, 의사결정 심리학 등을 배울 수 있지만 범죄심리학은 없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대학원을 가야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는 여러 심리학과 중에서도 뇌과학 분야로 특화된 걸로 유명하고 교수님들 대부분께서 생물심리학 쪽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이과스러운 학문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2. 심리학과에서도 수학이나 영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어느 정도의 수학과 영어 수준이 필요할까요?

수학은 심리통계에서만 사용하지만, 심리학의 기본 내용이 실험을 하고 그것을 분석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도 심리통계 수업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단 책들이 원서라 영어를 어느정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공부하는 데 수월하고 국강이어도 교수님들께서 영어 PPT 를 사용하시고 말씀 중간중간에 영어로 말하시고 개념과 정의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용어들도 영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보기도 영어입니다. 또한 영강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졸업생 선배 인터뷰

(1) 15 학번 자유전공학부 심리학과 김진철 선배

<공통 질문>

1.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심리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크게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학년 : 심리학 기초 및 심리학 이해 / 2 학년 : 기초심리학(임상, 학습 등) / 3, 4 학년 : 응용심리학(소비자심리 등) 순으로 듣는 걸 추천합니다. 배웠던 걸 반복 혹은 심화해서 학습하는 과목이 여럿 있었습니다.

문/이과 지식을 고루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안한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역사, 문학, 예술을 비롯해 생물 등 과학 영역까지 넓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비과학적, 과학적 심리학이라 구분하고 서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연계해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학문의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2. 심리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사람과 삶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심리학과를 추천합니다. 학부 내내 정상이라 판단하는 기준을 고민하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학을 토대로, 수집한 데이터와 경험적 수단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할까요?

암기에 자신 있는 분께도 추천합니다. 학부 특성상 이론과 개념을 묻는 시험이 다수입니다. 심리 대학원까지 생각하신다면, 영어를 잘하는 분이 유리해 보입니다. 대부분 외국으로 석/박사 유학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분께서 말씀하시길,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서도 영어 성적 및 구사 능력을 향상하고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학부 전공을 살려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다수입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사나 범죄분석가, 피해자 지원상담 등 전문지식을 살려 직장을 얻기도 합니다.

자전에서 심리로 진입한 사례를 보면, 졸업 후 진로는 로스쿨, 언론, 대학원 등입니다.

4. 심리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잘 주진 않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서 잘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강은 상대평가가 원칙이라 퍼센트대로 할당합니다. 고학점 취득이 필수인 진로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절대평가인 영강을 수강하세요.

5. 심리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성격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이 좋았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나란 존재를 기점으로 삶에 대한 물음까지 나아가 있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꿀강은 <심리학 연구와 활용>입니다. 중간, 기말고사는 없습니다. 심리학과 전공 선배들께서 매주 오셔서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평가는 매주 제출하는 한 장의 에세이로만 이뤄집니다.

6. 심리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2) 16 학번 자유전공학부 심리학과 이나현 선배

<공통 질문>

1.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심리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심리학과만의 특이한 점인지는 잘 모르지만, 심리학과에서 공부하며 느낀 장단점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할게요.

장점 - (1) 전공수업이 구법이라 공거리와 함께 듣기 동선이 좋다.

(2) 오히려 자전에서 여러 명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기만 한다면 과생활에 스며들기 쉽다. (심리학과 쪽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해줘요! 다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함)

(3) 전공수업이 설명과 사례식이라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다.

(4) 교수님들의 클루핑이 대부분 좋다.

단점 - (1) 독강... 가능하면 옆에 친구 곁에서 같이 가세요. (수업내용이해는 문제없지만 혹시 내가 수업을 못 갈 일이 생길 경우 내가 놓친 수업 내용을 보충할 방법이 없음)

(2) 수강신청이 어렵다. 복수전공생이 워낙 많고 학기마다 열리는 강의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심리학과 학생들도 다들 빌놓하러 다닙니다.

2. 심리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제가 들은 1 학년 전공필수과목들은 사전지식 필요 없었어요! 평소 심리관련 책이나 다큐 많이 봤으면 아는 내용이라 당연히 더 쉽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교수님들이 대부분 기초적으로 쉽게 설명해주세요. 단순 암기보다는 원인과 결과, 사례 위주다 보니까 흥미를 가지는 분야라면 공부량이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상당히 이과적인(?) 내용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생명과학분야를 싫어한다면 공부하는 데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ㅠ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4. 심리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 잘 받기 힘들어요ㅠㅠ 전공과목인데도 다 상대평가인데다가, 대형 강의라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낮은 학점은 안 나오면서도 그만큼 최상위권 학점 받기도 정말 힘들어요. 시험이 어려워서 라기보다는 다들 열심히, 잘하고 변별력이 크지 않아서..? (로스쿨 등 학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비추..)

5. 심리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6. 심리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개별 질문>

1. 뇌과학분야를 위주로 다룬다고 들었는데 sns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예측한다든가, 범죄심리학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분석 관련 수업이 있나요?

뇌 과학 부분이 중점적이라기 보다는, 심리학을 심리상담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생각보다 뇌 과학 분야도 많다, 정도일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심리상담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 일부에 해당하고, 뇌인지심리, 생물심리, 행동심리, 사회심리, 성격심리, 임상심리 등 분야가 많고, 1학년 전공필수인 심리학의 기초 I, II 과목에서 다 훑어 줄 거예요.

사실 인터넷이나 예능에서 보여주는 "심리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학과수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소비자심리>와 같은 강의에서 광고나 기업 마케팅과 심리이론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그 이외로는 본 적 없어요. 대부분은 그 기초가 되는 기본분야들을 깊이 있게 다뤄요.

2. 심리학과에서도 수학이나 영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어느 정도의 수학과 영어 수준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학은 NO 영어는 무조건 YES 입니다ㅎㅎ

일단 수학이라고 할 건 심리통계인데, 교수님께서 수능에서 배웠던 기본개념까지 기초적으로 설명 해주셔요! 물론 미리 통계를 잘 알고 있다면 더 쉽겠지만 저는 수능수학 다 까먹은 상태로 들었는데 괜찮았어요ㅎㅎ 그리고 심리통계는 실험결과가 가설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혹은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원리로 쓰이는 것이라,

타학과와 통계과목에 비해 실제 숫자계산이나 식 자체에 초점을 두진 않아요. (당연히 시험에서 계산기 쓰고 실제연구에선 컴퓨터 프로그램 써요)

영어는 그냥 모든 수업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영강으로만 열리는 특정 전공과목들도 많고, 강의는 국강이더라도 교재는 원서를 쓰기 때문에 혼자 읽고 공부해야 해요. 특히 영강에서는 자주 있는 팀플, 발표, 수업, 교재 모두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았고, 외국인 학생들도 많아서 팀플 회의도 영어로 했던 적도 많아요.

3. 본인이 원하는 학문을 위해 소위 소신 지원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나 어려움 등이 있으셨나요?

일단 후회는 없어요! 저는 진로에 대한 계획보다는 심리 분야에 대한 단순 흥미와 궁금증으로 "심리학 공부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학과 공부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전에서 다수가 선택한 학과의 사람들에 비해 고민도 혼자 해야 하고 수강신청도 혼자 해야 하기에 불편함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포기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이 대부분 대형강의에다가 '심리학과학생/나'의 구조가 아니라 복수전공과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혼자 수업을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팀플이나 수업 참여에도 불편함이 없어요! 관심 있는 분야라 흥미롭게 수업을 듣고, 몇 안되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많이들 가는 학과 아니라 마음먹기 망설여지겠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4. 심리학과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 1 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전공배정 후 과내 동아리에 가입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다른 자유전공학부 심리학과 선배 중 한 분은 동아리활동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전공진입 후 심리학과 학생회 측에 연락해서 같은 학번 카톡 공지방과 수다방에 초대받아 과내 소식에서 소외되지는 않았어요. 고연전 뒤풀이 같은 안내 문자도 받아요 ㅎㅎ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Korea University
College of Informatics

1. 컴퓨터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는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산업체 수요 밀착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연구 인력 양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 융합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도자 양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미래 정보 융합 시대를 개척하는 세계적 수준의 학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 컴퓨터학과는 매우 다양한 정부관련 기관, 연구소, 국내외 기업체들과 활발하게 산학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실용적인 학문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학과 학생들은 최신의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강의실과 실습실(가상 체험실, 3D프린터 실습실 등)을 이용하며 전문적이고 거대한 산업 현장 체험 장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컴퓨터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연구 및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위한 다양한 토론/세미나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 (ACM-ICPC 등), 기술 및 창업 경진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전산학과(1984년 설립), 전파공학과(1992년 설립), 컴퓨터교육과(1996년 설립)를 통합하여 2014년에 신설된 소프트웨어 중심학과
-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정보대학 산하
- ✓ 2017년 QS 세계 대학 평가 컴퓨터 분야에서 70위권으로 진입
- ✓ 2019 QS 세계대학평가 컴퓨터공학 및 정보시스템 분야 고려대학교 세계 순위 51-100위(국내 3위) SW중심대학 계속사업 선정

3. 진로진학

1) 기업계

글로벌IT업체(LG,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인터넷게임전문가, 이동통신업체,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분석가, 금융공학전문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IT컨설턴트, 네트워크 엔지니어 등

2) 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융합소프트웨어 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교육원 등

3) 학계·교육계

정보통신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교수 및 교사, IT전문 강사

4) 정부·공공기관·기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 법조인, 변리사

II. 졸업요건

학문의기초 (12학점)	컴퓨터프로그래밍I, II / 전산수학I, II
일반선택	27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필수과목(6개): ①자료구조 ②알고리즘 ③컴퓨터구조 ④운영체제 ⑤컴퓨터네트워크 ⑥인공지능
전공선택	24학점
영강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과목 이수
기타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

III.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사소한 정보 하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공계열의 기초과목, 수학

논리적인 수치와 결과가 중요시되는 이공계열에서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학문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 **주요과목:** 이산수학, 공업수학

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료

정보를 이루는 데이터, 즉 자료에 대해 다루는 분야입니다.

-> **주요과목:**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계산이론, 데이터통신,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는가,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시스템,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등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배웁니다.

정보의 교통수단, 통신 / 표현

말 그대로 정보의 교통수단, 즉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 **주요과목:** 무선통신, 인터넷프로토콜, 컴퓨터그래픽스, 인터페이스

경호까지 해준다! 정보보호

정보를 만들고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조작하는 방법들입니다.

-> **주요과목:** 정보보호, 무선보안, IT리더십, 인턴 실습,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전산수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2학년	이산수학, 자료구조, 계산이론, 논리회로, 컴퓨터시스템, 컴퓨터구조
3학년	데이터통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그래픽스, 확률 및 랜덤과정, 정보보호
4학년	기계학습, 무선통신, 임베디드시스템, 인터넷프로토콜, 게임프로그래밍,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통신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설계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1) 20학번 자유전공학부 컴퓨터학과 김민주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컴퓨터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벌려고 선택했습니다.

2.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컴퓨터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1 학년 과목밖에 안들어서 잘 모르지만 코딩학원이랑 커리큘럼 비슷하더라고요. C 파이썬 자료구조 알고리즘 배웁니다.

3. 컴퓨터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코딩학원 다녀오세요. C 랑 파이썬 정도는 혼자 끝내고 오세요. 어차피 그 수업 듣는 애들
나만 빼고 다 끝내고 온 애들입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인턴 후 IT계열 회사 취업인 것 같지만 가끔 저처럼 로스쿨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공계 출신 변호사는 돈을 많이 주거든요.

5. 컴퓨터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 잘 안줍니다. 우리학교 뒤에서 두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량은 혼자 코딩 공부하고
온 사람은 공부 하나도 안하고 꿀빨고 갈 수 있는 정도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는
저처럼 탈탈 털리기 딱 좋습니다. 벼락치기 절대 불가능. 컴과 첫학기 중도휴학하고
도망갔습니다. 벼락치기 생각도 하지 마세요.

6. 컴퓨터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전산수학 듣기 전에 선형대수학 인강 듣고 오세요. 컴프 자구 알고 듣기 전에 학원을
가든지 책으로 독학하든지 혼자 배워 오세요. 이산수학은 교수님이 학점을 생각보다
잘주신다고 들었습니다.

7. 컴퓨터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

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의외로 전산수학이 할만했습니다. 그건 뭐 다같이 못해서 열심히하면 반은 가는 느낌인데 컴프같은 과목은 다같이 못하는 게 아니고 나만 못합니다. 다른 애들은 다 고딩때 미리 배우고 오는데 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몇번이고 말하지만 겨울방학에 코딩학원 가세요.

8. 1학년때 컴퓨터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컴퓨터학과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듣고 갔지만 교양으로는 하이퍼텍스트와 계산가능성이 이산수학이랑 내용이 겹치고 교수님도 같습니다. 하텍은 내용은 어렵지만 학점은 정말 잘줍니다. 이산수학은 하텍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잘주시는 편. 강의실에 불만 안지르면 B 이상 받습니다. 1학년때 컴프정도는 듣고 전공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전 1학년때 교양만 들어서 3 4학년때 6 전공 듣게 생겼거든요.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컴퓨터학과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컴퓨터학과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사실 로스쿨 생각있으면 컴과 안오는게 맞습니다. 근데 난 학부 때 개고생하고 변호사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고싶다 하면 컴과 오면 됩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어려운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로스쿨 원루트가 아니고 로스쿨 안될 것 같으면 취직이라도 쉽게 하려고 왔습니다.

10.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컴과 아는 선배 한두분 빼고는 다 동아리 선배들입니다. 중앙동아리 하세요 오타쿠 좀 많아보이는 곳 들어가면 컴과 많습니다. 친구들은 코딩 동아리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동아리 아닌 한두분은 자전출신 선배들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찾는 게 아니면 컴과 선배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혼자 졸업까지 달리는 수가 있습니다.

<개별질문>

1. 컴퓨터학과에서 공부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인문계열이 컴퓨터학과에 진학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 빼고 다 잘합니다 진짜로... 인문계열이 컴과 와서 제일 크게 느끼는 게 이겁니다. 사실 공부 자체는 열심히하면 따라갈만 합니다. 근데? 저는 뼈빠지게 공부하고 중간밖에 못가는데 옆에서 팽팡 놀고 에이 에이블 받아가는거 보면 세상 허탈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과목이랑 다르게 벼락치기 절대 불가능입니다. 와서 배우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마세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배우고 완성된 상태로 와서 배워가는 것 없이 시험만 보고 학점만 받아가겠다는 마인드로 오세요.

2. 컴퓨터학과에서 수학을 많이 배우나요?

전산수학 1 2 만 끝나면 수학 안배웁니다. 전공선택중에 이산수학이라고 있긴 한데 이건 말만 수학이지 수학 하나도 안씁니다.

3. 수업 외에 1학년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배님은 전공

진입 전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딩 공부 해주세요. 그것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시간 남으면 전수 커리큘럼 보고 전수도 미리 공부해보세요. 근데 전수는 모르는 채로 와서 공부해도 열심히만 하면 적당히 나옵니다.

4. 컴퓨터학과에서는 그래픽, 머신러닝, 웹개발, 앱개발 등 다양한 세부 분야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세부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컴과 선배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2 학년 시작한 사람과 2 학년 막 끝난 사람은 이런거 모릅니다.

5. 자유전공학부는 컴퓨터학과 심화전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에 따른 불편함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로스쿨 갈 거라서 공거리가 좋아요. 컴과 심화전공하면 로스쿨 갈 학점 절대 안나올걸요? 사실 컴과 심화전공 하고 싶었으면 자전 말고 처음부터 컴과를 쓰는 게 맞긴 했지만 그건 뭐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저는 컴과는 학위 타이틀만 가지러 온거지 진로를 컴과쪽으로 깊게 갈 생각으로 온게 아니라서 별 불만 없습니다. 오히려 공거리에 매우 감사함.

6.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IT 기업 소송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생각중입니다.

7.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로스쿨 들어갈 때 도움될 것 같아서 CPA 공부중입니다. 회계사 실무 경력 3년 스펙이면 로스쿨 들어갈 때 매우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컴과에서 준비하는건 없습니다. 컴과는 진짜 타이틀 따러 온거라서 학점만 적당히 따고 떠날 생각입니다.

8. 컴퓨터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코딩학원 다녀오세요. C는 필수로 끝내고 오시고 파이썬도 끝내고 오면 매우 좋고 시간 정말 많이 남으면 선형대수학도 공부하고 오세요. 전수는 근데 뒷 커리큘럼이랑 큰 상관 없어서 굳이 2학년 때 안들어도 돼요. 졸업전에만 들으면 됨.

(2) 20학번 자유전공학부 컴퓨터학과 전장원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컴퓨터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유전공학부 학생으로 1년을 보내면서 많은 과목들을 수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래 진로였던 로스쿨 진학이 저의 적성과는 맞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코딩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어 코딩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컴퓨터학과로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희망전공학과를 컴퓨터학과로 선택하였습니다.

2.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컴퓨터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컴퓨터학과는 아무래도 자유전공학부에서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영학과나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학과들과는 색이 많이 다릅니다. 컴퓨터학과 1학년, 자유전공학부에서 컴퓨터학과로 진학하는 경우 2학년때 전공배정을 받자마자 전산수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비해 수학적 두뇌를 더 요구하는 편입니다. 허나 교수님들이 대체로 학생들의 실력을 고려하여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업은 하지 않으시니 수업만 제때제때 듣고 과제를 통한 실습을 반복한다면 충분한 실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통해 노베이스 학생들도 성실성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코딩수업을 제공하고, 이후에 심화과정인 자료구조, 알고리즘 수업 등을 통해 실력을 단계별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3. 컴퓨터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아무래도 학창시절에 코딩을 먼저 배워봤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래밍같은 과목은 전공자수준의 코딩실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코딩을 미리 배워놓으면 써먹을데가 많을 것입니다. 또 이걸 저도 들은 애긴데 영화나 책들을 많이 읽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졸업프로젝트를 만들때도 그렇고 취업전선에서 뛰어들어서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실력을 판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학과에서 어떤 것을 주로 공부했느냐에 따라 크게 갈린다고 합니다. 웹 개발자, 앱 개발자, 시스템 보안,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인공지능 개발자 등 워낙 여러 분야에서 코딩이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1차산업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 코더로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경우 응용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네트워크 및 서버 보안 등의 진로를 많이 선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 컴퓨터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잘 안줍니다 ㅎㅎ 제가 위에서 성실성만 있다면 따라가기 어렵지 않은 과목들이 있다고 했는데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 뿐,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의 실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성에 맞다면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 공부량이지만, 적성에 맞지 않고 성실성이 부족하다면 따라가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6. 컴퓨터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이도길 교수님의 자료구조, 알고리즘 강의가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강의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7. 컴퓨터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8. 1학년때 컴퓨터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컴퓨터학과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컴퓨터학과 진학을 비교적 늦게 생각해서 1학년때 미리 들은 과목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학과의 전공과목을 1학년때 하나도 듣지 않고 자유전공학부와 컴퓨터학과

둘다의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해선 2,3,4 학년때 빠듯하게 시간표를 짜야할 뿐만 아니라 재수강 가능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시간표관리를 위해서 전산수학정도는 미리 들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컴퓨터학과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컴퓨터학과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로스쿨 가고싶으면 컴퓨터학과 오지 마세요 ㅎㅎ 컴퓨터학과에서 좋은 학점을 받을 정도의 학생이 로스쿨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은 커녕 동기들하고도 한번을 못만나봤네요 ㅠㅜ

<개별질문>

1. 컴퓨터학과에서 공부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인문계열이 컴퓨터학과에 진학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산수학 과목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웠네요. 인문계열 학생이 컴퓨터학과에 진학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뒤쳐지지 않으려면 정말정말 성실해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컴퓨터학과에서 수학을 많이 배우나요?

수학적 사고가 기반이 되기에 수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는 코딩실력 향상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3. 수업 외에 1 학년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배님은 전공 진입 전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준비 안해서 지금 큰일났네요 ㅎㅎ 1 학년때 시간이 난다면 C 언어, 파이썬같은 대중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한 프로그래밍 강좌같은 것을 들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4. 컴퓨터학과에서는 그래픽, 머신러닝, 웹개발, 앱개발 등 다양한 세부 분야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세부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는 주로 머신러닝을 위주로 배우는 것이 요즘 대세라고 알고 있으나 자세히 어떤 분야를 공부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ㅎㅎ 예시로 든 여러 분야들에서 좋은 교수님들이 강좌를 열고 계시니 자신의 희망분야에 따라 과목을 수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자유전공학부는 컴퓨터학과 심화전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에 따른 불편함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학과 심화전공을 할 생각이 없었어서 심화전공을 할 수 없는 것도 지금 알았네요 ㅎㅎ 심화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굳이 심화전공을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6.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아직 여러 전공과목을 수강해봐야 진로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막연하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통합 무기 발사 체계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국방과학연구소에 연구직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석박사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미있는 연구를 통해 실적을 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후 편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군복무를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8. 컴퓨터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은 갈 생각이 없고 딱히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어진 공부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요즘은 과장 조금 보태서 1 차산업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코딩능력의 유무가 연봉을 결정하기 때문에 컴퓨터학과에 진학하여 졸업장을 따낼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먹고 살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3) 20학번 자유전공학부 컴퓨터학과 한수빈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컴퓨터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연히 인터넷 창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눌러봤는데 제가 즐겨 보던 사이트와 콘텐츠가 이런 외계어(?)로 이뤄졌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보는 걸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전공선택을 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컴퓨터학과에 진학했습니다.

2.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컴퓨터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교육과정은 6 개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50 여개의 다양한 전공선택 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컴퓨터네트워크>가 있고 21 학년부터 <인공지능>이 새롭게 전공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컴퓨터학과 커리큘럼은 기초 과목이나, 선수강으로서 요구되는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에 배우게 될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마치 수학과 같아요.

대표적으로 "논리설계 -> 컴퓨터구조 -> 운영체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직접 구현, 실습한다는 점이 컴퓨터학과 전공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구조 강의에서 '트리'라는 구조에 대해 배우면 C 언어로 구현하는 것이 과제로 주어집니다.

3. 컴퓨터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가장 필요한 건 스스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학 자체가 매시간 새로운 지식, 기술이 나오는 학문이기에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만 안주하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강의는 이론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학교 커리큘럼에만 의존하면 원하는 실무 능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독학이나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참여 등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 공부해야 합니다.

전공 과목을 수강하면서 느낀 점인데 오기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제 하나를 하는데도 수많은 오류와 실패를 겪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럴지라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며칠을 과제에 할애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고 늘어지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 못해도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고집 부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어려운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짜릿한 쾌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4. 컴퓨터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에서 2020 년 컴퓨터학과 평균이 3.35 점이라고 하는데 믿을 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특성상 학점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학점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프로젝트, 해커톤, 대회, 인턴 등 실력을 보여줄 수 활동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공부량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제와 팀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 주에 과제가 없다면 그건 교수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셨다고 여겨요. 시험 기간에도 과제를 내야 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할수록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과제에서 구현한 코딩이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서 꾸준히 한다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컴퓨터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지난 학기에 이도길 교수님의 <자료구조> 강의를 수강했는데 명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많지만 명료하게 강의하시고 학점도 잘 주셔서 사실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수강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습과 과제를 많이 해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꿀강만을 찾아 수강하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하드웨어에 대해 배우는 컴퓨터구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전공필수 강의라 피할 수는 없습니다....

6. 컴퓨터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문계열이라서 선형대수학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행렬과 벡터를 모르는데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아...이해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학 계산 실력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아쉬운 점은 생각보다 컴퓨터학과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7. 1 학년때 컴퓨터학과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컴퓨터학과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컴퓨터프로그래밍 1 을 수강하고 싶었지만 수강신청에 실패해서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이라는 핵심교양을 수강했습니다. 컴퓨터학과에 진입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래밍 1 컴퓨터언어실습, 모두를 위한 파이썬을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면 핵심교양인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들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1 학년부터 학문의 기초 과목에 계열 제한이 사라졌는데 컴퓨터학과, 데이터과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각 학과의 학문의 기초 (ex : 컴퓨터프로그래밍 1)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 학년 필수 교양인 정보적 사고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주제를 골라 한 번이라도 특강을 들어 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인 '이고잉'님의 특강을 들었는데 재밌었고 웹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8.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자유전공학부 컴퓨터학과 선배님들이 소수이시고, 코로나 19 라는 상황으로 인해 직접 만나기 어려워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학생회에서 주최한 행사들을 통해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고 유익한 조언들을 얻었습니다.

<개별질문>

1. 컴퓨터학과에서 공부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인문계열이 컴퓨터학과에 진학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수강 신청할 때의 제가 의욕이 과다했는지 학문의 기초와 전공필수 과목을 같이 들었습니다. 전공 과제를 했을 때에 정말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을 할애했지만 결국 오류가 있는 채로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는데 이 상태를 혼자서 극복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인문계열이라고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수학 1 을 배울 때 행렬과 벡터를 모른다는 정도이지 않을까요? 처음 배울 때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게 보통이지만 그건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컴퓨터학과는 계열보다 개개인에 따른 차이가 아주 커요. 이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사람도 있고 "hello, world"를 처음 출력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머리와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할 끈기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2. 컴퓨터학과에서 수학을 많이 배우나요?

컴퓨터학과 학문의 기초 과목인 전산수학 1, 2 를 기본으로 하고 선택과목으로 이산수학, 공학수학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학을 다루는 과목은 적습니다. 또 어떤 분야에 대해 공부하냐에 따라 수학을 얼마나 공부하는 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학 계산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형대수학에 대해 모르면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어렵듯이 수학은 컴퓨터학의 기본이 됩니다.

3. 수업 외에 1 학년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배님은 전공 진입 전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언어실습, 모두를 위한 파이썬 강의는 수강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C 언어 혹은 파이썬을 미리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책을 구입하는 것보다 Youtube 강의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며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겨울방학 때 '네이버 부스트코스'에서 운영하는 코칭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C 언어를 공부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 언어를 배우고자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 현장에 계시는 멘토 분과 QNA 시간도 있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한 번 참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4. 컴퓨터학과에서는 그래픽, 머신러닝, 웹개발, 앱개발 등 다양한 세부 분야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세부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컴퓨터학과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웹개발이나 앱개발은 컴퓨터학과 전공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에요.

5. 자유전공학부는 컴퓨터학과 심화전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에 따른 불편함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컴퓨터학과생은 심화전공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전공학부생은 제 2 전공이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들이 제한됩니다.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 과목이 컴퓨터학과 과목과 연관이 적어 전공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종종 듭니다. 자유전공학부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점이겠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6. 컴퓨터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느 학과가 그렇듯 컴퓨터학과도 장점과 단점 모두 있어요. 이 학과에 오기만 하면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계기와 이유로 컴퓨터학과를 희망하시든지 자기 자신이 납득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꼭 컴퓨터학과가 아니더라도 정말 끝까지 진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전공학부의 메리트를 누리세요!!

(4) 19학번 자유전공학부 컴퓨터학과 최지현 선배

<공통질문>

1.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비교해 컴퓨터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컴퓨터학과는 1학년때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현재는 C, Python)과 기본이 되는 수학개념(전산수학1- 선형대수학, 전산수학2-확률과 통계)을 배웁니다. 2학년 때에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컴퓨터구조와 같은 보편적인 컴퓨터학과 내용들을 배웁니다. 3학년때엔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네트워크를 배우고, 4학년때에는 주로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전공선택을 듣습니다 (자연어처리, 게임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기계학습, 소프트웨어 보안 등등). 전공필수 과목이 6개나 되지만, 전공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 희망분야에 따라 각자 본인에게 맞는 전공 선택을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가령, 네트워크에 있으면 컴퓨터네트워크 수

강 후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통신을 수강할 수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스나 UI/UX에 관심이 있으면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이랑 인간컴퓨터상호작용 수업 등등을 위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컴퓨터학과가 그렇듯이, "개발"에 관한 내용은 수업시간에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앱 개발이나 웹 개발과 같은 내용은 수업시간 외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동아리/캠프/독학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전공과 비교해, 컴퓨터학과 전공과목들은 과제 외에도 텀프로젝트와 같은 실습내용이 많습니다. 수업마다 다르지만, 텀프로젝트의 경우 코딩이 많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고, 수강생 절반도 풀지 못할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팀플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컴퓨터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당연하게도 코딩 능력이나 수학 실력이 뛰어나면 컴퓨터학과를 전공하기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영어 실력이 뛰어나면 컴퓨터학과를 전공하는 데에 유리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영강 수업을 알아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학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강 수업인데도 수업 피피티 자료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업 외적으로 학과 관련 공부를 하게 될 때 참고하는 논문, 인터넷 문서 등 자료들이 영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 된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낯선 개념을 맞닥트렸을 때 거부감 없이 해당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컴퓨터학과 이론 수업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낯선 개념이지만 최대한 수업 또는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나머지는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암기의 경우, 문장 단위의 암기력 보다는 키워드를 암기하는 능력, 그리고 그림이나 도식도를 암기하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영어로 된 수업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수업을 바탕으로 낯선 개념을 숙지하고 소화한 다음 조금의 암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면 컴퓨터학과에서 괜찮은 학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진로가 크게 취직이나 대학원으로 분류됩니다. 취직의 경우, 다양한 직종으로 취직이 가능합니다. 오직 코딩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개발자와 같은 직종부터, 학점이나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항까지 고려해 취직하는 엔지니어어와 같은 직종까지 다양합니다. 개발자의 경우, 수업 시간 외적으로 다양하게 협업해서 코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거나, 외부 대회, 공모전 등등 경험을 쌓고 실력을 향상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자 이외에도, 코딩 실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되는 직종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딩 테스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취직을 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공 공부에 충실하고 기본적인 실력을 쌓는 건 중요합니다. 취직 이외에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학부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학부연구생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분야로 취직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이외에도,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컴퓨터학과 선배들도 존재합니다. 매 학기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대학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같고, 대기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다음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4. 컴퓨터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컴퓨터학과가 생각보다 학점을 잘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주는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학점을 낮게 주는 학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업, 교수님마다 격차가 꽤 있는 편입니다). 공부량의 경우, 수업마다 크게 다릅니다. 똑같은 수업이더라도 분반 교수님마다 차이도 큼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컴퓨터학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텀프로젝

트(실습)이나 과제가 대체로 많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틈틈이 복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과제나 실습을 하느라 실질적으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도 합니다. 실습이나 과제 말고도 시험 공부량도 꽤 많습니다. 시험 형태는 수업마다 다른데, 크게 서술형 형식으로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적게 하는 시험(암기력이 필요한 시험)으로 평가하시는 교수님과, 코딩이나 수학문제 해결능력처럼 암기력과 무관한 시험으로 평가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강의평을 읽으면서 수업 평가 방식을 파악하고 수업을 선택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주로 전자를 선택해서 듣습니다). 전자의 경우, 시험 공부량이 꽤 많습니다. 가령 전공 필수인 컴퓨터네트워크 수업의 경우 영어로 된 피피티 300~400장이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고, 팀 과제 3개와 보고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시험 범위가 너무 많고 어렵다 보니 시험 범위를 다 공부하고 꼼꼼히 암기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전반적으로 잘 숙지하셨다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하자면, 대체로 컴퓨터학과 시험 평균은 굉장히 낮고, 과제나 실습을 다 끝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컴퓨터학과 수업은 할 과제나 실습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지만, 자신이 한 만큼 솔직하게 학점이 나오는 학과이고, 그만큼 성취감도 있습니다.

5. 컴퓨터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대부분 학교 수업들이 그렇겠지만, 명강이면 헬강인 경우가 컴퓨터학과에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즉, 교수님께서 강의력이 좋으시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많은 과제를 내주신다면, 그 수업은 듣는 학기 내내 헬강 이겠지만, 그만큼 학기가 끝나면 얻어갈게 많은 명강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컴퓨터 전공필수 과목인 "컴퓨터구조"는 그 자체로 내용이 어려운 헬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공필수기 때문에 피할 순 없습니다.....ㅠ) 꿀강의 경우, 컴퓨터학과에도 학점을 분명히 잘 주시는 교수

님들도 있고, 코딩이 거의 요구되지 않고 팀플로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공 선택 과목들도 꽤 있습니다. 또, 영강의 경우, 학점을 상대적으로 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과목명과 교수님 성함까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6. 컴퓨터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주위에서 종종 컴퓨터학과에 대해 하는 오해와 관련 지어 설명하자면, 컴퓨터학과에서는 “엑셀”자격증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다. 또, “앱”이나 “웹”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코딩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론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따라서, 본인의 코딩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업과 별도로 꾸준히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코딩을 연습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웹”이나 “앱”을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독학을 해보고, 컴퓨터 관련 동아리나 코딩캠프에 참여하거나, 직접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컴퓨터학과 전공수업에서는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는 내용입니다.

<개별질문>

1.선배님께서 컴퓨터학과를 선택하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시절 문과 출신이었는데, 잘하지는 않았지만 줄곧 코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에서 컴퓨터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한 경우입니다.

2. 컴퓨터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컴퓨터학과에 대해 만족하는 점은 폭넓은 선택지가 있는 학과라는 점입니다. 대

기업이나 공기업스타트업 등 취직에 유리한 것은 물론이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변리사 시험준비까지 등등 여러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자유전공학부생으로서 컴퓨터학과 심화전공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과목들도 듣고, 컴퓨터학과 수업도 듣고 하다 보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대부분 컴과생들은 심화전공을 해서 더 다양한 전공과목들도 수강하고 깊이 있는 관심 분야 탐색을 해볼 수 있겠지만, 자유전공학부생으로서 들어야하는 과목들 때문에 컴퓨터학과 전공과목들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컴퓨터학과에서 공부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계속 언급하지만, 컴퓨터학과에서 하는 실습이 꽤 어려운 편입니다. 실습문제들 대부분 마감기한이 다가오는데 풀지 못하면 밤을 새면서 코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밤을 새면서 까지도 정확한 코드를 짜지 못한다면 부분점수 없이 0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몇시간씩 투자해 고민하더라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아니면 코드에 오류가 있다면, 또 컴파일(실행)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게 된다면,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점이 다른 학과들과 비교해 컴퓨터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4. 컴퓨터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컴퓨터학과에 진입하기 전부터 조금의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프로그래밍 언어(C나 Java, Python) 기본을 간단히 공부해 보시고, 본인에게 적성이 맞는지 판단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코딩을 하는 집단이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컴퓨터학과나 진로에 대한 상담, 조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학과에 오게

되면 공부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수업도 열심히 공부하고, 외부 프로젝트에도 참여해보고, 꾸준히 코딩문제도 풀어보고, 관심 분야가 생기면 관련 논문을 찾아보거나 학부 연구생도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학과는 공부할 게 많은 학과인만큼, 다양한 진로 선택지가 있는, 메리트가 큰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5) 18 학번 자유전공학부 컴퓨터학과 정훈 선배

<공통 질문>

1.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컴퓨터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컴퓨터학과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산수학, 알고리즘 이렇게 세 분야의 필수 과목을 듣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은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즉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전산수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알아둬야 할 수리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의 그 프로그램들의 알고리즘적인 요소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컴퓨터전공과목만의 특징은 실습을 한다는 것! 즉 컴퓨터를 통해 직접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이 다른 전공과의 차이점입니다.

2. 컴퓨터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다른 수학 과목이나 알고리즘은 모두가 몰라서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코딩, c 언어, 파이썬, 자바 등등의 프로그램들은 진입장벽이 조금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취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요즘에는 보안전문가, 금융업계 등등 다양한 곳으로 취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4. 컴퓨터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을 매우 안주는 편은 아니나 a+를 받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로그래밍은 과학고 친구들이나 미리 코딩을 고등학생부터 배운 친구들이 a+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a+를 받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a 까지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량은 솔직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코딩이나 수학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처음 배우는 과목이라 익숙하지 않고 또한 코딩은 전공자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으므로 공부량이 많습니다.

5. 컴퓨터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박성빈 교수님은 컴퓨터 학과의 빛입니다. 전공수업 알고리즘 분야는 무조건 박성빈 교수님께 들어야합니다. 그 외에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역량에 맞게 성적을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박성빈 교수님 외의 알고리즘은 모두 헬입니다.. 진짜 알고리즘 분야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박성빈 교수님만을 추천드립니다.

6. 컴퓨터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처음 가졌을 때는 코딩을 조금 배웠기 때문에 재밌고 할만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전공 코딩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부량도 문제지만 평소에 해놓은 바탕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의외로 좋았던 점은 수학공부와 코딩이 생각보다 더 재밌다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 보면 몇시간은 훌 갈 정도로 집중이 잘 되고 풀면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컴퓨터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컴퓨터 코딩을 접했을 때 굉장히 할만 하고 재밌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취업할 때의 대세 과라 들어서 컴퓨터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컴퓨터학과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족하는 점은 요즘 취업시장에서 코딩적인 요소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문과라도 코딩 능력을 보는 코딩 테스트를 많이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공자로 배우는 컴퓨터 학과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컴퓨터학과 자체의 진입장벽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부분이나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래밍 모두 자체의 진입장벽이 꽤 높고 처음 접했을 때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3. 컴퓨터학과에서 공부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어렵다고 느낀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 정말 처음 공부할 때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서 힘들었습니다. 미리 배우고 온 친구들에게 많이 밀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조금씩 따라 갈수 있게 되었고, 충분히 극복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컴퓨터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로 선택에서 고민을 할 텐데 로스쿨을 희망하지 않고 취직을 생각한다면, 요즘 대세 학과인만큼 추천합니다. 코딩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취직을 할 때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조금 열심히 따라간다면 코딩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짜여 있으니 컴퓨터학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데이터과학과

I. 개괄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데이터과학과는 2021년에 설립된 학과로서, IT 산업 전 분야에서의 데이터 중심(Data-driven) 기술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데이터과학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컴퓨터과학 분야의 필수 전공 지식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알고리즘, 이산수학,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등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데이터과학 분야의 심화 전공 지식인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빅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SW기술인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컴퓨터비전 등 분야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가공·검색·학습 등의 데이터과학에 대한 최신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2021년 3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내 신설학과
- ✓ 컴퓨터학과, 인공지능대학원 등과 연계를 통한 데이터 분야 핵심인재 양성
- ✓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은 2019 QS 세계대학평가 컴퓨터공학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전체 3위, 사립대학 1위로 평가
- ✓ SW중심대학 사업 선정

3. 진로진학

1) 산업·금융·경제계

빅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2) SW관련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3) 게임업체

네이버, 다음카카오, NHN 등의 포털기업, 넥슨, 엔씨소프트 등

4) 해외 진출 및 기타 진로

Google, Facebook, Amazon, Qualcomm 등의 해외 기업 진출 및 ETRI, KISTI 등 IT관련
국책연구소 취업, 또는 SW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조인이나 변리사로의 취직

II. 졸업요건

학문의 기초 (15학점)	컴퓨터프로그래밍 I, II 또는 통계계산프로그래밍, 전산수학 I 또는 행렬이론, 전산수학II 또는 기초통계학, 미적분학 및 연습 I 또는 통계수학
선택교양	24학점
전공선택	42학점
졸업필수요구	아래 4개 과정 中 택 1 ① 기업현장실습 I,II,III,IV ② 졸업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③ 랩인턴(학부연구생) ④ 산학협력프로젝트
기타 공통	공인영어성적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데이터 분석의 이론적 배경을 튼튼히!

이공계열에서 기본이 되는 이산수학, 공업수학 등의 기초 수학,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이론 및 기술적 토대가 되는 통계학과 인공지능/기계학습에 대하여 다룹니다.

데이터는 컴퓨터에서 어떻게 저장 및 처리되나?

데이터를 컴퓨터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론 및 실제에 대하여 배우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계산이론, 데이터베이스 등의 과목을 다룹니다.

거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속 컴퓨팅 기술

병렬컴퓨팅, 분산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등 대규모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빠른 분석을 위한 최신 고속 컴퓨팅 이론 및 실재를 다룹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알기 쉽게 표현!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서 표현하는 컴퓨터비전, 컴퓨터그래픽스, 데이터 시각화 등을 다룹니다.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전산수학, 통계학개론, 컴퓨터프로그래밍
2학년	자료구조, 계산이론, 알고리즘, 컴퓨터시스템
3학년	기계학습, 병렬컴퓨팅,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4학년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시각화,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비전 등

IV. 전공생 학우 인터뷰

* 데이터과학과는 신설된 학과로 자유전공학부 선배가 없어 21학번 재학생 학우를 인터뷰어로 섭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재학생 학우 인터뷰

(1) 21 학번 데이터과학과 윤민서 학우

1. 학우님께서 데이터과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현재는 흔히 말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과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의 양도 그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록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여러 뉴스와 책에서 보고 매력을 느껴서 데이터과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데이터과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데이터과학과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데이터과학과의 커리큘럼은 다른 학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특별한 점을 가집니다. 진정으로 데이터과학을 다룬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과목은 3학년 때부터 들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과학을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1학년과 2학년 때는 각자 자신이 찾아가고 싶은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먼저 들어보자면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두고 싶다면 수학과, 통계학과의 전공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싶다면 컴퓨터학과의 전공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과학과의 전공필수 학점은 0 학점이며 졸업하기 전까지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학과, 데이터과학과의 전공 과목을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3. 데이터과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수학, 프로그래밍 둘 중 하나 이상에서 자신이 있다면 데이터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함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말한 두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의 모든 분야 중에서 하나 이상 자신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큰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과학은 데이터과학 분야의 지식을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매우 큰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1기 입학생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과학과의 실재하는 아웃풋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학생의 계획이나 학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졸업 후에 SW 관련 대기업이나 게임 업체, IT 기업 등에 취업을 하거나 IT 관련 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진로가 IT 계열에 치중되어 있지만은 않고, SW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조계나 변리사 같은 전문직에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5. 데이터과학과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은 노력하는 만큼 나옵니다.’와 같은 진부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어 두고, 현실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학점을 매우 잘 주는 과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듣냐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사례를 보았을 때 교수님에 따라서 학점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었고, 그 과목 내에서 성취하는 만큼 나오는 경향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공부량은 평균치를 보았을 때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따라 수업을 자유자재로 추가하거나 빼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량의 폭은 매우 넓습니다.

6. 데이터과학과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데이터과학과 전공수업은 2023년부터 개설될 예정입니다. 아직 이 질문을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다면 명강이고 꿀강이며 자신에게 힘들다고 느껴지면 헬강이라는 진부한 멘트라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7. 데이터과학과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실제로 수업을 들어본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과학과에 진학하기로 한 학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학, 통계학을 중점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컴퓨터과학을 중점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입니다. 통계학의 연장으로 데이터과학을 생각하고 진학한

학생들은 의외로 많은 양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요구되는 것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컴퓨터과학의 연장으로 데이터과학을 생각하고 진학한 학생들은 의외로 많은 양의 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전자의 경우였는데,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 수학, 통계학과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서로 접목되어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조금씩 배우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크게 보람을 찾았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크게 달랐던 점을 생각하면 데이터과학과에 현재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질문>

1. 데이터과학과가 올해부터 신설된 학과인데 수업은 체계적으로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과학과만의 전공 수업은 아직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수업의 체계성에 있어서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설된 학과이고 운영된 지 현재 5 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데이터과학 분야의 지식을 원활하게 습득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다루는 강의들은 이미 역사가 깊고 체계가 확립된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과학의 시스템을 가져왔기 때문에 수업의 체계성에 있어서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지금까지 데이터과학과 수업을 들으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때로는 과목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것이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2 학기에 들을 과목의 틀을 대강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진로와 데이터과학에 대해 많이 찾아보고 많이 알아갈수록 더욱 고민할 여지가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강희망과목 등록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도 시간표의 틀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부 1학년 난이도의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수업 각각에 있어서는 배우는 내용의 난이도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전공 분야 지식 습득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3. 데이터과학과 전공수업에서 수학을 많이 배우거나 사용하나요?

1학년 과정만 고려했을 때 수학교육과와 같으며 수학과보다 많은 수학 과목을 두 학기 동안 수강합니다. 1년 동안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통계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학습하는 양에 있어서는 부담이 조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학년 이후부터는 수학 과목을 듣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수학 과목을 시간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이후에 개설되는 데이터과학과 전공 수업에서는 많은 양의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실히 유리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4. 선배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수업 등 여러 정보들은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직속 선배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에 뽀선-뽀후 시스템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정보대학 학생회에서 컴퓨터학과 선배님들 중 데이터과학과 신입생을 뽀후로 입양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받아 대부분 만족스러운 뽀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선배들과 연결 측면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정보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컴퓨터학과의 선배님들에게 수업이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질문했을 때 대부분 매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데이터과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데이터과학과는 컴퓨터과학 분야의 필수 전공 지식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알고리즘, 이산수학,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등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데이터과학 분야의 심화 전공 지식인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빅데이터 처리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몇 번 언급한 것과 같이 수학, 통계학과 관련된 과목을 컴퓨터학과보다 조금 더 들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6. 학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제가 1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진로는 인공지능 작곡가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음성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을 통해 음성과 영상을 합성하여 은퇴하거나 돌아가신 가수 등의 유명인들의 생전 업적을 복구하고 창조해내는 일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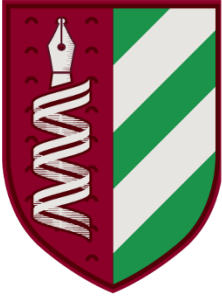
7. (학우님 희망 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인공지능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으로 1 학기 때 교양으로 음악과 관련된 강의를 한 과목 수강했고, 2 학기 때는 두 과목 수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이론과 작곡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인공지능이 작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식과 음악 이론, 트렌드, 장르 등의 데이터를 접목시키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실행으로 옮길 능력에는 새 발의 피만큼도 못 미치지만 평균적인 학부 1 학년 수준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반적인 공부로는 Baekjoon Online Judge 라는 사이트에서 알고리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8. 자유전공학부에서 데이터과학과를 희망하는 학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데이터과학과를 희망하는 학우분들 대부분 수학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걱정이 제일 많으실 텐데,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통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수과 특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 1 전공을 데이터과학과로 선택한 자유전공학부 학우분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에서 그치기보다는 데이터과학과로 입학한 저희 역시 자유전공학부 학우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희망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y

1. 식품자원경제학과

I. 개괄

1. 학과 소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는 1959년에 설립되어 식량경제학, 자원환경경제학, 후생환경 등 응용경제학 등 응용경제학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시적 개별시장 변화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식량의 생산 및 유통과 식품 산업 전반의 정책, 그리고 지역개발과 자원이용 및 환경관리 등의 제반 경제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거시적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자원경제학은 식량문제와 자연자원의 개발 및 응용에 관련된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응용경제학으로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식량과 관련된 생산, 소비, 마케팅, 정책, 무역, 재정금융문제에서부터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문제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문입니다.

식품자원경제학은 식품과 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련된 생산, 분배, 소비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자원 및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식품산업과 자원산업의 효율적 경영과 합리적 이용을 추구합니다. 최근 국내의 식량자급도가 하락하고,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와 자원의 무기화가 WTO, FAO,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의제로 대두됨에 따라 식품자원경제학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특이 사항

- ✓ 2010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생명공학분야 1위
- ✓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연구실적 기준 국내 경제학과 중 5위
- ✓ 2010년 BK21 응용경제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선정
- ✓ 2013년 BK21 플러스 사업팀 선정
- ✓ 한-EU 농업식품자원 경제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EKAFREE) 진행
- ✓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 (Social Sciences Korea) 진행
- ✓ 농업자원경제학 분야에서 아시아 1위, 세계 30위
- ✓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한 지원

3. 주 강의동 소개 및 주변지리

대부분의 전공 강의가 자연과학 캠퍼스의 생명과학관 (동관)에서 개설됩니다. 법과대학 후문에서 교내 순환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생명과학관에서 법학관으로 오고자 할 경우 셔틀이 운행하지 않아 도보로 다소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4. 진로진학

식품 관련업체, 국제 경제기구, 무역업체, 경제 연구소, 유통 서비스 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환경 관련기관, 대학 교수, 금융기관,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1) 학계 · 연구소

- 농업, 자원 환경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공부하여 관련 국제기구 진출, 교수 및 연구직, 행정고시, 사법고시, 로스쿨, CPA 등의 자격 및 임용 시험, 경제 연구소, 환경 관련 연구소 등

2) 기업계

- 식품 관련 기업, 농촌경제연구소 등의 국책 연구소,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공기업, 증권사, 은행이나 일반 사기업 및 공기업, 무역업체, 국제 경제기구

5. 학과 프로그램

1) 효봉글로벌장학금

재단법인 '효봉장학회'가 식품자원경제학과 학부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교외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식품경제학과의 전신) 이셨던故 조성열 박사를 기려 설립된 '효봉장학회'는 식품자원경제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81학번 동기회 장학금

농업경제학과 81학번 동기회에서 "농업경제학과 81학번 동기회 교우 장학회"를 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품자원경제학과학부생을 대상으로 2015년도 1학기부터 현재까지 총 1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셨으며 후배들이 학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II. 졸업요건

학문의기초 (9학점)	식품자원경제학개론, 시장과경제, 세계화와 국가경제
전공필수 6학점	LESE152 경제통계학 (1 학년 2 학기 이수 권장) LESE155 응용경제수학 (2 학년 1 학기 이수 권장)
전공선택	36학점
영강	5과목 이상
기타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 한자이해능력인증, 졸업논문

II.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세부 전공 분야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연구 방법을 습득, 경제학 이론

경제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공부합니다. 특히 경제 주체의 행동과 시장의 균형(미시경제)과 GDP와 물가, 실업률 등의 거시 경제 변수들의 관계(거시경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공부합니다. 시장과경제, 응용경제수학, 미시·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경제 등을 배웁니다.

식량안보 논쟁을 넘어서 파생상품을 활용한 농산물 시장의 합리화까지, 농업·식품산업 분야

기초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식품 및 농업 시장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며, 보다는 농업 및 식품 산업 정책을 모색합니다. 식품마케팅, 식품소비자경제, 농산물가격분석론, 식품산업재무관리, 선물옵션, 식품산업조직론 등을 배웁니다.

에너지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최적 경제 활동 수준 탐색, 자원·환경 분야

인류의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의 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며 기후변화 문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활동 수준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탐구합니다. 자원경제학, 에너지경제학, 자원 가치평가론, 환경경제학, 자원환경정책 등을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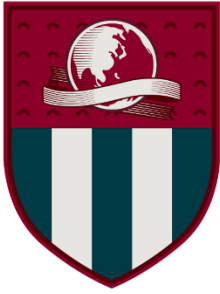
고령화 문제와 기술 발전, 응용경제학의 새 지평 열기, 보건 및 기술경제 분야

보건 산업의 경제적 특징에 대해서 연구하며, 고령화와 기술 발전이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보건경제학, 노년경제학, 위해요인분석, 기술 경제학 등을 배웁니다.

2. 학년별 권장이수 과목

학년	교과목
1	식품자원경제학개론, 시장과경제, 세계화와국가경제, 경제통계학 등
2	응용경제수학, 미시경제분석, 거시경제분석, 환경경제학, 응용계량경제학, 식품마케팅, 식품산업재무관리, 보건경제학원론, 식품안전경제학, 자원경제학, 공공경제학, 상품선물및옵션거래, 국제식품정책론 등

3	국제금융시장론, 응용재무경제학, 자원가치평가론, 국제농산물무역론, 식품소비자경제학, 노년경제학, 에너지경제론 등
4	국제통상협상론, 부동산경제론, 자원환경정책, 계량분석론, 농식품가격분석론, 응용경제세미나 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Korea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I. 개괄

1. 학과소개

국제학부는 2002년 고려대학교의 세계화 비전에 따라 출범하였으며, 현재 학부와 대학원에서 700여명의 인재들과 40여명의 교수진이 서로 협력해 최고의 교육과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제학부의 모든 전공 수업들은 영어 강의이며,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국제학부는 국제개발협력, 국제통상, 국제평화안보, 지역학 및 한국학 등 학제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세계화, 국제관계,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통상, 경영 및 개발협력기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학부와 국제대학원을 연결하는 3+2 통합학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학사와 석사 두 학위를 5년만에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협력이 점철되는 국제관계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융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무대에서 최상위 대학으로 발돋움하려는 고려대학교의 비전들을 고려할 때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SSCI(국제전문학술지) 인문사회계열 최상위
- ✓ 고려대학교 강의평가 교내 최상위
- ✓ QS 평가 세계 42위

3. 주 강의동 소개 및 주변 지리

국제학부의 주 강의동은 서관과 타이거플라자 사이에 위치한 국제관입니다. 정대후문과는 가깝지만 해송법학도서관을 비롯한 법학관들과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4. 진로진학

국제학부 학생들은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만의 경험을 가지고 옵니다. 학생 구성원 중 절반가량은 한국인 학생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중국, 미국, 독일, 우즈베키스탄, 일본, 팔레스타인, 에콰도르, 르완다, 핀란드, 볼리비아, 가나,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그리고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 옵니다. 학부의 커리큘럼과 자신의 능력을 결합하여 우리 학생들은 유네스코,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은행 등의 개발 기관, KIEP, KIDS, KIE, GGGI 등의 정부 연구기관, 공기업, 아름다운 재단, 휴먼 아시아 등의 NGO들과 이 외에서 많은 다국적 기업 등에서 자신의 앞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학부 프로그램

1) 학-석사 통합 프로그램 (3+2 프로그램)

국제학부는 학생들이 국제대학원(GSIS)과 밀접히 연계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를 권장합니다. 국제학부와 국제대학원은 3년 학사와 2년 석사 과정을 통해 총 5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3학년 학기 초에 3+2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인턴십

국제학부는 학생들의 첫번째 전문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유엔, 아시아개발은행, 국제 비정부 기구, 기타 공공/민간 기관들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 기업의 인턴십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정부 및 기업 활동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12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충족하는 전일제 인턴십에는 학점이 부여됩니다. 인턴십 공석은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공지됩니다.

3) 자체 교환 프로그램

국제학부에서는 일본 류큐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 (NUS)와의 자체적인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II. 졸업요건

선택교양	제2외국어	6학점 (반드시 같은 언어로 I, II과목을 이수)
------	-------	------------------------------

(11학점)	그외 선택교양	5학점
전공필수 (15학점)	DISS 114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e), DISS 115 (Introduction to Economics), DISS 122 (Principl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DISS 123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DISS 140 (Globalization and Beyond: Culture, Society, and Political Economy)	
전공선택	27학점	
영강	국제학부는 모든 강의가 영어강의입니다	
기타졸업요구조건	국제학부생 중 타 단과대학이나 학부에서 제2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 영강 및 외국어 강의 7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교환학생 또는 다른 학점인정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부)학부장이 심사하여 결정함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국제통상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세계화의 틀 안에서 국제 통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무역, 금융, 경영 그리고 마케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 관련 과목들은 경제학의 이해,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

이론과 실제, 국제경제협력, 국제경제기구와 정책, 동아시아 경제, 한국 경제정책, 디지털 경제와 전자통상, 그리고 경영을 위한 저작권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국제개발협력

국가, 개인,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국제사회 안의 관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기후변화, 생태파괴 등에 대처하는 방안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제법, 국제경제법, 국제경제협력, 자원 및 환경과 국제관계 등을 다룹니다.

지역연구

지역학 전공은 학생들에게 여러 지역에 관련하여 심도 있고 폭 넓은 이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학 전공 관련 수업은 현대 북미, 현대 동아시아, 현대 유럽, 동아시아 문명의 이해, 동아시아 경제, 미국 경제, 유럽 경제, 북미의 국제관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유럽/러시아의 국제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한국학 전공은 국내외 학생들이 현대 사회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학 수업은 현대 한국, 한국의 근대사, 한국 사회 운동과 정치 변화, 한국문화의 재인식, 종교와 한국 사회, 국제화 세계에서의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무역 등을 포함합니다.

국제평화안보

국제평화안보 전공은 국제 정치에서 평화와 안보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정책에 관련된 수업들을 제공합니다. 국제평화안보 관련 수업은 정치학의 이해, 국제기구, 국제 협상,

전쟁과 평화, 국제정치경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세계화 시대의 인권, 그리고 에너지와 국제관계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1) 15 학번 자유전공학부 국제학부 강세훈 선배

<공통 질문>

1. 국제학부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제통상: 국제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국제경영이론, 국제무역론 등을 다루며 인턴십을 통해 실제 무역, 금융, 경영, 마케팅 분야에서의 실무를 체득합니다. 국제안보평화 국제정치 및 정책들과 관련된 내용을 국제안보평화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며 정치학의 이해, 전쟁과 평화, 국제 경제협력론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국제개발협력: 국가, 개인,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국제사회 안의 관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생태파괴에 대처하는 방안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제법, 국제경제법, 국제경제협력, 자원 및 환경과 국제관계 등을 다룹니다.

지역연구: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경제, 사회적 현안에 대한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동시에 쌓는 분야입니다. 현 동아시아, 유럽경제사, 동아시아 문명의 이해, 북미 국제관계 등의 강의를 있습니다.

한국학: 한국의 근대화, 경제발전 및 여러 사회 변화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합니다. 현대한국, 한국문화의 재조명, 종교와 한국사회 등을 다룹니다.

제2외국어 초급과 중급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 국제학부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국제학부 수업 중에는 객관식이나 단답형보다는 서술형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문제와 관련해서 아는 걸 최대한 많이 적어내야 하는 시험인 만큼 기본적인 작문 실력이나 암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공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업시간에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토론을 위주로 하고, 논문이나 교과서를 미리 혼자서 읽어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읽어야 하는 분량이 꽤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국제학부 수업에 유리한 자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에세이 작성과 발표가 있는 수업들도 꽤 있어서 글쓰기와 작문도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학우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꼭 해외 경험이 있어야만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유학 경험이 없고 일반고 출신에 정시로 입학했지만 크나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리 예습을 하면 수업시간에 들리지 않을 영어도 더 들리게 되고 혹시 수업시간에 이해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ppt와 교재 등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꼭 모국어 수준의 유창한 영어실력이 있어야만 국제학부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전공을 살린다면 국제기구뿐 아니라 외교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미국 로스쿨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영업, 해외자원개발도 관련이 있고 코트라, 코이카, 한국무역협회도 그렇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 등 전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4. 국제학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모든 전공과목이 영어강의라서 절대평가라 상대평가보다는 수월한 면이 있고 학점이 너무 짜다고 느낀 수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학부 전공수업 공부량은 경제학이나 법학 수업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국제학부 관련 공지사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1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학과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그룹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에서 국제학부로 진학을 많이 하지 않다보니 아는 선배가 없어 족보나 꿀강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지만 클루에 수강평이 충분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제1전공 학우들과 친해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가까워질 수 있는 접점이 별로 없지만 팀플이나 수업 때 얘기를 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교내 국제기구학회(KIOSS 등)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국제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투자 분야에 관심이 많아 진로를 금융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물론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고려해보았지만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이자율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 정세였습니다.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북미 관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스 금융 위기와 브렉시트 등 경제나 경영 등 하나의 학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 간 복합적인 관계와 국내외 정치적 문제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이 유가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데 이 유가

라는 건 OPEC의 의도나 전략,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미국의 중동 정책 등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앞으로는 포트폴리오를 국내 자산에만 모두 투자할 수는 없기에 해외 자산을 담는 건 필수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정치와 경제, 안보, 인프라 등을 이해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국제학 부였기 때문에 국제학부를 선택했습니다.

2. 국제학부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국제학부 학생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고 외국인도 많다 보니 영어 공부에 대한 자극을 많이 받고 그만큼 영어 실력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수강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나름의 의견을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고 교수님들은 이런 토론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면서 논의가 더 잘 이뤄지도록 이끌어 나가주시는 등 학생들 참여가 활발한 수업이 많습니다. 다만 한 분야를 깊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전공 공부만으로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혼자 따로 공부를 해서 나만의 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 국제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에세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드러내고, 쓸 소재와 참고문헌을 찾기 위해서 영어로 된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하고, 예습을 항상 해 가서 수업시간에 토론을 하고, 영어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도 받아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4.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위 답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선배님 희망 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금융권에 진출하려면 우선 파이낸스 커리어 바이블 등의 서적을 읽어보면서 금융 중에서도 어떤 분야와 직종이 자신에게 적합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나 CFA 같은 자격증을 따 보면서 기초적인 소양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경로는 학회인데 현업과 유사한 활동도 직접 해볼 수 있고 현업에 계신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학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인턴십 기회도 자주 찾아오고 공모전 참여를 할 수 있는 학회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해 보고 투자를 하게 된 이유를 정리해 놓거나 경제신문의 기사들을 꾸준히 읽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자신만의 전망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입니다.

2. 졸업생 선배 인터뷰

(1) 10학번 자유전공학부 국제학부 차수지, 13학번 함새롬 선배

* 본 인터뷰는 오래된 인터뷰지만, 학우 여러분께 소수학과인 국제학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통 질문>

1. 국제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국제학부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차수지 선배님: 모든 수업들이 영어 강의로 진행됩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대부분 자신의 분야에서 커리어를 많이 쌓고 계신 전문가들이셔서 현장감 있고 풍부한 현장 지식들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학부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국제통상, 안보, 개발협력, 지역학, 국제 법, 국제기구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들로 나눌 수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들을 들으면 재미있어요.

전공 진입 후 국제통상, 국제관계, 경제학의 이해, 정치학의 이해를 비롯한 몇몇 과목들을 필수로 들어야 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과랑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 함새롬 선배님: 1 학기에는 국제 관계 원론과 국제 통상 원론과 같은 국제학의 기초를 다지는 과목을 주로 들었고, 2 학기에는 국제관계 및 국제 개발 쪽의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와 국제관계, KOICA 에서 하는 국제개발특강 등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2 학년)

2. 국제학부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 차수지 선배님: 일정 수준 이상의 소통은 다들 가능하며 제가 느끼기에는 80~90% 정도의 학생들이 준 원어민 급으로 영어를 구사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학생들도 많고요. 그러나 자전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정도의 듣기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어실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영어 회화가 매우 유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그 자체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의기소침하게 될 것 같다면 국제학부에 진학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국제학부는 영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영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부 진학 후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바에는 다른 전공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 함새롬 선배님: 위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제학부에서는 전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므로 영어라는 것은 단순히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활용하면서 국제정치 및 외교와 관련한 배경지식을

쌓고 전문지식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가 되지 않더라도, 국제정치 및 외교에 대한 많은 열정이 있고, 영어강의를 큰 어려움 없이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 차수지 선배님: 대부분의 인문계 학과들이 그렇듯이, 졸업 후에는 막상 전공과 별로 관련이 없는 분야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학부는 학부 특성상 분위기가 다른 학부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NGO 나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실제로도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International NGO 나 local NGO 등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국제기구 (UN, IGO)로 진출하기도 하고, international corporation 을 입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으면서 국제법 대학원을 졸업하여 국제 변호사의 길을 밟은 사람도 있으며, 교수가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 함새롬 선배님: 국제학부에서는 단순히 국제정치 및 외교에 국한된 것들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 경영, 법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국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활용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추후 졸업을 한 후에도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 가서 국제정치 혹은 외교와 관련한 공부를 계속하는 분들도 있지만, 국제기구나 NGO, 다국적기업, 외교부 등에 들어가서 전공을 활용한 진로를 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국제학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5. 국제학부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 차수지 선배님: 국제법 변호사이신 정서용 교수님과 IMF Head 쪽에서 일하셨던 문희화 교수님의 강의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두 분 다 국제적으로 실무 경험을 쌓으셨던 분이기에 통찰력 있고 현장성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함새롬 선배님: 국제학부 강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학생들과의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 한 수업의 경우를 꼽자면 교수님께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시는 것 같았고, 따라서 단순한 일방적 형식의 강의보다는 수업 중에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을 던지고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며 그 답을 유도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암기식의 일률적인 수업보다는 다 같이 답을 찾아가는 open discussion 식의 강의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6. 국제학부에서 자전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 1 전공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 차수지 선배님: 국제학부에서는 자전 출신 학생들을 차별 없이 자전 출신학생들 잘 대해주는 편입니다. 학사지원부의 대우도 그렇고 사물함 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전공학부 출신 학생들은 이중전공으로 국제학부를 전공하는 학생들처럼 학부의 행사에 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적어서 국제학부의 행사에 별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전 출신 학생들처럼 국제 학부 내에서 소수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 학생들과는 동질감 같은 것을 느껴 친해지기도 하고, 기존 국제학부 학생들과는 조별과제를 함께 하면서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소속감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입니다.

- 함새롬 선배님: 물론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가 국제학부 학생을 위한 것이기에 뿌리가 자유전공학부인 저 같은 학생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전 내에서도 나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국제학부를 선택한 자전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전공 배정을 받아서 국제학부로 들어왔지만, 따지고 보면 기본 뿌리는 자유전공학부에 있으니 저는 자유전공학부 소속, 국제학부생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국제학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행사, 세미나, 동아리 모집 등에 있어서 교류 기회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국제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 차수지 선배님: 1 학년 때부터 세계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싶었는데, 사회학과나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름의 뚜렷한 성향과 색깔이 있다고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덜한 국제학부를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의 국제학부가 국제 개발 분야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 함새롬 선배님: 어렸을 때부터 제 관심사는 국제정치 및 외교였습니다. 본래 진학을 희망하던 곳 역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였을 만큼 미래 진로나 관심사에 있어서 이 전공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국제학부를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 크게 만족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국제학부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 차수지 선배님: 저는 현재까지의 생활 중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너무 스펙 쌓기에만 급급한 대학생활을 하지는 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꼭 국제학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스펙'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세태가 아쉽습니다. 물론 이런 성과들이 당연히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학생 때가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이 마지막으로 잡혀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내면적인 건강함이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 정립시키기에는 늦을 것이기 때문에 후배님들이 꼭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면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스펙 쌓기와 내면적인 성숙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 특히 독서를 많이 할 것을 추천합니다.

3. 국제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 차수지 선배님: 어려운 점보다는 굳이 단점을 꼽아보자면 국제학부에서 배우는 공부는 전공 진입 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온전히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깊이를 더 알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주제가 생각보다 얕다는 점은 다른 인문계 학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특별히 국제학부만의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국제학부는 넓은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분야를 개인적으로 '특화'하려는 노력이 특히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국제학부의 공부를 얼마나 잘 특화시켜서 소화할지는 오로지 개인의 몫입니다.

- 함새롬 선배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제학부에서는 전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실력 이상의 영어 구사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화는 물론이고 소논문을 쓰는 경우나 수업 준비를 위해 원서로 된 책을 읽는 경우 등에 있어서 영어는 기본적인 소통과 이해를 위한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국제학부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평소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구 인터뷰인 관계로 이 문항은 응답이 없으므로 다른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5. 국제학부에 인턴십이나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의 학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차수지 선배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국제학부 내에 따로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국제학부의 공식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해외 활동에 참가하는 토론 동아리나 여러 학회 등에 가입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특정 분야의 활동을 하는 교수님들을 직접 찾아가 활동에 참가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6. 전공 선택 이전의 강의 내용이나 자유전공학부의 커리큘럼이 현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차수지 선배님: 국제법, 행정학, 경제학 관련 지식들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국제학에 대한 저의 관점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얼마나 자유전공학부의 커리큘럼을 잘 소화해서 국제학부의 전공 공부와 연결시키는지가 관건입니다.

- 함새롬 선배님: 저는 본래 진로가 국제외교 및 정치 쪽이기 때문에 과연 국제학부에 실제로 들어가면 어떨까 궁금해서 1 학년 때부터 청강을 통해 국제학부의 전공과목을 미리 접해봤습니다. 그리고 1 학년 2 학기 때는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고급영어토론과 같은 교양 수업을 들으며 국제학부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청강의 경우는 수업의 내용이 국제개발에 국한된 분야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제학부 수업의 진행 분위기라든지 학생들의 실력 등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 좋았고 영어 교양 수업의 경우는 국제학부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7. 국제학부 교수님들의 성향은 어떠하신가요? 국제학부는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의 지도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 차수지 선배님: 국제학부 교수님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공부하셨거나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많고, 관조적으로인 시각으로 국제 흐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서 조금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 별로 다릅니다. 개방적인 교수님들께서 많이 계셔서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수시로 사무실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 등 비공식적이지만 친밀감 있게 지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8. 국제학부 내에는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과 공통으로 수강하는 수업이 있거나 따로 교류할 기회가 많이 있나요?

- 함새롬 선배님: 수강하는 강의의 규모,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매 강의의 40% 정도의 비율로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외국 거주 경험이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수강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팀플을 하거나 open discussion 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9. 마지막으로 전공 선택에 대하여 자유전공학부 후배들에게 조언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 차수지 선배님: 후배님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문계의 경우, 학부생 때의 전공은 자신이 훗날 가질 전문성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좀 더 전문적인 것을 공부하고 싶으면 그 때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생일 때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 전공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 학년 때부터 너무 공부만 몰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점관리는 꾸준히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학점관리 이외에도, 여행이나 독서처럼 다른 활동들도 많이 하세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면 자신의 전공 이외의 분야에도 교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조언은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라, 이 정도면 되겠네요. 후배님들 보람찬 대학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 함새롬 선배님: 전공 선택에 있어서 고민도 많고, 또 확신이 서지 않아 막막한 후배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나의 꿈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관심 분야의 전공을 청강해보기도 하고, 전공 관련 동아리나 세미나, 포럼 등에 참가하여 나의 주된 흥미분야를 파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치는 내 스스로 높인다'라는 말처럼 전공 선택의 책임 역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선택 후 나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후회 없는 선택하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Korea University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I. 개괄

1.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는 1965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신문방송학과가 모체로, 2002년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언론학부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글로벌 미디어 인재 교육을 위해 2010년 확대 출범된 학부입니다. 미디어학부는 미래사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의 핵심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창의적 사고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디어학부의 전공 수업에서는 방송, 영상, 온라인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 저널리즘, 광고, PR 등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폭넓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제들을 학습합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차별화시키는 두 가지 키워드는 '창의성'과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글쓰기 표현, 영상적 표현, 디지털 표현 등 창의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더불어 빅데이터, 머신 러닝, 프로그래밍 등 미디어 관련 영역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학습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이 두 가지 문제 해결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은 다양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들을 수행합니다.

미디어학부는 지금까지 3천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그 중 언론·방송인이 400명을 훌쩍 넘고, 교수도 100명을 넘는 등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어느 분야를 가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선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바로 미디어학부(구 신문방송학과) 94학번 선배입니다. 미디어학부는 선후배 간의 관계가 학과, 학회, 소모임 등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에게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특이사항

- ✓ 2019년, 2020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TOP 100위 이내로 선정
- ✓ 2020년 상해교통대학 글로벌대학랭킹 미디어학 분야에서 국내 1위, 글로벌 57위로 평가 (참고로 성균관대 글로벌 78위, 서울대 85위, 연세대 136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선정한 신규 센터 중 고려대학교는 ICT연구센터(ITRC) 스마트미디어 R&D 연구사업에 선정됨 (지원 규모는 연간 8억 원 수준, 총 60억내외로 예상)
- ✓ 2020년 BK21 4단계 교육연구사업단으로 선정
- ✓ 미디어학부 내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가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SSK)사업 대형단계에 선정
- ✓ QS 세계대학 순위(2019-2020)에서 미디어학부 세계 순위 87위를 기록 (국내 2위)
- ✓ 국내 현직 언론·방송인 출신학부 1위

- ✓ 탁월한 연구 실적: SSCI (국제전문학술지) 미디어분야 최상위권

3. 주 강의동 소개 및 주변 지리

미디어 학부에서는 2011년 완공된 미디어관을 주요 강의동으로 사용합니다. 미디어관은 정경관, 학생회관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해송 법학 도서관, 중앙 광장 열람실과는 거리가 먼 편에 속하지만, 정경관 6층에 열람실이 있고, 정경관 1층에 컴퓨터실이 있기 때문에 학업에 열중하는 데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경대 후문에 공부하기 좋은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답답한 공간을 싫어하는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 신청 시 미디어관 1층 열람실도 이용 가능합니다.

4. 진로진학

- 1)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드라마, 예능, 게임, 영화 등) 생산 및 유통 기업
- 2) 정보 콘텐츠 (뉴스 등) 생산 및 유통 기업
- 3) 포털, 소셜 미디어, 1인 미디어 등
- 4) 광고, PR, 공연 기획 등
- 5) 학계 및 연구 분야

5. 학부 프로그램

1) 학·석사 연계과정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부 입학으로부터 5년만에 학사와 석사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석사 연계과정을 택하는 미디어학부생은 3년 6개월의 학부과정을 마치고 1년 6개월 동안 석사과정을 밟아 5년만에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기존 학사 학위 취득 기간에 1년만 추가하면 보다 전문성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 졸업생들이 사회 진출 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진로 탐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석사 연계과정에 진입하는 학생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석사과정 첫 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면제되며, 그 후에도 대학원 과정의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현장 예비 훈련

미디어학부의 다양한 동아리는 졸업 후 학생들이 진출할 관련업계의 축소판으로, 실습과목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현재 미디어학부에는 사회과학, 저널리즘, 영화, 광고, PR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있으며, 사진이나 음악 혹은 농구, 축구와 같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아리 또한 존재합니다. 더불어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인 KTN에서는 오로지 미디어학부생만 선발하는데 방송 시스템을 경험하거나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해보고 싶은 미디어학부 신입생은 누구나 국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3) 최첨단 교육인프라 미디어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어진 미디어관은 지하2층, 지상12층의 대규모 시설입니다. 미디어관에는 각종 디지털 장비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영상 스튜디오, 독립 영화관(KU 시네마트랩), 멀티미디어 강의실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1~2층에는 창의공간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스 벙커(MCB)·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2019년 초에 리모델링되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설비가 완비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학생들 스스로 제작할 수 있고 뉴미디어, 방송, 저널리즘, 광고, PR 등 미디어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실습 교육이 가능합니다.

4) 역량강화프로그램

훌륭한 언론인을 위한 여러가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사 시험 준비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론사 준비를 위한 자율적 공부모임을 후원하고, 현직 신문기자, 방송기자, PD 등을 통한 실무교육, 사진 및 영상 편집 교육, 온라인 편집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문사, 방송국, 광고 대행사 등 언론/산업현장과 대학교육 연계를 통해 학점 취득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업 연계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신문기사 작성, 방송뉴스 리포팅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 미디어문화제

매년 11월에 열리는 미디어학부의 축제입니다. 학생회와 각 동아리가 모두 참여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시간이자, 미디어학부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 기간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유명 인사의 특강 외에도 공모전 개최, 연세대학교와의 교류, 먹을거리 판매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6) 국제프로그램

- AJ 미디어 루키 프로그램: 2019년 여름방학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AJ Networks(주)가 3년 간 총 4억 5천만원의 기금을 제공해 학생들의 경비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학부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굴지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 현장 (Google, Uber, Netflix, Disney 등)을 탐방하고 KCON등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쇼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참관했습니다.

- 미디어학부·University of Georgia 학·석사 과정: 미디어학부와 University of Georgia(이하 UGA)의 광고·PR학과는 2020학년도부터 조인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본교 학사 학위와 UGA의 석사 학위를 5년 만에 취득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I. 졸업요건

전공필수 (9학점)	미디어학입문, 창의적 미디어기획과 표현,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 입문
전공선택	30학점
영강	외국어(영강, 제2외국어) 강의 5과목 이수 ※ 전공, 교양구분없음
기타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

III.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미디어와 우리

미디어를 사회, 문화, 윤리, 정치, 공익성, 글로벌 공동체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습득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지식을 토대로 사회문화 공동체의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 **주요과목:**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문화, 저널리즘의 이해, 미디어와 정치, 한국의 문화와 미디어, 미디어와 젠더, 디지털미디어와 민주주의프로젝트, 미디어법과 윤리 등

미디어와 나

미디어를 개인의 인지, 태도, 행위 등과 연결 짓고, 다른 개인 및 사회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미디어 활용과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습득된 지식을 토대로 개인 및 사회 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 **주요과목:** 대인커뮤니케이션, 설득커뮤니케이션, 광고의이해, 소비자의 이해, PR의 이해 등

미디어와 산업

글로벌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정책,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창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성, 전략, 경영 능력을 함양합니다.

-> **주요과목:** 미디어경제, 방송론, 영화론, 미디어기술, 미디어경영, 엔터테인먼트사업 등

창의성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글쓰기 표현, 영상적 표현, 디지털 표현 등을 이해하고 새롭게 연결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창의성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 **주요과목:** 창의적 미디어기획과 표현, 영상콘텐츠 기초제작실습, 미디어대본작성, 저널리즘글쓰기, 미디어비평, 영상이론, 포토에세이, 드라마 프로덕션, 탐사기획보도 등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머신 러닝, 프로그래밍 등 미디어 관련 영역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 **주요과목:**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 입문, 애널리틱스 프로그래밍, 미디어빅데이터 분석 등

<전공 필수 과목 소개>

1) 미디어학입문

미디어와 언론의 기본 개념과 역사,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기능, 기초적인 연구방법 등을 학습하는 기본 과목이다.

2) 창의적 미디어기획과 표현

다양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일련의 그룹 프로젝트들을 통해 팀워크 상황에서의 창의적인 기획과 표현 역량을 습득한다.

3)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 입문

지능정보사회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적 접근과 기법을 학습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역사적, 철학적 이해 등 인문학적 관점을 함양한다.

IV. 전공생 선배 인터뷰

1. 재학생 선배 인터뷰

(1) 19학번 자유전공학부 미디어학부 이현지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미디어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1 전공을 선택할 때 제가 할 수 있을 지를 가장 많이 생각했어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우에는 경제과목이 그랬어요. 학창시절에

수학문제를 풀면 사고를 응용하는 과정에서 벽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경제원론을 수강할 때도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 다음으로 흥미를 고려했어요. 클루와 에타의 각 학과 및 교과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과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미디어학부생이 되었네요. :)

2. 미디어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미디어학부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미디어학부에는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으로 *미디어학입문*,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입문*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요. 각각 이슈를 접하는 틀을 배우는 강의, 미디어와 매체에 대해 배우는 강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강의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전공 선택 과목들은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전공필수인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 에서 시각적인 미디어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면 시각 미디어의 구체화된 형체인 영화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영상이론* 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다른 전공과 비교하였을 때 완전히 특이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미디어 교과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두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번째는 팀플이 많다는 점이에요. 2 학년 때부터 들었던 강의들 중 한 강의만 팀플이 없었어요. 두번째는 실습 수업이 있다는 점이에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콘텐츠를 다루는 등 실습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 과목을 선호 하지 않은 분들에게 흥미로운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별 질문 3,4 번 문항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3. 미디어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정리하는 데 익숙한 분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문제를 선정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프레임이 적용되는 강의가 많기 때문이에요. 전공 필수 수업들을 예로

들자면 *미디어학입문*에서는 연구 문제와 가설, 그리고 연구 방안을 설정하는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에서는 기존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기획하는 것이 중간, 기말 프로젝트였어요. 마지막으로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입문*에서는 공공을 위한 이슈를 선정해서 데이터들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했어요. 다시 말해 전공필수 과목 모두 문제 선정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이 적용되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흔히들 미디어나 언론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피디, 기자 등의 진로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OO 과를 나왔으니 이 과와 관련된 △△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거야' 처럼 선택지들을 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 로스쿨, 공기업 등 전공 내용과 접점이 비교적 작은 진로를 생각하는 미디어학부생들도 있습니다.

5. 미디어학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학점을 적게 주는 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량 또한 많지 않아요. 암기가 필요하더라도 법학 교과 보다는 그 양이 적은 것 같아요. 영어 자료를 사전에 읽고 가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공부가 필요 없는 강의도 있었어요. 대신 창의력이 너무 없다면 좋은 학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6. 미디어학부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헬강에 조금 가까운 강의, 재미있었던 강의, 그리고 (제 기준) 꿀강으로 각각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입문*, *영상이론*, *설득커뮤니케이션* 이 있어요.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입문 은 전공필수가 아니었다면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별 과제를 제출하는 빈도가 다른 강의들 보다 높았고 중간, 기말 과제가 어려웠어요. 마음에 드는 주제를 선정해도 데이터 목록의 양이 부족하거나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첫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해야 했거든요. 학점을 잘 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교수님께서서는 수강생들의 이해를 위해 최대한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확실히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취감이 높은 편이었어요.

영상이론 에서는 영화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배우는데 조금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고 리딩 양도 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설명을 쉽게 해주세요. 또 퀴즈가 있어서 강의 내용을 꾸준히 복습해야 했기 때문에 영강이지만 수업을 따라가는 데 지장은 없어요. 개념들과 관련된 영화 속 장면들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시각적인 재미도 있었어요. 다만 클루 평을 읽을 때, OT 를 들을 때, 그리고 성적표를 확인할 때, 이렇게 여러 차례 거쳐서 교수님께서 학점에 후한 분은 아니라는 걸 확인 할 수 있을 거예요.

설득커뮤니케이션 은 여러가지 설득 전략과 이론을 배워요. 강의 내용도 어렵지 않았고 공부량도 많지 않은데다 교수님께서 시험 범위를 계속 줄여 주셨어요. 시험 문제 난이도도 높지 않았고 레포트와 발표과제에도 점수를 후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친절하셔서 정규 학기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학우님들이 제법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7. 미디어학부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팀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팀플을 하면서 불편한 일은 없었지만 1 학년 때는 최대한 팀플이 없는 강의를 신청했어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처음 보는 분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제 실수로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지금은 괜찮아요.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만큼 배울 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번 학기에 미디어 팀플을 하다가 팀원이 애프터 이펙트 등을 활용해서 만든 시각 자료를 보고 저도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방학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아요.

8. 1 학년때 미디어학부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미디어학부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리 들은 과목은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어떤 과목을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점부터 찾을 것 같았거든요. 만약 미디어학부가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미디어학입문* 을 추천 드려요. 이름만 본다면 경제원론, 행정학원론처럼 전공에서 배우는 전반적인 내용의 요약본이 아닐까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대신 앞으로 미디어학부 전공들을 접할 때 필요한 사고의 틀을 배울 수 있어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 계절학기에 많이 열리는 수업이라 첫 시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미디어학부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미디어학부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과라면 전공 불문 로스쿨 진학과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전에 리트 점수가 더 중요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미디어학부를 포함한 여러 과에서 로스쿨 진학을 고려하는 분들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학과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지만 로스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범죄와 사회* 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어요. 로스쿨과 법조인, 그리고 법 이론적인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 해주시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0.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별 다른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개별질문>

1. 미디어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공통질문 7 번의 답변 내용과 유사해서 생략했습니다)

2. 미디어학부에 가려면 포토샵, 영상편집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어야 하나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아도 졸업 요건을 맞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면 해당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1 학기에 수강한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 에서 플랫폼을 기획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조들이 피피티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한 팀을 제외하고는 플랫폼 주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영상으로 내용을 제시해서 발표 당시에도 재미있게 봤었고 다른 학우분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퀄리티도 좋았지만 영상이라는 형식이 피피티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렇듯 영상편집이나 포토샵 등으로 시각 자료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차별화하는 효과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은 필수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3. 미디어학부에서는 주로 피디, 기자, 아나운서와 관련된 것을 배우나요? 그리고 아나운서, 피디, 기자 쪽 진로를 희망하는 학우들이 많나요? / 4.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의 기회도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3 번, 4 번 문항은 같이 묶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 번 문항 두 번째 질문에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미디어학부 강의들은 이론을 배우거나 분석을 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글을 작성하는 방법 등을 배워요. 때문에 아나운서와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외 언론, 미디어 계열의 직업을 위한 수업들이 있는데 실습 수업 위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피디, 감독처럼 영상매체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습 강의들로는 *미디어대본 작성, 드라마프로덕션, 다큐멘터리 프로덕션, 미디어제작 워크샵* 등이 있어요. 단편 영화 시나리오 작성,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 영상 기획, 연출 및 촬영을 배우는 강의들이에요.

기자와 관련된 수업으로는 *저널리즘 글쓰기, 탐사기획보도, 포토에세이* 등이 있어요. 이 강의들을 통해 인터뷰 작성, 기사 분석, 취재 그리고 기사 작성할 수 있어요. 혹은 주제에 맞는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그 외 *pr 캠페인, 광고캠페인* 처럼 현직 클라이언트, 기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략을 기획하는 강의들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애널리틱스 프로그래밍,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입문, 전략커뮤니케이션 리서치* 와 같은 강의들이 있는데 각각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법,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법, 그리고 SPSS 를 활용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법을 배워요.

실습 수업들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결과물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바쁜 학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창의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면 비교적 힘들 수도 있어요.

5.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 6.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한가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1 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공기업을 생각했어요. 사회봉사단 프로그램 두개에 일반 학우로 참여한 것 외에는 별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데 초점을 두었어요. 졸업하고 최대한 빨리 취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가 과연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더 탐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유익한 대답을 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7. 미디어학부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디어학부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것은 잘하는 것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미디어학부를 위한 이야기는 해 드리기엔 제가 많이 부족해요. 대신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입학 당시와 달리 목표가 바뀌거나 사라지면서 나중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변 분들과 대화하는 걸 추천 드려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즉답을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목표들을 차근차근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일상에서 의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취미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어느 순간 무관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취미가 하나 사라지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 사라지게 되고 저처럼 취미가 많지 않은 분들은 더 답답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안 좋은 방법으로 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심분야를 찾아보거나 큰 흥미가 없더라도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면서 취미를 찾아본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2) 19학번 자유전공학부 미디어학부 임현우 선배

<공통질문>

1. 선배님께서 미디어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 중에서 고민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진학 희망에 대한 미약한 기억과 행정고시로의 진입 고민 등을 바탕으로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 사이에서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거듭한 결과 로스쿨로의 진학을 확실한 목표로 삼았고, 로스쿨 진학을 기준으로 학과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탐색한 결과 어느 수준 정도의 학점,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영어 점수, 그리고 리트 점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성적 평가로 작용하는 개인의 스토리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저의 성향과 더불어 관심사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나가기 용이한 학과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로 미디어학을 선택했습니다. 적당한 시험과 적당한 팀플, 그리고 적당한 과제로 구성된 미디어학이기에 상황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독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공이라는 장점, 그리고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는 일반적인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미디어학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학부에 진입해 전공을 수강해나간 결과, 예상과 다르지 않았고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며 로스쿨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중입니다.

2. 미디어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미디어학부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미디어학부 전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영상 제작,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그리고 데이터 분석으로 구성됩니다. 영상제작이라는 대분류는 영화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단순한 영상 제작이라는 소분류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분류는 개인적 차원의 대인커뮤니케이션, 기업적 차원의 PR, 설득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소분류로, 저널리즘이라는 대분류는 기사 작성, 기자 실습이라는 소분류로, 데이터분석이라는 대분류는 SPSS 를 다루는 데이터 수업, 빅데이터와 미디어를 연계하는 수업이라는 소분류로 나뉩니다. 이외에도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해 배우는 수업, 미디어 정책과 경제에 관해 배우는 수업, 영화 칼럼 혹은 영상이론에 대해 배우는 수업, 사진 촬영에 대해 배우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1 학년은 이러한 수업을, 2 학년은 이러한 수업을'처럼, 학년별로 정해진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대분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수업을 선택해 수강해나갈 수 있습니다. 미디어학부만의 전공적 특성은 선수과목을 요하는 수업이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전공을 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수업을 설정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본 학부만의 전공적 특성입니다. 선수과목을 요한다는 것이 얇은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도 이야기될 수 있지만, 미디어학의 특성상 이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3. 미디어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진부하고 따분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디어학부 수업 중에도 여타 전공들과 마찬가지로 암기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동안 그것들을 현출해내는 류의 수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수업들은 정해진 대로의 답을 도출해내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창작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학기에 들었던 미디어비평 수업은 영화 비평 칼럼을 작성해내는 것을 요구했고, 지지난학기에 들었던 저널리즘글쓰기는 간단한 기사를 작성해내는 것을 요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제작실습, 미디어제작워크샵 등의 수업들은 여러 주제를 바탕으로 영상으로서 개인의 창작을 요합니다. PR 사례연구, PR 캠페인 등의 수업들은 토론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책에 대한 탐구를 요하며, 이 과정에서도 역시 개인의 창작이 개입됩니다. 이외에도 포토에세이는 사진을 촬영해내는 창의성을 요하며, 미디어대본작성, 저널리즘의 이해 등도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작을 요합니다. 이처럼 미디어 수업의 상당수에서 개인의 창작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그렇기에 '창의성'이라는 덕목은 미디어학을 전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감독과 같은 수준의 창의성을 요하진 않습니다. 이동진 영화비평가 수준의 창의성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창의성은 일상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창의성이며,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물체들을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으로 창작해내는 그러한 창의성입니다. 자신이 독창적이다,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이하다(?), entp 같다(?)(저도 entp 입니다)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면, 미디어학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2 번에서 살펴봤듯, 미디어 전공은 크게 네 가지 분류로 구분됩니다. 영상 제작,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그리고 데이터분석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세부 분류로서 영화 제작, 미디어 산업, 미디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들로 나뉩니다. 이러한

전공적 특성은 다양한 진로로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언론인으로서 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PD로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계학과 연계해 데이터분석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탐구를 바탕으로 기업 홍보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시를 통한 공직으로의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디어학 특성상 개인의 자율성이 증대되기에, 일반적인 진로보다는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진로들은 위처럼 크게 나뉘어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 미디어학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업만 충실히 이행했으면 B+ 이상은 넉넉히 받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0 와 A+은 타학과와 유사하게 '진리의 교바교(교수님 by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점을 잘 주시는 교수님들은 A+이라는 학점을 정말 잘 주시는 편이고, 학점에 인색하신 교수님들은 B+을 정말 잘 뿌리시는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을 하실 때 항상 누구보다 빠르게 마감되는 수업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수업들은 수업만 충실히 이수한다면 A+은 따놓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수업들은 전체 수업의 약 3-40% 정도 존재하고, 이와는 반대로 학점에 인색하신 교수님들의 수업 역시 3-40%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수업들은 A0 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량은 여러분이 들으실 민법(들으셨나요?)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여기서의 공부량은 시험을 위한 공부량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량은 민법 공부량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상당한 과제들과 리딩자료들을 제공해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시기에 시험기간 이외 공부량은 일반 민법 무크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것의 두 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딩자료를

토대로 매번 퀴즈를 진행하는 수업도 있고, 회의만 한 학기동안 20 번 정도 진행하는 팀플 수업도 있기에 시험기간 이외 공부량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미디어학부 수업을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시험기간은 편한데, 일반 학기 중에는 힘들다!입니다.

6. 미디어학부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명강이자 꿀강으로 김학순 교수님의 저널리즘 글쓰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사 작성하는 법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상세한 수업 자료와 함께 열정있는 교수님의 과제 피드백이 이 수업을 명강으로 꼽는 데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수업자료는 너무나 상세해 추후 언론사 채용에 지원할 때 본 자료를 교수님에게 따로 요청드려 받아갔다는 분이 계실 정도입니다. 또한 본 수업은 약 13 차례 정도의 과제로 구성돼있는데, 각 과제마다 교수님의 칭찬과 피드백이 녹아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교수님의 칭찬은 과제를 열심히 할 동력으로 작용해 어느새 열심히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서로 직접 방문해 취재하는 기말과제를 진행하며 견습기자로서 활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자로서의 진로를 더욱 명확하고 확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본 수업의 장점과 더불어 친절한 학점 역시 본 수업을 명강과 꿀강으로 꼽은 이유입니다. 아마 상당수의 학생이 A+을 받아갔을 것인데,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과제에 열심히 참여하기만 한다면 좋은 성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김학순 교수님의 저널리즘글쓰기 추천합니다.

윤영민 교수님의 PR 사례연구도 명강으로서 추천합니다. 실제로 토론을 통해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줌으로 진행되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리딩자료를 읽으며 사고를 구체화하고, 토론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며 한 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대응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구체화하고 공유하는 경험은 분명히 개인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기업의 전략적 대응에 대해 탐구하며, 개인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인재상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역시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기에, 본 수업에서의 토론을 통해 개인의 성찰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수업답다고 생각한 강의이며, '나 조금은 성장했을지도?'를 생각하게 한 강의입니다. 미디어학에 진입하신다면 본 수업을 수강하시며 개인 성찰까지 이뤄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 명강으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엄청난 꿀강으로 정창영 교수님의 영상콘텐츠제작실습, 미디어제작워크샵이 있습니다. 왜 꿀강인지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미디어학에 진입하셔서 본 수업 수강신청을 성공하신다면...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달달함을...!

7. 미디어학부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입하기 전에는 미디어학부 전공 중 영상 관련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프리미어 프로를 장착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상 관련 수업은 듣지 말자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영상 관련 수업을 듣다보니 이는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방송국에서 활동하며 영상편집 기술을 장착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초짜였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대신 키네마스터, VLLO 를 활용해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미디어학부 영상 관련 수업에서 모두가 프리미어 프로를 장착하리라는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들이 있다는 것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원래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미디어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적게 하고,

영상 혹은 창작 관련 이야기들만 해야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입해 수업을 들어가며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중커뮤니케이션, 설득을 위해 필요한 설득커뮤니케이션 등을 배우며 토론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수업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수업으로 전공이 구성돼있다는 것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물론 데이터 관련 수업을 전공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쉬웠던 점 혹은 두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입문이라는 수업은 미디어학부의 전공필수 수업입니다. 본 수업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물을 요하며 상당히 많은 팀플과 과제를 요합니다. 평상시 쓰지 않았던 SPSS 등을 쓰며 생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학점 부여 역시 매우 깐깐하며, 투입 대비 만족이 적은 수업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수업을 전공필수로 들어야한다는 점이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로의 탐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미디어학의 큰 장점입니다.

8. 1 학년때 미디어학부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으신 과목이 있나요?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미디어학부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래 미디어학부가 아닌 정치외교학과나 행정학과쪽으로의 진입을 생각하고 있어 따로 들은 수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디어학부를 생각하신다면, 미디어학부 전공필수 수업 중 하나인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 혹은 저널리즘글쓰기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은 미디어 진입을 결정하셨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인데, 본 수업에서 다루는 방식들이 미디어학부를 통해 3 년간 들어갈 수업을 압축해놓은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본 수업은 두 번의 팀플 프로젝트, 약 다섯 번의 러닝노트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과제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해당 과제들과 프로젝트는 여타 전공들의 팀플과 과제와 달리 개인의 창의성을 더욱 요합니다. 앞으로의 미디어학부 수업 중 상당수가

개인의 창의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니 진입을 생각하신다면, 전공필수도 들으며 미디어 압축판을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널리즘글쓰기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널리즘에 대해 배우는데, 열심히 써낸 개인의 창작물에 교수님의 친절한 피드백이 매번 더해져 미디어학부 수업에 애정을 갖게 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기자로의 진로를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본 수업에서 요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이수하시고, 교수님이 제공해주시는 수많은 자료들을 정독하고 개인 파일로서 소장한다면, 어느새 성장해있는 글쓰기 능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학점도 상당히 친절하게 부여해주시기에 미디어학부 수업에 대한 애정을 높이며, 글쓰기의 기초적 소양을 배양하고, 좋은 학점까지 얻을 수 있는 썩먹고 알먹고 닭까지 먹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수업을 들어나가시며 자신이 미디어학부와 맞는지 잘 체크하시고, 창작에의 가능성을 탐구하시어 학과 탐색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미디어학부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지, 미디어학부에서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여쭙어봐도 될까요?

미디어학과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학은 현상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법학은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논리체계를 사례들에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문적 목표가 상이하기에 미디어학과 법학 자체는 연관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디어학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이 로스쿨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작게 탐구하고 있는 검정고시 플랫폼 제작이 있는데, 이는 미디어학 전공필수 수업을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학을 통해 시작한 탐구와 법조인으로서 지향하는 목표 사이에 연관성을 만들며 정성평가의 한 측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원하는 것은 다양한 인재상이고, 이러한 다양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역시도 앞에서의 사례처럼 미디어학을 통해 관심 분야를 찾았고 이를 구체화해나가며 로스쿨로의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학문 자체로서 미디어학과 법학은 연계가 없지만, 로스쿨 진학을 위한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한 단계로서 미디어학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학부에서 로스쿨로 진학하는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어서 차마 아는 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미디어학으로 진입한 친구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의 친구들이 로스쿨 진학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자신있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학번(19)을 기준으로 약 10 명 정도의 학생이 미디어학으로 진입했는데, 이 중 적어도 4 명 정도의 학생은 로스쿨로의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 학번의 사례를 전학년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학부에서 로스쿨을 희망하는 학생은 적지 않다, 어느 정도 있다, 그 숫자는 많으면 절반, 적으면 3 분의 1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크게 원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차원에서 구성된 학과별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창구를 통해 공유되는 이야기는 0 에 수렴합니다. 공적 차원에서 창구 자체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연결 및 상호교류는 요원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적 차원에서의 교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에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단톡방에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신다면 모든 선배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거예요!!!

<개별질문>

1. 미디어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평가 기준의 모호성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미디어학의 특성으로 독창성과 창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독창성을 평가한다면 그 기준은 매우 모호할 것입니다. 미술 작품을 평가할 때도 각자의 견해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관점이 있는 반면 우월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미디어학부 수업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물을 미술 작품으로 생각한다면, 평가를 내려야만 하기에 각 결과물에 따른 우월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임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차마... 도달할 수 없는 머나먼 곳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마다 저마다의 채점 기준이 있고, 그러한 기준은 주관적이라라는 것이 미디어학을 전공하며 느낀 어려운 점입니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학점은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학점을 확실히 기대할 수 없다면, 이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저역시 평가 기준의 모호함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중입니다.

이외에 어려운 점으로 예상하는 것은 팀플 구성에서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독강으로 팀플이 있는 수업을 듣게 된다면 팀플을 구성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기에 교수님께서 팀플 구성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팀원을 구성해주시지 않는다고 하셔도, 에브리타임이나 고파스에서 팀원을 찾으시면 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2. 미디어학부에 가려면 포토샵, 영상편집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어야하나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잘 다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상과 관련하지 않은 수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넓은 자유도에서 영상 관련 전공이 아닌 다른 수업들을 선택하실 수 있기에 영상 관련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안들으면 되니까요!! 혹여나 영상 관련한 수업을 들으실 때도, 고퀄리티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팀플로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러한 경우 역할이 세분화됩니다. 영상 편집을 맡는 사람, 영상 콘티 짜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 등 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들이 다릅니다. 영상 편집 관련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다른 역할들을 맡아 열심히 하신다면 팀원의 충실한 구성원으로서 수업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관련 수업을 들으실 때, 기초 수업들을 신청해 들으신다면, 담당 교수님들이 요구하시는 영상 퀄리티들이 높은 편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정도면 괜찮습니다. 일례로 정창영 교수님 수업에서는 1 분, 3 분, 5 분 영상을 요구하시는데,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키네마스터, VLLO 처럼 쉽게 조작가능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교수님도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제출에 의의를 두시기에 기초적인 영상 수업을 들으신다면 부담감은 줄어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 열정! 열정!입니다.

3. 미디어학부에서는 주로 피디, 기자, 아나운서와 관련된 것을 배우나요? 그리고 아나운서, 피디, 기자 쪽 진로를 희망하는 학우들이 많나요?

피디는 영상, 기자와 아나운서는 저널리즘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앗, 아나운서 관련 수업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기자와 관련한 수업은 있습니다. 미디어학부에서는 주로 저 분야의 수업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영화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배우기도 하며, 데이터에 대해 배우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는 만큼 '찍먹'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도있게 파고들어 심화적인 탐색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찍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전공수업을 듣는 만큼,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전부가 해당 진로를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PD, 기자, 아나운서 이외에도 미디어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기도 하고(예를 들어 왓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심도깊은 탐구를 바탕으로 대변인으로서의 진로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의 기회도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미디어학 수업의 분류에 따라 각 분류들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영상 관련해서는 영상이론, 방송론 등 이론을 배우는 수업과 영상콘텐츠제작실습, 미디어제작워크샵 등 실습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저널리즘 분야 역시 저널리즘의 이해처럼 이론 중심 수업도 있고, 저널리즘글쓰기처럼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또한 박재영 교수님의 탐사기획보도처럼 언론사 투고를 목표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전공도 있습니다. 영화론처럼 영화와 관련한 이론들을 배우는 수업들이 있고, 미디어비평처럼 영화 비평 칼럼을 실제로 작성해나가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분류 체계에서 이론과 실습 두 분류로 세부적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이론을 먼저 듣고 싶으면 이론을, 실습을 먼저 하고 싶다면 실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론은 이론대로, 실습은 실습대로 작용하는 면이 많기에 두 분야의 선수관계는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우리 학교 미디어학부에 특별히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주로 어떤 분야의 미디어학 수업이 많이 열리는지, 어느 쪽을 주전공으로 하신 교수님이 많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영상,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 전공 수업이 많이 열리는 순서를 살펴보자면 영상(여기서는 영화도 포함하겠습니다!) > 저널리즘 > 커뮤니케이션 > 데이터 순인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누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위와 같은 순서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가지 수업을 모두 들어본 결과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대응 전략 매뉴얼을 살펴보고 실습하는 과정은 여타 전공을 통해 접하기엔 쉽지 않은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학과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2021-2 학기를 기준으로 영상은 11 개, 저널리즘은 4 개 혹은 6 개, 커뮤니케이션은 5 개, 데이터는 2 개 정도의 수업이 열립니다. 이외에도 미디어 산업, 정책, 젠더 등에 대해 수업이 진행됩니다. 전반적인 미디어학부의 전공은 이처럼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막연하게 공익변호사를 희망했었지만, 미디어 전공을 통해 세부적인 방향을 잡은 경우입니다. 2 학년 때 미디어학부에 진입하고 나서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을 수강하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검정고시 무료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었습니다. 관련한 봉사활동 경험과 함께 본 전공을 통해 쌓은 여러 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현재의 1 차적인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검정고시 교육봉사 동아리의 수업 영상들을 정리해 베타 타입의 검정고시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미디어학부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수업도 짚먹하며 데이터와 미디어, 그리고 사람간 관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그리고 있는 되고자 하는 법조인상은 리걸테크 분야에 뛰어들어 법과 데이터를 결합해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학부 이전에는 막연하게 공익변호사를 꿈꿨지만 본 전공을 통해 세부적인 공익변호사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을 고민하신다면 미디어학에 진입해 여러 경험들을 쌓아나가시며 진로에 대한 세부적인 탐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는 너무 자기소개서 같은 발언이었고요, 미디어학과 진로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때, 공모전 준비 가능성의 증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학을 전공하며 영상을 다루는 기술, 피피티를 다루는 기술, 글을 작성하는 기술(여기서는 처참합니다..)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어디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 공모전들입니다. 공모전들에서 요구하는 것을 본다면 대부분 영상 혹은 작문입니다. 이들은 미디어학에서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미디어학을 통해 해당 기술들을 익히면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쾅먹고 알먹고! 다양한 공모전들을 경험하다보면, 새로운 분야로의 시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3 살인 현재의 저와 22 살인 과거의 제가 갖는 시각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24 살과 23 살도 다르겠죠?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 중 하나로서 공모전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역시도 위 자소서와 같은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 학과 수업을 통해 진로에 대한 세부적인 탐색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공모전에 나가 탐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미디어학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로스쿨 진학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학점, 일정 이상의 공인영어점수, 그리고 리트 점수가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의 학점을 확보하기 위해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 괜찮은 학점을 마련해야겠지요! 그리고 공인영어점수도 800-900 점 사이를 제일 많이 요구합니다. 리트 점수는 학교마다 상이하기에, 실제적인 배치표를 통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대변되는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법조인상이 되고 싶은지, 왜

그것이 법조인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등에 대해 어필하여 좋은 인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리트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사고력 증진이 많이 이야기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독서, 다양한 분야 탐구 등이 제시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정한 정량점수와 스토리로 대변되는 정성점수가 필요합니다.

8. 미디어학부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와 직업이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경계열에 진학한다면 사기업에 취직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학과에 진학해도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해 CPA 를 도전할 수도 있고, 미디어학부에 진학해도 행정고시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과에 진학해도 로스쿨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거쳤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학과와 직업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배경만을 마련해줄 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과와 행정고시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면, 경제학 전공자들 역시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새롭게 학원을 다니고 인강 커리큘럼을 따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 전공자들이 얻는 이점은 경제학 수업에서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정치학 전공자들 역시 행정고시 과목 중 정치학 과목에서의 작은 이점만이 있을 뿐입니다. 행정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과와 CPA 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면, 경영학과 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토대와 배경은 마련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CPA 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커리큘럼을 따라갑니다. 결국 직업 준비에 있어 전공에서의 이점은 토대와 배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준비생 입장에서는 작은 부분은 아니지만, 학과 진입을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전환에 있어 논의의 토대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전공은 토대와 배경을 마련해줄 뿐입니다. 제가 미디어학을 선택한 것도

그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경험해본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공을 선택하실 때 직업과의 연관성도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성향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개방적인 성향인가, 학자 타입의 성향인가, 활동가 타입의 성향인가 등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해당 성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공들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스스로 내린 저에 대한 결론은 갇혀있는 것 싫어하고, 따분한 것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성향과 가장 적합한 학과로 미디어학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와서 경험해본 결과 성향과 잘 맞아 만족하는 학과 생활을 보내는 중입니다. 전공은 배경과 토대를 마련해줄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한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 정말 많으시겠지만, 고민 자체를 즐기시구요!!! 고민 많이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머리 빠질 수도 있어요!!!!!!!!! 파이팅입니다 모두! 미디어 선택하시는 분들도 파이팅!!!

(3) 19학번 자유전공학부 미디어학부 김정현 선배

<공통질문>

1. 미디어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미디어학부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미디어학부에서는 전반적인 미디어에 대해 공부합니다. 세부 분야를 나누자면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영상콘텐츠제작, 빅데이터 정도가 되겠네요. 미디어학은 학제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여러 학문과 결합하곤 합니다. 미디어경영, 미디어경제, 미디어정책, 미디어법과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학부로 전공진입 하게되면 '미디어학입문,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입문, 창의적미디어기

획과표현' 세 가지의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전공 선택 과목에서 10개를 골라 들어야 합니다. 보통 전공 진입한 학년에 전필을 다 듣고, 이후에 전선을 듣는게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미디어학부로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은 1학년때 전공필수과목을 수강하고, 2학년부터 전공선택과목을 수강합니다.)

미디어학부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전공(경영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에 비해 실습 수업이 많은 편입니다. 성적 평가도 시험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세이 제출, 팀 프로젝트, 기사 작성, 보고서 제출 등)

2. 미디어학부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미디어학의 분야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주로 들을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영상콘텐츠 관련 수업을 희망하고 미디어학부로 전공진입하려는 학생이라면, 편집툴을 다루는 능력이,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소통 능력이 도움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미디어학은 사람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한다면, 보다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밑에 질문에 답하다가 생각난 건데 말하기나 쓰기를 좋아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수업만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 과목에 비해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많아요.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미디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한 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쪽에 관심이 많다면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수도 있고, 콘텐츠 제작으로 나가는 학우분들도 있습니다. 기자나 PD등 언론, 방송계에서 활동하시는

학우분들도 많구요.

4. 미디어학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과 공부량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과목과 마찬가지로 교수님 별로 성적 평가 방식이 다르고, 개인별로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 노력한 만큼 원하는 학점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해요!!

5. 미디어학부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명강과 꿀강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꿀강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수업은 전공필수과목인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상당수가 A나 A+를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명강이라고 느낀 수업은 민영 교수님의 '디지털미디어와 민주주의프로젝트'수업입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디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기술적 혁신 외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들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헬강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미디어학부에서 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수업을 꼽자면 민영 교수님 수업이었습니다^^.. '아 이게 대학수업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엄청난 일들을 해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자세한 건 KLUE 참조!!

6. 미디어학부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공 수업 두 개를 먼저 듣고나서 전공진입 했기 때문에 크게 달랐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만족한 이유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전공진입 했고, 들어와서도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미디어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일 재밌어서 선택했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재밌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1학년치고 타과 전공을 꽤 많이 들은 편인데, 다른 학과 수업은 재미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유전공학부 1학년은 전공 선택을 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전공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여러분도 가능한 많은 경험(수업 수강, 해당 전공생과의 대화 등)을 하시고 전공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2. 미디어학부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음... 미리 고민을 많이 했고, 전공을 들어보고 결정해서 그런지 저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학과 특성상 과제나 팀플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저번 학기에는 십만자도 넘게 쓴 것 같습니다. 쓰는걸 싫어하는 편이 아니라 다행인 것 같아요.

3. 미디어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으음... 아직까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제작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해당 과목을 안들어봤는데, 몇몇 친구들이 미리 편집툴을 공부했으면 편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4. 실제로 무엇을 배우나요? 피디, 기자, 아나운서 관련된 것만 배우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피디, 기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굳이 미디어학부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직할 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충분히 드린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4-1. 아나운서, 피디, 기자 쪽을 선택하는 학우들이 많나요?

타 학과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하지만 미디어학부 대다수가 언론/방송계를 지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5.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기회도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실습 수업도 많은 편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수업은 거의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저널리즘이나 커뮤니케이션 수업 중에서도 실습이 추가되는 수업이 꽤 있는 편입니다.

6. 대외활동 등에서 전공을 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미디어학부에서 배운 내용이 얼마나 도움되는 것 같으신가요?

으음.. 딱히 없네요? 과제로 글을 많이 쓰다보니 글쓰는게 조금 편해진 것 같긴 합니다. 잘 쓰지는 모르겠네요! ㅋㅋ

7.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가장 재밌었기 때문에, 만약 미디어 전공을 살려 취직하게 된다면 홍보팀이나 소통팀 쪽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 진학 생각도 있구요 :)

8.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글쎄요, 아직 2학년이라 진로를 위한 구체적인 스펙이나 준비를 생각해두진 않았습시다. 이 부분은 고파스에서 해결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9. 미디어학부 자체의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하.. 제가 학부 차원의 목표를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아는게 없다고 답변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저 학부생일 뿐이고, 제가 수강하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0. 미디어학부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환상을 가지고 오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학부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정말 다양해요. 관심있는 분야의 수업을 미리 들어보시고 결정하는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셨다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고 전공 진입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4) 19학번 자유전공학부 미디어학부 김유신 선배

1. 미디어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미디어학부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미디어학부는 전체적인 미디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미디어인 방송이나 신문부터, 최근 새로 등장한 미디어 매체인 OTT, SNS,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역까지 모두 배워 볼 수 있는 학문입니다. 다른 학과들과는 다르게 미디어학부의 경우 특별한 정답이 나와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적은 편입니다. 수업 대부분이 학생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어떠한 문제나 혹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 교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미디어학부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미디어학부를 전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자질은 활동성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학부의 특성상 무언가를 직접 취재하거나,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해 보아야 하거나 혹은, 강의 밖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수업시간에 해결해 보는 등 스스로 주도적인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편입니다.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미디어 학부의 경우는 진로가 정말 다양한 편입니다. 최근 떠오르는 뉴스 플랫폼 '뉴닉'의 CEO로서 활동 중이신 선배님, 방송국 PD나 기자, 유튜브 관련 플랫폼 등 많은 분야로 진출하시는 편입니다.

4. 미디어학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은 정말 잘 주는 편입니다. 또한, 공부량도 정말 적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스스로 주도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미디어의 강의들이 대부분 중간/기말 정기고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나 수시로 제출해야 하는 과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저널리즘 글쓰기의 경우 매주 A4

분량의 글을 매주 제출하는 대신 정기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창의적 미디어 기획과 표현 강의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조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고사를 대신하는 등, 학업의 대한 부담은 정말 적은 편입니다.

5. 미디어학부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명강과 꿀강은 앞서 언급 드린 김학순 교수님의 저널리즘 글쓰기 강의를 추천합니다. 대학 강의를 들으며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 글쓰기의 틀을 정말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깔끔한 문장을 작성하는 법과 글쓰기의 틀을 잡는 법 등 많은 부분에서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자 출신 교수님이 매주 본인의 글을 첨삭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점도 잘 주십니다.....♥ 헬강은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미디어학부의 헬강은 대부분 엄청나게 배울 것이 많은 명강이라는 평이 많으므로 하나쯤은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6. 미디어학부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처음 미디어를 진입하기 전에는 '미디어학부 하면 영상편집과 기사가 전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학부에 진입하고 나서 최근 다양해지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가망성이 큰 학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별질문>

1. 선배님께서 미디어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처음에는 미디어학부가 나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진입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

니다. 많이 간다는 경영, 경제, 행정, 정외 전부 전 큰 관심이 없어서 미디어를 진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다 보니 학점을 잘 준다는 것도 꽤 큰 메리트로 다가왔었고요. 또한, 제가 평소 공부해 보고 싶던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주저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미디어학부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족한 점은 솔직히 공부량 대비 정말 괜찮은 학점....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평소 과제 대부분이 미디어답게 '분량/형식 자유~ 마음껏 너의 꿈을 펼쳐봐~'라는 느낌이어서 처음에 적응하는 부분이 좀 힘들어서 많은 시간을 뺏겼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3. 미디어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앞서 언급한 팀플이나 수시과제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무엇을 배우나요? 피디, 기자, 아나운서 관련된 것만 배우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디어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미디어라는 것이 사실 학문보다는 생활에 훨씬 가깝기도 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형적인 틀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대부분도 ~부분에서 미디어는 어떨까? 어떤 미디어가 생겨날 수 있을까? 등의 실용적 문제 해결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연구하고픈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해보거나, 교수님들이 강의에서 모집하시는 연구원으로 지원하시면 지원을 받으며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4-1. 아나운서, 피디, 기자 쪽을 선택하는 학우들이 많나요?

셋을 합쳐서 약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정형화된 직업으로의 진출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5.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기회도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미디어학과하면 실습이죠...! 영상콘텐츠 기획 실습 등 많은 실습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고 동아리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정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실습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말 실습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학부의 과목이 정말 다양해서 취향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대외활동 등에서 전공을 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미디어학부에서 배운 내용이 얼마나 도움되는 것 같으신가요?

아직 대외활동을 진행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7.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로스쿨을 지망하고 있었는데, 미디어학부에 진학하면서 광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8. 미디어학부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전에서 미디어가 행복 미디어로 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틀에 박힌 공부보다 자유로움을 원하시는 분, 자신의 창의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직접 펼쳐보고 싶은 분이라면 미디어학부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열정적하시고 개방적이신 교수님들이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거예요 ㅎㅎ!

(5) 18학번 자유전공학부 미디어학부 한현빈 선배

<공통 질문>

1. 미디어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 알려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미디어학부 전공과목만의 특이점이 있을까요?

저희 학부는 9학점의 전공 필수와 30학점의 전공 선택으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공 필수는 미디어학입문,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입문이 있어요. 전공 분류는 5가지 핵심교육 역량에 따라 나뉘는데 미디어와 우리, 미디어와 나, 미디어와 산업, 창의성,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 5가지 영역입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은 미디어학부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2. 미디어학부를 전공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저도 1년 밖에 하지 않아서 모두가 공감, 혹은 이해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하자면... 열정? 오글거리긴 하는데 미디어학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인 것 같네요. 모든 영역에서 열정이라는 요인은 필수적이지만 미디어학부에서 더 특별하고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디어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이 새롭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각종 통계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그러한 새로움에 대한 '열정', 발로 뛰고 현장에서 자료를 얻어야 하는 과제 또한 많기에 어려움을 즐기는 '열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것만 있으시면 충분히 잘 해내실 거예요...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같으니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컴퓨터 잘 다루시면 괜찮아요..ㅎ 못 다루셔도 열심히 하시면 금방 배울 수 있어요!!!(진심으로>_<)

3.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졸업...후 진로...? 방송국이나 편집 쪽으로 가시는 선배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기자와 같은 언론인으로 진출하신 선배들도 계시고..ㅎ 김태호PD, 이영돈PD, 유호진PD 모두 고려대 미디어학부(과거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십니다. 분야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힘들겠네요.

4. 미디어학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학점 잘 주세요... 과제 제출, 출석만 한다면 A0는 따놓은 당상..?(과장 살짝 섞어서..ㅎ) 저도 그 2개만 하고 A0 많이 받아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공부량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험 별로 안 어려워요!!!(제가 말하면 신뢰성 있는 겁니다.) 다만 평소 해야할 과제, 프로젝트가 지~~~인짜 많아요ㅠ

5. 미디어학부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명강은 김학순 교수님의 저널리즘글쓰기!!! 수업이 어렵지 않고, 하는 과제에서 보람이 많다는 게 장점!!! 교수님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잘 챙겨주십니다. 실제 기자로 활동하셨기에 말씀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잘 와닿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고 성취감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면 추천드릴게요.

미디어..의 꿀강..은 이명선 교수님의 미디어학입문입니다. 명강이기도 하지만 꿀강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선택한 감이 없지는 않네요. 출석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시고, 수업내용을 정말 잘 풀어서,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시험도 쉬워요!!! 그래서 꿀강><

헬강은...흐음 기억에 없는데...? 굳이 뽑자면 지금 듣고 있는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입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용이.. 어렵습니닥ㅋㅋㅋㅋ 그래서 헬강이에요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미디어 전공 강의 교수님들은 친절하고 학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학부, 학과는 잘 모르겠지만 미디어학부 교수님들

정말 친절하시고 학생 개개인을 잘 챙겨주십니다. 이게 미디어학부 강의 특징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큰 특징입니다. :D

6. 미디어학부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에서 진입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는 달랐던 점 등이 있으신가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습 과제가 많고 팀플도 넘쳐나겠구나...' 정답입니다. 하나 정도 있다면 모든 수업이 팀플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기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었는데 "미디어학부면 팀플만 하겠네?" 이에 대한 대답은 "정답에 근접했지만 아니야."입니다. 팀플이 많긴 하지만 팀플을 꺼려하신다면 팀플 없는 수업으로 구성된 시간표를 짤 수 있을 정도로 팀플이 없는 강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ㅎ 하지만 전공 필수 3개 중 2개는 팀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_<

<개별 질문>

1. 선배님께서 미디어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디어학부 선택한 이유는 제 진로와 관련이 컸기 때문입니다. 전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은 기자라는 꿈에 대해 열망이 있기에 미디어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기자가 되고 싶어서 미디어학부 왔어요. (대충 답변한 건 아닌데 대충한 것 같네...)

2. 미디어학부에 대하여 만족한 점과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족한 건... 시험기간 자유~~~~ 동기들 다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열심히 팀플, 과제하니까 완벽한 자유는 아니지만 공부를 싫어하다 보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학 과목이 고통을 주고 있지만..ㅠ 시험기간의 답답함과 심심함을 참지 못하는 저에겐 장점이에요. 건물

시설이 좋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미디어학부 건물 다들 아시죠? 안암에서 가장 높게 잘 보이는..ㅎ ‘건물이 무슨 장점이지?’라는 생각은 전공진입하고 수업 듣고 공부할 때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전 만족해요! 좋지 않게 느끼는 부분은 대부분의 자유전공학부생들이 느끼는 고민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들어가면... 약간... 소외감? 새로 들어오신 19 미디어학부 학우분들끼리 친하다보니 외로우실 수도...? 경영 혹은 경제와 같이 자전생들이 많은 학과면 덜하겠지만 10명 정도 밖에 안되는 미디어에서는 외로움이 아주 가끔 느껴집니다^^ 사실 그것도 크진 않아서... 이정도 단점 빼곤 없는 거 같네요.

3. 미디어학을 전공하며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앞에서 언급되어 있듯 새로운, 학창 시절에 대부분의 19학번 분들이 접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 강의가 새로우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미디어학부의 프로그램들은 특별히 새롭다고 느꼈어요. 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에 이건 다른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저널리즘글쓰기 같은 경우에 저는 경찰서 3번?, 한강..? 이런 곳 돌아다니면서 과제하다 보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어려운 것 중 하나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실제로 무엇을 배우나요? 피디, 기자, 아나운서 관련된 것만 배우는 건가요? 그리고 아나운서, 피디, 기자 쪽을 선택하는 학우들이 많나요?

앞서 대답한 내용과 통하는 느낌이 있네요. 미디어학부는 ‘미디어’라는 개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질문해주신 아나운서, 기자, 피디도 배워가지만 1인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가는 학부이기에 ‘넓은 학문이구나’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5.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기회도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실습 기회... 굉장합니다. ㅋㅋㅋㅋㅋ 엄청납니다. 제가 하거나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습기자 체험. 김학순 교수님은 “이번 학기 수습기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 가서 인터뷰하고,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 기사/ 사건 기사 등 여러분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사를 다 직접 씁니다. 취재를 떠나기도 하고요. 기말 과제로는 법원에 가 취재기를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기자’로서 실습입니다. 콘텐츠 기획자로서 하는 실습도 있습니다. 창의적미디어기획과표현에서 1학기 동안 저희가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실패해서 처음부터 하기도 했고 자료 수집을 위해 많은 곳에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찾아가기도 하죠. 이러한 활동들이 ‘기획자’가 되기 위한 실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PD나 방송국 관련 실습은 제가 느끼기에 모든 실습 중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수업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기에 영상 촬영과 편집을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고 촬영 장비 및 편집 장소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방송’ 관련 분야를 꿈꾸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실습 분야는...단어로 표현이 어려운데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 계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라고 해서 방송 촬영, 편집 프로그램만 쓰는 건 아니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더라고요... 대부분 무료로 학교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비용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입문은 매 수업 프로그램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디어 학부의 ‘실습’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 대외활동 등에서 전공을 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미디어학부에서 배운 내용이

얼마나 도움되는 것 같으신가요?

전 이번 여름에 '도시영화제'라는 대외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걸 제 얘기는 아니고 저와 같이 나간 18 동기의 말과 경험을 전해드리는 것이기에 직접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저에게 질문이 왔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ㅎ 그 친구가 1학기 때 '영상콘텐츠기초제작실습'에서 배운 스킬(?)들을 영화 촬영 및 편집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희가 모르는 용어, 기술들을 활용하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디어학부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미디어학부에서 배운 내용을 영화제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해 설명하고 영화 컨셉 및 방향을 설명할 때 미디어에서의 경험을 살려 조금 더 잘 이해한 것, 편집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간 점이 제가 느낀 전공을 살린 경우인 것 같네요.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에서 미디어 지식은 꽤나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학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기에 '알게 모르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타인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7. 선배님이 희망하시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전 기자가 되고 싶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다는 거..? 저널리즘글쓰기를 굳이 수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느 회사, 어떤 기자가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죄송해요 ㅎ

8. (선배님 희망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스펙은 인턴 경험이 좋을 것 같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현직 기자, 교수님들

대부분이. 그 인턴은 기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 스펙은 아니지만 상식 시험에 필요한 시사 상식 혹은 사회 이슈에 대해 파악해두는 것 또한 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방송국, 신문사에 취직해서 기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다 보니 그곳에 채용되기 위한 준비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면접 준비, 자소서, 각종 스펙 마련 등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일반 사기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 기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특별한 점이겠죠? 제 기억에 남는 특이한 건 기사 작성 면접입니다. 용어가 적절한 지 모르겠네요. 방송사 혹은 신문사에 방문해 몇 시간 내로 기사를 작성해오는 것이 기사 작성 면접입니다. 해당 지원자가 기자가 된다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지 테스트하는 것이죠. 직접 나가서 취재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9. 미디어학부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유롭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게 충분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도 작년에 고민 많이 했고 이 자료집 보면서 도움 많이 얻었거든요. 19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한 18 및 그 이상 선배들의 글을 읽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해 꿈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이걸 그냥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미디어학부가 되실 19 분들!!! 작년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행복미디어'였습니다. 저 또한 그 말에 어느정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와 관련된 강의,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미디어에서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 재밌게 남은 학교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지나가다 붙잡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고려대학교 스마트보안학부

Korea University
Division of Smart Security

I.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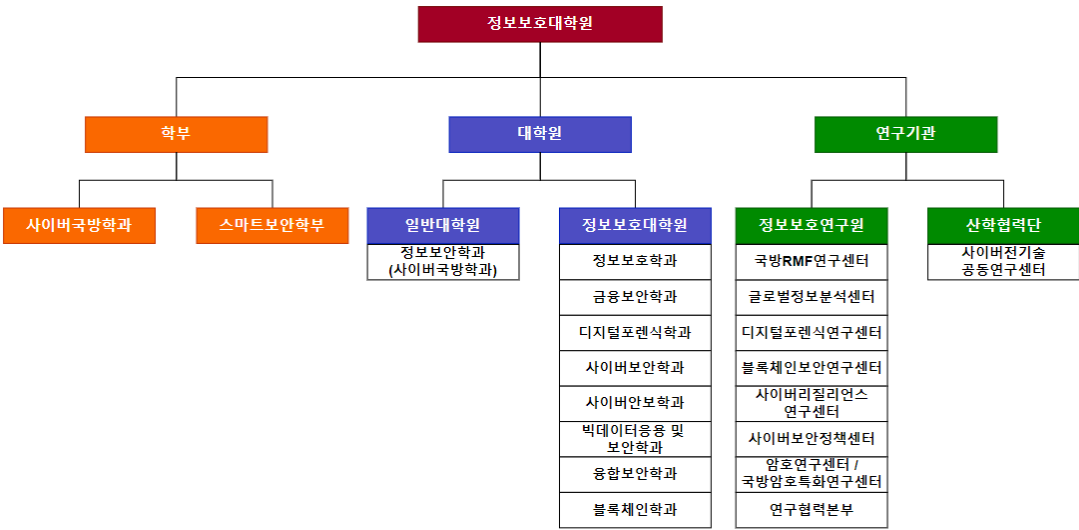
1. 학과 소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산하 스마트보안학부는 2021년에 설립된 학과로서, 보안 및 정보기술 그리고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믿을 수 있는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실무형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스마트보안학부에서는 미국의 NSA 및 IEEE와 ACM등 세계 유수의 학회에서 제시하는 사이버보안 교육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우수한 AI 보안 개발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최적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미래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학제적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학, 컴퓨터, 암호학, 통신 및 공학, 법률과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보안 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I는 급속히 발전하여 인간의 지적 기능을 대행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세계는 AI Security와 Human Security를 동시에 조직하여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Security는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이버 범죄를 대응하고, Human Security는 국가나 대형범죄집단이 주도하는 고도의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을 전문으로 합니다.

기존 사이버국방학과와 비교하여 고급 Human Security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었지만, 같은 정보보호대학원 아래 신설된 스마트보안학부에서는 일상적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AI Security 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말해 사이버국방학과가 사이버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이세돌과 같은 스페셜리스트 양성을 목표로 했다면, 스마트보안학부는 알파고와 같은 차세대 AI를 개발할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 학부입니다.

졸업생들은 한국을 넘어 전세계로 나아가, 보안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학계, 산업계, 법조계, 군과 행정부 및 다양한 기업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시대는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시대를 넘어 인터넷 시대로, 그리고 스마트 시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보안학부에서 스마트사회의 학자의 꿈, 창업의 꿈, 전문 엔지니어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홈페이지)

2. 특이사항

- ✓ 2021년 3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내 신설학과 (구 정보보호학부)
- ✓ 세계의 보안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
- * 아래는 정보보호대학원 전체의 특이사항입니다.
- ✓ 2004년, 2006년 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CIST) 정보통신부 ITRC 최우수센터 선정
- ✓ 2006년 2단계 BK21사업 선정 - Ubiquitous 정보보호사업단
- ✓ 2015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ACM-ICPC) 동메달 입상
- ✓ 2015년, 2018년 세계 최고 해킹 대회 데프콘 (DEFCON CTF) 우승

3. 진로진학

1)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국가 정보원, 청와대, 금융감독원 등

2) SW관련 대기업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IBM, 네이버, 카카오, 삼성 등

3) 유니콘 기업 창업

딥마인드, 코그니, 말루바, 지니, 하베스트AI 등

4) 대학원 진학 및 유학

Ⅱ. 졸업요건

학문의기초 (3학점)	계산논리
선택교양 기초과학 (9학점)	스마트보안개론, 스마트보안수학, C언어및실습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24학점
영강	영강(원어, 외국어강의) 5과목 이수 ※ 전공, 교양구분없음
기타 졸업요구조건	- 공인영어성적 - 졸업논문 작성(캡스톤디자인 I, II 중 하나 선택 시) - 재학기간 중 아래 과정 2개 중 택 1 ① 인턴쉽 I,II,III / ② 캡스톤디자인 I,II,III

Ⅲ.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사이버기술과 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활용으로 4차산업혁명과 이로 인한 초연결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각종 융합기술과 서비스들이 활용되어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존 규제 패러다임과의 충돌, 새로운 규제 필요성 등 법적인 문제와 결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사이버공간과 융합기술들이 가질 수 있는 보안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술적,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해킹과 보안

사이버보안과 해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공격 기법과 대응 방안을 함께 배우며 사이버보안 및 해킹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스마트보안개론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시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 특히 스마트 보안 요소와 사회 발전에 대해 학습합니다. 스마트 보안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의 팀 티칭으로 임종인교수님, 한희교수님, 이원준교수님, 최진영교수님께서 수업하실 예정입니다.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출처: 스마트보안학부 새내기 오티자료)

	2/1	2/2	3/1	3/2	4/1	4/2
소프트웨어및보안기본역량	인공지능보안수학		인공지능보안I			
	암호 알고리즘 및 실습		운영체제보안	데이터보안		
	정형기법	CYDF315 과목				
	보안하드웨어구조		컴퓨터네트워크보안I			
사이버보안역량	암호수학	현대암호학	암호프로토콜	현대암호학응용		하드웨어보안
	디지털포렌식개론					디지털포렌식응용
		역공학		컴퓨터네트워크보안II		
		해킹개론	위험관리	컴퓨터시스템보안	내장형시스템보안	
		사큐어코딩	소프트웨어이론및보안	사큐어소프트웨어공학I	사큐어소프트웨어공학II	
스마트융합보안역량				인공지능보안II	빅데이터응용보안	
					스마트보안응용	
글로벌리더십역량		사이버윤리			사이버기술과법	스타트업창업방법론
					웹스폰디자인1	웹스폰디자인2

IV. 전공생 학우 인터뷰

* 스마트보안학부는 신설된 학과로 자유전공학부 선배가 없어 21학번 재학생 학우를 인터뷰이로 섭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재학생 학우 인터뷰

(1) 21학번 스마트보안학부 김은서 학우

<공통질문>

1. 학우님께서 스마트보안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많은 일이 사이버상에서 진행되고 있으면서 컴퓨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학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안 분야는 요즘 개인정보유출 문제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는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화이트 해커와 같은 정보보안 전문가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적은 상황이기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 역대 연봉도 가능한 직업입니다. 또한, 취업이 아니더라도 창업이나 프리랜서로도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보보안 시장은 아직 블루 오션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 스마트보안학부를 선택하였습니다.

2. 스마트보안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른 전공과 다른 스마트보안학부 전공과목만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스마트보안학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컴퓨터 관련 과목들을 공부합니다. 크게 프로그래밍 언어, 네트워크, 운영체제, 웹이 있습니다. 스마트보안학부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각 분야의 보안 방법을 심화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역공학, 데이터 보안, 암호학, 해킹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안에 치중된 컴퓨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스마트보안학부를 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리한 자질 또는 능력이 있나요?

정보보안 분야는 매번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문제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문제 해결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능이 있다면 적성에 맞을 확률이 큼니다.

또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대우가 좋지만 그만큼 공부해야 할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에 플러스 알파로 해킹과 보안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량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해야 실력이 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해킹의 트렌드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탐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몇 날 몇일을 같이 코딩을 해도 부족하여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코딩은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자신의 코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4.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카카오 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국가 정보원, 청와대 등의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딥마인드, 코그니, 말루바, 지니, 하베스트 AI 등과 같은 첨단 유니콘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에는 다양한 세부 전문가가 있는데, 소위 화이트 해커라고 불리는 모의 해킹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악성 코드 분석가, 보안 관제 전문가, 보안 컨설턴트, 침해 대응 전문가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5. 스마트보안학부는 학점을 잘 주는 편인가요? 공부량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공부량은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생소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학년 1 학기 과제로 어떤 프로그램 전체를 코딩하라고 내줄만큼 난이도는 겨우 따라갈 정도로 꽤 있습니다. 대신 학점은 주어진 것만 잘 하면 잘 주는 편입니다. 스마트보안학부가 신설학과인지라 교수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려고 합니다.

6. 스마트보안학부 전공수업 중 명강과 꿀강,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헬강이 있나요?

올해 신설된 학과라 아직 선택교양 기초과학 과목밖에 전공 관련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1 학년 1 학기에는 김승주 교수님의 C 언어 및 실습과 임종인 교수님, 이원준 교수님, 한희 교수님, 최진영 교수님께서 팀티칭으로 진행하신 스마트보안개론을 들었습니다. C 언어 및 실습 과목은 이론은 교수님께서, 실습은 조교님께서 수업하시는데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수업을 잘 하시고 강의력도 좋은데 조교님에 따라서 실습 난이도가 이론에 비해 어렵습니다. 스마트보안개론 과목은 말 그대로 개론이라서 강의 내용은 쉽게 들어도 되는 것에 비해 교수님들께서도 어떻게든 평가를 해서 성적을 내야하니 배우는 내용에 비해 과제나 시험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7. 스마트보안학부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 중 실제로 수업을 들어본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의외로 좋았던 점이나 기대와 달라 아쉬웠던 점, 또는 만족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코딩을 배운 적이 없는데, 컴퓨터 관련 학과는 워낙 매니아가 많아 이미 컴퓨터를 많이 접해본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학해보니 물론 과고나 영재고를 나와서 코딩을 잘 아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코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동기들도 꽤 있었습니다. 또한, 과제를 열심히 하고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학점을 따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대만큼이나 생각보다 공부량과 과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과이다보니 정보를 얻는 부분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사이버국방학과 선배들도 많은 조언을 주시고, 교수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상담도 하면서 도움을 주십니다.

8. 자유전공학부생이 1 학년때 미리 들으면 좋을 과목, 또는 자신이 스마트보안학부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기초과학 교양이었던 C 언어 및 실습, 스마트보안개론 말고도 하이퍼텍스트와 계산가능성과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들었습니다. 교양 과목으로 컴퓨터 관련 분야나 파이썬과 같은 쉬운 코딩 강의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니 이러한 과목을 수강해보시면서 컴퓨터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판단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선택한 학과와 로스쿨 진학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스마트보안학부와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중 증거 개시 제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허법과 같은 일부 특수한 법에서 제한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보니 디지털 증거 개시 제도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보안학부에서 전공 지식을 쌓으면 디지털 정보를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제나 사이버 상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학하더라도 과 동기들과의 연결이 원활할지 궁금합니다!

신설학과다 보니 현재 학부생이 30 명밖에 되지 않아 적응하는 데 문제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기들이 다들 친화력이 좋고 성격도 좋아서 같이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질문>

1. 스마트보안학부가 올해부터 신설된 학과인데 수업은 체계적으로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설학과이다보니 아직 2, 3, 4 학년 커리큘럼이 확정되어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조금 있습니다. 또한, 배울 것이 많은 학부이다 보니 타학과에서는 4 년에 걸쳐 배울 내용을 압축적으로 배우고 보안관련 심화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배우다보니 수업을 완벽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합니다. 수업 자체에는 체계성이나 완전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지금까지 스마트보안학부 수업을 들으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교수님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실 때는 프로그래밍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 문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수업에서 배운 컴퓨터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에 따라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연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 사이에 괴리가 있어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실습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분야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일상에서는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생소함에 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난이도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법, 새로운 환경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3. 스마트보안학부 전공수업에서 수학을 많이 배우거나 사용하나요?

1 학년때는 교양으로 수학 과목이 있지만 2 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전공과목을 배우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학을 사용하는 일은 적을 것입니다. 다만 프로그래밍할 때 기본적으로 확률

개념이 쓰이기는 합니다. 전공에서 새롭게 배우는 수학은 없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4. 선배들과의 연결이 원활한지, 수업 등 여러 정보들은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보안학부가 신설학과라 선배가 없습니다. 대신 같은 단과대학 소속인 사이버국방학과와 교류가 많아 사이버국방학과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아직은 과학생회가 없고 단과대학 학생회만 있는데 학생회에서도 강의 평가가 정리된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수업 편의를 위한 도움을 줍니다. 동아리도 사이버국방학과와 같이 하는데 동아리에서도 선배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5. 스마트보안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이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범위는 좁지만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보안은 컴퓨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보안을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 배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안을 더 심화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안 분야는 컴퓨터 관련 분야 중에서 가장 난이도 있고 배울 것이 많은 분야입니다.

6. 학우님이 희망하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이 더 보안 시장이 크기 때문에 졸업 후 유학을 가거나 외국 기업에 취직하여 보안 실무 경험을 쌓고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면 다시 국내로 들어와 보안 컨설턴트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7. (학우님 희망 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과 준비가 필요하나요? 준비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일단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삼성에서 개최하는 SCPC 를 비롯한 여러 코딩대회에도 참가하고, CTF 와 같은 해킹대회에도 참가하고, 또 42 서울이나 BOB 같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외부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앱을 개발하거나 웹사이트를 만드는 등의 산출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8. 자유전공학부에서 스마트보안학부를 희망하는 학우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컴퓨터의 기본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 언어를 비롯하여 파이썬, 자바와 같은 언어를 미리 배워오면 이후 전공 수업을 따라가기 좀 더 편할 것입니다. 보안이라는 과목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만큼 매력이 많은 과목이고, 또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직업 이름 자체에서 오는 멋있음도 있기 때문에 오시면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Korea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1. 융합에너지공학과

I. 개괄

1. 학과 소개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차별화된 융복합 해법을 제시하는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2020년 설립되어 2021년 3월에 첫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학제를 넘나드는 융합 교육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융합형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융합에너지공학과에서는 에너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Problem-based-learning (PBL)의 교육 이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융합에너지공학이란 에너지기술(ET)을 NT(나노기술)-IT(정보기술)과 융합하여 광전기 에너지공학(저전력 미래정보소자/광촉매/광검출/광센서/태양에너지/배터리)을 개척하고, NT-BT(바이오기술)과 융합하여 바이오 에너지공학(바이오연료/인공광합성/바이오닉스)을 혁신할 수 있는 공학입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인류의 삶은 더욱 초연결화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택시,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 등 각종 미래 기술은 우리에게 보다 편리한 삶을 제공해 주지만,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 기술의 에너지원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보다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융합에너지공학과에서는 다른 공학분야와 같이 일반물리/화학/생물학 그리고 미적분학/공업수학 등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 과목들을 배운 뒤, 에너지를 다루는 데 필수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단한 기초 위에 NT-IT-BT 기반의 다양한 에너지공학 관련 전공들을 배웁니다. 전공과목은 최신 저전력 전자소자/친환경 나노재료, 광-열 에너지 수확/제어/전환, 바이오 소재 기반 다양한 에너지 재료/소자뿐 아니라 에너지환경정책을 포함하는 융합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윤택한 인류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인간의 복지는 최대화하는 에너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을 위한 미래 에너지의 모든 것을 융합에너지공학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Elon Musk가 꿈꾸는 미래 인류-도시 삶을 실제 디자인하고 구현하고 싶은 학생, 기계-신소재-전자-화공-물리-생물-화학-데이터기술을 융합하여 미래 에너지솔루션을 개척하고 싶은 학생, 인류의 지속가능한 공존 과제를 에너지 공학과 정책으로 해결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 학생 모두 환영입니다!

2. 특이 사항

- ✓ 2020년 설립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내 첨단학과
- ✓ 국내 융합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KU-KIST융합대학원과 에너지 환경 대학원이 모체
- * 아래는 공과대학 전체의 특이사항입니다.
- ✓ 1992년 세계 최초의 무인 자동차 제작
- ✓ 2012년 QS 세계 대학 평가 공과대학 전 분야 세계 100위권 내 진입
- ✓ 2013년 BK21 PLUS 사업 공과대학 전 분야 석권

- ✓ 국내 최초 리서치 파크 유치
- ✓ 세계 최초 로봇 VS 인간 컬링 경기
- ✓ KU Maker's Space 개관
- ✓ 2018 QS 세계 대학 평가 기술/공학 분야 48위

3. 진로진학

1) 학계·연구소

대학 교수, 전자/에너지 관련 국내 유수의 정부출연연구소, 에너지 관련 공공투자기관, 국책기관연구원 등

2) 산업계

학과의 융합 학문적 특성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자공학/화학공학/재료공학/기계공학 전반과 관련된 대기업 진출

3) 해외

Neuralink, Tesla Motors, Alta Devices와 같은 세계 혁신 기업 및 우수 연구소/대학 진출

4. 학과 프로그램

1) 첨단 실험실습 시설과 KU-KIST융합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의 뛰어난 인프라

본 학과의 교과과정은 K2공동기기센터 및 청정실을 활용하여 융합에너지공학만의 실험/실습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됩니다. 더불어 최고의 국립연구소인 KIST의 인프라 활용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빛포획분자 안테나, 뉴로모픽소자, 수분해 수소생산 나노소재, 전기 배터리, 복사냉각페인트, 태양전지, 생분해 플라스틱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2) 초연결 캠퍼스 교육 지향

(i) 자연계캠퍼스 공대컴플렉스 (ii) 녹지캠퍼스 KU R&D센터 (iii) 인문사회캠퍼스 SK미래관 / π -Ville/XGarage로 이어지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며 이론/실험/실습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효율적 All Campus 교육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 학부생에게 태블릿을 배부하여 3개 캠퍼스를 오가며 이루어질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3) 적극적인 대회 참가지원

Harvard 대학에서 주최하는 생체분자디자인경진대회(BIOMOD.net) 참가에 필요한 연구 경비, 장학금, 해외 출장경비 등을 전액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바이오 에너지소재 혁신 연구를 통해 Harvard, Caltech, MIT, UCSF와 같은 세계 유수 대학의 교수님들 앞에서 연구 발표회를 갖고 전세계 학부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프로그램 언어 & 딥 러닝 집중 트레이닝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언어 및 딥러닝 집중 트레이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공학인으로 필수적인 computation 능력을 함양하고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5) KIST의 학점인정형 인턴과정 참여

실험실습 중 일부를 '융합에너지공학과 KIST 인턴 과정'으로 하여 방학 중 2개월 3학점, 학기 중 4개월 3학점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인턴 월 100만원 연수장려금 및 공과대학 장학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II. 졸업요건

학문의기초 (8학점)	에너지공학 실험실습기초 I, II, 에너지기술사, 진로탐구	
선택교양 (22학점)	기초과학 (16학점)	일반물리학및연습 I, II, 일반물리학실험 I, II 일반화학및연습 I, II, 일반화학실험 I, II
	일반선택	6학점
전공필수 (27학점)	융합에너지공학 실험실습 I, II, 지속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미적분학, 에너지 열역학, 에너지과학기술입문, 에너지화학, 생명공학, 학부연구생 프로그램 I, 에너지 전기화학, 졸업연구생 프로그램 I	
전공선택	15학점	
영강	영어(원어, 외국어) 5과목 이상 이수	
기타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 취득	

III. 전공 교과목

1. 교과목 소개

인간을 닮은 뉴로모픽 전자소자

인간 신경구조를 모사한 초저전력 전자소자를 최신 나노소재로 구현하는 원리, 세상의 IT 기술 혁신 및 미래 인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 전망을 배웁니다.

수소생산기술

최신 나노반도체 및 플라즈몬 나노촉매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친환경 수소생산 및 활용기술에 대해 배웁니다.

파동에너지와 나노광학

태양빛 및 열과 같은 파동에너지들을 잘 수확하고 전기에너지 등으로 변환시키는 나노광학과 이로부터 혁신될 에너지 소자/소재에 대해서 배웁니다.

바이오닉스

사람과 기계의 연결을 통해 미래기술은 더욱 흥미진진하게 발전될 것입니다. 인체의 여러 부분과 연결되어 생체신호를 수집하고 환경의 정보를 뇌에 전달해 주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의 기술에 대해 배웁니다.

친환경 바이오·전자소재

미세플라스틱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및 초분자 소재 그리고 유해물질 배출 없이 원할 때 소멸되는 전자소재/소자에 대해 배웁니다.

전기화학과 배터리

화석연료 기반 산업 및 이동수단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차의 기본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원리인 전기화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인공광합성

식물잎의 광합성을 모사한 이산화탄소 포획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광에너지/양분을 생산하는 인공광합성, 자연 식물들을 이용한 연료생산과 같은 바이오 디젤 분야에 대해 배웁니다.

에너지환경정책

에너지-환경의 상호연계, 에너지환경 정책원리와 접근법,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분석, 에너지데이터분석, 에너지 시스템의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 에너지정치경제 등을 배웁니다.

2. 학년별 추천 수강 과목

1학년	공학용 프로그램 언어 기초, 에너지공학입문, 에너지-환경-사회 입문
2학년	융합기술과 에너지, 열에너지공학, 나노바이오기술, 나노재료과학, 융합에너지실험실습, 데이터과학, 에너지변환재료
3학년	저전력IT기술, 바이오닉스, 광에너지기술, 바이오에너지공학, 배터리 촉매공학, 에너지환경데이터분석
4학년	뉴로모픽공학, 반도체에너지공학, 전기에너지소재, 태양에너지솔루션, 생체모사바이오소재, 열전환/관리나노소재, 에너지환경정책, 에너지경제학

2021 자유전공학부 전공자료집